

충남미술 연구총서 4

충남미술사 보유판



충청남도



충남문화관광재단
Chungnam Culture and Tourism Foundation

일러두기

1. 본문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한자나 영문 등 원어는 필요한 경우 괄호 속에 병기하였다.
2. 도판의 캡션은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재질, 크기(세로×가로cm), 소장처(또는 출처) 순이다.
3. 작품명은 〈 〉, 전시명이나 화첩·연작록은 《 》, 단행본과 문집·신문·잡지·전집류는 『 』, 신문기사명과 논문명은 「 』, 원문 인용은 “ ”, 강조는 ‘ ’로 표기하였다.
4. 작가 연보나 전시목록에 들어있는 전시회 표기에서 전시명 옆에 전시가 열린 지역명과 기관을 괄호 속에 넣어 표기했다. 다만 대전시립미술관, 대전문화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과 같이 장소가 기관명에 들어 있는 경우는 지역명을 넣지 않았다.
5. 본문의 지명과 학교명은 해당 시기 지명(학교명)을 그대로 쓰고, 현재 지명은 괄호 속에 표기하였다.
6. I장 충남미술가 및 미술이론가의 수록 순서는 출생연도-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으며, 충남미술가의 선정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본문에 붉은 색의 굵은 서체로 표기하였다.
7. II장 충남미술 전시공간 목록은 장소의 소재 지역을 가나다순으로 정렬한 후, 시군별 전시공간명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해제문은 관련 자료를 확보한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시군별 가나다순으로 작성하였다.
8. III장 충남미술단체 선정은 1) 창립 목적, 2) 각 분야별, 지역별 초기 단체, 3) 활동의 지속성, 4) 지역 미술문화 발전의 기여 정도, 5) 미술가 양성, 6) 현존 기록 자료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미술단체 해제문은 창립연도를 기준으로 시대순으로 배열하였다.
9. IV장 충남미술 연표의 작성 기준 및 방식은 연표-일러두기에 별도로 작성했다.
10. 이 책에 수록된 원고의 저작권은 충청남도과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있으며, 사진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개별 자료에 표기한 소장처 및 출처로 귀속된다.
11. 이 책에 게재된 사진은 무단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진 자료 이용에 대해서는 소장처 및 이미지 저작권자에 문의해야 한다.
12. 이 책은 전자책자로도 발간되었으며, 전자책자는 충남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책을 펴내며

2021년부터 시작된 『충남미술사 발간 및 조사연구 사업』을 올해 마무리 짓는다. 지난 4년간 진행된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충남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잇고, 앞으로 한국미술사의 범주에서 충남미술을 새롭게 조망하는 것이다.

『충남미술 연구총서』는 ‘충남미술가편람 I (1870~1949년생)’, ‘충남미술가편람 II (1950~1959년생)’, ‘충남미술문화사(1900~1999)’로 발간하였다. 2021년, 2022년 두 해에 걸쳐 발간된 1권과 2권은 충남의 미술가를 연구한 것이고, 2023년에 발간된 3권은 충남의 전시공간, 미술단체, 교육기관 등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 3년간 진행된 충남미술 조사·연구를 보완하고자 미발굴된 작가, 전시공간, 미술단체 등을 조사하고 충남미술 연표를 작성하여 『충남미술 연구총서4: 충남미술사 보유판』을 발간한다.

2027년 충남미술관의 개관을 앞두고 충남미술사의 맥을 정립하고 정체성을 찾고자 시작된 본 사업은 지역미술사 연구의 선도적인 역할과 한국미술사의 범주에서 충남미술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미술 연구총서』는 충남미술관 개관 이후 수집, 전시, 교육 등 미술관의 핵심적인 부분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충남미술의 가치 탐구를 실현할 것이다.

지난 4년간 충남미술사 연구는 많은 분들의 애정과 관심 덕분에 부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앞으로 한국미술사와 지역미술사 연구의 초석이 되어 충남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부설 근현대미술연구소(신수경, 정경숙, 김미정, 이안나 님)와 충남미술사편찬자문위원회(기혜정, 김종길, 변영환, 송미정, 이진자, 임재광, 최경현 위원님)의 노력과 큰 도움이 있었다. 충남미술의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충남 미술작가, 대전시립미술관과 천안시립미술관, 당진문화재단, 아르코예술기록원,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센터 등 공·사립미술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2027년 개관을 앞둔 충남미술관과 충남미술연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

충청남도 · 충남문화관광재단

발간 개요

이 책은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주관,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부설 근현대미술연구소가 수행한 ‘충남미술사 발간 및 조사연구(4단계)’ 사업(2024. 5. 2.~11. 30.)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다. ‘충남미술사 발간 및 조사연구’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연차·단계별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물로 2021년과 2022년 『충남미술 연구총서: 충남미술가편람 I·II』를 발간한데 이어 2023년 『충남미술 연구총서3: 충남미술문화사(1900~1999)』를 발간하였다.

『충남미술 연구총서1: 충남미술가편람 I』은 1870년부터 1949년까지 출생한 미술가 190명, 『충남미술 연구총서2: 충남미술가편람 II』는 1950년대 출생한 181명의 충남을 연고로 활동한 미술가들의 생애와 작품세계 전반의 특징을 기술한 일종의 미술인명사전이다. 이에 비해 『충남미술 연구총서3: 충남미술문화사(1900~1999)』는 1900년부터 1999년까지 충남에서 발생한 전시와 전시공간, 미술단체, 미술교육에 대한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해제문을 작성한 ‘기초자료편’과 충남미술의 시대별 전개 양상과 각 주제별(전시와 전시공간, 미술단체, 미술교육) 연구논문 6편을 실은 ‘논고편’, 그동안 조사한 자료들을 항목별로 목록을 수록한 ‘부록’으로 구성하여 지난 20세기 충남미술문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충남미술사 발간 및 조사연구’ 사업의 마지막 결과물인 『충남미술 연구총서4: 충남미술사보유편』에는 그동안 발간한 『충남미술 연구총서』(1~3)에서 미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빠진 충남미술가와 미술단체, 전시공간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조사·수집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책의 구성은 I장 충남미술가 및 미술이론가, II장 충남미술 전시공간, III장 충남미술단체, IV장 충남미술 연표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그동안 발간한 『충남미술 연구총서』(1~3)에서 누락된 충남미술가 명단 및 전시공간, 미술단체 목록을 연구팀이 작성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찬자문위원과 충청남도 미술관개관준비단, 충남문화관광재단이 모여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충남미술 연구총서』(1~3)를 준용하였음을 밝혀둔다.

I 장에는 '충남미술가' 61명과 '미술이론가' 6명에 대한 개요와 연보를 수록하였다. 그동안 충남을 연고로 활동한 미술이론가도 수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충남미술가 편람'에 미술이론가를 함께 묶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류했다가 이번 '충남미술사 보유편'에 실었다. 충남미술가 및 미술이론가의 수록 순서는 충남미술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출생연도순이며, 같은 연도에 태어났을 경우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다.

II 장의 '충남미술 전시공간'은 『충남미술 연구총서3』에서 작성한 전시공간 목록 245곳(해제문 작성 100곳) 외에 추가로 확보한 전시장소 28곳의 목록과 14곳의 해제문을 작성하였다. 그동안 충남의 전시공간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당시 전시장소를 이용했던 작가분들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최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 연구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노력했으나 지금은 사라진 공간을 짧은 시간에 찾아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료를 제공해준 여러 기관과 인터뷰에 응해주신 작가분들, 기관 관계자분들 덕분에 자료를 모아 지난해 100곳의 해제문을 작성한 데 이어 올해 14곳의 전시공간을 추가할 수 있었다. 올해는 특히 당진문화재단과 천안시립미술관의 도움으로 당진과 천안, 온양 지역의 전시공간에 대한 자료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었다. 전시공간 해제문 수록 순서는 소재 지역(시군)을 가나다순으로 정렬한 후, 전시공간명의 가나다순으로 작성하였다.

III 장의 '충남미술단체'는 『충남미술 연구총서3』에서 224개의 미술단체를 확인하여 89개의 단체에 대한 해제문을 작성하였으며, 올해 17개의 미술단체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수록하였다. 미술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전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전시도 열리고 상대적으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전에서 창립된 미술단체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남 각 지역에서 결성된 미술단체들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였다. 올해는 특히 천안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천안미술 1951-1989: 기록과 기억으로 말하다》를 통해 천안지역에서 결성된 많은 미술단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밖에 여러 미술단체들을 추기하였는데, 미술단체 해제문은 창립연도를 기준으로 시대순으로 배열하였다.

IV장에는 4차년에 걸친 결과물을 토대로 근현대기 충남미술의 흐름을 연도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충남미술 연표’를 수록하였다. 연표 내용은 『충남미술연구총서』(1~4)에서 충남에서 개최된 전시, 결성된 단체, 작가 활동, 기관 및 미술대학 설립 등을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충남미술 연구총서4: 충남미술사 보유판』에서는 자료수집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아 누락되었던 지역의 작가와 전시공간, 미술단체 등을 보완함으로써 충남미술의 전체 현황을 균형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충남미술사 보유판’까지 총 4권으로 이루어진 이 『충남미술 연구총서』는 아직 제대로 정리된 바 없는 충남미술사의 다양한 면모와 미학적 특징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집이자 연구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정해진 시간에 방대한 자료를 다 녹여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간된 『충남미술 연구총서』에 실린 기초자료와 해제문,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논고는 향후 충남미술 연구에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다. 『충남미술 연구총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책에 수록하지 못한 내용은 2027년 개관할 충남미술관에서 계속 보완하여 더 촘촘하게 충남미술사를 써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목 차

일러두기	2		
책을 펴내며	3		
발간 개요	5		
 I. 충남미술가 및 미술이론가	 11		
신맹선(辛孟善, 1904~1983)	13	홍명섭(洪明燮, 1947~)	87
김무삼(金武森, 1907~?)	15	김재선(金在善, 1948~)	91
현광국(玄光國, 1923~2007)	17	서정원(徐鼎源, 1948~)	94
안종호(安鍾祐, 1926~1986)	20	강찬모(姜讚模, 1949~)	97
박창돈(朴昌敦, 1928~2022)	21	김관진(金寬鎭, 1949~)	100
성천경(成贊慶, 1930~2013)	24	김대순(金大舜, 1949~)	103
권경승(權景昇, 1931~2010)	27	박내후(朴來厚, 1949~2009)	106
이재창(李在昌, 1932~)	29	강우석(姜佑錫, 1951~)	108
채규선(蔡奎鮮, 1934~)	31	구본창(具本昶, 1951~)	110
이지휘(李志輝, 1935~)	32	이경숙(李京淑, 1951~)	112
오해균(吳海均, 1936~)	35	김영규(金永圭, 1953~)	114
안상규(安象圭, 1937~)	37	이강희(李康熙, 1954~)	116
강환춘(姜煥春, 1939~)	39	김근중(金謹中, 1955~)	118
신문수(申文壽, 1939~2021)	41	김석환(金錫煥, 1956~)	121
이현춘(李炫椿, 1939~2001)	44	박종화(朴鍾華, 1956~)	124
이동식(李東植, 1941~)	46	이종섭(李鍾燮, 1956~)	126
김정수(金定洙, 1942~)	49	한주섭(韓柱燮, 1956~)	128
이만우(李晩雨, 1942~)	51	강인옥(姜仁玉, 1957~)	130
김수길(金秀吉, 1943~)	53	송인목(宋寅旭, 1957~)	133
김용민(金容民, 1943~2021)	56	윤태중(尹台重, 1957~)	135
심음섭(沈應燮, 1943~)	59	최원락(崔元洛, 1957~)	137
민복기(閔復基, 1944~)	61	김문숙(金允淑, 1958~)	139
신두영(申斗榮, 1944~)	63	김진국(金振國, 1958~)	141
강관목(姜寬旭, 1945~)	65	이강일(李康一, 1958~)	143
강관옥(姜寬玉, 1946~1988)	68	최평곤(崔平坤, 1958~)	146
박봉춘(朴鳳春, 1946~)	71	김정호(金正浩, 1959~)	149
홍덕선(洪德善, 1946~2024)	74	이문경(李殷慶, 1959~)	151
민종식(閔鍾植, 1947~)	76	장애경(張愛京, 1959~)	153
박인희(朴仁熙, 1947~)	78	장철석(張喆錫, 1959~)	155
박춘화(朴春華, 1947~)	81	현남주(玄男周, 1959~)	158
임영우(任英宇, 1947~)	84		

미술이론가	161		
최완수(崔完秀, 1942~)	162	이은기(李銀基, 1951~)	170
유홍준(俞弘濬, 1949~)	164	김이순(金伊順, 1957~)	173
윤범모(尹凡牟, 1951~)	167	박일호(朴一浩, 1959~)	176
 II. 충남미술 전시공간	 179		
전시공간 목록	180		
당진 감리교회	181	온양 신용협동조합 3층	188
당진 갤러리 전람회의 그림	182	온양 연지다방	189
당진 농업협동조합	183	천안 백궁다방	190
당진 신평면사무소 회의실	184	천안 연실다방(돌다방)	191
당진 천주교 신희 지하1층	185	천안경찰서 무도장(武道場)	192
당진 축산농업협동조합	186	천안 한일다방	193
온양(현 아산) 고려당 지하다방	187	천안 행지회 회관(行址會館)	194
 III. 충남미술단체	 195		
미술단체 목록	196	신세대(1989~?)	207
하엽회(河葉會, 1964~1966)	197	천안여류화가회(天安女流畫家會, 1989~)	208
청묵회(淸墨會, 1973~)	198	천안한국화회(天安韓國畫會, 1989~?)	209
충남대학교 회화동인회(1973~)	200	창이전(創裂展, 1991~?)	210
예우회(藝友會, 1974~)	201	한원회(한원 조각회, 1991~?)	211
북우회(北友會, 1979~)	202	충남산업디자인협회(1992~)	212
존재회(存在會, 1985~?)	203	대전가톨릭미술가회(1995~)	214
일신회(日新會, 1986~?)	204	시형회(視形會, 1998~)	215
PURE(1987~?)	205	한국전업미술가 대전·충남협회(1998~)	216
 IV. 충남미술 연표	 219		
충남미술 연표 일러두기	220		
 참고문헌	 304		
찾아보기	307		
충남미술가 및 미술이론가(가나다순)	313		

I

충남미술가 및 미술이론가

신맹선(辛孟善, 1904~1983)

호는 창산(蒼山), 묵매軒주인(墨梅軒主人), 부소산인(扶蘇山人). 1904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출생한 신맹선은 석하 김우범(石下 金愚範, 1890년 이전~1930년대)에게 그림을 배웠다. 1924년 해강(海岡) 김규진이 운영하던 경성서화학원 동양화과에 입학해 이도영과 고희동에게 사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신맹선은 묵매화에 뛰어난 서화가로 칭송을 받았으나 직업화가가 아닌 여기화가여서인지 전하는 작품이 드물다.²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이 부여문화원에 기증한 유물 중 신맹선이 1963년에 그린 〈백강매화〉가 포함되어 있다. 〈백강매화〉는 전형적인 문인화풍 묵매도로, “계묘년 봄에 창산초부가 백강 강변에서 그리고 읊다”라는 화제가 들어있다.³ 서화가로서는 이례적으로 부여의 관광지를 안내하는 지도 〈부여관광안내도〉와 〈부여고적명승안내도〉를 제작하였다.⁴

신맹선은 서울에서 귀향 후 문인화가로서보다는 문화계 인사로 고향 부여의 발전을 위해 평생 힘썼다. 1948년 부여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의 유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여번영회를 조직하였다.⁵ 1955년 백제의 충신 3인(성충, 홍수, 계백)을 추모하는 삼충사를 부소산에 새로 짓고 일반 관광객의 참배를 권장하려는 의도로 ‘백제대제(현 백제문화제)’의 개최를 주도했다.⁶ 1958년에는 부여 최초 미술동인회인 ‘부여미술동호회’를 조직해 초대회장으로서 부여 문



신맹선, 〈백강매화(白江梅花)〉, 1963, 종이에 수묵, 29.8×101cm, 부여문화원 제공

1 『부여사람 혹은 백제의 향기』(부여문화원, 2023).

2 「함덕 고장 문화의 현장을 찾아 부여」, 『경향신문』(1983. 6. 25).

3 『부여사람 혹은 백제의 향기』(부여문화원, 2023).

4 『문화재관의 신부여발전』(스펙트럼북스, 2010).

5 「부여번영회조직」, 『경향신문』(1949. 6. 6).

6 1955년 4월 신맹선을 포함한 6인(이석태·노재호·김규태·이석우·홍경식)이 삼충사를 지어 백제대제를 지낼 것을 발의하였다. 부소산성에 서 역대제왕 추모위령재를 시작으로 백마강변에서 삼천궁녀 위령제(수륙제)를 거행했다. 1957년 삼충사를 지어 계백, 홍수, 성충에 대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는 후에 3대 역사문화축제로 평가되는 백제문화제로 발전했다. 「백마강에서 백제문화제가 시작되다, 신맹선」, 『e금강뉴스』(2023. 4. 24).

화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적극적인 문화계 활동과 더불어 1960년 부여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시국대책위원회에 이사로 참여하였다.⁷ 부여에 머물며 후학 양성에 애쓴 신명선은 2015년 제61회 백제문화제 폐막식에서 부여 100년을 빛낸 인물로 선정되었다.

연보

- 1904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
- 1948년 부여번영회 조직
- 1955년 백제대제 개최 발기
- 1957년 《제1회 백제대제》집행위원회 총기획 담당
- 1958년 부여미술동호회 조직 및 창립 회장 역임
- 1962년 《제8회 백제문화제》집행위원장 역임
- 1983년 작고

7 「부여시국대위조직」, 『조선일보』(1960. 5. 3).

김무삼(金武森, 1907~?)

김무삼은 1907년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에서 출생했다. 본명은 김동준(金東駿)이며, 호는 자연(之然), 자연학인(之然學人), 완벽(阮碧) 등을 썼다.¹ 일본 니혼대학(日本大學) 경제학과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경제과에서 고학했고, 20대 초반 월간 잡지 『중성(衆聲)』을 간행하는 중성사의 영업국장으로 일했다.²

1927년(21세)부터 신간회 경성지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다가 1929년 10월에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일본의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그해 12월 신간회에서 주도한 '민중대회 개최 준비 사건'과 관련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한 후, 1932년 1월 22일 출소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나온 후 조선일보사 서무부장으로 일하며 1933년(27세) 새해에 예서로 쓴 시필(試筆)을 『조선일보』에 실었다. 그리고 그해에 개최된 《제12회 조선서화협회 전람회》에 예서와 행서로 쓴 서예 작품 2점을 출품했다. 1941년에는 종로 중앙청년회관에서 서예 개인전인 《전서전》을 열었다.³ 이 부립 '중앙기독교청년회(서울 YMCA)'에 '서도연구부'가 창설되자 회장을 맡아 서예사 연구와 서예 강습을 진행했다. 1941년 12월 월간 잡지 『조광(朝光)』에 「완당(阮堂)의 서도에 관한 약간의 고찰」이라는 글을 발표했고, 1942년 4월에는 화신갤러리에서 개최된 《수묵전》에 구본웅·이승만·윤희순 등과 참여했다.

1945년 해방 후 김무삼은 서울신문사 상무와 주필 겸 편집국장, 합동통신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1946년 3월 조선문필가협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1946년 5월 손재형·이용노·김용준 등과 '조선서화동연회'를 창립해 전통 서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했다.⁴ 1948년 새해에는 『한성일보』에 "홀연자립(屹然自立)"이라고 홀려 쓴 시필을 실었다. 시필의 내용은 '높게 우뚝 솟아나서 스스로 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새해 첫날을 맞으며 꺾고 빠른 필획으로 자립의 의지를



김무삼, 〈홀연자립(屹然自立)〉, 1947년경(출처: 『한성일보』, 1948. 1. 1)

1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조선일보 사람들-일제시대』(래덤하우스중앙, 2005), p. 199.

2 김미정, 『김무삼과 이능중을 통해 본 북한의 조선시대 회화사 인식』, 『인문과학연구논총』 78(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4).

3 『消息』, 『매일신보』(1941. 4. 15).

4 『文化消息-書畫同朋會創立』, 『한성일보』(1948. 5. 6).

드러낸 글이다. 이처럼 김부삼은 해방 후에도 언론계, 정치계에서 활동하면서 꾸준히 서예 작품을 창작하다가, 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 참여를 위해 홍명희 일행과 함께 월북했다.

월북 초기에는 서예와 금석학 분야 연구를 이어갔으며, 민주조선사 기자로 활약하며 1956년 정선 탄생 28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검제 회화 전람회》에 관한 정보를 『민주조선』에 소개했다. 1957년부터는 과학원의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에서 발간한 기관지인 『문화유산』의 편집위원을 역임했고, 과학원 소속 연구사로서 문화유산 관련 논고 집필과 여러 학술대회에 참여했다. 1958년에는 조선미술가동맹 기관지인 『조선미술』에 조선시대 화가를 소개하는 글을 5차례 연재했다. 그러다가 1950년대 말 국립중앙민속박물관(현 조선민속박물관)으로 소속을 옮겼고, 1960년대 이후에는 학술적인 논고보다는 조선시대 의복과 목판화를 비롯해 쥐불놀이 같은 민속놀이 에 관한 글을 대중 교양지에 발표했다.

일제강점기 신간회에서 활동하다가 옥고를 치른 김부삼은 월북하기 전에는 언론인이자 정치가이면서 서예가로 활약했다. 월북 이후에도 서예사와 금석학 관련 연구를 이어간 김부삼은 북한 정권 수립 초기에 민족 문화유산의 우수한 특성과 조선시대 회화에 관한 정보들을 미술가들과 대중에게 알리고자 힘쓴 미술 이론가이다.

연보

- 1907년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 출생
- 1927년 신간회 경성지회 선전부 활동
- 1929년 중성사(衆聖社) 근무, 민중대회 개최 준비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
- 1932년 출옥 후 조선일보사 서무부장으로 근무
- 1933년 《제12회 조선서화협회 전람회》에 참여
- 1934년 경성건물주식회사 근무
- 1941년 개인전 《전서전》(종로중앙청년회관) 개최
- 1942년 개인전 《수묵전》(서울, 화신갤러리) 개최
- 1946년 조선서화동연회 결성에 참여
- 1948년 남북연석회의 참여 차 월북
- 1955년 『력사과학』(1955. 8호, 평양: 과학원출판사)에 논문 「사상과 인물: 추사 김정희의 학문에 대하여」 게재
- 1956년 『민주조선』 기자로 활동
- 1957년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발행 기관지 『문화유산』 편집위원
- 1959년 국립중앙민속박물관(현 조선민속박물관) 근무

현광국(玄光國, 1923~2007)

호는 현백(玄白). 1923년 평안북도 영변에서 현언동과 한올라의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현언동(1894~1938)은 공주 영명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으나 1919년 공주 3·1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5개월간 구속된 뒤 교사직을 박탈당했다.¹ 그러나 다시 배재학당에서 1년간 교사로 재직하다 일본의 감시로 여의치 않자 평안북도 영변으로 이주하여 숭덕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현광국을 낳았다. 1936년 14살 되던 해 가족과 함께 공주로 돌아온 현광국은 작고할 때까지 공주에서 살았다.

1938년 현광국은 공주중학교에 입학해 화가의 꿈을 키웠다.² 졸업 후 도쿄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畫學校) 서양화과에 진학해 1944년, 3학년을 마치자 일본군의 징용 영장이 나와 졸업을 못한 채 만주로 피신했다. 해방 후 공주로 돌아와 공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직에 있던 백봉현(1923~2019)과 1946년 공주제일교회에서 결혼하였다.

결혼 후 현광국은 아버지가 몸담았던 영명학교가 1941년 폐교되었다가 1949년 여름 영명학교 복교추진위원회가 결성되자 서기를 맡았다. 같은 해 영명학교 출신의 조병옥 박사와, 박종만 차관 등의 노력에 의해 영명상업중학교로 복교되면서 교사로 부임했다. 1951년 영명상업중학교가 영명고등학교와 영명중학교로 분리되면서 현광국은 영명중학교로 배정되어 미술과 영어를 가르쳤다. 1963년 교감으로 승진한 현광국은 1989년까지 영명중학교에 재직하면서 미술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였다. 현광국의 이러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미술부 활동이 활발해졌고, 미술교육도 정착되었다. 매년 2월과 9월이면 정기적으로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을 모아 미술 전시회를 열어 시민과 학생들에게 선보이는 등 미술의 저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현광국, 〈하고개 풍경〉, 1995, 캔버스에 유채, 60.6×72.7cm(출처: 『공주의 인물9-공주의 미술인편』, 공주문화원, 2022)

¹ 현광국의 아버지 현언동은 영명학교에 다니던 중 윌리엄스 선교사에게 장학금을 받아 수원농림학교(서울대 농대 전신)에 진학했다. 졸업 후 모교인 영명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1919년 영명학교 가족사에 모여 동사관으로 선언서 1,000장을 인쇄하고 태극기를 만드는 등 공주 3.1만세 운동을 주도했다.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약 5개월 간 구속되었고 교사직을 박탈당했다. 장길수, 『향토미술의 선구자, 현백 현광국 교육자 화백』, 『공주의 인물9-공주의 미술인편』(공주문화원, 2022), p. 215. 현광국 작가의 개요는 위의 글을 참고했다.

² 공주중학교는 당시 충남에서 초선인을 위한 유일한 공립 인문계 중등학교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현광국이 입학(17회)할 때는 입학생이 111명이었으나 졸업생은 69명에 불과했다. 이중 상급학교 진학자는 대학 1명, 관공립전문학교 8명, 관립사범학교 4명, 사립전문학교 4명, 기타 1명 총 18명에 불과했다. 장길수, 위의 글, p. 216.



현광국, 〈장미〉, 캔버스에 유채, 90.9×72.7cm(출처: 『공주의 인물9-공주의 미술인전』, 공주문화원, 2022)

한편 현광국은 1952년 전쟁 중 불타버린 공주제일 감리교회에서 분리한 공주제2교회(현 공주중앙감리교회)의 창립자 중 한명으로, 1963년 41세에 장로로 피택되었다. 현광국은 공주형무소(현 공주교도소) 교화위원으로 오랜 기간 선교 활동을 했으며, 벨엘기도원(현 공주벨엘정신요양원) 설립과 운영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공주중앙감리교회가 교인의 증가로 교회 터를 물색하던 중 1976년 어머니 한을라 권사와 교회 대지를 봉헌하였다. 또한 공주중앙감리교회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공주중앙신협을 창설하여 1997년까지 25년간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광국은 1975년 공주지역 중고등학교 미술교사들이 주축이 된 '금강미회(錦江美會)'를 결성해 초대 회장을 맡았다. 현재까지 꾸준히 전시회를 개최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금강미회'를 만든 현광국은 공주지역 미술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79년에는 '이신회(以新會)'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가 1984년 충남구상작가회로 개칭한 미술단체의 회원으로도 활동했다.³ 이외에도 1981년 창립한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 회원으로 참여하다 정년퇴임 후 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제10대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교육자로서 제자 양성에 힘쓰면서도 틈틈이 제작한 작품을 《공주고미술동문전》을 비롯해 많은 단체전에 출품했다. 또 1984년 11월 현광국이 제작한 서양화 60점과 청과 이은구(靑坡 李殷九, 1943~)가 제작한 도예작품 156점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영명장학회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전시회를 갖기도 했다.

현광국의 작품은 대부분 풍경화와 정물화다. 〈곰나무〉, 〈금강변〉, 〈하고개 풍경〉, 〈교동풍경〉, 〈비둘기아파트가 보이는 풍경〉과 같이 공주 시내의 곳곳을 사생하며 그린 풍경화에는 향토미술 선구자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특히 〈하고개 풍경〉은 봉황산 자락에서 내려다본 웅진동에서 중동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높이 약 50m의 고개 풍경을 그린 작품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 풍경을 그린 것이다. 현광국은 하고개에 있는 중앙감리교회 바로 옆에서 살았는데, 이 작품에는 길 양쪽으로 줄지어 선 집들과 노란 은행나무, 흰색으로 물든 가을 풍경이 아름답게 그려 있다.

한편 현광국은 류마티스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자 실내에서 제작하기 쉬운 정물화를 자주 그렸다. 특히 장미를 소재로 한 정물화를 즐겨 그리며 지인들에게 선물하곤 했는데, 1995년

3 이신회는 1984년 충남구상작가회로 개칭했다가 1988년 대전구상작가회로, 1992년 다시 이신회로 불리다가 1998년 대전구상작가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제작한 <장미>에는 청화백자에 분홍색과 노랑색 장미꽃이 담겨있다. 작품 뒷면에 적어놓은 작품 제목, 제작연도, 한자로 써놓은 주소 등을 통해 꼼꼼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현광국은 주변 인물을 소재로 한 그림도 남겼는데, <부인상>은 아내 백봉현을 모델로 한 작품이다. 의자에 앉아있는 여인좌상으로, 화면 왼쪽 아래에 현광국의 ‘현(玄)’과 부인의 성인 ‘백(白)’을 더한 ‘현백(玄白)’이라는 서명이 들어있다. 부인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이 작품처럼 현광국은 따뜻한 교육자이자 화가였으며, 교회 장로로 평생 올곧게 살았던 인물이다.

연보

- 1923년 평안북도 영변에서 출생
- 1936년 가족이 모두 공주로 귀향
- 1938년 부친 현연동 작고, 공주중학교 입학
- 1944년 도쿄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畫學校) 서양화과 3학년 수료
일본군 징용 영장이 나오자 만주로 피신
- 1945년 공주로 돌아와 공주사범학교 졸업
- 1949년 일제에 의해 1941년 폐교된 영명학교 복교추진위원회의 서기 역임
영명상업중학교 교사로 부임
- 1951년 영명중학교와 영명고등학교 분리, 영명중학교에 배정되어 미술과 영어 담당
- 1956년 영명중학교 교무부장으로 생활지도위원회 위원장 역임
- 1963년 영명중학교 교감으로 승진
- 1975년 ‘금강미회’ 창립, 초대 회장 역임
- 1982년 《개교 60주년 기념 공주고미술동문전》에 참여
- 1984년 《영명장학회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전》(서울, 세종문화회관) 개최
《충남구상작가협회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85~1990년 《아름다운 금강》(대전시민회관, MBC문화공간)에 참여
- 1989년 영명중학교 정년퇴임, 국민훈장 석류장과 표창장 받음
- 1992년 《이신회전》(대전, MBC문화공간)에 참여
《공주풍경전》(공주문화원)에 참여
- 1993년 《1993 오늘의 충남미술》(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1994년 《제14회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전》(공주문예회관)에 출품
《1994 오늘의 충남미술》(부여, 청소년수련원)에 참여
- 1999~2000년 대전구상작가협회 제10대 고문 역임
- 2007년 작고

안종호 (安鍾祐, 1926~1986)



안종호, <지함>, 1970년대, 종이, 12.3×25×37cm(출처: 『대전미술 100 공예·조각』, 대전시립미술관, 2009)

1926년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에서 출생한 안종호는 해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업을 위해 상경하였다. 서울 대신고등학교와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도 광주 곤지암국민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중고등학교 교사와 공주사범학교 교사를 거쳐 1962년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로 부임해 1986년까지 약 24년간 공주에 거주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안종호는 공주교대 재직 시 미술교육과 재학생 중 공예 전공자들의 모임인 '정공회'의 지도교수로 학생들의 활발한 작품 활동에 이바지 했다. 이후 정공회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단체 '창공예회' 전시에 매년 찬조 작품하며 지원하였다. 공예가이자 초등미술 교육자로서 작가는 초등교육 미술의 교육과정과 교수법, 교재 연구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연보

- 1926년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에서 출생
- 1943년 경성사범학교 졸업
- 1957년 충남 교육회장 교육공로자 특별공로상
- 1962년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로 부임
- 1972~1985년 《한국미술협회전》에 참여
- 1975~1980년 《정공회전》에 참여
- 1981년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 초대지부장 역임 및 《창립전》에 참여
- 1981~1985년 《항토작가 초대전》(대전)에 참여
- 1982년 문교부 장관 표창/ 공주교육대학교 20년 근속 표창
- 1982~1986년 《창공예회전》에 참여
- 1984년 《충남항토작가 100인 초대전》에 참여/ 『미술교육강좌』(형설출판사) 공저
- 1985년 《현대화랑 개관 초대전》(대전, 현대화랑)에 참여
- 1986년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정년 퇴임
- 작고

박창돈 (朴昌敦, 1928~2022)

1928년 황해도 장연에서 출생한 박창돈은 사업가 박준규의 9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¹ '박돈'이라는 이명(異名)을 사용했으며, 1945년 해주사범학교 강습과를 수료한 후, 해주예술학교 미술과에서 본격적으로 미술 수업을 받고 1948년 졸업했다.²

졸업 후 1949년까지 해주미술학교 교사로 지내다가 월남해 부산에서 활동했으며, 한국전쟁 시기 부산에 머물며 부산 동아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1954년 서울로 이주한 뒤, 국전 출품에 전념해 《제3회 국전》에서 〈정물〉을 입선한 것을 시작으로, 1960년까지 5번의 입선과 3번의 특선을 수상했다. 그리고 1957년 창립한 '창작미술가협회'에 참여하며 미술 단체 활동에 적극 나섰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는 서울 한성중·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고, 1964년부터 서라벌예술대학,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등에 출강했다. 이후 1975년부터 1990년까지 목원대학교 미술과 대우교수를 지내며 후학을 양성했으며,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전람회에 제2회 전시부터 참여했다.

1967년 경북공미술관에서 열린 《민족기록화전》에 1,000호 크기의 〈동학군 의거〉를 출품했다.³ 같은 해 창립된 '구상전'에도 참여하며 사실주의와 현대적 구상미술을 지향하는 작가 모임에 동참했다. 이후 '제작전', '갑자전', '두즈몬전' 등 다양한 구상작가들 모임에서 활동했다. 특히 1981년 '제작전' 창립과 1984년 '갑자전' 창립의 중심 작가로 활약했다.⁴

47세가 되던 해인 1974년 신세계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1980년대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85년 《살롱 85 한국미술전》(파리 그랑팔레)에서 은상을 수상했



박창돈, 〈도심〉, 1958, 캔버스에 유채, 145.5×112.1cm(출처: 『제11회 이동훈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 박돈』, 대전시립미술관, 2014)

1 공광식, 「향토적 서정성으로 빛어진 조형적 공간과 아름다움」, 『제11회 이동훈 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 박돈 (대전시립미술관, 2014)』, p. 17.

2 박창돈의 생애와 화업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자료 참조.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박돈 작품 & 아카이브-고향의 정서, 추억 속의 편린』(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2015).

3 최경애, 「박돈의 예술과 삶-기증작품 & 자료 중심으로」, 위의 책, pp. 11~15.

4 박창돈은 1981년 '구상전' 회원 일부가 탈퇴해 '제작전' 모임을 시작했을 때 핵심적인 작가로 참여했고 1984년 '제작전'에서 탈퇴한 회원들이 '갑자전'을 창립했을 때도 중심 역할을 했다.



박창돈, 《입춘봄의 노래》, 2010, 캔버스에 유채, 53×91cm(출처: 『제11회 이동훈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 박돈』, 대전시립미술관, 2014)

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현대미술초대전》, 서울시립미술관 《한국현대구상회화의 흐름전》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며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박창돈의 초기 작품은 거친 터치와 선묘가 어우러진 표현 방식이 특징적이다. 이후 터치가 점차 부드러워지며 실루엣 형식으로 변화했고, 백자·토기·소년·여인·닭·말·새 등 한국적 소재를 활용해 화면을 구성했다. 1950~1960년대에는 추상적 형태와 '설화

성'을 강조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는 부드러운 색조를 바탕으로 한국적 정서를 담아냈다.

박창돈은 유화 재료를 활용하면서도 무광택 기법을 창출해 토속적 질감과 한국적 정서를 구현했다. 그의 화풍은 정적인 화면 구성, 묘사 대상의 선·형태·색채·형상의 단순화, 그리고 화면 전체의 온화한 분위기가 특징이다.⁵ 특히 박창돈 회화의 조형적 특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묵화(墨畵)적 표현이다. 박창돈의 작품은 보는 이를 흡수할 듯한 깊이감을 지니고 있으며, 묵직한 마티에르에서 번지듯 스며든 색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투명하고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발색의 깊이는 더욱 풍부해졌다.⁶

박창돈은 단순히 옛 정취를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토속적인 소재를 통해 한국적인 미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⁷ 2014년 제11회 이동훈미술상을 수상했으며,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구순화가 박돈전》을 통해 그간의 화업을 정리했으며, 2022년 향년 94세로 별세했다.

연보

- 1928년 황해도 장연 출생
- 1945년 해주 사범학교 강습과 수료
- 1948년 해주 예술학교 미술과 졸업
- 1950년 부산 동아중학교 미술교사
- 1954~1960년 국전 입선 5회, 특선 3회
- 1955~1963년 서울 한성중고등학교 미술교사

5 이구열, 「황토미의 전가」, 『박돈』(현대사, 2014), p. 170.

6 변종필, 「박돈의 태고의 신비와 전설, 그 명원을 향한 노정」, 『미술과 비평』, 2012(『제11회 이동훈 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 박돈』, 대전시립미술관, 2014, p. 97 참조).

7 신함섭, 「순수하고 정갈하며 단아한 이미지의 탐미적인 초월언어」, 『박돈 작품 & 아카이브』(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2015), p. 9.

- 1957~1962년 창작미협 창립회원
- 1958년 대한미술교육협회 상임위원
- 1961~1980년 국전 심사위원 역임
- 1967년 민족기록화 〈동학군 의거〉 제작
- 1967~1981년 《구상전》 창립회원
- 1974년 《개인전》(서울, 신세계미술관) 개최
- 1975년 《복원미전》(대전, 복원대학교 전시실)/ 민족기록화 〈양만춘 장군의 안시성 전투〉 제작
- 1975~1990년 복원대학교 대우교수 역임
- 1976년 《개인전》(서울, 문화화랑) 개최
민족기록화 〈최령 장군의 홍산 전투〉 제작
- 1976~1979년 국전 초대작가
- 1980년 《개인전》(서울, 예화랑) 개최
- 1981~1984년 《제작전》 창립회원
- 1983년 《개인전》(서울, 예화랑) 개최
- 1983~1992년 《현대미술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4~1999년 《갑자전》 창립회원
- 1985년 《씨룡 85 한국전》(프랑스 파리, 그랑팔레) 은상 수상
- 1986년 《개인전》(서울, 예화랑) 개최
- 1989~2003년 《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1년 《개인전》(서울, 예화랑) 개최
- 1993년 《대한민국회화제》(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4년 《개인전》(서울, 표화랑) 개최
- 1995~2002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 심사위원
- 2000~2010년 《두즈문전》 창립회원 및 꾸준히 전시에 참여
- 2005년 《개인전》(서울, 가원미술관) 개최
- 2006년 《아트 엑스포 뉴욕》(미국 뉴욕, 제이콥 제비츠 컨벤션 센터)에 참여
《한불대표작가전》(프랑스 파리, 생 피에르 화랑)에 참여
- 2007년 《개인전》(서울, 가원미술관) 개최
- 2008년 《박돈 근작전》(서울, 청작화랑)/ 《한국현대구상회화의 흐름전》(서울시립미술관)
- 2013년 제11회 이동훈미술상 수상
- 2014년 《그림생활 70년 박돈 회고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정작화랑) 개최
《이동훈미술상 수상기념 박돈전》(대전시립미술관) 개최
- 2015년 《박돈 작품 & 아카이브-고향의 정서, 추억 속의 편린》(서울,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 2018년 《개인전》(서울, 갤러리서림) 개최
- 2022년 작고

성찬경 (成贊慶, 1930~2013)



성찬경, 〈제목 미상〉, 2000년 이후, 오로바이·선동기·철제의자 부속·못걸미·나뭇조각·철사·전선, 42×43×123cm(출처:『음암동 물집고이원, 성찬경』, 소리모양, 2018)

호는 송운(松韻). 1930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에서 조선 중기의 유학자 우계(牛溪) 성혼(成渾, 1535~1598)의 13대 종손으로 출생한 성찬경은 국민학교 미술선생님이 미술대학를 가라고 권유했을 정도로 그림에 실력이 있었다.¹ 음악·미술·문학 등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던 성찬경은 수학을 좋아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과반이었다. 그러나 시인 박희진(朴喜進, 1931~2015)을 만나면서 문과로 방향을 돌렸다.² 1950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해 1957년 졸업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56년 시인 조지훈(趙芝薰, 1920~1968)의 추천으로 『문학예술』지를 통해 등단했다.³ 대학교를 졸업한 후 예산농업고등학교에서 1년간 영어교사로 근무했으나, 1959년 서울 경복중학교로 옮기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⁴ 예산농고 교사시절 피아노가 인연이

되어 만나기 시작한 이명환과 1966년 2월 12일 결혼했는데,⁵ 화가 박서보가 함진아비를 맡았다. 영어교사·학원강사·대학강사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성찬경은 1976년 덕성여자대학교 전임강사로 채용되면서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을 찾았다. 1978년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부임해 1995년까지 재직하면서 자택 서재에 조선 후기 문인 이익희(李翊熙, 1767~1843)가 쓴 '청금루(淸襟樓)'라는 현판을 걸어두고 자신을 '청금루 주인'이라 칭했다.⁶

1950년대 말부터 50여 년에 걸쳐 '밀해시'라는 고유의 시론을 중심으로 시세계의 확장을 도모한 시인은 <흡지 않은 거울 풍자>와 같은 '생태공해시'를 이미 1960년대부터 시도하였다.⁷ 뿐

1 성찬경의 생애에 대해서는 2008년 아르코예술기록원에서 진행한 구술채록문(채록자: 한진일, 이하 '구술채록문')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https://www.dearts.or.kr/viewer/document/438667>

2 개념미술가이자 행위미술가인 성능경이 일찍부터 화가가 되겠다고 마음을 다잡는데 사촌형인 성찬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3 1956년 『문학예술』 8월호에 <미열(雨熱)>, <궁(宮)>, <프리즘> 세 편의 시가 실렸는데, 조지훈은 성찬경 시를 식문시의 반대 개념으로 '감물성시'라고 불렀다. 『제1차 구술채록문』, pp. 124~128, p. 135.

4 경복중학교에서 2년 반 정도 교사생활을 하고 난 후 성찬경은 건강이 좋지않자 음암동으로 거처를 옮겨 부평생활을 하였다. 6·25전쟁이 나던 1950년 작가는 폐결핵이 발병하였다. 약 7년 간 작가를 괴롭혔다고 한다. 『제1차 구술채록문』, pp. 63~64, pp. 79~81.

5 이명환, 『송운 성찬경 선생과의 인연』, 『겨울나그네』(시인생각, 2020), pp. 22~29.

6 『청금루 주인 성찬경』(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2022).

7 작가가 환경시를 다부게 된 계기는 6·25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산의 무반전이 예전처럼 일지 않은 것을 보고 기후의 변화를 직감

만 아니라 1979년 박희진, 구상(具常, 1919~2004) 등과 함께 '공간시낭독회'를 결성하고, 작고 13일 전인 2013년 2월 13일 제391회 공간시낭독회에서 마지막 시낭송을 할 때까지 매일 1회씩 거의 빠짐 없이 참여했으며,⁸ 1996년부터 8회에 걸쳐 이른바 '말예술'이라는 시낭독 퍼포먼스를 펼친 행위예술가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자신이 수집한 일상의 다양한 사물들에 대해



성찬경, 〈애수(愛獸) 가족〉, 1980년대. 나사·수도꼭지 손잡이·파이프 조인트, (큰 것) 7×15.5×7.5cm, (작은 것) 6.5×10.5×7cm
(출처: '응암동 물질고아원, 성찬경', 소리보관, 2018)

를 펼친 행위예술가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자신이 수집한 일상의 다양한 사물들에 대해 치밀하게 탐색하고,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연결하여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조형예술가다.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이 사물에도 '물권'이 있다고 주장한 성찬경은 1990년대 초 자신이 거주하는 응암동 단독주택 70여 평의 마당을 버려진 잡동사니 오브제들을 위한 전시장으로 꾸미고 '물질고아원'이라고 명명했다. 일종의 생활 미술관을 만들어 물권을 직접 실천한 것이다. "물질고아원"은 이 시대의 물질 학대에 대한 비판이자 저항의 뜻입니다⁹라고 말하는 작가는 버려진 나사를 줍고 모아서 새로운 존재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곧 무한한 생명성으로 환원시켰다. 작가는 부식되어 가는 나사를 닦고 손질해서 가족을 만들고, 친구를 만들고, 자신의 모습을 만들었다. 그가 쇠붙이나 나사 등 물질에 존재를 부여하는 순간 그 물질은 작가 자신과 동일한 생명체가 되는 것이다. 미술에 대한 근원적인 그리움이 있었던 성찬경은 시를 쓰면서도 유사 미술작품을 만들려는 의욕을 갖고 꾸준히 작품을 만들었다. 교육자로서 시인으로서의 삶에 머물지 않고 이른 시기부터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버려진 물건에 의미를 부여하며 몸소 보여준 물권을 존중하는 태도는 끊임없는 소비에도 정신적으로 가난한 현대인에게 큰 울림을 준다. 동시에 위기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현시대를 돌아보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찬경은 한국시인협회상, 서울시 문화상, 월탄문학상, 공초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한국시인협회장, 가톨릭문인회 회장, 대한민국예술원 문학분과장을 역임했다. 2013년 2월 26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작고 후 유족과 지인들에 의해 여러 차례 회고전이 열렸다. 2016년 성찬경의 3주기 추모전 《응암동 물질고아원》이 백악미술관에서 개최되었고, 이어서 큰아들과 개최한 2인전 《암호적 상상》(성찬경+성기완, 세운상가 7과 1/2, 2016. 5. 8~6. 4)으로 뒤늦게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8년 5주기 회고전 《나사여, 나의 금붙이여》(서울, 갤러리 우물), 2021년에는 《성찬경: 사물, 아름다움의 구원》(경기도 화성, 엄무지엄), 그리고 2022년 《청금루 주인 성찬경》(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이 열렸다.

했기 때문이다. 즉 공해, 쓰레기, 오염, 비료, 독소 등으로 인한 변화를 민감하게 느낀 것이다. 『제1차 구술재록문』, p. 168.

⁸ 건축가 김수근이 시인 구상에게 공간사랑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면서 시작되었으며, 72회째인 1986년 6월부터 '비랑골예술관'으로 장소를 옮겨 지속되었다. 낭독회는 현재까지 후배 시인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2024년 12월 현재 533회 개최.

⁹ 성찬경은 길거리에 버려진 많은 물질들을 보면서 물질 학대로 생각했고, 물질에도 물권이 있는데 왜 밟느냐 하는 생각으로 '우리 집에 와서 잘 벌히 쉬어라. 내가 널 대우한다' 하는 마음에 집안으로 나무 조각, 유리 조각, 쇠조각, 버려진 기타 등을 마당에 옮기게 되었다. 『성찬경 시인, 집 마당 고를 가득 '물질학대 비판』, 『경향신문』(2006. 3. 13).

연보

- 1930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성락호(成樂浩)와 서연석(徐然錫)의 장남으로 출생
- 1938년 예산심상소학교 입학, 4학년때 서울 미동국민학교로 전학
- 1944년 공주중학교 입학
- 1945년 해방 직후 6년제 보성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
- 1950~1957년 서울대학교 영문과 입학, 6·25전쟁 발발로 휴학, 서울수복 후 복학, 졸업
- 1951~1953년 예산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 1956년 조지훈의 추천으로 『문학예술』지를 통해 등단
- 1957~1958년 예산농업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 1959~1960년 서울, 경북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 1961~1967년 시동인지 『육십년대사화집』에 참가
- 1964년 서울대학교 영문과 석사과정 수료
- 1966년 첫 시집 『화형둔주곡(火刑遁走曲)』(정음사) 발간
- 1970년 《박희진, 성찬경 2인 시낭독회》(서울 명동, 카페 메아뜨르)
- 1976~1978년 덕성여자대학교 전임강사
- 1978~1995년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
- 1979년 연작시 〈나사〉로 제11회 한국시인협회상 수상
- 1979~2013년 제1~391회 《공간시낭독회》 개최 및 참여
- 1980~1981년 문교부 주관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분학 연구
- 1991년 제2회 빛과 구원의 문학상 수상
- 1993~1996년 가톨릭문인회 회장 역임
- 1995~2013년 성균관대학교 대우교수
- 1996년 《제1회 '말예술' 한마당-가려움과 음악》(서울, 바탕골소극장) 개최
- 1996~1998년 한국시인협회 회장 역임
- 1997년 《제2회 '말예술' 한마당-포퓰로좌의 별들》(서울, 성좌소극장) 개최
- 1999~2013년 추사 김정희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역임
- 2000년 보관문화훈장 수상/ 《제3회 '말예술' 한마당-야오씨와의 대화》(서울, 동숭아트센터) 개최
- 2001~2013년 대한민국예술원 문학분과 회원, 한국문인협회 고문
- 2002년 《제4회 '말예술' 한마당-굴착기와 괴편들》(서울, 북촌창우극장) 개최
- 2005년 《제5회 '말예술' 한마당-다이아몬드의 별》(서울, JEI 재능교육 소극장) 개최
- 2009년 《제6회 '추사의 글씨에게'》(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개최
- 2010년 《제7회 '말예술' 한마당-해》(서울, 노인복지센터) 개최 (7. 1)
《제8회 '말예술'-무제》(국방회관 화랑교수회 추계총회) (9. 17)
- 2011년 11번째 시집 「소네트 시집 바스락 바스락 작업을 한다」(고요아침) 발간
- 2013년 작고

권경승(權景昇, 1931~2010)

권경승은 1931년 충청남도 금산 출생으로, 호는 심곡(心谷)이다. 대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전북일보사 기자와 편집위원을 지내며 전라북도 전주에서 활동한 만화가이자 한국화 작가이다. 권경승이 이름을 알린 것은 1957년 전북일보사 문화부에 입사해 『전북일보』에 만화를 연재하면서부터다.¹ 만화에 관심이 많던 권경승은 대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가서 잡지사와 신문사에서 만화와 삽화를 그리다가, 전북일보사에 입사했다.

전북일보사에 입사하면서 전주에 정착한 권경승은 1959년 8월 까지 『전북일보』 2면에 네 컷 만화 《공수래(空手來)》를 연재해 서민의 일상사를 대변하거나 시사를 풍자한 내용으로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² 1959년 8월부터는 시사만평인 《사회회평(社會戲評)》을 연재했으며, 1962년 《짱구놀이》, 1965년 《하여간》 등을 연이어 연재했다. 《짱구놀이》와 《하여간》을 연재하던 당시 『전북일보』의 문화부장이었고, 1966년 신문편집자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선정한 ‘제1회 한국신문상(편집부문)’을 수상했다.³

권경승은 신문사 기자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화 작가로서 작품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한국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전주로 이주해 전북화단의 작가들과 어울리게 된 이후이다. 1982년 전북일보사 편집국 출신 작가의 모임 ‘회귀(回歸)클럽’이 주최하는 《호남현대작품전》에 출품하기도 했다.⁴

주로 발목을 활용한 담백한 산수화를 즐겨 그린 권경승은 30대 초반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수묵화를 시작했지만, 1990년 《전북미술대전》에서 최고상을 받았을 정도로 한국화 작가로서도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었다. 2001년에는 전주의 운암저수지 일대 풍경을 그린 산수화 38점을 선



권경승, 〈하여간〉, 1994, 『전북일보』(1994. 8. 1)

1 『전북일보』는 1950년 10월 10일 창간한 신문으로, 1946년 창간한 『전북매일신문(全北每日新聞)』과 1961년 창간한 『호남일보(湖南日報)』 등 전북 도내에서 발행된 신문과 1973년 6월 1일 통합해 『전북신문(全北新聞)』으로 제호를 고쳐 전주에서 발행되었다. 1983년 6월 1일부터 제호를 다시 『전북일보』로 변경했다. 『전북일보』는 1955년까지 외국의 신문과 잡지에 실린 시사만평을 발췌해 소개했으며, 1956년부터 1984년까지 전연삼(全演相)의 〈만보군〉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2 尹煥玉, 『韓國新聞漫叢史』(열화당, 1995), p. 225.

3 『한국신문상 시상』, 『경향신문』(1966. 10. 13).

4 이 전시에는 한국화의 하견(許健, 1907~1987)과 허산옥(許山玉, 1924~1993), 서예의 황욱(黃旭, 1898~1992), 서양화의 허반영(許半映, 1918~2015) 등이 참여했는데, 전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권경승이 어떤 작품을 출품했는지 알 수가 없다.

보인 《고희 기념 수묵화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에서는 수채화 용지에 수묵채색 기법으로 작업해, 전통적인 수묵화이면서도 재료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한국미술협회 전주지부에서 활동했으며 전북도립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한국미술협회 전주지부장, 전주문화원장 등 전북화단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1990년대까지 신문 만평 연재를 지속한 권경승은 『전북일보』에 43년간 《하여간》을 연재하며 시사만화가로 활약하면서, 한국화 작가로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다가 2010년 향년 79세에 별세했다.

연보

- 1931년 충청남도 금산 출생
- 1957년 전북일보사 입사
- 1958~1959년 『전북일보』에 《공수래(空手來)》 연재 시작
- 1959년 『전북일보』에 《사회회평(社會載評)》 연재
- 1962년 『전북일보』에 《짱구놀이》 연재 시작
- 1966년 한국신문상 수상
- 1965년 『전북일보』에 만평 《하여간》 연재 시작
- 1982년 《호남현대작품전》에 참여
- 1987년 《전라북도미술단체 연합전》(전주, 전북예술회관)에 참여
- 1991년 《권경승 한국화전》(전주, 전북예술회관) 개최
- 1992년 《제24회 전라북도미술대전》(전주, 전북예술회관)에 참여
- 1998년 《제30회 전라북도미술대전》(전주, 전북예술회관)에 참여
- 2001년 《권경승 고희 기념 수묵화전》(전주, 현대문화센터) 개최
- 2010년 작고

이재창(李在昌, 1932~)

호는 청석(靑石).¹ 1932년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출생한 이재창은 중학교 때 서양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석 김기창(愚石 金基昌, 1892~1976) 화백의 나비 그림을 보고 감동한 작가는 고향 마을에 무수히 날아다니던 나비도 그림의 소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² 김기창 화백은 19살의 작가에게 “어린 나이에 둘을 참 잘 그린다”고 호를 청석으로 지어 주었다.³

‘나비 화가’로 화단의 주목을 받은 이재창은 동네 꼬마들에게 엽을 사주며 나비를 잡아 오게 했을 정도로 나비 그림에 온 힘을 쏟았다. 살아있는 나비를 보며 나비 날개의 정교함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풀칠한 한지에 나비를 붙여 놓고 그리기를 반복하였다.⁴ 김기창의 소개로 이당(以堂) 김은호를 만나 인물 그리는 법을 배웠다.

주로 돌과 나비를 집중적으로 그렸던 이재창은 병이 들자 공주 정안의 절로 들어갔다. 대웅전을 장식하는 불화에도 나비를 그렸던 작가는 첫 《개인전》(세종문화회관)에서 극사실적으로 그린 백여 종의 나비 그림들을 전시해 주목받았다. 이 전시회에는 미술계 인사보다 곤충학자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이변으로 화제가 되었다.

불교 종파 간의 다툼에 회의를 느끼고 환속한 이재창은 1990년 태고종 총무원장 운계 스님을 만나 다시 불교에 귀의하였다. 작가는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나비처럼 자유로운 날갯짓을 펼치고자 하는 소망”으로 나비를 그리고 있다.⁵ 나비 10마리를 그리는 데 꼬박 일주일의 걸리지만 나비 안에서는 그림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는 스님이자 화가인 이재창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재창, 〈나비〉, 1992. 재료 미상, 크기 미상(출처: '전안 미행 초대전', 천안문화원, 1992)

1 범명은 대행(大行).

2 우석 김기창은 서울 출신으로 한국전쟁 이후 공주 청안면 장원리에 정착하였다. 이종옥, 『날갯짓의 황홀한 유혹』, 『공주문화』 제331호(공주문화원, 2018), pp. 52~53.

3 「나비 그림은 내가 최고야」, 『충남시사신문』(2013. 10. 31).

4 「동양화 돌과 나비 청석 이재창 화백」, 『충남신문』(2009. 5. 21).

5 「못따라 나비따라 칠칠」, 『한국불교』(2007. 4. 12).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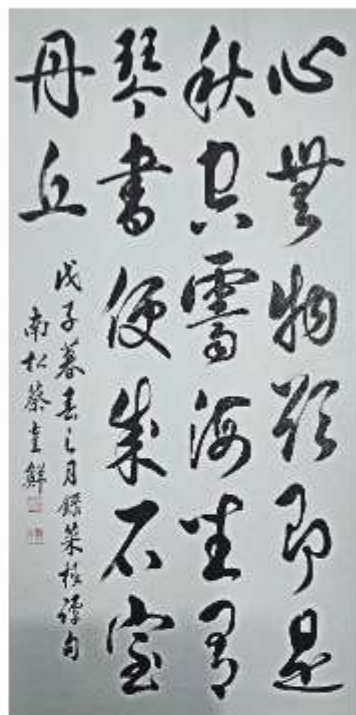
- 1932년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출생
- 1981년 《개인전》(세종문화회관) 개최
- 1982년 《전통미전》(서울, 덕수미술관, 한국의 집)에 참여
- 1989년 《창립 천안한국화회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제14회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100호전》(천안문화원)에 참여
- 1990년 《제2회 천안한국화회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1991년 《제3회 천안한국화회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1991~1995년 《천안미협 초대전》(천안문화원, 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1992년 《제17회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2008년 《고회전》(천안시민문화회관) 개최
- 2010년 《형석 이재창 화백 개인전》(천안, 지산갤러리) 개최
《형석 이재창 화백 전시회-돌과 나비》(대전지방법원 천원지원 화랑) 개최
- 2024년 《제49회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전》(천안, 예술의전당 문화센터)에 참여

채규선(蔡奎鮮, 1934~)

호는 남송(南松). 채규선은 1934년,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에서 태어나 이른 나이에 조부에게 한학과 서예를 배워 입문하였다. 신평중·고등학교에서 서예 지도를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며 40여 년간 근무하다가 1997년 퇴직하였다.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남송서도회(南松書道會)'를 조직해 회원들과 함께 서법연구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당진의 서예 문화발전과 후학 양성을 이어오고 있다.

당진서예협회의 회장 성기문(成耆文)과 1989년 8월 채규선은 '당진서예인회'를 설립했다. '당진서예인회'를 창립한 이후 학생 붓글씨 대회, 학생 서예 대잔치, 지역 회화 대회, 야외 전시회 등을 개최하며 어려운 지역 여건에도 불구하고 후학 양성이라는 큰 뜻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¹

'당진 이 시대의 작가전'에 초대작가로 선정된 채규선은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제6회 당진 이 시대의 작가전-채규선展: 游於藝》을 개최했다. 이처럼 당진에서 원로작가로 또 한 학자로 활동하며 '대한민국갑자서회', '대한민국서예문인화협회'에서 서예부문 고문과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성균관한시수련원'에서 한시집을 집필, 발간하는 등 서예와 한학에 일생을 바쳐왔다. 당진시 면천군〈군자경 시비문〉과 복원된 남문의〈원기루〉가 채규선의 필체가 남아있는 현판과 비석으로 가장 대표적이다. 이밖에 채규선의 작품으로 송악〈남원윤씨 사적비〉,〈문정사 현판〉,〈이의무 장군 묘비〉 등이 있다.



채규선, 〈채근담구(菜根譚句)〉, 2008, 종이에 먹, 135×50cm, 작가 제공

연보

- 1934년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출생
- 2022년 《제6회 당진 이 시대의 작가전-채규선展: 游於藝》(당진 문예의 전당) 개최
- 2023년 《2023 대한민국 한석봉서예미술대전》에서 대상 수상
- 2024년 서울사랑 한석봉예술문화대축제 국회의장상 수상

¹ 디지털당진문화대전 참조, <https://www.grendculture.net/dangjin/toc/GC06401545>

이지휘 (李志輝, 1935~)



이지휘, 〈무제〉, 1986. 한지·먹·크레파스, 38×30cm(출처: 『이지휘 초대전』, 대구 맥향화랑, 1986)

이지휘는 1935년 평안북도 신의주 출생으로, 호는 소촌(素村)이다. 1953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해 송병돈·장욱진·박득순에게 그림을 배웠고 1958년 졸업했다.¹ 1958년 입대를 앞두고 장욱진과 대전·유성·논산·강경·부여 등 충청남도 일대를 여행하기도 했다.

1960년 논산의 강경상업고등학교에 부임하면서 교편생활을 시작했으며, 1961년 천안중학교로 옮긴 후 천안의 하숙집에서 최중태와 함께 지내며 《얼굴》 연작을 시작했다. 1962년 대전문화원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목포·대구·마산·서울·프랑스 파리 등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을 통해 창작 활동을 이어갔다. 1962년부터 1981년까지 국전에 출품해 15번의 입선과 1번의 특

선을 받았다.²

1962년경 대전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이남규·최중태·조영동·이종수 등의 작가와 함께 대전 대흥동성당의 문화모임인 '수요동인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대전과 서울에서 개최한 다양한 단체전에 참여했다. 이지휘는 당시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했던 충남에서 추상미술에 대한 지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문과 성당 주보지에 현대미술에 관한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1963년 서울 중앙공보관에서 개최한 두 번째 《개인전》은 충남 화단에서 활동하던 작가가 서울에서 여는 개인전으로써 당시 충남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³ 1965년부터 목포교육대학, 공주교육대학 등에서 교수로 지내다가, 1969년부터 계명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1991년에는 1년간 파리 제7대학 객원교수를 지냈다. 이후 1999년 계명대학교에서 퇴임했다.

평생을 탐구한 추상회화 외에도 대학교 졸업 직후부터 소묘를 많이 그린 이지휘는 1986년

¹ 이지휘의 연보는 1990년 서울 동덕미술관과 대구 동아미술관에서 개최되었던 『소촌 이지휘작품전』 도록 참조.

²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 46.

³ 이종훈, 「년말 결산: 미술」, 『중도일보』(1963. 12. 27).

『이지휘 연필그림 모음집』을 출간하기도 했다.⁴ 친구인 서양화가 이남규가 이 시기 이지휘의 소묘에 대해서 “활달한 연필 자국이 사물을 그린다기보다는 자연을 파헤치고 있었다”고 말했듯이 자신이 관찰한 자연을 소묘로 면밀히 기록했다.⁵

소묘 작업뿐만 아니라, 얼굴을 소재로 다수의 작품을 창작했다. 괴이하게 생긴 얼굴들을 그리다가 눈, 코, 입 등 얼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해 추상화했다. 이 시기 이지휘는 선을 통해 저항과 절규, 아우성과 같은 관념적 이미지를 얼굴 형상에 담고자 했다. 이러한 얼굴 이미지에 대해서 이남규는 마치 조선시대의 귀면과 같이 해박적인 느낌을 준다고 평가했다.⁶



이지휘, 〈바람〉, 1990, 합판에 사포·파스텔·락카, 91×91cm, 대전시립미술관

소품으로 유화를 그리던 시기를 거쳐 1980년 전후로는 독창적인 표현 기법을 연구하며 여러 가지 재료를 탐색했다. 나무판·파스텔·아크릴·크레파스·동양화 재료·파지·사포·매직잉크·색종이·건축 재료까지 매우 다양한 재료를 평면 회화에 이용했다. 특히 나무판을 짜서 그 위에 색종이로 면을 구획한 작업을 해나가면서 종이를 자르고 붙여 《바람》 연작을 선보였다.

이처럼 이지휘는 대학 졸업 후 충남에서 활동하다가 1960년대 말부터 대구 계명대학교로 옮겨 갔고 대구에서 교수로서 후학 지도와 더불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추상미술을 추구했다. 그는 대구를 기점으로 작품 창작을 이어가면서도 충남 작가들과 교류하며 1994년 《이지휘·임봉재·조영동 展》(대전문화원)에 출품했고,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전-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 2003년 《한발미술의 여정 II- 이동훈과 대전화단》(대전시립미술관) 등에 참여했다.

연보

- 1935년 평안북도 신의주 출생
- 1953~195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수학
- 1958년 장욱진과 대전, 유성, 논산, 강경, 부여 여행 후 논산훈련소 입소
- 1960~1964년 강경상업고등학교·천안중학교·대전공업고등학교 미술과 교사
- 1962년 첫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수요동인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62~1981년 국전 입선 15회, 특선 1회

4 이지휘, 『이지휘 연필그림 모음집』(계명대학교 출판부, 1988).

5 이남규, 『나의 친구 이지휘』, 위의 도록(1990).

6 이남규, 위의 글.

- 1963년 《개인전》(서울, 중앙공보관) 개최
- 1965년 《연필 스kets치전》(대천해수욕장)에 참여
- 1965~1968년 목포교육대학 교수 재직
- 1967년 《개인전》(목포, 밀물다방) 개최
- 1968년 《충남예총회관 개관기념전》(예총회관)에 참여
《5인작가전》(서울, 신문회관)에 참여
- 1968~1969년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1969~1999년 계명대학교 회화과 교수
- 1971년 《개인전》(대구백화점) 개최
《제1회 향토작가 초대전》(대구백화점)에 참여
- 1972년 이남규, 조영봉, 김진태와 《4인전》(서울, 명동화랑)에 참여
- 1974년 《태평양미전》에 참여
- 1975년 《제20회 창작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78년 《인간과 자연박물관 초대전》(캐나다 미니토바, 워나펙)에 참여
《개인전》(대구, 매일화랑) 개최
계명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풍경화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연구」
- 1979년 《한국미술-오늘의 방법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81~1985년 《오늘의 작가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82년 《현역작가 초대전》(서울, 동덕미술관)에 참여
- 1983년 《제19회 아시아 현대미술전》(일본, 교토시립미술관)에 참여
- 1984~1985년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역임
- 1986년 《Korea Modern Art》(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 참여
《개인전》(대구, 맥향화랑) 개최
- 1990년 《개인전》(대구, 동아미술관) 개최
- 1991~1992년 파리 제7대학 객원교수 역임
- 1992년 《설치작업전》(프랑스 파리, 파리대학 모나코관)에 참여
- 1994년 《서울 풍경의 변천전》(서울, 예술의 전당)에 참여
《이지휘 · 임봉재 · 조영동 展》(대전문화원)에 참여
- 1996년 《살롱도톤느》(프랑스 파리)에 참여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전-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0년 《이지휘 회고전》(대구, 문화예술회관/ 창원, 상산아트홀) 개최
제21회 평안북도 문화상 수상, 황조근정훈장 수훈
- 2003년 《한밭미술의 여정 II-이동훈과 대전화단》(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오해균 (吳海均, 1936~)

호는 일정(一丁). 대한민국 목공예 명장 153호(대한민국 명인 2호) 오해균은 1936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여섯 형제 중 넷째로 태어났다.¹ 대전에서 식당과 여관을 운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1950년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으면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다. 공주 친척집으로 피난을 간 오해균에게 위안을 준 것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나무였다. 오해균은 이 시기 나뭇가지를 꺾어 조각칼로 총이나 장난감을 주로 만들었다. 종전 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으니 기술을 익히자는 마음에서 조각을 시작한 명장은 스승 없이 나무로 공예품을 만드는 기법들을 스스로 터득하였다.

오해균은 서울로 거처를 옮겨 누나 집에 머물면서 생계를 위해 비녀·노리개·브로치 등 액세서리를 주로 제작해 남대문 시장에서 판매하였다. 뛰어난 솜씨를 바탕으로 주문 제작을 하면서 오해균은 마포에 ‘미진우’라는 가게를 열었다.² 본격적으로 공예품을 제작해 당시 반도아케이드에 있던 백상과 주로 거래를 하였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오해균은 1979년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던 공주로 내려가 ‘공주공예사’를 열었다.³ 이때부터 장식품 위주 소품 제작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목공예 작업에 매진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부산에 위치한 금강불교조각연구소에 머물면서 불교 관련 대형 작품을 제작하였으나 다시 공주로 돌아와 공방을 열었다. 이후 〈용당초문 투각향로〉, 〈백제금동대향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석가모니 불상〉, 〈최후의 만찬〉, 〈심장생 부조 투각〉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오해균은 1982년 《제12회 민예품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이후 크고 작은 공모전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하여 수상을 하였다. “예술가는 정신이 맑아야 한다”고 말하는 명장은 “진정한 작품은 보는 순간 만져보고 싶고, 만지는 순간 느낌이 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해균은 1995년 목



오해균, 〈목조용당초문 투각향로〉, 대추나무, 20×20×40cm(출처: 『나무와 구름과 바람의 세월』, 공주 아트센터고마, 2022)

1 작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출생지가 공주가 아닌 천안임을 알 수 있었다. 작가 역시 얼마 전에 본인이 천안에서 출생했음을 알았다고 하였다(인터뷰 장소: 인천 자택, 일자: 2023. 2. 9).

2 「신의 손, 『일정(一丁) 오해균』 목공예 명장 - 그의 삶과 신념」, 『충청TV』(2020. 9. 9).

3 당시 공주시립대학장이었던 이화영 교수를 만나 인연을 맺으면서 공주로 내려와 정착하게 되었다. 나태주, 『쓰러지는 날까지 이 길음으로』: 오해균, 『공주를 사랑한 문화예술인들』(공주문화원, 2010), p. 168.

공예 분야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3년에 걸쳐 완성한 <아미타오존불감>으로 1997년 <불교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오해균은 송곳보다 가는 칼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십이 투공용운문여의주>와 같은 정교한 작품을 제작한다.

오해균은 자신이 터득한 기술을 전수하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전통 기술과 문화가 후손들에게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재 후계자가 없어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

연보

- 1936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
- 1982년 《제12회 민예품경진대회》 장려상
- 1982~1993년 《한국전통미술인회원전》(서울, 덕수미술관 등)에 참여
- 1983년 《제1회 개인전》(공주문화원) 개최/《제13회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은상 수상
- 1984년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은상 수상
《88올림픽 상품 개발전》 우수상 수상/《3인 작가전》(공주)에 참여
- 1985년 《제15회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은상 수상
- 1988년 한국전통미술인협회 공주지부장 역임
- 1989년 평양 오아리 19호 고분 출토 목마 재현(경기도 과천 마사박물관 소장)
- 1991년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동상 수상
- 1994년 《제15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은상 수상
- 1995년 《전국 관광공예품 경진대회》 은상 수상
대한민국 명장 목공예부문 선정(제95-21호)/ 대통령표창(제96909호) 수상
- 1996년 《제2회 개인전》(대전보건전문대학) 개최
- 1996~1998년 《제16·17·18회 전통공예대전》(대구, 동아백화점/ 서울, 롯데백화점 화랑 등)에 참여
- 1997년 《제16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대상 수상/《제3회 개인전》(서울, 공평아트센터) 개최
- 1998년 《제4회 개인전》(울산, 아라갤러리) 개최
- 1999년 자랑스런 공주인 상/《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청주예술회관)에 참여
- 2000년 《제2회 충청남도 공예품 경진대회》 특선/《공주향토작가전》(공주, 임림미술관)에 참여
《제30회 공예품경진대회》 특선/ 자랑스런 충청인 상/ 신지식인 상 수상
- 2001년 《한·일교류전》(일본 도쿄, 국제전시관)에 참여
- 2002년 《전승공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 2006년 《초대 개인전: 나무와 구름과 바람의 세월》(공주문화원) 개최
《오해균 회회전: 나무와 구름과 바람의 세월》(청송, 야송미술관) 개최
공주시 웅진문화상 수상
- 2010년 《불교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역임
- 2021년 《명장 오해균의 나무와 구름과 바람의 세월》(익산, 원불교 역사박물관) 개최
- 2022년 《2022 공주 이시대의 작가전》(공주, 아트센터고마) 개최

안상규 (安象圭, 1937~)

안상규는 1937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출생했다.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한 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3년 《제22회 국전》에 〈청일(淸逸)〉을 출품해 입선했고, 이후 5회 연속 국전에서 입선했다. 1973년~1999년까지 25년간 서울 남강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홍익대학교 재학시절에는 당시 동료와 선후배의 작품 경향에 발맞춰 기하학적인 형태와 선의 구성에 매력을 느껴 기하학적 추상회화를 탐구했다. 1970년대에는 흰색으로 캔버스를 채워 한국적 정서를 추상 이미지로 표현하려고 했다. 그러나 안상규의 작품은 백색의 캔버스 그 자체였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단채전 도록에 작품 이미지가 수록되지 못했던 일화가 있다.¹

1977년 한국청년미술작가회관에서 열린 첫 《개인전》에서 안상규는 〈작품〉, 〈서곡〉 등의 제목으로 점과 선을 활용한 백지에 가까운 작품 24점을 발표했다. 이후 1978년에는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동문 단체인 '협동인' 창립전에 참여했다. 이 무렵 해외에서 개최된 전시에도 적극 참여한 안상규는 1979~1980년 일본 《아시아현대미술전》에 출품했고, 1982년 프랑스에서 열린 《제14회 카뉴회화제》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또한, 1983년에는 한양대학교 출신 및 강사들의 모임인 《행원회 창립전》에 참여했다. 이 시기에는 한국인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오방색을 화면에 활용했다. 만물의 조화와 생명을 상징하는 황·청·백·적·흑의 5가지 색을 기반으로 하면서 단순한 색상 표현을 넘어서는 문자 추상화를 시도했다. 즉 한지에 시대의 상황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오방색으로 겹겹이 표현한 후 이를 뒤집는 방식으로 작업한 이 문자 추상 작업은 1998년 뉴욕에서 열린 개인전에 집중적으로 선보였다.²

2005년 헤이리에술마을에 정착한 후에는 창(窓)을 작품 소재로 활용했다. 캔버스 바탕에 흰색을 겹쳐 칠해 화면에 질감을 표현한 다음, 대상의 형태를 흐릿하게 그린 후 그 위에 한옥 창호의 문살을 형상화한 격자무늬를 더했다. 이후 꽃, 나비, 벌레 같은 자연물을 추가로 표현했다. 이는 어린 시절 가난한 시골 생활에서 보았던 창 너머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기억과 그 시절에



안상규, 〈열림, 세상속으로〉, 2008, 캔버스에 아크릴, 130×222cm(출처: 『미술과비평』 73, 2024, 2호)

1 「한국 정서의 선경(仙境)을 거닐다 안상규, 마음으로 읽는 그림」, 『오마이뉴스』(2009. 12. 13).

2 「안상규 초대전」(미국 뉴욕 Gallery Stendhal, 1998).



안상규, 〈문자의 초심〉, 2014, 잡지에 아크릴, 120×120cm(출처: 『미술파비평』 73, 2024, 2호)

각인된 공간 개념이 전통 창호의 형태로 작품에 구현된 것이다. 특히, 안상규는 선을 그을 때 일어선 자세로 작업하는데, 창을 나무틀을 긴 붓으로 그리는데 그의 붓질은 자로 그은 선보다 더 반듯하게 표현될 정도로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안상규의 작업 방식과 작품 세계는 “고결한 선비정신, 올곧은 백의민족, 정통성에의 자존의식이 검출된다”³는 평을 받는다.

오랜 기간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온 안상규는 전통 한옥의 창 이미지를 주요 소재로 작업한 작가이지만, 여러 차례 화풍의 변화를 시도했다. 현재 팔십 대 후반의 나이에 또 불구하고

경기도 파주 헤이리예술마을에 위치한 갤러리 겸 작업실인 ‘안상규스튜디오’에서 꾸준히 작품 창작에 매진하며 한국미술협회, 태미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연보

- 1937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
- 1973년 《제22회 국전》에 〈청일(淸逸)〉 입선
- 1973~1977년 《국전》 연속 출품, 특선 5회
- 1973~1999년 서울 남강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74~1978년 《앙데팡당전》에 참여
- 1977년 《개인전》(서울, 한국청년미술작가회관) 개최
- 1978년 《협동인 창립전》에 참여
- 1979~1980년 《아시아현대미술전》(일본, 도쿄시립미술관)에 참여
- 1982년 《제14회 프랑스 카뉴 국제 미술전》 한국 대표로 참여
- 1998년 《개인전》(미국 뉴욕, Gallery Stendhal) 개최
- 1999년 《한국 현대미술 100인 초대전》에 참여
- 2000~2002년 《남부현대미술제》(구미시립미술관·제주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8년 《개인전》(인천, 이진갤러리) 개최
- 2009년 《개인전》(서울, 갤러리케레스타) 개최
- 2011년 《예쁜나들이》(경기 파주, 리앤박갤러리)에 참여
- 2015년 《개인전》(경기 파주, 인슈큐어화랑) 개최

3 김영재, 「자족적 원형의식의 고결한 승화」, 『미술파비평』 73(2024, 2호), p. 25.

강환춘(姜煥春, 1939~)

1939년 대전에서 출생한 강환춘은 학창 시절부터 사진에 관심이 있었다. 특히 대전사범학교에 다니면서 교육 일선에서 필요한 학습 자료의 촬영, 슬라이드 제작을 하면서 사진 작업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1967년 대전사범학교 졸업 후 대전 성모국민학교에서 첫 교직생활을 시작해 1970년대 근무지를 서울 영훈국민학교로 옮기면서 이후 서울에서 주로 활동했다. 불암국민학교 재직 시, 교감이면서 꾸미기반 지도교사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해 1995년 9월에 열린 《전국 초·중고생 산업디자인 전람회》에서 중·고교생들을 뛰어넘어 단체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다.¹ 1996년 불암국민학교 교감을 끝으로 30여 년간 몸담았던 교직에서 은퇴했다.

강환춘은 교직에 있으면서 꾸준히 사진 관련 강의를 수강하며 전문 작가 수준의 사진술을 익혀 1992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또한 다양한 단체전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² 퇴직 후에도 사진 관련 강의를 수강하며, 빛이 그린 추상 사진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2009년 개인전 《빛의 탐색》에서 '빛은 대상을 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작업의 대상'임을 강조하였다.

작가는 사진에 필요한 조각을 직접 만들고 거기에 반사된 빛을 촬영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여러 단계의 컴퓨터 작업을 통해 원래의 형태는 사라지고 영롱한 빛의 움직임과 색채의 조화만 화면에 남아 작가가 의도하는 형상을 얻게 된다. 즉 피사체인 빛의 움직임을 오랜 시간 관찰해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창조하였다. 강환춘의 작품은 한걸음 물러서서 보면 어떤 하늘, 가늘게 피어난 꽃, 깊은 물 속 같이



강환춘, 〈빛의 탐색 9〉, 2009, C-프린트, 120×91cm(출처: 『빛의 탐색』, 서울 인사아트센터, 2009)



강환춘, 〈조화의 우주 R〉, Digital-프린트, 90×65cm, 작가 소장

1 「산업디자인 정규교육 혁신」, 『동아일보』(1996. 8. 4).

2 1996년 이갑재, 1998년 문순화, 2001년 홍창일, 2007년 양재현 교수로부터 사진지도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빛의 탐색』(인사아트센터, 2009).

다채로운 형상을 떠오르게 한다.⁵⁵

대전사범학교 재학 중 고 이동훈 선생과 인연을 맺은 작가는 이동훈 선생 제자들이 결성한 '상미술회'의 일원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⁴ 서울에서 교사로 지내며 인근 초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피미술회'를 결성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 이동훈 미술상 작가 선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한국미술협회, 한피미술회, 상미술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고문으로 미술과의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

연보

- 1939년 대전 출생
- 1967년 대전사범학교 졸업
- 1992년 《강환춘 교육미전》(서울, 백운국민학교) 개최
- 1994~2024년 《한피미술회전》에 참여
- 1996년 불암국민학교 정년 퇴임/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 1997년 《제3회 한국자연과학 사진협회전》(세종문화회관)에 참여
- 1998년 《제5회 구름재 사진전》(서울, 운형궁갤러리)에 참여
- 2000년 《사진마을 개관초대전-강환춘 사진개인전》(사진마을 갤러리) 개최
- 2001년 《뉴질랜드 남섬답사 사진전》(서울, 후지포토살롱)에 참여
- 2003년 《제3회 서울특별시 사진대전》(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참여
- 2003~2007년 《현대사진연구회전》(서울, 싸이드렘포토갤러리) 2회 참여
- 2005년 《광명전국빛사진 공모전》 금상 수상
- 2005~2009년 《강북구 사진작가회전 출품》(서울, 삼각산 문화예술회관)에 참여
- 2008년 《선생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어린이 그림전》(서울, 메트로미술관)에 참여
- 2009년 《강환춘 사진전-빛의 탐색전》(서울, 인사아트센터)에 참여
《용기의 디자인 제안전》(서울, 인사아트센터)에 참여
- 2012~2024년 《상미술회전》(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 외)에 참여
- 2020년 《대전 최고의 초대작가전》(대전, 중구문화원)에 참여
- 2021년 《제2회 현대미술교우회전》(서울, 갤러리 라메르)⁵에 참여

3 향사라, 『빛의 탐색』, 『빛의 탐색』(인사아트센터, 2009), p. 10.

4 강환춘 작가와 전화 면담을 통해 상미술회의 회원들이 연로해 2024년 13회를 끝으로 더 이상 단체전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전화면담 일자: 2024. 8. 30). 아울러 작가가 주도적으로 결성한 한피미술회 역시 매년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2024년 32회 전시회를 열 계획임을 알 수 있었다.

5 현대미술교우회는 2019년 창립한 단체로, 퇴임하거나 현직에 있는 미술교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신문수(申文壽, 1939~2021)

1939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출생한 신문수는 천안 제일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1953년 천안중학교에 들어가 교내 미술부에서 활동하며 김화경에게 동양화를 배우기 시작했다.¹ 중학교 시절 홍익대학교에서 주최한 전국 중고등학교 미술대회의 동양화 부문에 참가해 입선과 특선을 하며 화가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철도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 상경하여 1959년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군에 자원 입대하였다.

제대 후 만화가로 진로를 결정하고, 1964년 『동아일보』의 '독자만화'에 투고한 <사이렌>이 고장나서 등이 채택되어 신문에 실렸다.² 이후 1964년 잡지 『로맨스』에 투고한 <너구리 형제>가 신인작품으로 추천되어 만화가로 데뷔했다. 1965

년 같은 잡지에 병영생활을 소재로 그린 <카이젤 상사>가 인기를 얻자 『청춘』, 『명랑』 등 여러 잡지사에서 청탁이 들어왔다. 그러나 신문수는 지면이 더 할당되는 어린이 만화로 장르를 전환해 『소년한국일보』에 <칠칠이의 모험>(1967~1968)과 <돌이네 집>(1970), 『새소년』에 <출랑이>(1968~1979)를 연재하며 어린이 만화가로 이름을 얻었다.³ 신문수는 잡지와 신문에 어린이 만화를 연재하면서 길창덕의 소개로 알게 된 김정연(1929~1996)의 문하에서 단행본만화를 그리기도 했다. 이후 1968년 『애국소년』이 창간되자 편집장을 맡았으며, 1969년 창간된 『소년세계』의 미술부장으로 일했다.

1970년대 들어 커다란 관행에 쫓겨 화보를 대폭 늘린 잡지가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받자 1974년 『어깨동무』의 별책부록으로 <도깨비 감투>를 연재하면서 최고 인기작품상을 수상했다. 신문수는 또 <원시소년 뽀빠>(『새소년』, 1976), <포줄 딸국>(『어깨동무』, 1977~1978)를 잇달아 내놓았으며, 1979년부터 『소년중앙』에 <로봇 찰빠>를 14년간 연재하며 1970~1980년대 명랑



신문수, <로봇 찰빠>, 1979, 『소년중앙』에 연재

1 신문수에 대한 개요와 연보는 천안시립미술관·김달진연구소, 『천안미술사 2022년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김달진미술연구소, 2022)를 참고했다.

2 만화가 김성환은 1964년 1월 22일자 『동아일보』의 '독자만화'에 실린 <사이렌>이 고장나서에 대해 "아동만화적인 요소를 띤 만화로 가작(佳作)"이라고 했으며, <자리가 나왔다>(1964. 2. 6)는 "기성만화가의 모방을 하지 않은 개성을 엿볼 수 있어 좋았다."고 평했다.

3 신문수가 어린이 만화가로 전환하게 된 데에는 『동아일보』에 <사이렌>이 고장나서가 선정되었을 때 김성환이 "아동만화적인 요소를 띤 만화로 가작(佳作)"이라고 평했던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김종욱, 『한국만화사 구술채록 연구 신문수』(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9), pp. 97~99.



신문수, 『도깨비 감투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

만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1980년대 들어 신문수는 『어깨동무』에 연재했던 만화를 묶어 단행본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이후 만화전문지 『보물섬』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명랑만화 〈신룡이 방룡이〉(1986~1989)를 연재하는 동시에 『주간만화』의 〈신판 웅녀전〉(1987)과 『주간경향』의 〈신판 봉이 김선달〉(1987) 등 성인 만화도 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애경, 포항제철, 삼성전자 등의 사보만화와 『허풍이의 세계여행』(재능출판사, 1996), 『허풍이의 사서삼경』(계림닷컴, 2000·2001), 『만화천자문』(도서출판 남문, 2004) 등 고전·한자·여행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교양 학습만화를 제작했다. 이렇게 사보·신문·단행본을 통해 작품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2004년 개인전을 열었으며, 《신문수·원수연 특별전》(2011), 《만화로 보는 세상》(2012) 등 여러 단체전에도 참여했다.

신문수는 어린이 신문과 잡지 중심으로 활동하며 명랑만화가 어린이 만화의 인기 장르로 자리잡는 데 기여한 ‘명랑만화의 제왕’으로 불렸다.⁴ 신문수의 만화는 크게 ① 가족, 국가라는 도덕적 가치 지향 ② 모험의 짜릿함 추구 ③ 정의로운 소년으로 구체화 ④ 새로운 발상의등장이 주요한 특징이다.⁵ 1979년부터 『소년중앙』에 연재한 〈로봇 찌빠〉는 2009년 웹툰으로 리메이크되었으며, 2010년 26부작 TV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어 원소스멀티유즈(OSMU)의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⁶

만화가 님시모임인 ‘심수회’의 멤버이기도 했던 신문수는 한국만화가협회 협회장과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운영위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앰배서더로 활동했으며, 2008년 제8회 고바우 만화상, 2014년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2021년 한국만화가협회가 주최한 ‘제21회 만화의 날’ 기념식에서 故 길창덕·윤승윤·이정문·박수동과 함께 공로상을 공동 수상한 한달 뒤 82세로 작고했다.

연보

- 1939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
- 1949년 천안 제일국민학교 입학

4 장병호, 「로봇 찌빠, 『도깨비 감투』 신문수 화백 별세」, 『이데일리』, (2021. 12. 1).

5 박민하, 「신문수(1939~2021)」, 코믹스픽닷컴. <https://blog.naver.com/enterani/222583239046>

6 박해림, 「로봇찌빠, 『도깨비 감투』 만화가 신문수 타계」, 『인천일보』, (2021. 12. 2).

- 1953~1956년 천안중학교에서 김화경 사사, 홍익대학교 주최 전국미술대회 특선
- 1956~1959년 서울 중앙고등학교 졸업, 만화가 김성환 사사
- 1962년 공군 제대 후 만화습작 및 투고 시작
- 1964년 잡지 『로맨스』에 〈너구리 형제〉로 데뷔
- 1965년 『로맨스』에 〈카이젤 상사〉 연재
- 1968년 『애국소년』 창간 데스크
- 1968~1979년 『새소년』에 〈출렁이〉 연재
- 1969~1974년 『소년중앙』에 〈우리집 뽕놀이〉 연재
- 1972~1978년 창작만화가회(심수회 전신) 회원
- 1974년 『어깨동무』에 〈도깨비감두〉 1~5 연재/『어깨동무』의 최고인기 작품상 수상
- 1976년 『새소년』에 〈원시소년 뽕비〉 연재
- 1977년 한국창작만화가협회 회장/『소년한국일보』에 〈쌍구박사 유명선〉 연재
- 1977~1978년 『어깨동무』에 〈보출 딸꾹이〉 연재
- 1979년 『소년중앙』에 〈로봇찌빠〉 연재
- 1982~1993년 『주부생활』에 〈고부전〉 연재
- 1983~1995년 『여고시대』에 〈말자행진곡〉(전반) 연재
- 1985~1995년 한국만화가협회 이사 역임
- 1985~2004년 월간 『산』(조선일보사)에 낚시 원고 게재
- 1986~1989년 『보물섬』에 〈신동이 방동이〉 연재
- 1987~1988년 『주간경향』에 〈신관 붕이 김선달〉 1~2 연재
- 1990~1991년 『면학』에 〈고돌이와 장삼이〉, 〈고삼태평이〉(단편) 연재
- 1993~1995년 『경향신문』에 〈쌍방울 형제〉/ 명랑만화 〈꿀꿀이〉 연재
- 1996년 대한민국출판 만화대상 수상/『생활과원자력』에 〈생활인의 명심보감 원과장宅〉
- 1999~2000년 『소년조선일보』에 〈볼비 우주탐험대〉 연재
- 2002~2005년 제22대 한국만화가협회 협회장 역임
- 2003년 《지하철만화방》(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참여
- 2003~2004년 사보 『삼성 반도체』에 삽화 게재
- 2004년 《신문수 전》(경기도 이천 문화콘텐츠센터/ 서울, 청강만화역사박물관) 개최
- 2006년 고바우만화상 운영위원장/ 세계만화가대회 고문
- 2008년 제8회 고바우만화상 수상
- 2009년 《만화, 한국만화 100년》(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참여
- 2011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코믹어워드 수상
《신문수 · 원수연 특별전》(서울, 코엑스) 개최
- 2012년 《만화로 보는 세상》(서울, 소마미술관/ 한국만화박물관/ 부천만화박물관) 개최
- 2014년 보관문화훈장 수여/『만화로 보는 가정교회』(두란노 출판) 발간
- 2016년 『도깨비 감두 세트』 전4권(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발간
- 2021년 ‘제21회 만화의 날’ 기념식에서 명랑만화 5인방 공로상 수상/ 작고

이현춘(李炫椿, 1939~2001)



이현춘, 〈마차91-2〉, 1991, 포리코트, 70×60cm(출처: 『한국현대서각협회전』, 예술의 전당, 1991)

호는 남계(南契). 1939년 중국 길림성에서 출생한 이현춘은 전북 익산에 있는 남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했으며, 1986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천안복자여자중학교와 복자여자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다.¹

이현춘은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했지만 글씨를 새기는 서각(書刻)으로 시선을 옮겨 각자장 철재 오옥진(鐵齋吳玉鎭, 1935~2014)에게 전통서각을 배웠다.² 현판이나 광개토대왕릉비와 같이 돌·나무·도자기·쇠붙이·빨 등에 글씨를 새기는 서각은 1971년 신학균, 김응섭, 오옥진 등을 통해 명맥을 이었다. 작가는 학교의 특별활동시간에 서각반을 개설하여 가르칠 정도로 서각에 심취했다.

이현춘은 미술교사로 천안에 머물면서 1976년 천안미술협회 창립에 참여하는 등 천안미술계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순수미술 활동과 함께 서각 작업을 병행한 이현춘은 1982년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자입체표현 작가들과 '한국서각협회'를 발족, 창립하는데 참여하였다.³ 이후 1989년 이현춘은 유장식, 안민관과 함께 서각의 전통기법에 머물지 않고 자필자각(自筆自刻)을 바탕으로 개성적인 서체와 조형성을 지닌 입체적 문자 구성 양식을 강조한 새로운 '현대서각' 장르를 창안하였다.⁴ 이듬해인 1990년 현대서각에 뜻을 둔 작가들과 뜻을 모아 '한국현대서각협회'를 창립하였다.⁵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1998년 4월 전통서각과 현대서각이 통합함으로써 서예대전에 '서각'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현춘은 서예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자필자각'을 할 수 있다면 서각을 익히고 발전할 가

1 김재선 작가가 복자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하면서 이현춘 작가가 복자여자중학교로 옮겼다고 한다(김재선 작가와의 인터뷰: 2024. 9. 9). 이현춘에게 사사 받은 박옥철 명장과 연락을 취했으나 작고한 상황이라 접한 내용을 기술할 수 없었다.

2 서각은 나무·돌·도자기·쇠붙이·빨 등에 글씨를 새기는 것이다. 「사각사각 새기는 우리 전통」, 『성대신문』(2013. 6. 4).

3 1982년 이종린, 주영복을 비롯해 오옥진, 조명웅, 고상인, 인민애, 조수연, 김팔만, 김재길, 박윤정, 이재욱, 이현춘 등이 협회 창립을 도모하고 조명웅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그해 가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한국서각협회 홈페이지 <http://seogak.or.kr/>

4 현대서각은 서예, 조각, 회화가 결합된 3차원적 종합예술로 평가된다.

5 1990년 창설되어 1996년 제6회 전시회를 끝으로 한국현대서각협회는 1998년 한국서각협회와 통합되었다.

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⁶ 이는 서각이 기존 서예계의 보수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실용 중심의 서각이 하나의 예술 장르로 자리잡는데 기여하였다.⁷ 이현춘이 타계한 지 3년이 지난 2004년 후학들은 작가가 생전에 남긴 원고들을 모아 『현대 서각의 이론과 실제』(다운샘 출판사)를 출간하였다.⁸ 고(故) 이현춘은 현대 서각의 학문적 이론을 정립하고, 조형예술로서 서각이 기틀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현춘, <뿌리깊은 나무>, 1996, 나무, 51×43cm(출처: 「한국현대서각협회순회전」, 대구시민회관 등, 1996)

연보

- 1939년 중국 길림성에서 출생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 1982년 《한국서각협회 창립전》(세종문화회관)에 참여
- 1986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조형미술로서의 서각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 취득
- 1989년 《현대서각3인전》(이현춘, 유장식, 안민관)(서울, 백악미술관)에 참여
- 1990년 《한국서각협회창설기념전》(서울, 백상기념관)에 참여
- 1991년 《한국현대조각협회전》(서울, 예술의전당 서예관/ 전주, 전북예술회관)에 참여
- 1993년 국제각자회의 참석(일본 도쿄)
- 1994년 백년서각회 설립에 참여
- 1995년 《국제서각연맹 서울전》(서울, 예술의전당 서예관)에 참여
- 1996년 《한국현대서각협회순회전》(대구시민회관 등)에 참여
- 1997년 《제2회 문자와 이미지전》(대전, 한림미술관)에 참여
- 1999년 천안 복지여자중학교 정년 퇴임
- 2001년 작고

6 「꽃에 신다, 서각 예술가江山 박옥철」, 『굿뉴스피플』(2011. 2. 11).

7 「한국서각학회 날개 신생 10주기 추모 창립전」, 『뉴시스』(2011. 10. 3).

8 최덕만, 「이현춘 고문님의 영전에」, 『열간 서예』(2001. 7월호), p. 117.

이동식(李東拭, 1941~)



이동식, 〈생의 찬가〉, 1978, 《제27회 국전》 입선작

호는 청사(靑史). 1941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난 이동식은 천안중학교 1학년 때 형의 소개로 김화경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¹ 천안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1년 천안 연실다방에서 천안공고동창회와 천안문화원의 후원으로 첫 개인전인 《이동식 동양화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에는 김화경이 창조출판한 작품을 포함해 30점이 전시되었다. 1962년 서라벌예술대학교(현 중앙대학교) 회화과에 진학했으며, 1973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1년 《제20회 국전》 비구상부분에 〈상〉으로 입선한 후, 1976년 《제25회 국전》에 〈비조(飛鳥)〉로, 《제26회 국전》(1977)과 《제27회 국전》(1978)에는 동명의 〈생의 찬가〉로 입선했다. 당시 이동식은 붓 대신 붉은 동판과 산소용접기를 이용한 추상적인 작품으로

과문을 일으켰다.

1979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이동식은 국전에 출품한 비구상 작품과 달리 전통적인 산수화에 계절의 조화와 생동감을 부여한 사실적인 작품들을 선보였다. 특히 〈추강〉, 〈운〉, 〈설원〉, 〈강촌〉, 〈소금강〉 등 섬세하고 치밀하게 묘사한 20여 점의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² 같은 해 신일본미술원 주최 《제11회 국제전》에서 은상을, 다음해인 1980년 《제12회 국제전》에 〈江口로 가는 길〉로 금상을 수상하며 일본화단에도 이름을 알렸다. 1980년 동경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전시에는 산수, 화조, 풍속화 등 37점을 출품했다.³

1980년대 초, 아산 외암민속마을에 정착한 이동식은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미학 강의를 했으며, 연세대학교 강사로 출강했다.⁴ 1982년 진화랑에서 열린 다섯 번째 개인전에서는 사생

1 이동식에 대한 개요와 연보는 천안시립미술관·김달진미술연구소, 『천안미술사 2022년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김달진미술연구소, 2022)를 참고했다.

2 『세종문화2 전시실 청사 이동식 작품전』, 『매일경제』(1979. 5. 14).

3 『이동식씨 日서 금상』, 『조선일보』(1980. 10. 11).

4 1993년 개인전을 앞두고 이동식은 외암리 민속보존마을에 위치한 작업실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어린 시절 한옥에서 성장했던 탓인지 창호지 문창살에 대한 그리움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충남 아산군 송악면에 다 허물어져가는 30평짜리 한옥이 있길래 이를 사 옛집을 그대로 복원해 화실로 쓰고 있지요. 그후 제 작업실이 위치한 곳이 민속보존마을로 지정되어 더욱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신창희, 「작업실을 찾아서 풍속화가 이동식씨 자연과 대화 실험정신으로 무뎌」, 『매일경제』(1993. 9. 7).

을 바탕으로 먹과 붓으로 자연을 묘사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연을 묘사한 이 시기 작품들은 1970년대 작품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⁵ 이러한 경향은 198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삼일당(三一堂) 화랑에서 열린 초대전에서도 이어졌다. 이동식은 농촌의 풍경을 향토색 짙게 표현



이동식, 〈추음(秋音)〉, 한지에 먹과 색, 130×190cm(출처: 『천안미술 1951~1989: 기록과 기억으로 말한다』, 천안시립미술관, 2024)

한 작품들로 성황리에 전시를 마치고, 미국의 미술관과 박물관 등을 돌러본 후 귀국했다. 1987년 천안문화원 개원 33주년 기념으로 열린 천안 출신 현역작가 초대전에는 〈송월정(松月亭)〉 등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화시킨 작품을 출품했다.

1993년 이동식은 10년만에 조선일보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화업 30년을 결산하는 이 전시에는 한국인의 해학과 애환을 담은 풍속화에서부터 전통산수에 이르기까지 대표작 50여 점이 출품되어 이동식 작품세계의 면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이 전시에는 강한 농담대비, 호방하면서도 힘있는 붓질로 이루어진 산수화를 비롯해, 상징성 짙은 동물그림과 서정미 풍기는 생활 그림 등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신작 30여 점도 새롭게 선보였다. 재료 역시 전통적인 수묵과 진채 뿐만 아니라 나무나 쇠판을 사용한 혁신적인 작품들이 전시되어 주목을 받았다.⁶ 이동식은 이처럼 하나의 미술양식에 안주 하지 않고 끊임없이 탐구하며 자연과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을 현대적인 조형어법으로 표현한 작가라 할 수 있다.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 동경미술세계의 전속화가로 선정되어 20여년 동안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 전역에서 순회 전시를 여는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전시평과 미술칼럼도 다수 기고했다. 또 《한국현대미술대상전》, 《신미술대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였다.

연보

- 1941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출생
- 1948년 오산 성호국민학교 입학, 천안국민학교로 전학(1949)
천안중학교, 천안공업고등학교 졸업
- 1961년 《이동식 동양화전》(천안, 연실다방) 개최

5 「작업실: 심사 이동식 동양화가」, 『매일경제』(1982. 11. 5).

6 정철수, 「파랑에서: 화업30년 결산-대표작 50여점 출품」, 『경향신문』(1993. 8. 27).

- 1962년 서라벌예술대학 회화과 입학/《이동식 개인전》(조치원, 은하수다방) 개최
- 1971년 《제20회 국전》 비구상부문에 〈상〉으로 입선
- 1973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 1976년 《이동식 초대전》(서울, 신세계미술관) 개최/《제25회 국전》에 〈비조(飛鳥)〉 입선
- 1977년 《제26회 국전》에 〈생의 찬가〉 입선/ 한성여자대학교 미술교육학과 강사
- 1978년 《제27회 국전》에 〈생의 찬가〉 입선/ 관동대학교 미술교육학과 강사
- 1979년 《제11회 신일본국제회화제》 은상 수상/《이동식 초대전》(일본 오사카, 고려현대미술관) 개최
《청사 이동식 작품전》(서울, 세종문화회관)/《한국의 자연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79~1996년 경희대학교 강사, 객원교수
- 1980년 《제12회 신일본국제회화제》 금상/《이동식 개인전》(일본 도쿄, 한국문화원) 개최
- 1980~1995년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 1980~2013년 동경 미술세계화랑 전속화가
- 1981년 《한국미술 81》(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2년 《이동식 개인전》(서울, 진화랑)/《한국현대미술대상전》 심사위원
- 1983년 《이동식 개인전》(LA, 삼일당 화랑) 개최
- 1984년 서울미술제 심사위원
- 1987년 《청사 이동식 작품전》(천안문화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동양학 강의
- 1990년 《이동식 개인전》(제네바, GAL GALERIE KARA GALLERY) 개최
- 1991년 《이동식 개인전》(파리, MOON DAM GALLERY) 개최
《현대미술작가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2년 《한국, 오스트리아 수교 100주년기념전》(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미술관)에 참여
- 1993년 《청사 이동식작품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 개최
《개관기념 초대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3~2000년 《신미술대전》 심사위원
- 1994년 《뉴욕한국일보 창사 27년 초대전》(뉴욕, 한국일보사)에 참여
《서울국제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5년 《이동식 개인전》(미국 뉴저지, KOREAN EM PENSTAL 갤러리) 개최
- 1996년 《이동식 초대전》(일본 호카이도, 동경미술세계) 개최
- 1999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몽골 국립중앙미술관 초대전》(몽골, 국립중앙미술관)에 참여
- 2000년 《청사 이동식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 개최
- 2001년 《타쉬켄트 국제비엔날레 특별초대전》(우즈베키스탄 국립박물관)에 참여
- 2003년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초대전》(LA, 역사기념관)에 참여
- 2004년 미술시대 오늘의 미술가상
- 2007년 《NYWT 뉴욕세계미술대전》(UN 본부)에 참여
《이동식 개인전》(뉴욕, Space World Gallery) 개최
- 2009년 《이동식 초대전》(전주, 오아트 그룹) 개최

김정수(金定洙, 1942~)

김정수는 1942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나 대전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중등미술교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충남의 여러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며 교육연구 대회와 《한국미술협회 대전지부전》 등에 참여했다.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와 대전 관저고등학교 교장을 역임 하며 2003년 정년으로 퇴임했으며, 평생을 바쳤던 교육 경력으로 대한민국 황조근정훈장과 대한민국 청소년 홍익장훈장을 수훈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 5회를 비롯해, 여러 차례의 우수상과 입선을 받았다. 1976년부터 《한국미술 충남지부 회원전》에 참여했고, 1984년부터는 《충청남도 교원미전》에도 출품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단체전에서 활동했다. ‘대전원로작가회’와 ‘화우회’ 회원이며, 이동훈의 제자들이 모여 만든 ‘상미술회’에도 참여했다.¹

교육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주로 단체전에 출품하면서 작품 창작을 이어간 김정수는 60세를 앞둔 2001년 ‘사람·山’이라는 주제로 대전 C2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후 2003년과 2012년에 개인전을 열었으며, 2018년 대전 중구문화원에서 열린 《제4회 개인전》에서는 ‘사미인곡(思美人曲)’을 주제로 해외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본 정치와 그 감흥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김정수의 작품은 사실적인 묘사와 추상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화강암의 질감과 비슷한 거친 붓질과 독특한 화면 구성이 특징이다. 2011년 《상미술회 창립전》에 출품한 〈금강산 Image〉는 짙은 검은 선과 황토색 계열의 거친 질감으로 겨울 금강산을 생생히 묘사했다.

한편 2003년 정년 퇴임한 후, 2009년 『현대시』를 통해 문단에 등단해 2021년 시집 『정(情), 애회오(愛悔悟)]』을 출간했다.² 화단과 문단에서 동시에 활동하며 정년 기념 개인 문집인 『회사 후소(繪事後素)』(2003)와 공동저서 『양지뜸』(1992), 『농사 한두 해 짓나』(1992), 『한말글사랑』(2003), 『문학으로 찾아가는 대전』(2018)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또한 학교 대형 조형물 제작을 맡아 강경여자중학교 충효예담, 강경상업고등학교 교문 진리상,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 철조



김정수, 〈생성(生成)〉, 2008, 캔버스에 유채, 100×80.3cm(출처: 『김정수의 미술산책』, 오늘의문학사, 2024)

1 『상미술회전』(인사아트센터, 2011) 도록 참조.

2 류원, 「화가, 시인 무공(無功) 김정수 작가 시집출간 화제」, 『뉴스룸』(2021. 5. 21).



김정수, <금강산 Image>, 2011, 캔버스에 유채, 72.7×60.6cm(출처: 『정(情), 애회오(愛悔悟)』, 오늘의문학사, 2021)

(鐵造) 비상상 등을 제작했다.³⁾

2019년 창설된 《충청예술초대작가전》에 참여했고 충청예술문화협회 회장을 역임했다.⁴⁾ 2024년에는 월간지 『충청예술문화』의 ‘명화산책’ 코너에 연재했던 유명 화가에 관한 해설과 자신이 창작한 작품 이미지를 정리해 『김정수의 미술산책』(오늘의문학사)을 출간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원로작가회, 보문미술대전 초대작가모임 ‘시나브로’의 고문 등을 맡고 있다.

연보

- 1942년 충청남도 논산 출생
- 1969년 교육연구공로 표창(문교부장관)
- 1976년 연구논문 우수 표창(충청남도교육감)
- 1976~2007년 《한국미술협회 대전지부전》 참여
- 1992년 한국 교육자 대상 수상
- 2001년 《제1회 개인전-사람·山》(대전, C2갤러리) 개최
- 2003년 《제2회 개인전-歸去來兮》(대전갤러리) 개최
대전 관저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
- 2009년 『현대시』로 문단에 등단, 서울 해동문학 추천
- 2009~2023년 보문미술협회 초대작가
- 2011년 《상미술회 창립전》에 참여
- 2012년 《제3회 개인전》(대전, 중구문화원) 개최
- 2018년 《제4회 개인전》(대전갤러리) 개최
- 2019년 《제1회 충청예술작가초대전》(대전, 중구문화원)에 참여
- 2019년~현재 충청예술협회 초대작가
- 2020년 《제2회 충청예술초대작가전》(대전, 중구문화원)에 참여
‘2020 올해의 예술가상(주최 충청예술문화협회)’ 수상
- 2021년 시집 『정(情), 애회오(愛悔悟)』(오늘의문학사) 출간
- 2024년 미술평론 및 작품집 『김정수의 미술산책』(오늘의문학사) 출간

3 김정수, 『정(情), 애회오(愛悔悟)』(오늘의문학사, 2021), p. 134.

4 『김정수 화가-2020 올해의 예술가상(충청예술문화협회)』, 『예술누리 TV』 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4B_3qertb4k

이만우(李晩雨, 1942~)

1942년 충청남도 아산에서 출생한 이만우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아산에서 생활하며 사계절의 변화를 화폭에 즐겨 담아 ‘자연을 그리는 화가’로 불린다.¹ 작가는 단순히 자연을 보이는 그대로 화폭에 옮겨 담기보다는 자연이 주는 풍성함과 편안함,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나는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습관처럼 화실에서 마주 보이는 앞산과 숲속에서 살며시 보이는 집들을 바라본다. 햇빛을 받아 형형색색으로 다채로운 옷을 입은 자연이 내게 크게 다가와 나의 영혼을 감싸며 큰 감동을 일으킨다”고 하였다.²

천안 봉서중학교에서 정년 퇴임한 후 외암천 근처에 정착한 작가는 30여 년간 직접 심고 가꾼 정원에서 무질서 속에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각종 식물들과 사시사철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지내고 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느낀 감동과 회열을 화폭에 옮기며 작품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만우는 1969년 아산 신창중학교 미술교사를 시작으로 1998년 천안 봉서중학교에서 퇴임할 때까지 30여 년을 교직에 있었다. 1986년 한국미협 아산지부 창립을 주도하였으며, 이듬해 아산지부장을 맡는 등 이만우는 지역미술계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 힘썼다. 1988년 지역미술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학생미술실기대회를 개최하고, 전시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을 위한 미술 강좌를 개설하고 아산지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아산지역에 머물지 않고 구미, 남원 지역 미술인과 지역을 떠난 미술교류를 위한 《三道미술교류전》을 기획하고 첫 전시를 구미에서 진행하였다. 1993년 《제1



이만우, 〈경변의 가을〉, 2014, 캔버스에 아크릴, 30호, 작가 제공



이만우, 〈파가의 정원〉, 2023, 캔버스에 아크릴, 73×91cm, 작가 제공(2024 대한민국 국가미술특별초대전 국가미술 초대작가상 수상작)

1 「아트밸리 아산 100인 100색전」(아산 신정보 아트밸리 일원, 2023).

2 위의 글.

회 온양·아산여류화가회전》을, 1994년 《제1회 온양·아산청년작가전》을 기획 개최하여 지역 미술인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였다. 1987년 한국미술협회 온양·아산지부장, 2011년 제7대 온양문화원장을 맡은 이래로 꾸준히 자문위원과 고문으로 아산미술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연보

- 1942년 충청남도 아산 출생
- 1969년 아산 신창중학교 미술교사 부임
- 1980년 온양시 미술교사회 '아미회' 창립 및 전시/《향10인전》(아산)³에 참여
- 1981~1995년 《아미전》에 참여
- 1983년 《서양화4인전: 김영천, 류의열, 남길희, 이만우》(천안문화원)에 참여
- 1983~1995년 《서양화5인전》⁴(천안, 아라리오갤러리 등)
- 1986년~현재 《한국미협 충남지회전》과 《한국미협 아산지부전》에 참여
- 1987~1992년 한국미협 아산지부장 역임
- 1989년 《서양화4인전: 이만우, 류의열, 남일송, 김영천》(천안문화원/ 온양문화원)에 참여
- 1992~2019년 《삼도미술교류전》에 참여
- 1993년 《오늘의 충남미술》(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1995년 한국미협 충남지회장 역임/ 미술의 해 공로상(문화부장관상) 수상
- 1996년 《5인의 회화전》⁵(서울, 인데코화랑)에 참여
- 1998년 천안봉서중학교에서 정년퇴임
- 2001~2002년 《시형회전》(천안/ 당진)에 참여
- 2003~2008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아산지회 지부장 역임
- 2006년 《아산출향 및 향토작가 초대전》(아산갤러리)/《향14인전》(아산문화회집)에 참여
- 2009년 《아산갤러리 개관 3주년 2009 어울린 Artshow》에 참여
- 2011년 《원로 및 충남작가 초대전》(예산군문예회관)에 참여
- 2011~2015년 제7대 온양문화원장 역임
- 2012년 《아름다운 동행전》(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에 참여
- 2021년 《충남미술단면전》(천안, 삼거리갤러리)에 참여
- 2022년 《우수작가초대전》(아산문화재단)에 참여
《아트밸리 아산 국제아트페스티벌100인 100색전》(아산 신정호 일원)에 참여
- 2023년 《전통과 현대-경계를 넘어》(아산문화재단)에 참여
- 2024년 2024 대한민국 국가미술특별초대전 국가미술 초대작가상 수상

3 '향인'은 온양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4 이만우, 류의열, 남길희, 김영천, 김관진 참여

5 김기덕, 이만우, 김종경, 김기택, 최석원 참여

김수길 (金秀吉, 1943~)

호는 다현(茶軒). 1943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한 김수길은 1969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했다. 1982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전공으로 학위를 받았다.

김수길은 대학에서 은사인 안상철 교수의 영향을 받아 평면 위주에서 벗어나 오브제와 콜라주를 화면에 도입하고, 자연 물체가 지니는 형태, 질감과 색을 구성요소로 활용해 작품 세계의 폭을 확장했다. 또한 수묵을 매체로 활용하면서도 서구적 조형어법과 입체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다.

김수길은 1960년대 중반부터 강한 필선과 굵은 묘법이 두드러진 수묵을 기조로 한 채색화를 즐겨 그렸다.¹ 1970년대 초반은 현대적 조형의 실험기로 평면추상에 몰입하였다.² 이때부터 김수길의 화두는 '무엇'을 그리는가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작품을 구성할 것인가로 확산되어 2

차원의 평면에서 벗어나 서구적 조형요소인 입체감을 표출하는 실험을 하였다. 즉 평면에 머물지 않고 대담한 오브제의 차용과 콜라주 기법을 응용하였다. 적극적인 오브제의 이용과 다양한 매체를 콜라주하는 김수길의 기법은 '극단적인 공격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³ 생활주변에서 쉽게 보고 만지고 사용하는 부식된 철판을 하나의 판위에 부착하는가 하면 두 겹 내지는 세 겹으로 콜라주하고 오브제를 부착해 화면 자체가 또 하나의 입체적 구조물로 등장하게 되는 《古=old tones》 연작을 제작하였다.⁴ 복층 구조와 중첩에 의한 입체감, 부식의 효과를 내는 재료의 독특함과 녹슨 모습이 주는 시간의 흔적들을 통한 관계의 시각화를 시도하였다.⁵

부산에 정착한 1981년부터 작가는 한지와 데생지를 혼합하여 오브제를 대체하는 콜라주 형



김수길, 〈古8008〉, 1980, 혼합매체, 130×85cm(출처: 『김수길』, 덕수출판사, 2008)

1 김남수, 『古鐵을 媒材로 한 새로운 美感 表現』, 『정년기념 김수길전』(퍼스트경일, 2008).

2 김남수, 위의 글.

3 김해성, 『서문』, 『제7회 김수길전』(서울 예술의전당, 1994).

4 오광수, 『입체에서 평면으로』, 『정년기념 김수길전』(퍼스트경일, 2008).

5 김신박, 『부재하는 것에 대한 역산된 흔적』, 『다빈 김수길 2008~1964』(덕수출판사, 2008), p. 14.



김수길, 〈시공의 빛2305〉, 2023, 종이에 수묵담채, 41.3×59.3cm, 작가 제공

식의 점착방법을 새롭게 시도하였다.⁶ 이는 매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화면 자체에 보다 집중하는 태도로 변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⁷ 초기에 보였던 입체작업이 파격적이고 공격적이었다면 1980년대에는 오브제나 입체물의 활용이 줄어들면서 미니멀한 또는 절제되고 사유적인 화면으로 바뀌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 입체적인 매체는 사라지고 그 잔형이라 할 수 있는 먹의 얼룩만이 남아 화

면 자체가 형상을 이끄는 매체로 자리매김하였다.⁸ 이후 한국화의 출발인 수묵을 중심으로 한 평면 구성으로 회귀하였으나 운필과 준법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한국화에 머물지 않고 면 위주의 번짐과 스며들기 작업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김수길은 꾸준한 실험을 통해 지극히 단순한 구성과 삼각형의 기하학적 구성 등 기본적인 단위(모듈화)를 활용한 배채법을 소개했다. 자연스러운 얼룩의 번짐과 요철을 지닌 화면들이 종이작업과 함께 진행되면서 더욱 자유로움을 선보였다. 면과 선의 반복은 삼각이나 마름모꼴로 발전되다 점차 기하학적 형태로 변모하였다.⁹ 화면은 더 이상 지지체가 아닌 온전히 하나의 대상으로 스스로 시간과 공간을 지니게 된다.¹⁰ 작가는 단순한 구성과 대칭의 삼각형 위주의 기하학적인 도형에 고대 귀갑수골문의 요철을 결합한 《작품(WORK)》 연작을 새롭게 선보였다.¹¹

김수길은 “기하형은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현대적”이라며 기하학적 도형으로 화면을 가득 메웠다. 즉 기하학적인 형태를 통해 삼라만상과 시간과 공간성을 함축적, 추상적으로 표출하고자 한다. “전통 한지의 본질과 빛, 질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선염법을 기조로 사계의 삼라만상을 연상케 하는 작업”을 시도해 온 김수길은 자신의 작업 목표는 수묵의 번짐과 스밈을 통해 “현대적인 조형성의 획득과 이를 통한 한국적인 고유정서의 발현”이라고 한다.

부산여자대학교를 거쳐 신라대학교 예술대학장으로 정년퇴임한 작가는 현재 부산 외곽 기장에 마련한 작업실에서 작품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6 최병식, 「명료한 韻趣와 自我의 숨결」, 『정년기념 김수길전』(퍼스트출판, 2008).

7 김해성, 「墨을 媒體化한 生成的 別象」, 위의 도록.

8 김해성, 위의 글.

9 오광수, 위의 글.

10 강선학, 「서문」, 『김수길전』(부산시립미술관, 2002).

11 오광수, 위의 글.

- 1943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
- 1969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동양화전공) 졸업
- 1974년 《창립 현대화회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¹²
- 1976~2008년 《제1~37회 현대차원전》(서울, 미술회관 외)에 참여
- 1977년 《국전》〈작〉입선/ 한국미술협회 특별상 수상
- 1979년 《제7회 현대차원전》(청주문화원)에 참여
- 1981~1997년 부산여자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역임
- 1982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미술교육 전공) 졸업
- 1982~2023년 《개인전》(부산, 고려미술관/ 부산, 유화랑/서울, 서울갤러리 등) 개최
- 1983년 《제13회 현대차원전》(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 참여
- 1988년 《한국화 의식의 전환전》(서울, 관훈갤러리)에 참여
- 1991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2년 《제1회 부산한국화전》(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 참여
- 1994년 《서화동원과 오늘의 작가전》(서울, 예술의 전당)에 참여
- 1996년 《대동·생성전》(부산, 갤러리엘사)에 참여
- 1998~2009년 신라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역임
- 1999년 《한국화 - 동질의 회복전:새 천년을 향한 도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2년 《부산미술의 조형적 계보찾기Ⅳ전》(부산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4년 《제1회 공주국제미술제》대상 수상
- 2005년 《새천년 한국화비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제17회 한국화동질성전》(부산문화회관)에 참여
- 2008년 《부산미술 80년 부산의 작가들》(부산시립미술관)에 참여
- 《안상철 미술관 개관기념전》(경기 양주, 안상철미술관)에 참여
- 《정년기념 김수길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 개최
- 2009년 《한국미술의 오늘전》(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참여
- 2015년 《한중남미미술교류전》(부산, 영화의전당)에 참여
- 《부산의발전전》(부산시립미술관)에 참여
- 2018년 《아주특별한해후Ⅰ》(대전, 대전갤러리)에 참여
- 제15회 공주국제미술제》(공주, 임림미술관)에 참여
- 2019년 《한국화 새로운 형상의 지평을 넓히다》(서울, 자하미술관)에 참여
- 2024년 《원로작가 2인 초대전》(대전, 대전평생학습관 대전갤러리)에 참여

12 《창립 현대화회전》에는 김수길, 이철자, 이관중, 최영애, 박선희, 원인순, 이재진, 모원주, 김계현, 성창경, 송수연, 신박준 등이 참여했다.

김용민 (金容民, 1943~2021)



김용민, 〈FLOWER〉, 1995, 캔버스에 아크릴, 60.6×72.7cm(출처: 『오원퍼랑 초대 김용민展』, 대전 오원퍼랑, 1995)

1943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한 김용민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해 동양화를 전공했다. 1970년 대학 졸업 후 평택 한광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지내다가, 교직을 그만둔 후에 서울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했다.¹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개념미술 작품과 ‘이벤트’에 주력한 김용민은 1973년 《제3회 S.T 회원전》부터 현대미술 연구그룹인 S.T(Space and Time) 회원으로 활동하며 주로 이벤트를 선보였

다. 김용민은 그룹 활동과 더불어 《에콜 드 서울》, 《앙테팡당전》, 《대구현대미술제》 등 대규모 단체전에 참여했다. 특히 1979년 《제15회 상파울루비엔날레》에 초대작가로 참여해 이벤트를 발표했다. 당시 활동 중에서 1976년의 한 이벤트에서 김용민은 샌드 페퍼를 화랑 벽에 붙인 뒤 그 위에 붓을 여러 차례 문질렀고 그러다가 붓이 얼마 되지 않아 거의 닳아 버리자, “붓이 그랬나? 뽀빠(샌드 페퍼)가 그랬나?” 하고 자문한 뒤에 원래 앉아 있던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이벤트를 보여주었다.²

1980년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부상한 김용민은 1982년 서울미술관 기획으로 전시 평론가 11인이 선정한 《'81 문제작가 작품전》에 선정될 정도로 실험적인 활동을 펼쳤다. 1981년 서울 관훈미술관에서 개최된 첫 개인전에서는 상당히 실험적인 경향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 개인전 당시 김용민은 구조가 파괴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파괴된 구조가 새로운 형식의 구조로 제시되는데, 그것이 작품의 새로운 요소라고 해석했다.³ 이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꽃을 소재로 색과 평면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일련의 실험 작업을 했다.⁴

1 『[윤진섭의 비평프리즘] 말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고 김용민(1943-2021) 선생의 삶과 예술 I』, 『서울문화투데이』(2021. 11. 18).

2 위의 기사.

3 『김용민 첫 개인전』, 『동아일보』(1981. 4. 17).

4 『[윤진섭의 비평프리즘] 말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고 김용민(1943-2021) 선생의 삶과 예술 II』, 『서울문화투데이』(2021. 12. 8).

예민하고 진지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진 김용민은 인맥과 학맥이 난잡하게 얽혀 파벌화된 당시 화단 현실에서 멀어지며 1986년 서울 후화랑에서 가진 개인전을 끝으로 서울을 떠나 고향인 충남 논산시 연산면으로 가서 생활했다. 고향에 머물던 김용민에게 후배들이 찾아가 독려한 끝에 1994년 꽃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표현한 《꽃》 시리즈는 꽃의 형상을 분해하고 재배치하는 작업을 통해 개념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이미지가 충만하게 표출된 평면 작품들이다.⁵ 이 시기 김용민의 작품 속 꽃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불이나쟁반 등에 찍힌 익숙한 도상이지만 이름을 모르는 꽃 이미지가 활용되었다. 이러한 단순한 형태의 꽃들은 직사각형·삼각형·원 등으로 기하학적으로 구획된 면 위에 표현되었으며, 《꽃》 시리즈는 ‘꽃’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순수미를 매우 단순한 형태로 표출함으로써 보는 이의 감정에 따라 다르게 느끼도록 시도한 것이었다.⁶

김용민은 S.T그룹에서 활동하며 이견용, 성능경 등의 작가와 함께 전위적인 ‘이벤트’를 선도한 작가로, 수집 회의 국내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1970년대 초 한국 모더니즘을 이끈 일련의 작가 중에서 매우 뛰어난 역량을 지닌 작가로 평가받는 김용민은 서해병원에서 20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21년 향년 79세에 작고했다.

연보

- 1943년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출생
- 1970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동양화 전공) 졸업
- 1974년 《제1회 서울 비엔날레》(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양태광당전》(국립현대미술관)/《대구현대미술제》(대구 강정)에 참여
- 1974~1977년 《S.T 회원전》(서울)에 참여
- 1975년 《'75 오늘의 방법전》(서울, 백록화랑)에 참여
《3인의 이벤트 쇼》(서울, 그로리치화랑)에 참여
- 1976년 《4인의 이벤트 쇼》(서울, 서울화랑)에 참여
《이벤트로지칼》(서울, 신문회관)에 참여
- 1976~1981년 《서울현대미술제》(서울)에 참여
- 1977~1981년 《에콜드서울》(서울)에 참여
- 1978년 《한국 현대미술 20년의 동향》(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제4회 대구현대미술제》(대구)에 참여
이벤트 쇼 《선의 해방과 무한대의 공간》(대구 냉천)에 참여
《제1회 전북현대미술제》(전주, 전북예술회관)에 참여

5 「김용민씨 8년 만에 개인전」, 『한겨레신문』(1994. 9. 13).

6 유근영, 「전시 서문」, 『오원화랑 초대 김용민展』(대전 오원화랑, 1995).

- 1979년 《제15회 상과울루비엔날레 국내작가 선정전》(서울, 원화랑)에 참여
 《제15회 상과울루비엔날레》(브라질 상과울로)에 참여
 《제5회 대구현대미술제-내일을 모색하는 작가들, 한국과 일본》(대구)에 참여
 이벤트 쇼 《이벤트 홀라워》(대구) 개최
- 1980년 《'80 현대작가 36인전》(서울, 관훈미술관)에 참여
 《한국 판화드로잉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1년 《개인전》(서울, 관훈갤러리) 개최
 《신촌의 겨울》(서울, 예연제)에 참여
- 1982년 《'81 문재작가 작품전》(서울미술관)에 참여
 《NOW 그룹 창립전》(서울, 관훈미술관)에 참여
- 1983년 《한국현대미술전-70년대 후반, 하나의 양상》(일본 5대 도시 순회)에 참여
- 1984년 《한국 현대미술 귀국전: 70년대, 하나의 양상》(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86년 《개인전》(서울, 후화랑) 개최
- 1987년 《스톡홀름 아트페어》(스웨덴 스톡홀름)에 참여
 《'87 수화랑 기획: 평면과 오브제, 그리고 이미지》(서울, 수화랑)에 참여
- 1988년 《'88 올림픽 한국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4년 《개인전》(서울, 이십일세기화랑) 개최
 《21세기를 열며》(서울, 이십일세기화랑)에 참여
- 1995년 《개인전》(대전, 오원화랑) 개최
 《한국 미술 95, 質-量-感》(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6년 《개인전》(서울, 덕원미술관) 개최
- 2021년 79세에 지병으로 작고

심응섭 (沈應燮, 1943~)

호는 늘빛. 심응섭은 1943년 황해도 해주 수양산 자락 청풍동에서 6형제 중 차남으로 출생했다. 공직자였던 부친 덕분에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1945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 삼팔선 이북을 지배한 소련군정 하에서 재산을 몰수당하면서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냈다. 한국전쟁 중 1.4후퇴 당시 폭탄을 타고 연평도를 거쳐 서산에 정착했다. 전쟁 중 나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서령중학교에 겨우 진학했다.

붓을 잡게 된 것은 부친의 영향이 컸다. 백일장에서 장원을 할 정도로 소질이 있었던 아버지를 따라 글씨를 쓰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중학교 시절 경필 시간에 갈물 이철경의 교본으로 펜글씨를 처음 배우면서 붓을 잡았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일종 김충현의 교본을 놓고 쓰면서 글씨의 아름다움을 느꼈다.¹ 이때 연습했던 글씨 덕분에 입대 후, 차출시험에 합격하면서 육군부사관학교에 입교하였다.

1966년 《제3회 전남도립미술전》에 입선하면서 서예에 입문하였다. 이후 서예의 불모지였던 서산에 정착해 서령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으며 지역 서예 문화발전에 이바지했다. 그동안 중앙무대로 나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제2의 고향인 서산에서 후진 양성에 힘 쓰는 것이 더 보람있는 일이라고 판단해 고향을 지킨 것이다. 이러한 심응섭의 태도는 “고향에 남아서 향토문화를 살찌우는 사람들의 노고가 가상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²

심응섭은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한 의식이 퇴색돼가는 60년대 후반부터 일관되게 한글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한글 서예를 일궈나갔다. 1999년에는 북경에서 30여 점의 작품들을 모아 《한글서예전》을 개최했으며, 이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도쿄, 베를린, 모스크바 한국문화원에서 한글서예전을 개최했다. 심응섭의 한글서예를 본 북경 중앙미술대학 교수인 송원문은 심응섭의 작품을 두고 “점과 선, 호탕함과 세밀한, 성김과 팽팽함, 질움과 담백함, 마름과 눅눅함과 같은 다양한 조합들이 붓끝을 통해 호쾌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³



심응섭, 〈추억〉, 2003, 종이에 먹, 62×62cm, 작가 제공

1 『서예 불모지 서산에 서예 씨를 뿌린 한글 문자조형박물관 관장 늘빛 심응섭 작가』, 『서산시대』(2022. 9. 1).

2 『함백 고장, 문화의 원장을 찾아, 서산』, 『경향신문』(1982. 12. 18).

3 송원문, 『예술과 인품의 아름다운 조화-심응섭 선생의 북경 작품전을 보고』, 『문자예술』(1999. 12), pp. 38~39.

연보

- 1943년 황해도 해주 수양산 청풍동 출생
- 1963년 공주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 1966년 《제3회 전남도전》입선
- 1971년 전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1972~1984년 서령고등학교 교사 제직
- 1975년 《한·중·일 국제 서예문화교류전》(서울신문회관)에 참여
《한글서예연구 발표전》(서울미술회관)에 참여
- 1977년 전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졸업
- 1979년 《홍명미술관 초대전》(홍명미술관)
- 1979~1983년 서산문화예술인협회 회장 역임
- 1979~1997년 순천향대학교 서예지도 교수 역임
- 1982년 《한글서예전》(서산문화원)에 참여
- 1984년 《한·중 서화작가 통일서화전》(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참여
- 1989년 《지방서예가 초대전》(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 참여
- 1990~1993년 충남서예가협회 회장 역임
- 1992년 대통령 표창
- 1996년 《한글만포 550주년 기념한글·서예 오늘과 내일 초대전》(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 1999년 《북경초대전-심응섭 서화전》(북경 아시안 선수촌 캐딕프라자 호텔)에 참여
- 2000년 《도로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초대전》(도로, 한국문화원)에 참여
- 2001년 전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졸업
《베를린 주독 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 초대전》(베를린 주독 한국대사관)에 참여
- 2003년 《모스크바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 초대전》(모스크바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 2007년 《제1회 서예문화 서예축전》(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 2007~2008년 《고암 이용노 기념사업회 창립기념 아름다운 한글 심응섭 글씨전》(수덕사 선미술관)
- 2008년 《겨레의 열 아름다운 한글전(독립기념관 임시정부전시관)에 참여
《순천향대학교 건학 30주년기념 심응섭 작품기증전》(순천향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시실)에 참여
대한민국 녹조근정훈장 서훈
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 2010년 《수덕사 선미술관 초대-고암 이용노와 늘빛 심응섭 만남전》(수덕사 선미술관)
《현대한글 서예의 변주 15인전》(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 참여
- 2024년 《제2회 서화명가초청국제전》(인사동, 한국미술관)에 참여
문자조형박물관(충남 예산) 관장 취임

민복기 (閔復基, 1944~)

호는 송암(松巖). 1944년 충북 청원군에서 태어난 민복기는 한학자였던 조부에게 한문을 배우면서 붓을 잡았다. 조치원(현 세종시)에 오기 전 고등학교 때부터 20년 동안은 서울에 거주했으며, 출판사에 근무하며 『현문대옥편(玄文大玉篇)』 발간 작업에 참여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거주한 조치원은 민복기에게 제2의 고향이다. 이는 '도화서재주인(桃花書齋主人)'이라는 당호에서 보듯 북송아의 고장인 세종시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깊게 배어있다. 1982년부터 '필봉회(筆鋒會)' 조직을 시작으로 지역의 서예문화 창달에 힘썼으며, 1985년 조치원에 한국예총 조치원지부가 태동하는데 소설가 백용운과 함께 산파역을 했다. 1988년 조치원에 송암서예학원을 개설하였고, 2001년에는 서예를 통해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7회 연기군민대상(문화체육부문)을 수상하였다.¹

민복기의 서체는 대략 40여 가지로 이는 붓의 재료인 버드나무가지·짚풀·대나무·침 등에 따라 다양하다. 오래전부터 문자의 시초인 갑골문을 연구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금문·전서·예서·행서·해서·초서·목간예서·해행서·추사서체 등 총 10가지 서체로 천자문 전문을 자획한 『10체 천자문』을 발간했다.

이 책은 '서예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서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민복기는 국내를 넘어 일본, 대만, 중국 등 해외 여러나라와의 교류전에 참가하면서 서예를 통한 민간외교에도 앞장섰다. 1996년에는 중국 정부가 추천한 《황하비림수묵전》에서 현대 1000인의 명필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3년에는 '국제서화예술명인(國際書畫藝術名人)' 제1호 자리에 올랐다.



민복기, 〈용(龍)〉, 2021, 종이에 먹
〈출처: 『그, 묵묵히 걸어온 길』, 세종특별자치시지회, 2021〉

¹ 『세종시 원로서예가 송암 민복기 선생』, 『세종스토리』(2014. 2. 17).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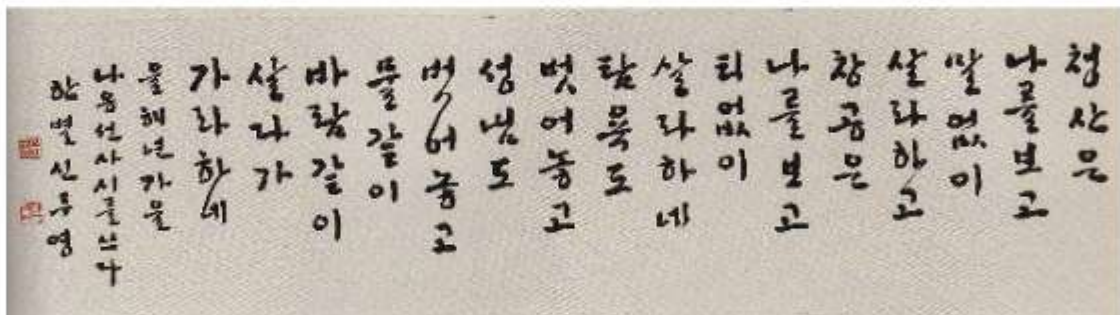
- 1944년 충북 청원군 미원면 출생
- 1974년 『현문대옥편(玄文大玉篇)』(현문사) 발간
- 1982년 '필봉회(筆鋒會)' 조직
- 1988년 송암서예학원 개설
- 1993년 《대동서가회전》(서울, 수목화랑)에 참여
- 1996년 《황하비림수묵전》에서 현대 1000인의 명필가에 선정
- 2001년 제7회 연기군민대상(문화체육부문) 수상
- 2003년 '국제서화예술명인(國際書畫藝術名人)' 제1호 수상
- 2013년 『10체 천자문』(이화출판문화사) 발간
- 2021년 세종미술협회 특별 기획전 《그, 묵묵히 걸어온 길》(세종비오케이아트센터 갤러리)에 참여

신두영 (申斗榮, 1944~)

호는 일우(一牛). 1944년 충청남도 보령에서 출생한 신두영은 한글 서예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작가다. 일찍이 한국적 서예의 모색에 힘을 기울여 한국 고유의 감정과 정신을 담아낸 작업을 시도했다. 특히, 한국적 특수성을 뚜렷하게 지니고있는 문자인 ‘한글서예’의 예술화에 주목하여 1977년 《제26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오우가(五友歌)〉, 《제28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관동별곡〉을 출품해 각각 문공부장관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두 작품 모두 ‘김충현 한글궁체 서풍을 따른 흘림체’로 광복 이후 학교 교육과 서예가들의 연구를 통해 서예의 한 분야로 확립되었던 한글 서예의 맥을 잇고 있다.¹

신두영은 한국 근·현대 서예의 흐름을 주도했던 국전 서예부에서 수상함으로써 1978년 제정된 원곡서예상의 1회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국제현대서예전》과 《한국서예100인초대전》에 참여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독립기념관에 있는 〈만해 한용운선사비〉, 〈안중근의사 어록비〉, 〈남강 이승훈선생 어록비〉에 한글 글씨를 썼으며, 봉평 이효석 생가에 있는 〈메밀꽃 필 무렵 비〉, 국립 현충원의 〈김영삼 대통령 묘비〉에도 한글 서예를 남김으로 한글 서예의 예술성을 확장해가고 있다.



신두영, 〈나용운선사시〉, 1996, 34×135cm(출처: 『한글 서예의 오늘과 내일』, 예술의 전당, 1996)

¹ 전성모, 『전람회를 통해 본 한국 근·현대 서예의 전개와 양상』, 『미술관에 묻는 한국 근현대 서예전』, (국립현대미술관, 2020), p. 378.

- 1944년 충청남도 보령 출생
한국의국어대학교 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한문학 석사
- 1977년 《제26회 대한민국미술대전》〈오우가(五友歌)〉로 문공부장관상 수상
- 1978년 제1회 원곡서예상 수상
- 1979년 《제28회 대한민국미술대전》〈관동별곡〉으로 국무총리상 수상
- 1984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서예: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문교부) 발간
- 1985년 《제12회 열상서단전(淸上書壇展)》(백악미술관)에 참여
《한일서예교류전》(미술회관)에 참여
- 1987년 《국제현대서예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서예』(우일출판사) 발간
- 1988년 《국제현대서예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제2회 일월서단회 회원전》(백악예원)에 참여
- 1989~1991년 《'89, '91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2년 《한국서예100인초대전》(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 참여
- 1994년 《'94 서울서예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서울주제 서예큰잔치》(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 참여
- 1997년 《제2회 문자와이미지전》(대전, 한림미술관)에 참여
- 1999년 《밀레니엄 패션아트전》(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 참여
- 2018년 《원곡서예상 수상작가전》(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 참여
- 2024년 《봄이 되는 글》(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 참여

강관욱(姜寬旭, 1945~)

1945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출생한 강관욱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72년 《대학미전》에서 〈풍요〉로 은상을, 1976년 《제25회 국전》에서 〈귀향〉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후 1977년부터 1979년까지 《국전》에서 연이은 특선 수상으로 1980년 국전 추천작가로 선정되었다.

1982년 전남대학교 미술과 전임강사로 부임했으나 작품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1991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부교수 자리를 사임하였다. 사임 후 바로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바닷가에 내려가 임시로 비닐하우스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작업을 하였다. 이후 1992년 충남 태안 바닷가로 작업실을 옮겨 2001년까지 약 10년간 작업을 하던 중 백리포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2004년 작업실을 서산시 해미면 가야산으로 옮겼다.

강관욱은 어떤 형태의 작업을 하든지 먼저 장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 투철한 조각가다.¹ 작가는 “서구미술에 도취되어 우리 것을 잃어 가는 미술 풍토에 회의를 느껴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의 자양분으로 자생하는 조각을 할” 결심으로 조각을 전공했다.²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출발하는 강관욱은 우리 전통 석조를 계승 발전시켜 한국의 정서와 정신이 담긴 한국인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척박한 사실을 내포한 조각 유산을 남기겠다는 일념으로 작품 제작에 정진하였다.

강관욱은 자생조각(自生彫刻)을 통해 배관한 면을 강조하는 서구식 조각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정으로 끊임없이 쪼아 전통적인 화강암의 우돌투돌한 질감을 살림으로써 정감있고 탄력있는 표현을 연출한다.³ 아울러 서구적인 인체 비례가 아니라 한국인의 인체 비례에 바탕을 둔 한국적인 조각을 구현하고 있다.⁴ 한국인의 미의식과 미감에 따라 얻어지는 한국인상을 정립하겠다는 강관욱의 석조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치밀하고 전문적인 노동의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물



강관욱, 〈구원91-15〉, 1991, 청석, 46×56×24cm, 작가 제공

1 신항섭, 『한국 사실조각의 새로운 지평, 강관욱의 자생조각』, 『강관욱 자생조각전』(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1996).

2 아르코 예술기록원 강관욱 블로그 <https://www.art500.or.kr/blog/kangkwonwook.do>.

3 장석현, 『자생조각과 구원의 메시지』, 『강관욱 자생조각전』(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1996).

4 신항섭, 앞의 글.



강관욱, 〈구원 95-12〉, 1995, 테라코타, 46 × 36 × 72cm. 작가 제공

이다. 작가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물 조각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로 인해 자연스러운 포즈와 표정을 얻을 수 있었다. 대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사실을 넘어 내면의 감동과 영혼의 울림을 작품에 담고자 한다. 인체 외 자연물인 파도 역시 조각의 대상으로 포착해 입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생조각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강관욱은 예술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구원이어야 한다’고 믿고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구원과 함께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기를 희망하며 《구원》 연작을 꾸준히 선보였다. 삶의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지극히 인간적인 면을 사실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작가 스스로 나아갈 길을 깨닫고 보다 확장된 조각 개념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다.⁵

화강암보다 단단한 오석을 재료로 활용해 부드러운 형태로 바꾸는 강관욱의 작품은 언제나 따스한 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평가된다. 1981년 첫 개인전에서 〈망부석〉, 〈길〉, 〈생〉, 〈아지랑이〉, 〈상흔〉 등 《소복》 연작을 통해 한국 여성의 정한을 표현했다. 1985년 두 번째 개인전에서는 《소복》 연작, 《구원》과 《화물》 연작을 새롭게 선보였다. 보자기에 묶여 타의에 의해 행동에 제약을 받는 구속과 부자유를 표현한 《화물》 연작은 진정한 자아의 회복을 역설적으로 해석한 작품이다. 가장 오래 제작되고 있는 《구원》 연작은 현실세계에서 구원의 세계로의 승화를 의미한다. 1996년 11년 만에 연 개인전을 통해 당시 작품을 ‘자생조각 모색기’로 정의하였다.⁶ 이후 2000년 11월 이종섭미술상 수상 기념전(조선일보미술관)에서 포착된 순수형태, 민족의 여명, 민초 등으로 자생조각의 절정을 선보였다. 출발은 석조였으나 점차 영역을 흙의 순수성을 살린 테라코타와 브론즈, 판화, 스케치 등으로 확장하며 일관되게 자생 조각을 해오고 있다.

조선업을 하는 부친 덕에 바다 근처에 살았던 강관욱은 진도 임회면 바닷가, 충남 태안 백리포 바다를 거쳐 현재 전북 진안 용담호반으로 작업실을 옮겨 자생조각을 제작하고 있다. 화강암과 대리석을 주재료로 사용하면서 작품 하나에 수천만 번 이상 정으로 쪼거나 다듬는 작업을 수행하는 까닭에 다작을 하지 않는 작가이다.

연보

· 1945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출생

⁵ 장석원, 앞의 글.

⁶ 강관욱, 『자생조각을 꿈꾸며』, 『강관욱 자생조각전』(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996).

- 1972년 《전국대학미전》에서 〈풍요〉 은상 수상
- 1975년 홍익대학교에서 조각 전공으로 졸업
- 1976년 《제25회 국전》에서 〈귀함〉 국무총리상 수상
- 1977년 《한국 구상조각회 창립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제25회 국전》 특선 수상
- 1979년 《제28회 국전》 특선/《한국미술 오늘의 방법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81년 《제1회 강관옥 석조각전》(서울, 미술회관) 개최
- 1982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전임강사로 부임
- 1985년 《제2회 강관옥 석조각 초대전》(서울, 롯데백화점 롯데미술관) 개최
- 1987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 1989년 《80년대의 형상미술전》(서울, 금호미술관)에 참여
- 1990년 《개관 4주년 기념 초대전: 우리시대의 표정-인간과 자연전》(그림마당민)에 참여
- 1991년 전남대학교 교수 사직, 전업작가로 전향
《그림마당 민 개관5주년 기념 초대전: 우리시대의 표정》에 참여
- 1992년 《90년대 우리 미술의 단면전》(서울, 가람화랑/ 갤러리 상문당 등)에 참여
- 1995년 《통일염원의 조각전: 광복 50주년 미술의 해 기념》(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6년 《제3회 강관옥 개인전: 자생조각전》(서울, 예술의전당) 개최
- 1998년 《아라리오화랑 개관9주년 기념 기획전-강관옥 · 황창배전》(천안)에 참여
- 1999년 제11회 이중섭미술상 수상
- 2000년 《제11회 이중섭미술상 수상기념 개인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 개최
- 2003년 《한국현대조각 특별전: 조각이란 무엇인가》(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한국미술 2003: 진경-그 제안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2004년 《한국 석조각의 흐름전》(서울, 갤러리 도원)에 참여
- 2005년 《김창희 · 이원종 · 강관옥 · 국경오》(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2006년 《세봄 신작전》(청작화랑)/《우리 시대의 얼굴전》(김해문화의전당)에 참여
- 2007년 《어디에서 보아도 나는 모악이다》(전북도립미술관)에 참여
- 2008년 《이중섭 미술상 20년의 발자취-역대 수상작가 20인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에 참여
《불의 노래》(경남도립미술관)에 참여
- 2009년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특별전》(이천종합운동장)에 참여
《한국현대조각의 흐름과 상상》(경남도립미술관)에 참여
- 2010년 《2010광장조각-인체에 대한 현대적 해석전》(경남도립미술관)에 참여
- 2011년 《윤봉길 문화축제기념 전국조각가 특별초대전》(서울, 윤봉길의사기념관)에 참여
- 2013년 《삶-이야기조각회20주년기념전》(서울, 청작화랑)에 참여
- 2015년 《1980년대와 한국미술》(전북도립미술관)에 참여
- 2016~2017년 《조형아트서울》(코엑스D홀)에 참여
- 2018년 《이중섭미술상 30년의 발자취-역대수상작가전》(서울, 조선일보 미술관)에 참여
- 2019년 《김윤수선생 1주기 추모 특별전》(서울, 가나아트 옥션하우스)에 참여
- 2023년 《도표전: 전북에서 피어오른 불씨들》(전북도립미술관)에 참여
- 2024년 고창 동학농민혁명 조형물 〈수탈당한 가족〉상 제작 설치

강관옥(姜寬玉, 1946~1988)



강관옥, 〈전설 A-2〉, 1977, 캔버스에 유채, 181×146.5cm, 천안시립미술관, 〈제26회 국전〉 특선작

1946년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에서 출생한 강관옥은 1950년 전쟁이 일어나자 가족과 함께 천안 분화동으로 피난을 오면서 천안에서 성장했다.¹ 천안 중앙국민학교, 천안중학교를 졸업했으며,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의 권유로 서울의 홍익공업고등전문학교(현 홍익공업전문대학)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미술공부를 시작했다.

이 무렵 동년배 문학도 박광수, 한연임, 미술학도인 박인희, 임승소 등 10여 명과 하엽회(河葉會) 결성을 주도하여 1964년 10월 천안 돌다방에서 《하엽회 창립전》을 열었다. 창립 기념으로 시화전을 개최한 이후, 1965년 5월 《제2회 하엽회전》은 천안문화원에서, 1966년 《제3회 하엽회전》은 돌다방에서

열었다. 한편 1965년 첫 개인전으로 《강관옥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카메라를 늘 친구처럼 가까이 했다.²

이후 강관옥은 카투사에 복무하며 미군들이 보는 잡지나 각종 책자 등을 통해 서구에서 유행하는 미술사조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다. 1970년 한국관화협회 주최로 국립공보관에서 열린 《'70 판화공모전》에 〈제야〉를 출품해 특선을 차지하는 등 강관옥은 다양한 매체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다.³ 전역 후 강관옥은 국전을 비롯해 각종 공모전과 1976년 결성된 천안미술협회의 창립 회원으로 참여하며 작품을 발표했다.

1972년 제21회부터 1975년 제24회까지 국전 서양화 비구상 부문에 〈No 9-기억(記憶)〉, 〈A-74 전설(傳說)〉, 〈작품13 비(秘)〉로 3회 연속 입선하고, 1977년 《제26회 국전》에서 〈전설 A-2〉로 천안에서 활동하는 작가로는 처음으로 특선을 수상했다. 1977년 10월 31일, 천안문인협회와 천안미술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1회 천안문화의 밤'에서 국전에서 특선한 강관옥과 시집을

1 강관옥에 대한 해제문은 천안시립미술관·김달진미술연구소, 『천안미술사 2022년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김달진미술연구소, 2022)와 『천안미술 1951-1989: 기록과 기억으로 말한다』(천안시립미술관, 2024)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2 천안시립미술관·김달진미술연구소, 위의 보고서, p.138. 무인 이정남과의 인터뷰 내용 참고.

3 『국립 공보관서 판화 공모전』, 『경향신문』(1970. 8. 12).

피넨 양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을 정도로 특선 수상은 천안 지역 미술인들계의 큰 기쁨이었다.⁴

이렇게 강관옥은 국전을 무대로 활동하면서 천안 지역의 대표적인 추상화가로 이름을 알렸다. 이 시기 천안에서 활동하던 작가들 대부분이 향토적인 정감의 구상 작품을 제작하고 있었던 데 비해, 강관옥은 추상미술을 도입해 천안화단에 추상미술의 흐름을 이끌었다.

1974년 제23회 국전에서 입선한 〈A-74 전설〉은 모노톤의 화면 중앙에 철로 이루어진 이미지가 부착되어 있다. 노란빛이 섞인 녹색 바탕의 불균형한 질감이 다소 투박한 인상을 주지만, 원과 직사각형의 기하학적 도형이 시선을 끌며 긴장감을 형성한다.⁵



강관옥, 〈추상(追想)〉, 1985(출처: 『서산·천안 한국미술협회전』 브로슈어)

천안시립미술관에 소장된 1977년 작 〈전설 A-2〉는 《제26회 국전》 서양화 제2부에서 특선한 작품으로, 검붉은 색이 지배적인 추상작품이다. 1974년작 〈A-74 전설〉처럼 중앙 집중적인 화면이지만, 화면 전면에 마치 소용돌이 문양처럼 일정한 크기로 패턴화된 사각형이 시각적 리듬감을 부여한다. 어찌 보면 백제 무녕왕릉 내부를 장식한 전돌같은 연속적인 문양이 독특한 느낌을 준다.

1970년대 국전에 입상한 강관옥의 작품 제목들을 보면 ‘기억’, ‘전설’, ‘비(秘)’, ‘비기(秘記)’처럼 과거를 회상하거나 비밀을 내포한 제목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8년 국전 서양화부 비구상 부문에 〈비기(秘記)〉로 입선한 이후 강관옥은 더 이상 국전에 출품하지 않는 대신, 한국미협 천안지부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1980년대 천안지부전에 출품한 작품들은 ‘추상(追想)’ ‘환청(幻聽)’ 같은 제목을 붙였다. 1985년 《서산·천안 한국미술협회전》에 출품한 〈추상〉을 보면, 흑백도판만 남아있어 정확한 색채와 형태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고대 암각화에 등장하는 도상처럼 단순화된 사람형태가 보인다. 강관옥은 이렇게 추상성이 강한 작품에 제목을 통해 문학성을 부여했다. 이러한 면은 작가가 학창시절부터 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988년 42세의 나이로 요절하기 전까지 강관옥은 천안과 서울을 오가며 사진, 판화, 포스터, 유화,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했다. 1974년경부터 천안문화원에 재직하며 추상미술을 도입하는 등 강관옥은 천안화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강관옥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그가 세상을 떠나자, 천안문화원에서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4 천안박물관, 『문화예술도시 천안을 꿈꾸다-천안시 승격 50주년 기념 특별전』(천안박물관, 2013), p. 25.

5 『천안미술 1951-1989: 기록과 기억으로 말한다』(천안시립미술관, 2024), p. 30.

연보

- 1946년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에서 출생
 - 1953년 이후 천안 중앙국민학교 졸업, 천안중학교 졸업
홍익공예고등전문학교 입학
 - 1964년 《하열회 창립전》(천안, 돌다방) 개최
 - 1965년 《강관옥 사진전》/《제2회 하열회전》(천안문화원) 개최
 - 1966년 《뉴-슈가 상품공모전》 1등
 - 1967년 《미한 대령양 군단 미술제》 대상/《사진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천안시화동인 창립전》에 참여
 - 1970년 《'70 관화공모전》에 〈제야〉 특선
 - 1972년 법무부 주최 《포스터공모전》에 장관상(대상) 수상
《제21회 국전》서양화 비구상부분에 〈no.9 기억〉 입선
 - 1973년 《제1회 관화양테랑당전》에 참여
 - 1974년 《천안미술인협회 창립전》(천안시교육청 구관)에 〈잔영〉, 〈해후〉, 〈제야-1〉 출품
《제23회 국전》에 〈전설 A-74〉 입선
 - 1975년 《제24회 국전》에 〈작품 13 비(秘)〉 입선/ 충청남도 경찰국장 감사장 사회부문 수상
《인영선 · 강관옥 작품전》(천안, 사랑방다실) 개최
 - 1976년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창립전》(천안, 백궁다방)에 참여
 - 1977년 《제26회 국전》서양화부에 〈전설 A-2〉로 특선
《제2회 한국미협 천안지부 작품전》(천안문화원 화랑)에 전설A-1〉 등 출품
천안문화상 미술부문 수상/ 충청남도 도지사 감사장 지방문화발전부문 수상
천안문인협회 · 천안미술협회 주관, '제1회 천안문화의 밤(천안, 한일다방)' 감사패 수여
 - 1978년 《제27회 국전》에 〈비기(秘記)〉로 입선
《동화관화비엔날레》에서 특선 수상
 - 1981년 동아일보사 주최 《동아미술제》 초대작가
 - 1984년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초대전》(천안, 도술화랑)에 참여
 - 1985년 《서산 · 천안 한국미술협회전》(서산 문화원/ 천안, 도술화랑)에 〈추상(追想)-12〉 출품
 - 1986년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전》(천안, 미도백화점전시장)에 〈幻聽 I〉, 〈幻聽 II〉 출품
《제10회 아시안게임 성화분송맞이 경축 미술, 사진, 서화전》(천안, 과고다백화점)에 참여
 - 1987년 독립기념관 개관기념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초대전》(천안문화원)에 참여
 - 1988년 《한국미술협회 천안온양지부회원전》(천안문화원전시실)에 〈작품 88-1〉 출품
《제2회 천안삼거리 홍타령문화제기념 제12회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회원작품전》(천안시민회관)에 〈추상〉 출품/ 《천안미술인회 창립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작고

박봉춘 (朴鳳春, 1946~)

박봉춘은 1946년 충청남도 금산 출생으로, 1969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인 1968년 《제7회 신상전》(1968)에 출품해 신인예술상을 수상했으며, 대학 졸업 후에는 대전 대흥동에서 자연화실을 운영했다.

1970년대에는 공모전 출품을 통해 실력을 연마하면서 여러 미술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1971년 대전예총화랑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1975년 대전예총화랑에서 ‘기하학적 추상’이라는 타이틀로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1976년에는 대전문화원에서 열린 《홍대동문전》과 추상미술 그룹 ‘르뽀’

의 창립전에 참여하며 추상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했다. 《르뽀 창립전》에 출품한 〈깃발〉은 길이 10m, 폭 1.5m의 화선지로 화실 마룻바닥을 탁본한 다음, 배접한 작품을 전시한 것이다. 이는 한국적인 탁본 기법과 초현실주의의 프로타주 기법을 동시에 활용하면서도 추상표현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현실화시킨 작품으로 평가받았다.¹ 이후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 〈깃발〉 연작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82년 박봉춘은 《제12회 충남미술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충남 미술계에서 주목받았다. 1983년에는 대전문화원에서 《박봉춘·유근영 회화 2인전》을 개최했다. 〈깃발〉(1980)은 당시 2인전에 출품한 대표작이다.² 이 작품은 물감을 캔버스에 두껍게 올리고 굳힌 뒤, 물에 불려 떼어내는 실험적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물감을 떼어낸 후 화면의 비어있는 부분의 형상과 그 남겨진 흔적을 통해 자신의 창작 과정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한 화면에서 반복되는 비워낸 공간과 붓질을 추가한 형태 사이에서 발현되는 작가의 행위를 강조한 것이다. 박봉춘은 이 기법에 대해 “이런 기법은 다 혼자 터득한 겁니다. 작업하다 보면 다 찾아지는 거죠. 의도대로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라고 하며 제작 과정의 우연성에 관해 설명



박봉춘, 〈깃발〉, 1980, 캔버스에 유채, 145×145cm, 대전시립미술관

1 『대전현대미술의 태동 - 시대정신』(대전시립미술관, 2018), p. 73.

2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daejeon.go.kr/>



박봉춘, <타(打)>, 2009, 캔버스에 유채, 80.3×100cm(원처: 「박봉춘-일부이어라!」 브로슈어, 갤러리 썬리, 2011)

했다.³ 이후 1986년 창립한 추상미술 그룹 'OPUS'의 창립 멤버로 참여해 새로운 예술 방법론을 모색했다.

1990년대에는 대한민국미술대전과 동아미술제 등 전국 공모전에 꾸준히 출품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1994년 《제13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했으며, 매년 공모전을 통해 현대미술의 흐름을 파악하며 자신의 추상회화 기법을 심화시켰다.

2011년 박봉춘은 1983년 이후 30여 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개인전 《박봉

춘-일부이어라!》를 개최했다.⁴ 이 전시의 부제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일부로소이다”라는 뜻으로 박봉춘이 직접 붙인 것이다.⁵ 이 전시에서는 1970년대 초기작부터 2000년대 작품까지 전시기 작품세계를 총망라하면서, 새로운 작업방식까지 선보였다. 특히, 30여 년간 지속한 ‘물감 뜯어내기’ 기법을 통해 물감을 떼어내고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우연성과 창작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봉춘은 캔버스 위의 실험적 작업에 천착하며 단체전과 공모전을 통해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간 작가로, 지역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대전을 중심으로 충남 미술계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창작의 과정과 행위를 중시하는 작가로 평가받는다.⁶

연보

- 1946년 충청남도 금산 출생
- 1968년 《제7회 신상전》에 참여
- 1969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71년 《제1회 개인전》(대전, 충남예총화랑) 개최
- 1973년 《12인비구상전》(대전, 산강화랑)에 참여
- 1973~1976년 《홍대동문전》에 참여
- 1975년 《박봉춘-기하학적인 추상》(대전, 충남예총화랑) 개최
- 1976년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3 「[조성영]박봉춘·유근영의 2인 회화전」, 『충도일보』(2011. 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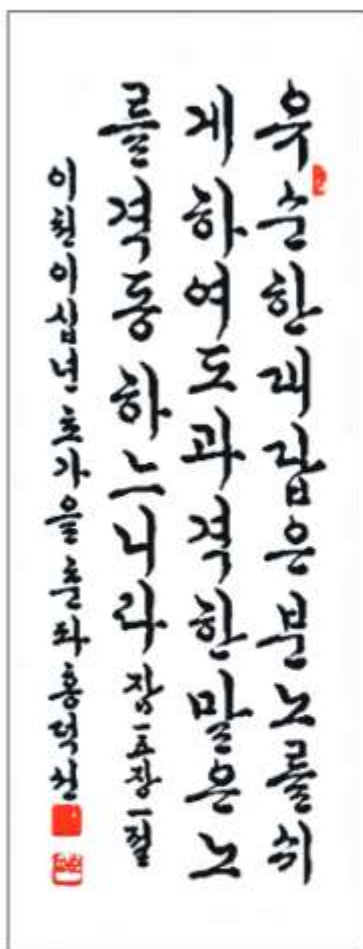
4 대전시립미술관 송미경 박에게서 박봉춘의 2011년 개인전 자료를 비롯해 여러 가지 단체전 자료를 제공해 주셨다.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송미경 선생님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박봉춘-일부이어라!」(갤러리 썬리, 2011) 브로슈어.

5 백준기, 「미완의 마족: 밀식(日蝕)」, 위의 브로슈어.

6 「박봉춘 개인전-일부이어라!」, 『대전일보』(2011. 3. 25).

- 1976년 《제3회 한국미술대상전》(한국일보사 주최)에서 입상
《르브르창립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78년 《현대작가 15인 초대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81년 《제7회 한국미술대상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2년 《제12회 충남미술대전》에서 금상 수상
- 1983년 《박봉춘·유근영 회화 2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84년 《현대화랑개관기념초대전》(대전, 현대화랑)에 참여
- 1986~1989년 《OPUS 창립전》(대전, 생인미술관)에 참여
- 1987년 《제3현대미술전》(대구시민회관)에 참여
- 1988년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의식표현 확장전》(서울, 백송화랑)에 참여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0년 《현대미술-새로운 형상전》(목포, 단원미술관)에 참여
- 1994년 《제13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
- 1995~1999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 1996년 《'96 동아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입선
- 2000년 《제19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
- 2011년 《박봉춘-일부이여라!》(대전, 향리갤러리) 개최
- 2013년 《대전미술아카이브 2013: 대전미술의 새 물결》(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14년 《소장품기획전-탈형상》(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15년 《열린미술관-대전미술의 보더니즘》(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 참여
- 2018년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20년 《광자진취-대전미술 다시쓰기 7080》(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21년 《행복열차(幸福熱茶)전》(대전, 이공갤러리)에 참여

홍덕선 (洪德善, 1946~2024)



홍덕선, 〈유순완 대답〉, 2022, 종이에 먹, 63×23cm(출처: 『홍덕선 장로 회수 서예전』, 브로슈어, 한국미술관, 2022)

호는 춘파(春坡). 홍덕선은 1946년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 금석리에서 출생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야 자동차와 기차를 처음 봤을 정도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두메산골에서 자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덕선의 집안은 곳곳에 지필묵(紙筆墨)이 있어 어린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글을 읽고 쓰며 자랐다.¹ 이런 집안 배경 덕분에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글씨를 익혔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군(郡)이나 도(道)에서 주최한 서예대회에 나가 여러 차례 상을 받았다.

1965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해 글씨를 잘 쓰는 특기를 발휘해 펜글씨 학원에 강사로 취직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펜글씨만 잘 쓰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 수강생 중에는 기업 임원도 많았다. 그러다 펜글씨가 아닌 붓글씨로 서예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1966년 원곡 김기승을 찾아가 글씨를 배우기 시작했다. 스승과의 인연은 군대를 들어가서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재직하면서도 계속되었다. 홍덕선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김기승의 집을 방문해 서예를 배웠다. 그 결과 1975년 처음으로 국전에 입선했다. 이후 수차례 입선과 특선을 수상했다.

이후 홍덕선은 10년간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예에 더욱 매진했다. 김기승이 소개해준 기업에서 서예를 가르치며 1980년 서울 인사동 예총화랑에서 한문각체를 비롯해 한

글체로 쓴 병풍·액자·족자 등을 가지고 《제1회 서예 개인전》을 개최했다.² 이후 2024년 작고하기까지 총 33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탁월한 조형미와 필선의 서예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던 홍덕선은 원곡 김기승을 사사하며 원곡체와 궁체 등의 한글 서예뿐만 아니라 한문 오체에도 정진했다. 특히 홍덕선은 원로 서예가로서 한국기독교서예협회 회장을 맡아 후진 양성에 힘썼다. 평생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1 『(여경의 열매) 홍덕선 〈1〉 "붓글씨로 말을 전하는 달란트 주심에 늘 감사", 『국민일보』(2016. 9. 6).

2 『홍덕선 서예 개인전』, 『경향신문』(1980. 4. 15).

서예가로 살아온 스승 김기승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홍덕선은 1986년 제9회 원곡서예상을 수상하였고, 1995년 제8회 기독교 문화대상을 수상했다. 기독교 문화 발전에도 큰 공을 세워 한국미술인선교회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기독교서예협회로 독립한 후에도 12년간 회장으로 사역했다.

연보

- 1946년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 금석리 출생
- 1965년 예산농업고등학교 졸업
- 1970~1980년 한국도로공사 재직
- 1975년 《제2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입선
- 1975~1996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사무국장 역임
- 1978년 《제2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입선
- 1979년 《제2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입선
- 1980년 《제1회 서예 개인전》(서울, 예총화랑) 개최
- 1982년 《제2회 서예 개인전》(서울, 예총화랑) 개최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 1984년 《홍덕선 서예전》(가치출판회관) 개최
- 1986년 제9회 원곡서예상 수상
- 1992년 《제7회 서예 개인전》(춘파서예전시실) 개최
- 1994년 《제2회 대한민국서예전람회》 특선
《제9회 서예 개인전》(운현궁미술관) 개최
- 1995년 제8회 기독교 문화대상 수상
- 1996년 서울시립미술관 초대작가 역임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 역임
- 1997~1999년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2016년 《한국기독교서예협회전》(백악미술관)에 참여
- 2020년 《제30회 춘파 서예전》(한국미술관) 개최
- 2022년 《제32회 춘파 회수 서예전》(한국미술관) 개최
- 2023년 《제33회 춘파 홍덕선 서예전》(한국미술관) 개최
- 2024년 작고

민종식 (閔鍾植, 1947~)



민종식, 〈소년상〉, 1989, 화강암, 161×130cm(출처: 『한국미협 천안지부 100호전』, 천안문화원, 1989)



민종식, 〈세 번째 보내는 편지〉, 1997, 화강암, 크기 미상(출처: 『제22회 천안지부전』, 천안시민회관, 1997)

1947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출생한 민종식은 어려서부터 돌, 진흙, 나무 등으로 만들기를 좋아했다.¹ 그림도 곧잘 그려서 국민학교 사생대회에 학교 대표로 자주 참가했다. 천안중학교 재학시절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서양화가 이지휘를 통해 다양한 미술작품을 접한 민종식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최종태(1932~)의 조각 작품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후 천안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만난 최종태는 민종식이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1968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에 입학한 민종식은 전퇴진과 김정숙 교수로부터 조각 수업을 들었다. 대학교 재학 중이던 1973년과 1974년 《목우회 공모전》에 거듭 입선을, 1974년 《대학미전》에서 〈꿈꾸는 여인〉으로 특선을 수상하며 작가로서 역량을 인정받았다.

1990년 당시 천안미협에 가입한 유일한 조각가였던 민종식은 인체에 줄곧 관심을 보였다. 인체 해부학적 작업부터 등신대 크기의 인체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험을 지속했다. 이에 대해 작가는 “예술은 진솔한 인간 내면의 세계를 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느끼는 절박함과 최대의 기쁨에 찬 희열은 상반되지 않고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내적 감동의 표현을 조형적 요소로 나타내어 스스로의 미로써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간애를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라고 인체에 천착하는 배경을 설명하였다.² 분석적이거나 의도적인 힘과 균형의 비례를 조형적인 면에서 감성적으로 되살리는 작가

1 민종식에 대한 해저문은 작가와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전화 인터뷰: 2024. 9. 6).

2 『내고장 문화예술인 조각가 민종식』, 『천안문화』(1990, 11), pp. 51~52.

의 작품 기저에는 '그리움'과 '사랑'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그리움에 대한 표현은 단단한 화강암을 사용해 곱게 접은 종이의 부드러움을 구현한 《편지》 연작으로 연결되었다. 이어 굴림쇠를 활용한 조형적 변주를 시도한 작가는 마을 어귀에 서있던 천하대장군·지하여장군과 같은 장승을 주제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민중식은 1970~1980년대 천안 청년예술인의 구심점 역할을 한 조각가로, 1974년 천안과 아산의 미술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천안미술인협회'의 회장으로 모임을 이끌었다. 1988년 천안지역 미술인과 지역미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천안미술인회'를 창립, 천안미술인회의 초대회장으로 같은 해 9월 천안시민회관에서 창립전을 개최했다.³ 천안미술인회 회장의 임기가 끝나자 곧이어 1990년에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장을 맡았다. 민중식은 조각 전공자가 드물었던 천안에서 차가운 화강암을 소재로 따뜻한 조각 작품을 만들며 천안 미술계의 단합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연보

- 1947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
- 1968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 입학
- 1973~1974년 《제9·10회 목우회공모전》 연속 입선
- 1974년 《대학미전》에 〈꿈꾸는 여인〉 특선 수상
《천안미술인협회 창립전》(천안시 교육청 구관, 초대회장 역임)
- 1976년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창립, 초대회장 역임
- 1986년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경축 미술·사진·서화전》(천안, 파고다백화점)에 참여
《창립10주년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회원전》(천안, 미도백화점)에 참여
- 1987년 《독립기념관 개관기념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초대전》(천안문화원)에 참여
《천안문화회관 개관기념 제11회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1988년 《한국미술협회 천안·온양지부회원전》(천안문화원/온양 고려당 지하)에 참여
《천안미술인회 창립전》(천안시민회관)/ 천안미술인회 초대 회장 역임
- 1989년 《제14회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100호전》(천안문화원)에 참여
- 1990년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지부장 취임
- 1990~1997년 《한국미협 천안지부전》(아라리오 화랑, 천안시민회관 등)에 참여
- 1992년 《천안미협 초대전》(천안문화원)에 참여
- 1995년 《오늘의 천안미술전 : 천안 미술의 상황과 모색전》(천안문화원)에 참여
- 1997년 《오늘의 충남미술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2024년 《천안미술 1951-1989 : 기록과 기억으로 말하다》(천안시립미술관)에 참여

3 1988년 5월 천안 출신 11명의 작가가 모여 발기인 총회를 열어 민중식 조각가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1989년 8월 천안미술작가회로 개칭했다. 「미술-천안미술인회」, 『천안문화』(1989. 5), p. 83.

박인희 (朴仁熙, 1947~)



박인희, 〈寂(寂)〉, 1985, 캔버스에 유채, 145×112cm, 작가 제공

1947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출생한 박인희는 당진 합덕국민학교에 입학했으나 2학년 때 천안으로 이주해 천안국민학교와 천안중학교를 졸업했다. 국민학교 시절 교실 뒤 학예판에는 늘 그림이 걸려있었고,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미술반 반장으로 각종 미술대회에서 입상하며 일찍부터 미술에 두각을 나타냈다. 천안중학교 시절 화가 김성재 밑에서 석고 테생을 배우는 등 일찍부터 사실적인 묘사를 습득했다. 이후 5년제 학교인 홍익공업고등전문학교(현 홍익공업전문대학)에 진학했으나 미술교사와의 갈등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1964년 강관옥의 주도로 미술학도와 천안 지역의 문학도들이 결성한 하엽회(河葉會)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시화전(詩畵展)을 열었다. 그러다 일본에서 유

학한 한 작가를 만나 유화의 재료와 속성을 배워 1972년 '인화실'을 운영하며 두문불출 작업에 매진했다. 1996년 목우회 회원이 되면서 화실 이름을 '목우화실'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천안미술협회에서 활동하던 박인희는 객관적 평가를 받기 위해 국전에 도전했으나 낙선을 거듭했다. 그러던 중 1985년, 《제4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 모내기를 마치고 한여름에 벼 이삭이 맺히는 순간을 포착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한 〈寂(寂)-1〉으로 입선했다. 이어 1986년 한국 구상미술 작가들의 대표적인 미술단체인 《목우회 공모전》에 입선하기 시작해 1995년까지 9회 입선하며 천안 출신으로는 첫 목우회 회원이 되었다. 또 1989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 입선, 1990년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연속 4회 특선으로 초대작가가 되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미협 천안지부장을 맡은 박인희는 회원 상호간의 인화(人和)와 창작활동 지원에 심혈을 기울였다.¹⁾ 1997년에는 천안 지역 중견미술인들을 주축으로 구상미술단체인 '시형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역임하며 매년 회원전을 개최하는 등 천안지역 문화발

1 이병식, 「고요속의 큰 울림 서양화가 박인희」, 『충남예총』 136(한국예총충청남도연합회, 2013), pp. 21~25.

전에 공헌했다. 1994년 아라리오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이후 2023년까지 총 10회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을 비롯해 《목우회 공모전》, 《충남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전업작가로 활동하면서 천안 나사렛대학교 사회교육원 및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 출강하며 미술을 저변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2007년 제24회 천안

시민의상(문화예술부문)을 수상했으며, 2019년에는 천안문화재단의 원로작가로 선정되어 천안 예술의전당에서 초대전을 개최했다. 현재 천안미협 고문 및 목우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인회는 자신은 삶도 작품세계도 단순하다고 말한다. “그림의 이론이나 논리,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에 별 감흥이 없으며, 조형의 단위인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형태에 더 절절함을 느낀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그렸으며, 그림은 그리는 것,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박인회는 자신이 즐겨 다루는 소재에 대해서 “나는 벼에서 한적한 고요함을 느낀다. 그 정적인 상황은 현실과의 단절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그 소리는 각자 개별적으로 느끼는 소리이며 이야기다. 그 소리는 나에게 ‘정’이었다. 개나리 역시 집 울타리 산과 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꽃이다. 우리의 서민적 정서가 배어있는 꽃에 애잔함을 느끼며 그린다.”고 했다. 이러한 철학 때문인지 그의 작품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소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작가 특유의 서정성을 지니고 있다.

미술평론가 신항섭은 “그의 그림에서는 새삼 유화의 맛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다. 겹겹이 쌓아 올려지는 반복적인 붓질을 통해 깊이가 형성되고 그 깊이를 통해 유화가 지닌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시간과 노력의 무게라고도 할 수 있다. 감각적이고 가볍게 흐르는 세태에서도 의연하고 회화적인 본질을 추구한 결과이다.”라고 평가했다.² 평생 전업 작가로 살아온 박인회는 현재도 유화 인물화를 지도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그림을 그린다”는 화가의 본질적인 덕목에 충실한 작가다.



박인회, 〈개나리〉, 2021, 캔버스에 유채, 80.3×118cm, 작가 제공

연보

- 1947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
- 1953~1962년 당진 합덕국민학교, 천안국민학교로 전학, 천안중학교 졸업
- 1963년 서울 홍익공업고등전문학교 입학

² 신항섭, 「시간의 흐름을 차단한 회고적인 정서」, 『박인회』(천안시민회관, 2021) 전시 도록.

- 1964년 《하엽회 창립전》(천안, 돌다방)에 참여
- 1965년 《제2회 하엽회전》(천안문화원)에 참여
- 1972~현재 인화실(1996년 목우화실로 명칭 변경) 운영
- 1982년 《천안미술협회전》(천안문화원)에 참여
- 1985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 〈적(寂)〉으로 입선
- 1986~1995년 《목우회 공모전》 입선
- 1988년 《천안 미술작가회 창립전》(천안, 아라리오갤러리)에 참여
- 1990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 1991~1993년 《충청남도미술대전》 특선(천안시민회관)
- 1992년 충청남도지사 표창(지역문화예술진흥 공로상)
- 1993년 한국미협 천안지부장으로 선출/《충남미술대전》 초대작가
- 1994년 《제1회 개인전》(천안, 아라리오화랑) 개최
- 1995년 《목우회 공모전》 입선, 9회 연속 입선으로 목우회 회원으로 입회
- 1996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천안문학과 그림의 만남전》(천안문화원)에 참여
- 1997년 《충남 시형회 창립전》(천안, 아라리오화랑)에 참여
- 2002년 《제2회 개인전》(천안시민회관) 개최
- 2003년 목우회공모전 심사위원/《목우회 파키스탄 합동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5년 《목우회 프랑스 소몽시 초대전》(프랑스, 소몽시 미술관)에 참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수채화 심사위원장
- 2006년 대한민국 환경미술대전 심사위원
《제4회 목우회 충남회원전 및 대전광역시 충북회원 초대전》(천안시민회관)
- 2007년 천안시민의상(문화예술부문) 수상/《제4회 개인전》(서울, 모로갤러리) 개최
- 2008년 국민예술협회 심사위원/ 서울 미술전람회 심사위원
- 2009년 대한민국 현대 여성미술대전 운영위원장
- 2010년 《제5회 개인전》(천안시민문화회관) 개최
- 2011년 서해미술대전 심사위원
- 2013년 《천안시 승격 50주년 기념 미술전》(천안, 예술의전당)에 참여
- 2014년 《제6회 개인전》(천안시민문화회관) 개최
- 2016년 《제7회 개인전》(천안시민문화회관)/《목우회 창립 60주년전》(서울, 예술의전당)
- 2017년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 부문 심사위원/《전국우수작가 초대전》(갤러리 탑)
- 2019년 《예술가의 기억첩》(천안시립미술관)에 참여
- 2020년 《충남미술 맥을 잇다》(천안, 리각미술관)에 참여
- 2021년 《제8회 개인전》(천안시민문화회관) 개최
- 2023년 《갤러리 버들 개관기념 박인회 초대전》(천안, 갤러리 버들) 개최
- 2024년 《천안미술 1951~1989: 기록과 기억으로 말하다》(천안시립미술관)에 참여

박춘화(朴春華, 1947~)

1947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했다.¹ 논산 부창국민학교 4학년 때 박춘화가 그린 현충일 포스터를 본 미술 선생님의 권유로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게 되었다. 당시 일본에서 그림을 공부한 오인성 선생님의 지도로 일주일 정도 그림 연습을 한 박춘화는 충청남도 미술대회 참가자 선발을 위한 논산군 예선에 참가해 특선을 수상하였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논산 문성고등학교 문성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충청남도 미술대회에 나가 금상을 수상했다. 이후 서울에 올라와 낮에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야간에는 학업을 위해 서라벌고등학교를 다녔다. 1972년 제대 후 고향으로 돌아와 논산에 정착해 극장 간판 그리기, 제트기 건전지 회사 디자인실 보조로 일하는 등 여러 직장을 거치면서도 그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박춘화는 풍경을 주로 그렸으나 풍경화로 공모전에서 입상하기 어려운 점을 자각하고 '산성(山城)'을 그림의 소재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산성을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올라갔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1985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선을 하였다. 이듬해 《충청남도 미술대전》에서는 대상과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정규 미술대학을 다니지 않았으나 공모전 수상을 통해 뛰어난 실력을 입증한 작가는 새로운 시도를 모색했다. 주로 산성을 답사하며 그림을 그렸던 작가는 추운 겨울날 죽은 낙엽과 풀더미를 밟고 파랗게 돌아나는 이끼의 생명력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끼는 예쁘지도 않아 일반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지만 생명력이 질기고 오염이 안돼 '자연과 생명'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후 산성 그림에 머물지 않고 화면에 이끼를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물감을 두껍게 바른 요철작업으로 입체감을 살려 이끼를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현재 논산 시청 민원실에 걸려있는 작품은 1983년 《목우회전》에서 특선을 수상한 〈생존83〉



박춘화, 〈이끼-자연+생존〉, 1983, 캔버스에 유채, 51.5×122cm, 작가 제공

1 2020년 논산문화원에서 근현대미술재민사업으로 진행한 박춘화 작가의 미술재민사업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그림으로 빛나는 인생, 박춘화」,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한다』(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2020), pp. 332~336.



박춘화, 《이끼-자연+생존》, 2013, 캔버스에 유채, 48×48cm, 작가 제공

이다.² 1989년 목우회전에 입선한 이후 공모전에 출품을 하지 않고 있으나 작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개인전은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³

박춘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 활동이 침체된 논산 지역 미술계의 활성화를 위해 당시 논산공업고등학교에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김치중, 김영기, 김갑기 등과 모여 1972년 ‘놀이미술회’를 결성한 후, 같은 해 11월 논산 궁전예식장에서 《창립 전시회》를 열었다. 1978년 연무읍에 미술학원을 열었으며 3년 후 논산으로 이전하였다.

박춘화가 운영하던 놀이미술학원은 오랫동안 논산 지역에서 미술인의 저변화와 인재 발굴에 기여하였으며 놀이미술회의 주요 모임장소로 이용되었다. 충남지역에서 공주에 유일하게 미술협회가 형성 운영되던 1980년대 부여와 통합해 논산미술협회의 전신인 부여 지부를 만들었다.⁴ 박춘화는 화가로서 뿐만 아니라 놀이미술학원의 운영과 미술협회 결성을 통해 논산 지역의 미술 저변화를 위해 애쓴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연보

- 1947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
- 1972년 놀이미술협회 설립
- 1972~2024년 《놀이미술협회전》(논산문화원)에 참여
- 1979~2019년 《개인전》 총 18회 (논산문화원, 대전예술가의 집 등)⁵ 개최
- 1982~1986년 《목우회 공모전》 특선 1회와 입선 4회
- 1983년 《제20회 목우회 공모전》서양화 부문 〈생존 83〉 특선 수상
- 1984년 《제21회 목우회 공모전》서양화 부문 입선
《제4회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전》(공주문화원)에 참여
- 1985년 《대한민국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입선
《대전 공간사랑 초대전》에 참여
《제5회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전》(공주문화원)에 참여

2 『논산문화를 읽구는 사람들-너무나도 낮은 이름들: 화가 박춘화』, 『논산문화』103(논산문화원, 2007), p. 14.

3 「그림 그리는데 박달이 왜 필요해유?」, 『오마이뉴스』(2007. 3. 30).

4 당시 부여 거주 회원이 수적으로 우세해 부여미협이 회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논산 거주 회원은 박춘화, 오종근, 이병문, 신현태 등 4명에 불과했다. 한국미협 부여지부 초대회장은 김찬국, 부회장은 박춘화였다.

5 논산문화원은 논산읍사무소에 있었으며 참문을 다 가리고 작품 위에 작품을 걸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박춘화는 펜슬리도 흑백으로 만들었으며 전시보다는 다방에 차 마시러 왔다가 그림을 보는 수준이었다. 「그림으로 빛나는 인생, 박춘화」,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한다』(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2020), p. 336.

- 1985년 《천안 도술평랑 초대전》에 참여
- 1986년 《충남미술대전》 대상 수상
《제6회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전》(공주문화원)에 참여
《전국 미술대전 수상작가 초대전》(서울, 문예진흥원)에 참여
- 1987년 《향토작가 초대전》(대전문화원)에 참여
《대전 중앙갤러리 초대전》에 참여
- 1988년 《한국미술협회 부여지부 창립전》(부여군민회관)에 참여
《'88 서울올림픽 아름다운 금강전》(대전, MBC문화공간)에 참여
- 1989년 《복우회 공모전》 서양화부문 입선
- 1993년 논산시민대상문화상 수상
- 1994년 한국미술협회 논산지부 제3대 지부장 취임
- 1995년 《광복50주년 햇불미술대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1998년 《대전회화제》(대전, 한림갤러리)에 참여
- 2002년 《충남향토작가 초대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2003년 《향토작가 초대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2005년 《개인전》(대전, 에스닷갤러리) 개최
- 2007년 《희갑기념 사제동행전》(논산문화예술회관)에 참여
- 2009년 《참사랑 나눔 미술전》(논산문화예술회관)에 참여
《서산화랑 개관 초대전》에 참여
- 2012년 《박준화 초대전》(충남교육청 남부평생학습관) 개최
《논산 향토작가 초대전》(논산, 백제군사박물관)에 참여
- 2016년 《박준화 교회 기념 사제동행전》(논산문화원)에 참여
- 2019년 《박준화 서양화 개인전》(대전예술가의집) 개최

임영우(任英宇, 1947~)



임영우, 〈숲〉, 1982, 캔버스에 유채, 83.4×130.3cm, 작가 제공

1947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임영우는 중학교 때 처음 관화를 접했고 이후 수채화도 익혔다.¹ 고등학교 1학년 때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작가는 화가의 꿈을 실현하고자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으나 집안 반대와 경제적 여건으로 공주교육대학에 진학했다. 당시 공주교대에는 안종호, 김기숙, 이남규 교수가 회화반·공작반·구성반 등 미술 특별반을 만들어 재학생들을 가르

쳤다. 이남규 교수가 공주사범대학으로 이직하면서 새로 부임한 한국 추상화의 원로 남당 조영동(趙榮東, 1933~2022) 교수를 만나면서 적극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² 공주교대를 졸업한 후 정규 미술대학 교육에 대한 미련으로 야간 과정이 있던 서울산업대학교 조형예술학과에 입학하였다. 대학 졸업 후 다시 공주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학해 미술교육을 전공하였다.

공주교대 시절 고가의 캔버스를 구매할 수 없었던 작가는 이남규, 조영동 교수가 알려준 방법을 따라 베니어합판을 원하는 크기로 자른 다음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한 후 그림을 그렸다.³ 1980년대 이전에 완성한 작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이는 좋은 작품을 남기기 위해 대부분의 작품을 태우거나 찢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시절 베니어합판에 그린 작품 중 동생의 얼굴을 그린 작품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1980년대 초 작가는 염소를 많이 그렸다. 누구와 닮았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염소처럼 고집스러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소나무만을 소재로 하여 유채로 그린 첫 화가라서 ‘소나무 작가’로 불리는 임영우는 논산고등학교 재직 시 학교 주변에 온통 소나무만 있어서 자연스럽게 소나무를 그리게 되었다고 한다. 소나무를 그리다 보니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소나무를 그리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진한 붉은 색의 소나무, 초록색 솔잎이 보색 대비를 이루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두운 풍경, 달무리 같은 해와 달이 있는 작품을 꾸준히 선

1 2022년 대전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임영우 작가 구술채록 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이명노연구소 황효순 소장님이 임영우 작가 구술채록 집을 제공해 주었다. 귀한 자료집을 제공해 주신 황효순 소장님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2022 대전원로예술인 구술채록 사업 보고서』(대전문화재단, 2022); 『계통문화원 개원 및 임영우 계통문화원장 취임식 가져』, 『충청메시지』(2023. 12. 12).

2 겨울 방학 동안 난방이 없는 미술실기실의 상황을 인지한 조영동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을 내어 주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위의 보고서(대전문화재단, 2022), p. 37.

3 위의 보고서(대전문화재단, 2022), pp. 38~39.

보였다. 강렬한 원색의 사용을 통해 작가는 젊음의 환경적 저항을 표현하였다. 적송을 즐겨 그리는 작가는 “철조망이 있어도 맨 머리로 뚫고 나갈 자신이 있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한다”고 한다.⁴ 1985년 《전국미전》에 출품한 작품 〈소나무를 닮은 노인〉은 노인의 얼굴 주름에서 착안해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를 표현이 갈라진 것처럼 그렸다. 1980년대 후반에는 자화상과 장승을 자주 그렸는데 이 역시 우연한 계기로 그리게 되었다.



임영우, 〈소나무여집〉, 2019, 캔버스에 유채, 112.1×162.2cm, 작가 제공

2000년을 전후로 화면이 점차 밝은색을 띠면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과 배려, 사랑하는 마음 등 친근한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⁵ 이러한 변화를 작가는 세월이 갈수록 매사에 숙연해지는 평정의 세계로 들어서며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재된 따뜻한 인간애를 표현하게 되었다고 한다. 작품의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임영우는 소나무를 그리지만 소나무를 단지 식물로만 그리지 않는다. 소나무에 투영된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역할을 한다. 작품 제목에 ‘귀로’, ‘자연’, ‘우정’, ‘얼씨구절씨구’, ‘기다림’ 등이 등장하는 이유다.

임영우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 196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회 개인전을 열었다. 교육행정에 투신해 헌신함과 동시에 부여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있으면서 아사달 화실을 운영해 이를 기반으로 부여에서 그림 그리는 모임 ‘아사달회’를 만들었다. 아사달 화실의 정규 전시는 ‘부여향토미전’의 모태가 되었다. 1985년에는 그릴회를 창설하고 연구지 ‘그릴지’도 만들었다. 이후 조치원여자고등학교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충청남도 내 ‘미술교육연구회’를 창단하고 초대회장을 역임하는 등 부임하는 지역에서 미술인들의 작품 활동을 위한 모임 결성과 전시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였다.⁶

연보

- 1947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
- 1969년 공주교육대학교 졸업
- 부여 석성면 석양국민학교 부임
- 《제1회 개인전》(공주문화원) 개최

4 임의 보고서(대전문화재단, 2022), p. 123.

5 『계룡문화원』, 『일간 우리문화』 5(한국문화원연합회, 2024), pp. 50~53.

6 『소나무여집』 임영우 화백 8번째 개인전, 『매일경제』(2019. 5. 3).

- 1970년 중등교사 자격 고시(이론, 실기, 교육이론) 미술 합격
- 1971년 임천중학교 미술 교사로 부임
《충청남도 미술대전》에 〈새마을 청년〉 입선
- 1973~1978년 부여고등학교, 논산고등학교, 조치원고등학교 미술교사 재직
- 1975~2022년 그림회 창립 및 그림회 전시회에 꾸준히 출품
- 1976년 아사달회 창립회장
- 1985년 서울산업대학교(구, 개방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임영우전》(대전문화원) 개최
- 1987년 《아름다운금강전》(대전MBC)에 참여
- 1988년 공주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졸업
- 1988~1991년 한남대학교 회화과 강사 역임
- 1992년 《제2회 끈전》(서울, 경인미술관)에 참여
- 1994년 충남미술교육연구회 창립회장
- 1995년 《1995 향토작가 초대전-제8회 한국미술협회 부여지부전》(부여군민회관)에 참여
- 1996년 《향토작가초대전-제9회 한국미술협회 부여지부전》(부여군민회관)에 참여
《제3회 개인전》(대전, 홍인갤러리) 개최
- 1997년 《제10회 부여미술협회전》(부여청소년수련원)에 참여
- 1998~2022년 《대전사생회전》출품 및 회장 역임(2005~2010, 2014~2019)
- 1999년 《제4회 개인전》(대전시민회관) 개최
- 2000년 《논산고등학교 장학기금 마련 제5회 개인전》(논산, 화자산농협) 개최
- 2003~2006년 충남 인터넷 고등학교 교장
- 2007~2008년 강경여자중학교 교장
- 2008~2009년 충청남도 논산계통교육청 제27대 교육장 역임
- 2009년 《제6회 개인전》(대전, 롯데갤러리) 개최
- 2012년 《제7회 임영우 개인전》(대전, 갤러리 예향) 개최
- 2019년 《임영우 개인전-소나무 여정》(서울, 갤러리 라메르) 개최
대전미술협회 공로상 수상
- 2020년 《진부명미술관 초대전》(강원도 고성)에 참여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상 수상
- 2022년 《제13회 개인전》(서울, 갤러리 라메르/ 계통문예의 전당/ 대전, 천성교회/ 논산문화원) 개최
- 2023년 계통문화원장 취임
- 2024년 《임영우 화백 개인전》(대전, 화폐박물관) 개최

홍명섭 (洪明燮, 1947~)

1947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난 홍명섭은 1951년 14후퇴 때 가족과 함께 월남하여 대전에 정착했다. 1976년 서울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했으며, 졸업한 다음해인 1977년 대전문화원에서 열린 《기획판화전》에 참여했다. 그리고 1978년 첫 개인전으로 대전문화원에서 연 《면벽전(面壁展)》에서 홍명섭은 개념미술을 넘어서는 조각의 실험적 확장을 보여주었다. 이 전시는 종이의 네 귀퉁이를 찢어서

벽면에 부착한 것인데, 마치 네 귀퉁이로 회화의 평면공간을 암시하는 듯했다. 네 귀퉁이는 타블로의 경계를 구획함과 동시에 그것의 부재를 드러내는 표지(標識)로, 홍명섭은 ‘타블로(tableau)’에 의해 은폐된 ‘벽면’을 양성화 하려는 의도에서 ‘면벽(面壁)’이라는 전시명을 내세웠다. 즉 회화가 벽면에서 벗어나 타블로로 벽면을 장식하면서 누려온 회화적 영화(榮華)에 대한 부정을 담은 것이다. 이처럼 홍명섭은 초기 작업부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체계를 전복시키는 작업을 시도했다. 또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료와 설치 장소에서만 그 작업의 형성 조건이 가능할 뿐인 ‘일시적인’ 설치작업에 몰두하였다.

‘de-veloping’은 홍명섭의 첫 번째 개인전인 《면벽전》(1978)에서 등장하여 현재까지 지속되는 개념으로 그의 작품세계 전체를 관통한다. 이는 ‘감싸다, 뒤덮다’의 뜻을 가진 ‘envelop’과 어원적으로 반의어인 ‘develop’에서 모티프를 얻은 것으로, 작가는 작품 속에서 ‘en-veloping’과 ‘de-veloping’이라는 단어를 서로의 반대항으로 사용하면서 ‘-less’의 미학을 추구하는 자신의 작품관을 끊임없이 드러내왔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de-veloping’은 다양한 부제가 달린 연작으로 198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 그 중 하나인 〈디벨로핑-레벨 캐스팅〉(1987/2004)은 검은 리놀리움판 600장과 스테인리스 봉을 조립해 원고지 모양으로 제작한 조각작품이다. 3차원의 입체 조형원리가 조각의 특성이지만, 이 작품은 2차원의 평면을 지향하는 듯 바닥에 밀착되어 있다. 일종의 모듈식 개념에 의해 전시 공간 또는 현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립, 제작될 수 있으며, 모듈 단위들의 조합 기회가 한시적일 수 있다는 것이 작품의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이는 홍명섭이 지속적으로 탐색해온 “수평에의 의지”와 상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현장성과 일시성의 개념으로 이미지의 재현과 기념비적 예술의 감수성을 극복하고 초월하면서



홍명섭, 〈developing the wall〉, 1978, 종이, 300×900cm, 《면벽전》(대전문화원)



홍명섭, <level·game/ level·logy>, 1997, 마스크테이프·한지·인쇄물·돌·무쇠슬리퍼, 2600x1050cm, 경주 선재미술관

미술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져 온 작가¹⁾인데, 형태결정론이 무화된 이러한 그의 설치작업은 한국 현대미술에 독특한 미학적 화두를 던져주었다.

1997년 경주 선재미술관에서 9번째 개인전으로 발표한 <레벨 게임/ 레벨 로지 (level·game/ level·logy)>는 같은 재료지만 다른 방식이다. 바닥에 테이프를 원고지

칸 모양으로 붙이고, 그 네모칸들 속에 한지 덩어리와 돌을 X자 모양으로 나열한 특이한 구조다. 관람객들은 구석에 놓인 쇠슬리퍼를 신고 작품 위를 걸으며 걸음에 얹힌 수직성과 수평성의 미묘한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거꾸로 그것은 바닥에 대한 끌림, 곧 수평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하늘과 땅의 만남, 삶과 죽음의 사이, 중심이 없는 어울림의 마당으로서 수평공간의 의미를 끌어낸 작품으로, 관객이 명상적 설치작업에 참여하는 전시다.

홍명섭의 작업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임동식과 함께 '야외현장미술연구회'를 창립하고 「표상세계에서 현장으로」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 점이다.²⁾ 또한 창립기념전으로 공주 금강백사장에서 '야투'라는 전시회를 열어 충남지역 작가들이 평면작업 일색에서 벗어나 행위예술을 비롯해 다양한 실험미술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실험적인 작업과 함께 홍명섭은 1980년대부터 대전에서 오후화실을 운영하면서 한남대학교, 목원대학교, 청주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중앙대에서 현대미술 이론을 가르쳤으며, 1997년부터 한성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4년 정년퇴임했다.

1990년 <제44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에 초대받으면서 국내외 미술계에 주목을 받았으며, 1994년 이후 대전에서 작품활동에 전념하며 서울·대전·대구·일본 등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이외에 <에콜드 서울>, <로고스와 파토스>, <한국 현대미술의 오늘> 등에 출판했고, 1995년 제46회 베니스 비엔날레 기획전 ASIANA, 독일 슈투트가르트 켈바하 95국제 소형조각 트리엔날레, 폴란드 바르샤바의 아르스 폴로나 갤러리 2인전, 2003년 이탈리아 사보나 비엔날레, 2006년 스위스 빌 국제전, 2007년 독일 데사우 rainbow mapping projec 등 국내외 국제전에 초대받았다. 저서로는 『전환기의 현대미술』(술출판사, 1991), 『미술과 비평사이』(술출판사, 1995), 『현대미술의 기초개념』(강성원 편집, 앤소로지, 1995), 『현대철학의 예술적 사용』(아트북스, 2017)이 있다. 대학교수로, 미술관 관장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작업방식을 꾸준히 선보여온 홍명섭의 작품과 비평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전복술과 끊임없는 연구자세이다. 홍명섭은 하나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고정된 권위에 도전장을 던지며 독자적인 예술영역을 개척해 온 작가다.

1 김원방, 「그를 '괴물'처럼 혹은 해석 없이 읽는다」, 『월간미술』(2004. 4), p. 100.

2 『야외미술연구 창립』, 『홍아일보』(1981. 8. 17).

- 1947년 평안남도 평양 출생
- 1974~1975년 《조형예술연구전》(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1976년 서울대학교 조소과 졸업
- 1977년 《기획관화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78년 《면벽전(面壁展)》(대전문화원)/《현대작가 15인초대전》(대전문화원)
- 1979년 《전(前), 현(現), 변(變)신(身)》(대전문화원/ 서울, 그로리치화랑)
《7회 Independants전》(국립현대미술관)
- 1979~1980년 《금강현대미술제》(공주, 금강/ 대전문화원)에 참여
- 1980년 《조형과 조형넘어》(대전문화원)에 참여
- 1982년 《Running Rail Road》(대전문화원) 개최/《벽화전》(대전문화원)
- 1983년 《사각변주전》(대전문화원/ 대구, 수화랑) 개최
《Silhouette Casting》(청주, 청담화랑)/《Topological Illusion》(대전문화원)
- 1984~1987년 《1984전》, 《1986전》, 《1987전》(서울, 제3갤러리)에 참여
- 1985년 《developing, 間》(대전, 현대화랑)/《Seoul 90전》(서울, 관훈미술관)
- 198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meta Sculpture》(서울, 윤갤러리) 개최
- 1986~1988년 《Hard-core 대전 connection》(대전문화원/ 동아갤러리)
- 1986~1999년 《로고스와 파토스》(서울, 관훈미술관)에 참여
- 1987년 《meta Sculpture》(일본 오사카, 반화랑) 개최
- 1988년 《meta Sculpture》(일본 오사카, 반화랑/ 대전, 동아갤러리) 개최
- 1990년 《제44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이탈리아, 베니스)에 참여
- 1991~1997년 《김용익, 문범, 홍명섭전》(서울, 공간미술관 · 제3갤러리 · 가인화랑/ 서울, 인공갤러리/ 대구, 조성희화랑/ 서울, 유로 갤러리)
- 1993년 《회향력; on the metapattern》(서울, 빈켈/ 청주, 학천화랑/ 대전, 현대화랑) 개최
- 1994년 《Ex-position/ Out-position》(대전, 홍인갤러리)
《looks like a...》(청주, 학천화랑)/《like a snake》(서울, 가인화랑) 개최
- 1995년 《denied》(청주, 학천화랑) 개최
《95 한국현대미술: 질, 양, 감》(국립현대미술관)
《ASIANA》Preview show(서울, 가인화랑)
《46회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ASIANA》(이탈리아, 베니스)
《미술/습관/빈성》(서울, 금호갤러리)/《trace: 痕/跡》(대전문화원)
- 1996년 《developing/ enveloping》(청주, 학천화랑)/《Instal-Scape》(대구문예회관)에 참여
《Two/ One Man Show》(폴란드 바르샤바, 아르스 폴로나갤러리)
- 1997년 《detited》(서울, 가인화랑)/《광주비엔날레 특별전-삶의 경제》(광주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7년 《Level game》(경주, 선재미술관) 개최/ 《Pair전》(독일, 켈른)에 참여
- 1997~2014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교수로 재직
- 1998년 《detided》(네덜란드, 슈테델릭 즈볼레시립미술관) 개최
《부산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부산시립미술관)
- 1999년 《phobia전》(서울, 일민미술관)/ 《山·水·風·景전》(서울, 선재아트센터)에 참여
- 2000년 《SHADOWLESS/ MINDLESS/ ARTLESS》(청주, 무심갤러리) 개최
《부산 국제 아트페스티벌》(부산시립미술관)/ 《천년의 항해》(국립현대미술관)
《작은 담론전》(서울, 문예진흥원)
- 2000~2001년 《예술과 마을, 원골 프로젝트》(공주, 원골)에 참여
- 2001년 《디아나의 노래》(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동충하초 시리즈: 여기저기, 어디에나》(대전, 이공갤러리) 개최
- 2002년 《Dis-location》(대구, 스페이스129)/ 《리빙 퍼니쳐》(안양, 스톤&워터)
- 2003년 《at home/ at ease》(대전, 유진갤러리) 개최
- 2004년 《수평에의 의지(Horizontality)》(서울, 문예진흥원) 개최
《poison/ horizontality》(서울, 포화랑)
- 2005년 《cool & warm》(서울, 성곡미술관)
《voronoi diagram-evolutionary space》(서울, artpark 화랑)
《안양공공예술 국제 프로젝트》(경기도, 안양 아트밸리)에 참여
- 2006~2007년 《Fluid Arcanal International 06/ 07》(스위스, 빌/ 한국 대전)
- 2007년 《Rainbow mapping project: ART PROJECT IN DESSAU, GERMANY SUMMER-2007》(독일, 데사우)/ 《이상한 나침반》(서울, 갤러리 눈)
- 2008년 《de-sense/re-sense》(오스트리아, 그라츠 ESC갤러리)
《전향기》(서울, 대안공간 풀)
《flower-less/flower-like》(파주, soso갤러리) 개최
- 2009년 《모든 경계에는 꽃이핀다》(대전시립미술관)/ 《에식스》(서울, 콘스트 독)
《인천 국제 디지털아트 페스티벌 2009》(인천)에 참여
- 2010년 《경기도의 힘》(경기도미술관)/ 《인성맞춤》(인성 창작스튜디오)
《투모로우 페스티벌》(서울, SBS 사육/ 오복공원)
- 2010~2011년 《필방미인: 개념미술 1970-80》(경기도미술관)
- 2012년 《Running Railroad》(세르비아, 노비-사드 문화예술회관)
《SeMA Gold 2012: 히든트랙》(서울시립미술관)
- 2013년 《New & Now : 서울시립미술관 2012 신소장작품》(서울시립미술관)
- 2018~2019년 청주시립미술관 관장 역임
- 2020년 개인전 《Topological Rail》(부산, 갤러리 이배) 개최
- 2022년 《level-game/level-logy》(인천 중구 신포동, 차 스튜디오) 개최
- 2023년 《리빙 넥스트 도어 메타-아티스트 현지정 · 홍명섭》(대전, 스페이스 테미) 개최
- 2024년 《The Journey to the Venice Biennale:1986-1993》(서울, 스페이스21)에 참여

김재선(金在善, 1948~)

1948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출생한 김재선은 천안 수신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해 1964년 서울 삼선중학교에 들어갔다. 중학교 3학년 때 교내 실기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아 그 소식을 들은 부친이 유화 물감을 사줘서 이때부터 독학으로 유화를 그리기 시작했다.¹

1967년 서울 대광고등학교에 입학해 홍종명에게 그림을 배운 것이 계기가 되어 경희대 미술교육과에 진학해 구상화는 오승우, 추상화는 유명국의 지도를 받았다.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69년 《제18회 국전》 서양화 구상 부문에 관악산을 배경으로 나무들이 서 있는 가을풍경을 그린 〈늦가을〉로 입선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은사인 홍종명의 작품 옆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을 보고 크게 좌절한 뒤, 미셸 라곤(Michel Ragon)이 쓴 책을 이일이 번역한 『추상미술의 모험』(문화교육출판사, 1965)을 탐독하며 다양한 표현 방법을 연구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추상미술을 시도하기 시작했다.²

군에서 제대한 후 김재선은 고향으로 내려와 천안 복자여자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잠시 재직했다. 이후 1979년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의 부지부장,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지부장을 맡아 천안과 온양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새로운 회원으로 영입했다. 또 《제51회 한국미술협회 충남도지부전》(1983)을 유치하는 등 천안미협의 활성화를 위해 힘썼다.³

한편 천안에 이주한 후부터 김재선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늪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서 《늪》시리즈를 제작해 1981년 서울 회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늪-82-624〉는 원초적 생명을 상징하는 늪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관전(官展)인 국전의 폐해에 맞서 중앙일보사에서 주최한 《제5회 중앙미술대전》에 출품해 입상했다. 〈늪-82-624〉에서 보듯이, 이 시기 작가는 온갖 생물이 생성되는 생명의 늪인 자연과 ‘나’라는 인간의 관계를 탐구했다. 1982년부터



김재선, 〈늪-82-624〉, 1982, 캔버스에 유채, 112×145.5cm, 《제5회 중앙미술대전》 입선작

1 김재선에 대한 개요와 면보는 천안시립미술관·김달진연구소, 『천안미술사 2022년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김달진미술연구소, 2022)에서 발췌했다. 아울러 『천안미술 1951-1989: 기록과 기억으로 말한다』(천안시립미술관, 2024)를 참고했으며, 작가의 검토를 거쳐 정리한 것이다.

2 백지홍, 「선을 긋다 나를 찾다: 김재선」, 『김재선 화집』(힐컨미술세계, 2014), p. 7.

3 「畫媒 고장 文化의 現場을 찾아 天安」, 『경향신문』(1983. 5. 21).



김재선, 〈선 긋기 놀이〉, 2024, 캔버스에 유채, 60×70cm, 작가 제공

1986년까지 작가는 경희대학교 미술교육학과 동문으로 구성된 그룹전인 《이후전》에 참여했으며, 연화여자고등학교 교사와 경희대학교 미술교육과 강사로 활동했다.

표현주의 영향을 받아 한동안 반추상 작업을 시도했던 김재선은 1991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나다 예술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1992년 모인화랑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보물찾기》 연작을 선보였다. 이 《보물찾기》에서 '보물'은 자신을 의미한다. 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

한 답을 찾기 위해 약속 시간, 사람 이름, 생각 등 일상적 삶의 이야기들을 낙서하듯 쓰고 지우는 행위를 반복하며 본질에 접근하고자 했다.

1996년 가산화랑 초대전으로 열린 개인전에서는 《노래 연습》 연작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 연작은 '나라는 존재가 된지 이제는 알았으니 이제는 삶을 노래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노래 연습'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한다.

《노래 연습》 연작 다음으로 모든 회화의 기초 단위는 선이니까 오직 선묘만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선 긋기 놀이》 연작을 20년 정도 해오고 있다. 화폭 위에 문자들을 쏟아내고 다시 덮기를 반복하는 행위가 2000년대의 작품들에 이르러서 '선 긋기'라는 신체적 행위로 발현된 것이다. 2002년 작 〈순수존재(純粹存在)〉를 보면 수행자처럼 '선 긋기'라는 아무 의미 없는 단순한 행위의 반복을 통해 무위에 이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작가는 '선 긋기' 행위 자체가 주는 유희를 즐기면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 천안 신부동에 있던 작업실을 수리해서 '예술마당'이라는 지역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을 운영했으며,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겸임교수, 천안미협 자문위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연보

- 1948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
- 1961년 천안 수신국민학교 졸업
- 1964년 서울 삼선중학교 졸업
- 1967년 서울 대광고등학교 졸업
- 1968년 경희대학교 미술교육과 입학

- 1969년 《제18회 국전》에 〈늦가을〉로 입선
- 1979~1980년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부지부장
- 1979~현재 《천안미협회원전》에 참여
- 1980~1984년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제3·4대 지부장 역임
- 1981년 《제1회 김재선 작품전》(서울, 회화랑) 개최
- 1982년 《제5회 중앙미술대전》에 〈눈-82-624〉 입선
- 1983년 《제2회 김재선전》(대전, 공간화랑) 개최
《신형상전》(서울, 아람미술관)에 참여
- 1984년 《그룹 이후-한중현대미술전》(대만, 금천화랑)에 참여
- 1985년 《한일그룹전》(일본/ 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86년 《비평구상전 그랑팔레》(프랑스 파리)에 참여
- 1987년 《서울방법전》(서울, 한강미술관)에 참여
- 1988년 《올림픽기념초대작가전》(대전, 여일미술관)에 참여
- 1989년 《아라리오화랑 개관기념 초대전》(천안, 아라리오화랑)에 참여
《종이작업전》(서울, 관훈미술관)에 참여
- 1989~1998년 연화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91년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다다 예술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 취득
- 1992년 《제3회 김재선전》(서울, 모인화랑) 개최
- 1993년 《제4회 김재선전》(천안, 아라리오화랑) 개최
《오늘의 충남미술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1994년 《경희45주년기념초대전》(천안,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5년 《광복50년 현대회화 동세대전》(서울, 관훈미술관)에 참여
《대전충남작가초대전》(대전, 한림갤러리)에 참여
- 1990년대 중반 경희대학교 미술교육과 출강
- 1996년 《제5회 김재선전》(서울, 가산화랑) 개최
- 1997년 《천안문화원 초대 제6회 김재선전》(천안문화원) 개최
- 2000~2002년 예술마당 대표
- 2002년 《제7회 김재선전》(서울, 종로갤러리) 개최
- 2008년 《원로작가회전》(천안시민문화회관)에 참여
- 2009년 《제8회 김재선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개최
- 2010년 《제9회 김재선전》(대전한방병원/ 천안, 지산갤러리) 개최
- 2014년 《제10회 서울미술세계 30주년 기념 초대전》에 참여
- 2017년 《색다른 수행전》(부여, 무량사)에 참여
- 2023년 《제12회 김재선전》(서해미술관) 개최
- 2024년 《제13회 김재선전》(거제도, 대은 고현갤러리) 개최

서경원 (徐璟源, 1948~)



서경원, 〈삼우도(三友圖)〉, 1994, 종이에 수묵 채색, 45×53cm(출처: 『제5회 서경원전』, 천안시 시민문화재단, 2006)

1948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출생한 서경원은 천안여자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미술부에서 활동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1967년 상명여자사범 대학에 들어가 한국화를 전공했다. 대학교 재학 시절 지호(芝湖) 이진걸을 사사했다.¹

대학 졸업 후 고향 천안으로 돌아와 1971년부터 1982년까지 11년간 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근무하면서 1976년 결성된 천안미술협회 천안지부 창립멤버로 회원전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했다. 1973년 천안 아카데미다실에서 개최한 《제1회 개인전》과 1984년 천안 대명가든에서 연 두

번째 개인전 《서경원 한국화전》²에서 서경원은 사군자를 비롯해 소나무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³ 1985년부터 '천안 한국화회' 1995년부터 '천안여류화가회'를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한편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던 1984년, 서경원은 정형 신수화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수화를 모색하고자 이 무렵 문을 연 매정화실에서 민경찬(閔景燦, 1935~2021)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매정(梅亭) 민경찬은 황빈홍(黃賓虹, 1864~1955), 리커란(李可染, 1907~1989) 등 중국미술계의 거장으로부터 그림을 배워 사실적인 묘사력으로 일가를 이룬 작가였다. 서경원은 민경찬을 사사한 지 10년째 되던 1994년, 아라리오화랑에서 개최한 세 번째 《서경원 작품전》에서 다양한 화법으로 이루어진 산수화들을 선보였다.⁴ 그리고 1999년 네 번째 개인전에서 서경원은 전통 수묵산수화와 달리 채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생기 넘치면서도 사실적인 묘사로 이루어진 산수화와 소나무 그림들로 전시장을 채웠다.⁵

2005년부터 《목우회 공모전》에 출품해 특선을 수상한 서경원은 이듬해인 2006년 천안 시

1 이진걸은 형전 미상범의 막내아들로, 아버지의 필법을 이어받은 산수화로 1954년부터 1967년까지 국전에서 특선과 입선을 여러 차례 했으며, 1965년부터 1998년까지 상명여대 교수 및 명예교수로 재직했다.

2 1984년 개최한 두 번째 개인전 『서경원 한국화전』의 리플릿 제자(題字)는 서예가 인명선이, 인사말씀은 김성렬이 썼을 정도로 천안 지역 문화 예술가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개인전을 열었다.

3 민경찬, 『서경원 작품전』(아라리오화랑, 1994).

4 민경찬, 위의 글.

5 신함섭, 「관념을 넘어 실재에 육박하는 채색 산수」, 『서경원개인전』(아라리오 갤러리, 1999).

민문화회관에서 《제5회 서경원전》을 열었다. 이 전시에는 500호 이상의 대작이 다섯 점이나 전시되었는데, 특히 열두 폭의 병풍에 소나무 한 그루로 화면을 꽉 채운 〈송기이수(松氣而壽)〉는 남성화가 못지 않은 장대한 기개와 웅혼한 기운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서경원의 소나무 그림은 스승 민정찬처럼 정교한 공필 채색화로, 용이 꿈틀대듯 구부러지고 뒤틀린 형상을 한 거대한 나무기둥과 거기서 뻗어 나오는 변화무쌍한 가지들이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또 사계절의 변화를 솔잎의 색채를 달리해 묘사하는데, 봄부터 여름에 이르는 생장의 시기는 초록이나 청록색 옅으로, 가을부터 겨울로 이어지는 결실과 휴식의 시기는 녹색이나 회청색 솔잎으로 자연의 순환을 표현했다.⁶

서경원의 작품은 소나무를 주요 소재로 하면서도 운필의 적절한 운용과 낙관의 배치, 화제와 여백과의 조화를 고려한 매우 세심한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작가의 목표는 소나무의 형상을 닮게 묘사하는 데 있지 않다. 소나무의 기상, 즉 사철 푸르고 변함없는 모습과 끈질긴 생명력을 담는 것이 서경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세계다. 그런 점에서 서경원의 작품은 문인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⁷ 실제 서경원은 소나무와 함께 대나무, 매화를 한 화면에 그리고 '삼우도(三友圖)'라는 명제를 붙이거나, 매화를 즐겨 다룬다. 이러한 문인화적 요소는 화업 초기부터 그가 즐겨 사군자를 그렸던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서경원은 서일대 강사, 천안 거상미술센터 원장, 한국미협 천안지부 부회장을 역임했다. 뿐만 아니라 천안시 걸스카웃 회장, 전국 주부교실 지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라이온스 회장 등 수없이 많은 단체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5대, 7대 천안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잠시 붓을 놓았다. 그러나 2020년부터 다시 '소나무 화가'라는 별칭에 걸맞게 청정하고 강인함이 배어있는 소나무를 그리고 있다.⁸



서경원, 〈기상(氣象)〉, 화선지에 채색, 100×60cm
(출처: 『제5회 서경원전』, 천안시 시민문화회관, 2006)

6 임재광, 『예술창상 낙력장승-서경원전』, 『제5회 서경원전』(천안시 시민문화회관, 2006) 참고.

7 임재광, 위의 글.

8 김무호, 『우리민족의 상징...소나무』, 『제5회 서경원전』(천안시 시민문화회관, 2006) 참고.

연보

- 1948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출생
- 1967~1971년 상명여자사범대학 미술교육과(한국화 전공) 졸업
- 1971~1982년 천안 목천중학교, 천안여자중학교, 천안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73년 《제1회 개인전》(천안 아카데미다실) 개최
- 1976년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창립전》(천안, 백궁다방)에 참여
- 1977년 《제2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천안문화원)에 〈동경〉, 〈가을서경〉, 〈매화(梅)〉 출품
- 1978년 《제3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천안문화원)에 참여
- 1979년 《제4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천안문화원)에 〈만추(晩秋)〉 출품
- 1980년 《제5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천안문화원) 〈춘경(春景)〉, 〈추경(秋景)〉 출품
- 1981년 《제6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천안, 대화산방화랑) 〈풍경 I〉, 〈풍경 II〉 출품
- 1984년 《서경원 한국화전》(천안, 대명가든) 개최
《제9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천안, 미도백화점)에 〈설매(雪梅)〉 출품
- 1985년 《제10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서산교류전》(서산문화원/ 천안, 도숭화랑)에 참여
- 1985~1993년 《천안 한국화회》에 참여
- 1986년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 성화봉송맞이 경축미전》(천안, 파고다백화점) 참여
- 1987년 《전국 서화 예술문화 대상전》 대상 수상
《제11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천안문화회관)에 〈매화(梅花)〉 출품
- 1989년 《제1회 한국여성미술공모전》 입선
- 1994년 《서경원 작품전》(천안, 아라리오화랑) 개최
- 1995~1999년 《천안여류화가회》에 참여
- 1999년 《서경원 개인전》(천안, 아라리오갤러리) 개최
- 2005년 《한중일 교류전》 참여
- 2005~2008년 《목우회 공모전》 특선 3회, 입선 1회
- 2006년 《제5회 서경원전》(천안시민문화회관) 개최
- 2006~2010년 5대 천안시의원으로 활동
- 2011년 《제16회 충남여류화가전》(천안, 리각미술관)에 참여
- 2014~2018년 7대 천안시의원으로 활동
- 2022년 《JAHA: 상명대학교 조형예술학과동문회 창립 50주년 기념》(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 갤러리)에 참여
《전국 시도 미술로 다리 놓기 교류전》(천안, 예술의전당)에 참여
- 2023년 천안미술협회 고문, 자문위원

강찬모(姜讚摸, 1949~)

1949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한 강찬모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 1978년 전통적인 중국화 기법에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중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대만 작가 장다첸(張大千, 1899~1983)의 영향을 받아 당시의 미술풍조에서 벗어나 우리 고유미술에서 본질적 미의 근원을 재발견하고 탐구하고자 하였다.¹



강찬모, 〈산(Meditation)〉, 2024, 한지에 채색, 130×194cm, 나라노텍 소장

강찬모는 한국에서는 우리의 전통 채색화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으나 일본에서 오히려 고구려 고분벽화와 채색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일본미술학교와 츠크바대학에서 약 5년간 채색화를 전공한 작가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나 한국 민화의 정신과 기법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대구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 동양화를 전공하였다. 한지 위에 천연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자신만의 기법과 구성을 지닌 채색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²

20대부터 불교경전, 인도의 우파니샤드, 리그 베다 등 철학과 종교 경전에 심취했던 작가는 그 근원을 찾고자 2004년 히말라야산을 찾았다.³ 태어나 처음으로 코발트 빛 하늘 아래 모습을 드러낸 히말라야와의 만남은 작가가 일찍이 인간의 근원적 정신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꿈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히말라야의 화가’, ‘명상 화가’로 불리는 강찬모는 한지에 표현한 히말라야의 숭고함과 경외심을 통해 관람자를 사유의 세계로 인도한다. “매년 히말라야에 머물며 창작의 영감을 얻는다. 질푸른 하늘빛과 한낮의 태양빛을 받은 히말라야 설산의 자태가 밀물처럼 사랑으로 다가왔다”⁴ 작가는 히말라야를 매개체로 오랫동안 수련해온 명상을 화두로 《명상(meditation)》 연작을

¹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장대첸이 전통적인 중국화 기법을 계승하면서도 원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중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동서양 미술의 기교 역량을 한 점”에서 서양화 전공에서 한국화로 시선을 돌린 작가의 변화와 상관성이 있다고 한다. 작가와 나는 대화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작가와와의 인터뷰: 2024. 11. 17).

² 작가의 기법은 돈황이나 고구려 벽화에 사용하는 미세코기법을 기반으로 한다. 이준, 『인간, 그 실존하는 것: 강찬모』, 『한국화 강찬모』(금호미술관, 1990).

³ 「강찬모 개인전, 무엇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가」, 『시사오늘』(2016. 2. 19).

⁴ 「히말라야 풍광 한지 그림 강찬모 화백 “무엇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가” 아라아트초대전 3월 15일까지」, 『국민일보』(2016. 3. 1).



강찬모, 〈선(Meditation)-별이 가득하니 사랑이 끝이 없어라〉, 2024, 원지에 채색, 150×80cm, 프랑스 개인

창안했다.

설산이 그려진 풍광은 작가의 깊은 명상으로부터 얻은 세계의 시각화이다.⁵ 명상의 이미지는 그의 작품에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다. 작품에 주로 나타나는 하얀 설산과 짙은 푸른빛의 산, 새파란 하늘의 조화, 청명한 색의 대비, 이를 떠받드는 검은 산령의 모습은 신비하고도 초월적인 세계를 상징한다. 숭고하기까지 한 설산의 모습은 세계와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작가는 설명한다.⁶

드높은 설산을 강조한 그림과 달리 우주 가득 색색의 은하수를 수놓은 듯 강렬한 색채가 두드러진 작품에는 새, 사람, 물고기, 나무 등 만물의 형체를 담았다. 지상의 존재가 하늘로 올라가 다음 지상으로의 귀환을 준비하는 수천 개의 상징으로 우주에 박혀있음을 알려준다.⁷ “즐거움과 아름다움, 슬픔, 아픔, 고통 등으로 정의되어지는 인간의 감정은 그의 절대적인 풍광 안에서 배

제되었다. 명약관화하게 드러난 그대로의 절제된 풍광이 바로 강찬모가 명상을 통하여 추구하는 궁극의 세계임을 보여준다.⁸ 즉 일상의 경물이 등장하지 않는 절제를 통한 여백의 미는 비어짐이 아닌 충만함을 느끼게 한다.⁹ ‘명상’이라는 주제 아래에 ‘빛의 사랑’이나 ‘별이 가득하니 사랑이 끝이 없어라’와 같은 부제가 붙은 작품은 아스라한 설산과 검푸른 하늘이 어우러져 임숙한 매력울 자아낸다. 작품의 푸른색은 블루 안료와 천연 쪽빛을 함께 사용한 것이며, 흰색에는 조개가루와 같은 천연재료와 안료를 혼합함으로써 작가만의 독특한 발색을 내고 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을 위해서 순은·금박지를 사용하고 있다.

강찬모는 2013년 프랑스 보가드성 박물관 살롱전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1989년 이후 매년 개인전을 열면서 세계 각국에서 개최하는 아트페어에 참석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5 『히말라야의 화가 강찬모...명상의 현실창조의 작가』, 『서울시정일보』(2023. 6. 4).

6 『〈강찬모 초대전〉 자연의 근원적인 모습을 추구한 절제된 산의 모습 표현』, 『더아트뉴스』(2023. 5. 27).

7 장 루이 보와트뱅, 『하늘을 배고 놀다』, 『강찬모』(서문당, 2017), pp. 20~25.

8 『히말라야 산 그림의 작가 강찬모 화가 전시회』, 『브레이크뉴스』(2023. 6. 8).

9 안의 기사, 『서울시정일보』(2023. 6. 4).

연보

- 1949년 충청남도 논산 출생
- 1965년 충남 강경중학교 졸업
- 1968년 서울 배재고등학교 졸업
- 1978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81년 일본 미술학교 연구과정 입학(채색화 연구)¹⁰
- 1982년 일본 츠크바대학 연구과정 입학(채색화 연구)
- 1989년 《초대 개인전》(서울, 청작미술관) 개최
- 1994년 대구대학교대학원 동양화학과 졸업/《초대개인전》(서울, 서초갤러리) 개최
- 1997년 《로고스갤러리 개인전》(영국 런던)/《영국 국립미술관-고구려벽화전》(영국 런던)
- 1999년 《프랑스 리옹 시립미술관 기획 개인전》 개최
- 2002년 《기획개인전》(서울, 공화광)/《한일교류전》(일본, 나고야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3년 《개인전》(서울, 로마네 폼피)/《개인전》(서울, 문화일보 갤러리) 개최
- 2004년 《개인전》(프랑스 파리, 뫼리에르 갤러리) 개최
- 2005년 《초대 개인전》(네팔 카투만두, 부다갤러리) 개최
- 2010년 《이스탄불 아트페어》(터키)/《초대 개인전》(서울, 힐튼호텔 로비) 개최
- 2010~2012년 《칼스루헤 아트페어》(독일 칼스루헤)에 참여
- 2011년 《스위스 바젤 개인전》(스위스 바젤)/《이스탄불 아트페어》(터키)에 참여
- 2012년 《파리 그랑 파레 아트 페어》/《이탈리아 볼사노 아트페어》에 참여
《이스탄불 아트페어》(터키)/《오스트리아 아트페어》에 참여
《프랑스 루브르 국립살롱전》(프랑스)에 참여
- 2013년 《프랑스 보가드성 박물관 살롱전》 금상 수상
《런던 아트 페어》(영국)/《이스탄불 아트 페어》(터키)에 참여
《프랑스국립살롱전》(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에 참여
- 2014년 《프랑스 그르노블 아트페어》/《파리 아트드니갤러리 초대 개인전》 개최
《프랑스 그르노블 마운틴 플러닛(세계 산악박람회)전 대표 초대전》 개최
《북경아트페어》/《독일뮌헨아트페어》/《KIAF》(코엑스)에 참여
- 2015년 《프랑스 몽블랑 MBfactory 갤러리초대 개인전》 개최
- 2016년 《초대개인전-무엇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가》(서울, 아라아트화랑) 개최
《한솔 산 박물관 기획(자연, 그 안에 있다) 그룹전 초대》에 참여
-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식 기념 전람회 초청》(원주, 인터뷰고 호텔)에 참여
《독일 칼스루헤 아트페어》에 참여
- 2021년 《초대개인전》(부산, 더 크로스 & 김넷) 개최
- 2023년 《강찬모 초대전 선(Meditation)》(서울,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1층) 개최

¹⁰ 작가와의 전파 인터뷰(2024. 11. 15).

김관진(金寬鎭, 1949~)



김관진, 〈가을 서정〉, 1989, 캔버스에 유채, 162×130cm, 천안시립미술관

1949년 충청남도 보령에서 출생한 김관진은 공주고등학교와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였다. 공주교육대학교 재학시절 미술교육과의 조영동 교수에게 서양화를 배웠다. 1973년 국민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당진·공주 지역에서 27년간 교사로, 11년간 교감과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충남 초등교사 미술연구회’를 조직하여 《천안초등교원 미술작품전》, 《당진초등미술 작품전》을 개최하는 등 작품활동을 병행했다.

1975년 1월 공주교육대학교 출신의 서양화 전공 동문들과 ‘그릴회’를 결성해 창립회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김관진은 해마다 방학이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스케치 여행을 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미술이론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릴회지』(1~5집) 발간에 힘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회원전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하고 있다. 1983년 천안미협에 가입하여 작품활동을 지속하던 김관진은 미술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소양을 쌓기 위해 서울산업대학 응용회화과에 입학하여 서양화를 전공했다. 학교에서 배운 실력을 바탕으로 1986년 《충남미술대전》에 〈과수원의 봄〉을 출품하여 입선한 뒤 1988년에는 특선을 수상했으며, 1994년부터는 초대작가로 활동했다. 또 《신미술대전》 입선, 1989년에는 《목우회 공모전》 입선, 《한국전통 미술대전》에 특선하는 등 다양한 공모전에 입상하며 작가로서 입지를 굳혀나갔다.

1989년 제작한 〈가을 서정〉은 추수를 앞둔 과수원의 정경과 토속적인 소재인 염소가 어우러져 향토적인 정취를 물씬 풍기는 작품이다.¹ 수확의 계절임을 알리듯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화면 앞쪽의 과일나무와 그 뒤로 펼쳐지는 풍경이 제목처럼 ‘가을 서정’을 느끼게 한다. 1980년대 후반까지 이 작품처럼 아카데미한 화풍을 추구하던 김관진은 1993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 미술교육을 전공하며 다양한 미술단체에서 활동했다. 2000년 당진 송악초등학교 교감으로 부임한 김관진은 2004년 다소 늦은 나이인 55세에 천안시민회관에서 《제1회 서양화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 10여 차례의 개인전을 개최하며 청순한 작품세계를 선보였다.

1 『천안미술 1961-1989: 기록과 기억으로 말한다』(천안시립미술관, 2024).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나의 삶의 일부이며,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은 나의 그림에서 주된 소재이다. 자연을 심상의 언어로 묘사하고 캔버스에 그림으로 재현하는 즐거움은 내 삶의 활력소다.”라고 말하는 김관진은 50여 년 넘게 사생에 몰두해 왔다. “자연의 진면모를 예리하게 파고들어 마치 그 진수를 뿌리채 뽑겠다는 강한 집착²⁾은 순백의 자작나무를 소재로 한 근작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내 마음의 풍경’이라는 명제를 붙인 작품들에 김관진은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서 만난 자작나무 숲을 모티브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눈 내린 하얀 자작나무 숲을 비롯해 평화의 전령사인 비둘기, 혹은 복과 장수의 상징이자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신령스런 동물인 사슴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향을 담았다.

김관진은 아산 신화초등학교, 천안 부영초등학교, 천안 청룡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2012년 38년간 몸담았던 교직에서 정년 퇴임하며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현재는 전업작가로 활동하면서 그릴회, 천안미술협회, 충남전업미술가협회, 시형회 회원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충남미술대전 초대작가, 충청문화예술협회 초대작가, 천안미술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관진, 〈내 마음의 풍경-자작나무숲〉, 2023, 캔버스에 아크릴, 41×53cm, 작가 제공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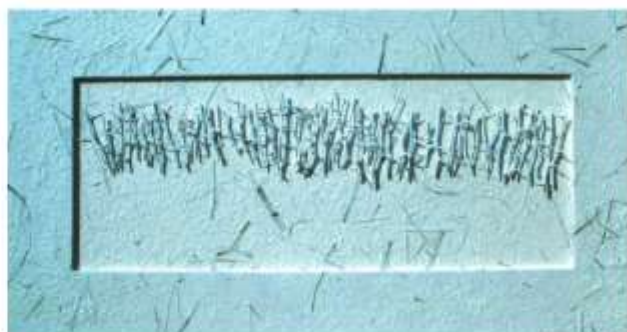
- 1949년 충청남도 보령 출생
- 1971~1972년 공주교육대학교(미술 전공) 졸업
- 1975년 《그릴회 창립전》(공주문화원 전시실)에 참여
- 1976년~현재 《그릴회전》(공주·대전·부여·천안·서울)에 참여
- 1980년 『그릴회지』 창간호 발간/《제5회 향토미전》(부여, 유스호스텔)에 참여
- 1981년 《공주고 미술동문전》(공주, 신평2층)에 참여
- 1983년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전》/《제51회 한국미협 충남도지회전》(천안, 미도백화점)에 참여
- 1983~1984년 서울산업대학교(응용회화 전공) 졸업
- 1984년 《제9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천안 미도백화점)에 〈陽地의 情〉 출품
- 1985년 《도술화랑 개관기념 그릴회 초대전》(천안 도술화랑)에 참여
- 1986년 《제16회 충남미술대전》입선/《제29회 한국미협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2 조영동, 『제3회 김관진 개인전에 부쳐』, 『김관진 서양화전』(2009).

- 1987년 《제17회 충남미술대전》 특선/《충남 동시대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88년 《제18회 충남미술대전》 특선/《제6회 신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 입선
- 1989년 《제26회 목우회공모전》(서울시립미술관) 입선
- 1990년 《제2회 대전직할시 미술대전》 특선(대전시민회관)에 참여
- 1991년 《충청남도 교원미술 작품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1991~1992년 제21회, 22회 《충청남도미술대전》 입선(천안시민회관)
- 1993년 《제3회 끈전》(경인미술관)/《오늘의 천안미술전》(천안문화원)에 참여
- 1993~1994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미술교육 전공) 졸업
- 1994년 《제24회 충청남도미술대전》 특선/《제20회 그릴회전》(서울, 예총회관)에 참여
-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 미술햇불대제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1996년 《천안미술의 탐색과 확장전》(천안문화원)에 참여
- 1997년 《한국미술교육학회전》(교원대미술관)/《공주고대 강사교수 작품전》(공주문예회관)에 참여
- 1998년 《제1회 시형회전》(천안시민회관)/《오늘의 시각 그 이미지전》(천안문화원)
- 1999년 《천안미술의 정신전》(천안문화원)에 참여
- 2000년 《2000년 100호 기획전》(충남학생회관)/《서양화 5인전》(충남학생회관)에 참여
- 2002년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성전》(서울, 하나로갤러리)에 참여
- 2003년 《한국회화 조명 특별초대전》(광주, 비엔날레전시관)에 참여
- 2004년 《김관진 서양화전》(천안시민회관) 개최/《서양화 5인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2005년 《화기애애전》(천안시민회관)/《천안의 4계전》(천안시민문화회관)에 참여
- 2006년 《10인의 유럽 이야기전》(천안시민회관)/《사랑&나눔 특별전》(천안종합운동장)에 참여
- 2007년 《제1회 중견작가 초대전》(천안시민회관)/《제6회 충남초등교원미전》(천안문화원)
- 2008년 《대한민국 회화제-빛과 소리전 II》(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9년 《대한민국 회화제-자연의 표상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2011년 《천안 대표작가 25인 초대전》(천안, 갤러리아 센터시티)에 참여
- 2012년 천안 청룡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황조근정훈장 수여 받음
- 2013년 《천안홍예 취하다/ 천안시 승격 50주년 기념전》(천안, 예술의전당)에 참여
- 2014년 《제15회 향토작가 50인 초대전》(공주, 임립미술관)에 참여
- 2015년 《충남 전업미술작가회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2016년 《역사의 숨결전》(홍주문예회관)/《아름다운 동행전》(당진문예의전당)에 참여
- 2017년 《제20회 시형회 20수작전》(천안, 삼거리갤러리)에 참여
- 2018년 《김관진 서양화전》(천안, 신방도서관)/《사랑 나눔전》(천안시청갤러리)에 참여
- 2019년 《함성-그날의 발자취전(3.1운동 100주년 기념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2020년 《중진작가 초대전-충남미술 맥을 잇다》(천안, 리각미술관)에 참여
- 2021년 《충정의 봄전》(충남도청 작은미술관)/《천안 아트페어》(천안, 삼거리 갤러리)에 참여
- 2022년 《흔적 찾기전》(삼거리 갤러리)/《홍주 천년미술-맥을 찾아서》(홍주문예회관)에 참여
- 2023년 《상리공생-충남작가 150인전(CN갤러리 개관기념)》(서울, CN갤러리)에 참여
- 2024년 《천안미술 1951-1989: 기록과 기억으로 말하다》(천안시립미술관)에 참여

김대순(金大舜, 1949~)

호는 설산(雪山). 1949년 서울에서 출생한 김대순은 국민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께 “그림을 시키면 좋겠다”고 권유하여 미술에 입문하였다. 1974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을 떠나 한적한 지방에서 작품에 매진하고 싶었던 작가는 천안 복자여자중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하며 충남



김대순, 〈넬리 전파하리〉, 2007, 탱자나무줄기와 혼합매체, 53×99cm
(출처: 『김대순 초대전』, 아산갤러리, 2007)

과 인연을 맺었다. 스스로 작품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한 김대순은 자유롭게 작품을 제작하고자 아산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교직을 그만두었다.

학창 시절부터 약 20년간 흰색을 즐겨 사용한 작가는 탱자나무의 길고 뾰족한 가시를 이용해 가시면류관과 십자가를 입체화시킨 작품을 제작했다.¹ 작품 〈넬리 전파하리〉(2007)에서 흰색과 탱자나무 가시를 중심으로 입체화된 조형성을 엿볼 수 있다.

김대순은 2007년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을 겪은 후 《감사합니다》 연작을 시작하였다.²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건강을 주셔서 나이 60을 넘긴 것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 인사를 나누는 것에도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작품에 담고자 한 것이다. 작가는 사소한 것 하나부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라는 단어를 캔버스에 배곡하게 적어 《백만 번의 감사》 연작을 이어오고 있다.

《감사합니다》 연작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감사합니다’를 쓸 때마다 숫자를 세며 작품을 그렸는데 얼마 뒤 이런 행위가 무의미함을 깨달았다. 아울러 시작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었지만 점차 종교적인 의미도 희미해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로 ‘감사합니다’를 반복해 화면에 쓰고 있다. 여러 나라 언어로 쓴 ‘감사합니다’는 나라와 인종을 넘어 단어가 지닌 파스함을 전하고 이 소박한 파스함이 더 큰 파스함으로 탄생하기 바라

1 작가는 국립묘지에 열 맞혀 길게 서있는 하얀 비석과 정례식에 입는 소복을 보고 죽음과 흰색의 연관성을 떠올렸다. 약 20년간 흰색에 집중했던 작가는 이후 연류관 연작을 선보였음을 전화 통화로 확인하였다(김대순 작가와의 전화 인터뷰: 2024. 11. 15).

2 작가가 파음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절한 전광 목사의 『결성감사』(생명의 말씀사, 2007)가 밑거름이 되었다. 「내 삶이 다할 때까지」, 『문양신문』(2013. 7. 4).



김대순, 〈백만번의 감사〉, 2024, 캔버스에 아크릴릭, 72.7 × 80.6cm, 점결속 촬영

는 마음을 담고 있다. 작가는 한 획을 긋더라도 회개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수도자의 마음으로 긋고, 쓰고, 그리고, 뿌린다.³

‘감사합니다’를 반복해 화면에 쓰던 작가는 서양화 붓으로 동양화의 ‘일필휘지’식 표현, 또는 ‘禪’을 차용한 십자가의 형상과 ‘감사합니다’를 빼곡하게 쓴 화면에 다시 ‘감사합니다’를 겹쳐 쓰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 화면 속 선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붓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감사’의 의미를 지닌 낱말들을 찾을 수 있다.

‘백만 번’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이라고는 하지만 대략 100호 사이즈(162×112cm)의 그림에 빼곡하게 ‘감사합니다’를 적어 1,000여 개의 작품을 만들

었을 때 가능한 숫자다. 그야말로 김대순의 작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든 고난의 산물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 같은 고난 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작품 활동을 할 각오를 하고 있다. 작품 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교직을 떠난 만큼 작가는 지금도 자신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을 화면에 구현하며 꾸준히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다.

연보

- 1949년 서울 출생
- 1974년 중앙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입학
- 1979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립현대미술관)에 〈13인과 순대〉 입선
- 1979~1982년 천안 복자여자중학교 역임
 《양상전》(서울, 동덕미술관)에 참여
- 1980년 《제2회 조형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81~1987년 《조형전》(서울, 관훈미술관)에 참여
- 1983~1986년 《아미전》(온양, 동서증권)에 참여
- 1983~2004년 아산고등학교 미술교사 역임
- 1986~2023년 《온양미협전》(아산갤러리 등)에 참여
- 1994년 《제1회 개인전》(서울, 단성갤러리) 개최
- 2000년 《제2회 개인전》(서울, 숭실대학교 환경작기념관) 개최
- 2004년 아산고등학교 명예퇴직

3 김대순, 「작가의 글」, 『김대순 기획 초대전』(아트스페이스 헬리아, 2017).

- 2005~2006년 《당림미술관 초대전》(아산, 당림미술관)에 참여
- 2007년 《중앙대동문전》(천안문화원)에 참여
《제3회 초대개인전》(아산, 아산갤러리) 개최
- 2008년 《아산갤러리개관 초대전》(아산, 아산갤러리)에 참여
《아트대구》(대구, 엑스코)에 참여
《한국미협 아산지부 해외순회전》(중국 베이징, RAIN GALLERY)에 참여
- 2009년 《어울림아트쇼》(아산)에 참여
《아트대구》(대구, 엑스코)에 참여
《중앙현대미술제》(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제31회 온양일요화가회전》(아산, 아산갤러리)에 참여
- 2010년 《제4회 초대개인전》(천안박물관) 개최
《아트대구》(대구, 엑스코)에 참여
《제5회 초대개인전》(아산, 당림미술관) 개최
- 2011년 《제6회 초대개인전》(아산, 라인갤러리) 개최
- 2012년 《제7회 초대개인전》(아산, 아산갤러리) 개최
- 2014년 《제8회 초대개인전》(아산, 아산갤러리) 개최
- 2015년 《한국 현대 미술 방법전》(성남아트센터)에 참여
《당림미술관 26인 초대전》(아산, 당림미술관)에 참여
- 2016년 《오죽하~面전, 3인초대전-김대순·우창훈·홍용택》(아산, 아산갤러리)에 참여
《용의 비늘전 2016》(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ART FAIR KÖLN》(독일)에 참여
《아트부산》(부산, 해스코)에 참여
- 2017년 《당림미술관 개관20주년기념 2인전》(아산, 당림미술관)에 참여
《기획 김대순 초대전》(서울, 아트스페이스 켈리아) 개최
《아트부산》(부산, 해스코)에 참여
《김대순 서양화전》(서울, 아트스페이스 켈리아) 개최
- 2021년 《김대순 개인전》(아산, 아산갤러리) 개최
- 2022년 《제16회 홍주천년미술-맥을 찾아서》(홍성, 홍주문화회관)에 참여
- 2023년 《김대순 초대개인전》(부여아트센터) 개최
- 2024년 《김대순 초대개인전》(아산, 모나밸리 갤러리) 개최
《김대순 개인전》(아산, 루트102 갤러리) 개최

박내후 (朴來厚, 1949~2009)

1949년 경기도 화성에서 출생한 박내후는 고등학생 때부터 박물관에서 산수화를 즐겨 감상하였다.¹ 이는 작가가 한국화에 천착하게 된 계기가 되어, 1967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동양화과에 입학했다. 당시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교수로 있던 박생광에게 수묵화와 채색화를, 장우성에게 수묵화와 문인화를 배웠다. 대학 2학년인 1968년 《전국대학미전》에서 작품 〈원앙〉으로 동상을 수상했다. 대학 졸업 후 1971년 양평여자중학교 미술교사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서울 장훈고등학교와 아산 한울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서울 장훈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아파트에 거주하던 작가는 전원에 살면서 자연을 그럴 곳을 찾던 중 수령 200년 된 왕버드나무가 있고 '고개 너머 꽃 피는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을 발견하고 아산 염치읍 방현리로 이사를 결정했다.² 지은 지 90년이 넘는 돌기와 지붕으로 된 한옥이 맘에 들어 1986년 이사한 박내후는 '고개 너머 꽃 피는 집'이라는 의미로 '방현재'라 이름을 지었다. 방현재 뜨락에 동양란과 함께 대나무·매화나무·소나무 등 각 계절에 어울리는 다양한 나무와 야생화를 심어 감상하고 그림에 담았다. 작가가 동경하던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의 이름을 빌려 '세월당'이라는 당호도 사용했다. 2007년, 박내후는 21년간 미술교사로 근무했던 아산 한울중학교를 퇴직하였다.

한국화의 기본기법인 물감법, 파묵법, 발묵법 등을 활용해 수묵과 수묵담채로 산수화와 화훼화를 주로 그렸던 박내후는 한국화의 엄격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실험적인 작품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1980년대 들어 작가는 용묵법을 실험하듯 담묵·중묵·농묵을 조화



박내후, 〈죽석도〉, 2008, 종이에 수묵담채, 47×74cm, 유족 제공



박내후, 〈연꽃〉, 2008, 종이에 수묵담채, 43×75cm, 유족 제공

1 이 해제문은 고 박내후 작가의 부인 박명숙 관장에게 받은 「작가 노트」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2 박명숙 관장에 의하면 박내후 작가는 생전에 서울 아파트에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박명숙 관장에게 받은 자료 「박내후 이력」과 CN갤러리 전시장(2024. 11. 23)에서 나눈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롭게 화면에 펼쳤다. 1989년 그린 〈폭포〉에는 폭포수 주변에 진한 먹을 활용해 가파른 폭포와 주변 암벽의 질감을 구현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작가는 필선의 운용을 중시하는 맑은 한국화의 근본으로 복귀하는 듯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화면을 선보였다. 영원함을 상징하는 바위와 충절과 지조를 의미하는 대나무를 조화롭게 갈필로 그린 〈죽석도〉(2008)에는 소동파의 시 '녹균현(綠筠軒)'의 일부를 화제로 썼다.³ 담채로 청아한 자태의 연꽃을 완성한 〈연꽃〉(2008)에는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애련설(愛蓮說)」을 화제로 썼다. 작가는 두 작품을 통해서 여전히 여백의 미를 중시하면서 담묵과 채색으로 단아한 고전미를 선보였다.

한국화의 선과 여백의 미에 천착한 박내후는 요즘 화가들에게 보기 힘든 시서화일체를 화폭에 구현하면서 작품에 제시 또는 관지를 쓰고 인장을 즐겨 찍었다.⁴ 작가는 전각을 즐겨 제작해 50개 정도의 인장을 남겼으며, 전서로 새긴 아호인 '芳峴齋(방현재)'와 성명인 '朴來厚(박내후)'를 즐겨 사용했다. 두인(頭印)과 측인(側印)은 전서로 새긴 주문방인(朱文方印)과 백문방인(白文方印), 예서풍의 한글 인장과 다르게 글자 외 다양한 도상들을 새겼다.

교직에 있으면서 꾸준히 작품을 그린 박내후의 주된 소재는 '자연'이었다. 자신의 작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을 느끼게 하고 싶었던 작가는 자연을 그리는데 매진했으며, 퇴직 후 환갑 기념으로 첫 개인전을 열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아쉽게도 개인전을 앞두고 작고하였다. 2019년 유족의 노력으로 첫 유작전을 열었으며, 유족은 작가가 남긴 약 400여 점의 유작을 중심으로 꾸준히 전시회를 열고 단체전에도 출품하고 있다.⁵

연보

- 1949년 경기도 화성에서 출생
- 1967년 보성고등학교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입학
- 1968년 《전국대학미전》에서 〈원앙〉으로 동상 수상
- 197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 1977년 《동향전》에 〈붓다〉 출품
- 1980년 《동문 9인전》에 〈원숭이〉 출품
- 2007년 아산 한울중학교 명예퇴직
- 2009년 작고

3 원제목은 '於澗留綠筠軒'으로 "可使食無肉/가사식무육/ 밥에 고기가 없는 건 괜찮아도, 不可使無竹/불가사거무죽/ 사는 곳에 대나무가 없어서는 안 된다네". 이만주, 「고 박내후 화백의 그림세계」, 『The Korea Journal』(2024. 3. 25).

4 이만주, 위의 글.

5 『유고전 洗月』(팔레트 서울, 2019); 2020년 박성환미술상 수상.

강우석 (姜佑錫, 1951~)



강우석, 〈페사와르 사람들〉, 2002, 캔버스에 유채, 130×162cm. 작가 제공

1951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출생한 강우석은 1970년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3사관학교에 들어가 1971년 소위로 임관한 후 통역장교로 복무했다. 1980년부터 군사영어 교관으로 근무하다가 1982년 충청남도 천안으로 이주했다.

직업 군인으로 지내던 1984년, 30대 중반의 나이에 본격적으로 미술을 전공하고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해 1988년 졸업했다. 뒤늦게 미술가로서의 꿈을 키운 강우석은 1986년(35세) 《제17회 대학미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특선을 받았으며, 1998년(47세) 《충남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했다.

이후 2000년 전업 작가로서 창작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강우석은 군생활을 마무리했고, 퇴직금으로 경비를 마련하여 2001년부터 동남아 및 유럽 40여 국가 답사하며 스케치로 그렸던 소수민족의 삶과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30kg이 넘는 화구와 배낭을 메고, 중국을 시작으로 티베트·파키스탄·이란·터키·태국·라오스 등의 국가를 다니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 산간마을에서 거주민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삶을 기록했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2002년 천안시민문화회관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이 전시에는 네팔·라오스·베트남·중국·파키스탄 등에서 스케치한 각 나라의 독특한 풍경과 인물들의 모습을 꼼꼼한 필치로 묘사한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하려던 무렵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해 파키스탄 국경에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당시 아프가니스탄 난민 2백만 명이 모여 살던 국경도시의 풍경을 포착해 〈페사와르 사람들〉을 그렸다.

이후 계속 답사를 다니며 여러 나라의 모습을 기록했고, 2008년 서울에서 두 번째 전시를 열어 강렬한 붓터치와 원색으로 다양한 민족의 일상을 진솔하게 그린 작품을 선보였다.¹ 습작 시절부터 묵묵히 구상회화를 추구한 강우석은 소수민족의 삶을 주제로, 사라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운 조형 언어로 이국적인 색채를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다.² 2008년 전시에 이어 2010년에는 소수민족을 스케치한 소묘 작품으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1 「소수민족 삶 '화폭에' 천안출신 강우석화백」, 『중도일보』(2008. 1. 2).

2 조기주, 「강우석 개인전 지구촌 사람들 시리즈 중 그 첫번째 고산지대 소수민족 전을 축하하며」, 『고산지대 소수민족전』(서울 갤러리수, 2008).

강우석은 야외 사생을 통해 연마한 일필휘지의 스케치 실력을 토대로, 탁월한 화면 구성과 감각을 보여주는 작가이다. 《세계평화미술대전》(2011), 《도솔미술대전》(2018)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2022년에는 한국미술 천안지부 부지부장을 맡았다. 현재 한국미술 천안지부, 충남중진작가회, 한국전업작가회, 시형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우석, 〈새〉, 2023. 캔버스에 유채. 91×116.8cm, 《천안명동갤러리 개관기념: 프로젝트 10》전 출품작

연보

- 1951년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물한리 출생
- 1970년 안동고등학교 졸업
- 1971년 육군 3사관학교 졸업, 육군 소위 임관
- 1980년 군사영어 교관
- 1982년 육군대위 예편, 충청남도 천안으로 이주
- 1984년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미술대학 입학(1988년 졸업)
- 1986년 《제17회 대학미전》(국립현대미술관) 특선
- 1992년~현재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전》에 참여
- 1993년 《1993 오늘의 충남미술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1994년 《천안미술의 흐름과 그 기능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1995년 《천안미술의 상황과 모색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1998년 《'98 오늘의 천안미술전: 오늘의 시작 그 이미지》(천안문화원)에 참여
- 2000년 예비군 동대장 퇴임
- 2002년 《제1회 개인전》(천안시민문화회관) 개최
- 2008년 《개인전》(서울, 수갤러리/ 천안지원화랑) 개최
- 2010년 《개인전》(천안, 지산갤러리) 개최
- 2014년 《2인전》(천안, 쌍용갤러리) 개최
- 2018년 《개인전》(천안, 한뼘미술관) 개최
- 2021년 《천안중견작가전》(천안, 리각갤러리)/ 《천안아트페어》(천안, 삼거리갤러리)에 참여
- 2022년 한국미술협회 부지부장 역임/ 《프로젝트 8 2022》(천안, 신부문화회관)에 참여
- 2023년 《충남미술 맥을 찾다》(서산, 해인미술관)에 참여
- 2024년 《천안명동갤러리 개관기념 초대전: 프로젝트10》(천안, 명동갤러리)에 참여

구본창(具本昶, 1951~)



구본창, 〈조개잡이〉, 2019, 캔버스에 유채, 50×65.2cm, 작가 제공



구본창, 〈자화상〉, 1973, 캔버스에 유채, 53×45.5cm, 작가 제공

1951년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반촌2리에서 출생한 구본창은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송악중학교 재학 중 미술부에서 활동하며 군·도에서 열린 미술대회에 참가해 여러 차례 수상을 하였다.

중학교 졸업 후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서울에 있는 한양공업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1969년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미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구본창은 서울에 있는 미술학원에서 잡일을 하며 미술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였다.¹ 그러나 미술대학 진학에 실패한 구본창은 고향에 내려오기 전까지 해외로 수출하는 유명 작품을 모사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구본창은 남의 작품을 모사하는 일을 그만두고, 2010년 고향 당진으로 내려왔다. 사실주의에 기반한 아카데미한 화풍을 지속하던 작가는 고향으로 돌아와 인상주의 화풍을 접목했다. 이러한 변화는 작가가 당시 유럽의 미술관들을 탐방하며 고전주의, 인상주의 등 서양의 여러 유파들을 직접 감상하고 공부하면서 생겼다. 귀향 후 본가를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 구본창은 주변에 보이는 안섬포구, 송악읍

풍경, 폐교 등 고향 풍경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구본창은 색맹검사표에서 착안해 완성한 독창적인 ‘물감 흠뻑리기 기법’으로 눈이 내리거나

¹ 작가는 자신의 형편상 국립대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진학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생계를 위해 미술 관련 직업을 갖게 되었다(작가와 대화: 2024. 9. 4).

안개가 낀 듯 흐릿한 화면을 연출해 특유의 서정적 화풍을 담아내는 작가로 평가받는다.² 작가는 그림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보다는 가리는 것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았던 평범한 풍경을 본인만의 독특한 흠뻑리기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2021년 당진문화재단의 '이 시대의 작가'에 선정된 구본창은 회고전 형식으로 작품세계를 아우르는 전시를 개최하였다. 구본창은 관람객이 쉽게 접근하고 따듯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 작가는 주변 풍경과 인물을 그리는데, 인물화의 경우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대중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최근에는 풍경화에 더 집중하고 있다.³ 본연적으로 구본창의 인물화 연작은 작가 자신이 감각하고자 했던 삶의 표정을 기록함으로써 인생의 다양한 흔적들이 담겨있다. 2013년에는 고향의 후배들과 '인물작가회'를 결성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다.⁴

연보

- 1951년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반촌2리 출생
- 1966년 송악중학교 졸업
- 1969년 한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1991년 《구본창 개인전》(서울, 코스모스미술관) 개최
- 1996년 《국제공모전》(롯데화랑)에 참여
- 2007년 《신창나눔전》(서울, 현대백화점)에 참여
- 2012년 《국제 아트페어》(베트남 하노이)에 참여
《대한민국 아트페어》(대구디자인센터)에 참여
- 2013년 해외교류작가회 우수상
- 2013~2016년 당진인물작가회 회장 역임
- 2020년 《구본창 초대전》(당진, 갤러리 풀빛) 개최
- 2021년 《2021 당진 이 시대의 작가전 구본창전 - 그 사람, 그 풍경들》(당진문화예의전당) 개최

² 당진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인터뷰 「2021 당진 이 시대의 작가전 구본창 展 그 사람, 그 풍경들」을 참조하였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cMzhCgYOPGY>.

³ 작가와 통화한 내용이다(2024. 9. 4).

⁴ 김복수, 「구본창의 회화 : 일상이 담긴 풍경들」, 『2021 당진 이 시대의 작가전 구본창전』(당진문화재단, 2021).

이경숙(李京淑, 1951~)



이경숙, 〈세상 밖으로 덕장Ⅱ〉, 2014, 캔버스에 유채, 97×130.3cm(출처: 『당진 이 시대의 작가전』, 당진문화재단, 2019)

이경숙은 1951년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상명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후, 1975년 당진 서야중학교 미술교사로 교단에 서기 시작했다. 28년간 당진 일대 중학교에서 재직한 이경숙은 2005년 정년으로 퇴임했다.¹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 1982년 창립한 '학동인회' 창립회원으로 단체전에 꾸준히 출품하며 화가로서의 삶을 이어갔다.² 교사 은퇴 후부

터 활발히 작품 창작에 임해 2011년(60세) 첫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이후 당진과 서울 등에서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이경숙의 작품은 풍경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작품이 주를 이룬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린 스케치를 토대로 자연에 대한 관조와 사색의 미를 작품에 담았다. 특히 남편의 고향인 경상북도 울진 인근의 부두와 포구를 찾아 덕장을 묘사한 작품을 많이 그렸는데, 덕장은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소재이다. 그래서 울진 외에도 청산도, 보길도, 제주도, 동강, 평해 후포항, 삼척 죽변항 등 여러 포구의 고즈넉한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 많다.

포구나 시골 풍경뿐만 아니라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제작한 스케치를 토대로 제작한 작품도 있다. 2019년 제작한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순례길을 걸으면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완



이경숙,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 2019, 캔버스에 유채, 162×130.3cm×4EA(출처: 『당진 이 시대의 작가전』, 당진문화재단, 2019)

성한 작품이다. '솔피 성지-함덕성당-신리 성지-여시울 성지'를 각각 100호 크기로 그린 다음, 한 화면으로 연결한 이 대형 작품은 실재하는 풍경과 종교적인 이미지를 합성해 독특하면서도 장

1 『(독자와의 만남) 이경숙 작가 '기자의 취재력 돋보여'』, 『당진시대』(2020. 11. 28).

2 박경미, 『(2019 당진 이 시대의 작가) 이경숙 서양화가 ... 작가의 시각으로 담은 풍경』, 『오마이뉴스』(2019. 5. 14).

엄한 화면을 연출했다.

이경숙은 학동인전을 비롯해, 1996년 창립한 《한국미협 당진지부전》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출품했으며, 1998과 1999년에는 《충청남도 교원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2007년 《충남미술대전》에서 특선을 받았다.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2019년 당진문화재단이 선정하는 ‘당진 이 시대의 작가’로 선정되었다. 교회(古稀)의 나이에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는 이경숙은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해,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에서 미술치료 강사로 활동하며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연보

- 1951년 충청북도 영동 출생
- 1975~2005년 서야중학교, 대흥중학교, 신평중학교 등에서 미술교사로 재직
- 1982년~현재 학동인회 창립전부터 참가
- 1996년~현재 한국미협 당진지부 창립전부터 참가
- 1998·1999년 충청남도 교원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 2000년 교육부장관상 수상
- 2002~2008년 베네딕도 수도원 미술강사
- 2002년 국무총리상 수상
- 2006년 《한·중 교류 페스티벌》에 참여
- 2007년 《충남미술대전》 특선
- 2007년~현재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 미술치료 강사
- 2008년 《충청남도 아트페어 초대전 깃발 미술제》에 참여
- 2010년~현재 당진시 평생학습 미술치료 강사
- 2011년 《개인전》(서울, 코엑스) 개최
- 2015년 《당진을 그리다》에 참여
- 2016년 한국예총 당진지회 예술인상 수상
- 2016~2018년 《당진 아트페스티벌》(당진)에 참여
- 2017년 《개인전》(당진) 개최
- 2018년 《개인전》(서울) 개최
- 2019년 당진 이시대의 작가상(당진문화재단) 수상
《당진 이 시대의 작가전》(당진문예의전당) 개최
- 2024년 《제44회 학동인회》(당진, 면천읍성 안 그 미술관)에 참여

김영규(金永珪, 1953~)



김영규, 〈설악산 천불동 계곡 추정〉, 1995, 캔버스에 유채, 112×146cm, 작가 제공



김영규, 〈세계 일주 배가 있는 풍경(아르헨티나)〉, 2013, 캔버스에 유채, 54×65cm, 작가 제공

1953년 전라북도 정읍군 입입면에서 출생한 김영규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시(현재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에 실패한 후 그림을 접하게 되었다. 목탄으로 예수 석고상을 그린 것이 그림의 시작이었으며 1년 남짓 화실에 머물며 그림에 몰두한 결과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과에 입학하였다. 대학교 1학년 때 유화를 처음 접했으나, 고가의 재료비 탓에 3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공으로 유화를 시작했다.

1980년 천안 천성중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하면서 충남과 인연을 맺은 김영규는 2015년 천안 상업고등학교에서 정년퇴임하였다. 칠순을 맞아 1973년에 그린 〈자화상〉부터 2022년 여행지에서 컬러펜으로 그린 작품까지 총망라하여 화집 『畫人生七十 김영규』를 발간하였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성장기(1970~1990년대), 색의 감각기(2000년대), 끝없는 상상기(2010년대), 새로운 변모기(2020년~)로 구분하였다. 1980년 교편을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그

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작품을 활발하게 제작했던 1990년대까지를 성장기로 명명하였다. 이 시기에 작가 자신의 결혼 초례를 비롯해 풍경, 정물, 인물 등 여러 장르의 그림을 제작했다. '색의 감각기'에 해당하는 2000년대는 평면 작업의 단순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친 질감을 활용하고, 어두운 색조 중심에서 밝은 색조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끝없는 상상기'에 해당하는 2010년대에 작가는 새삼 그림을 선택한 것이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회상하였다. 이 시기에 그린 여성 누드 작품이 다수 남아 있으며 국내외 여행지의 자연풍광을 화폭에 담고자 하였다.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사각형의 화면에서 벗어나 원형, 팔각형 등 형태에 변화를 주었다. 이어진 2020년에 들어와서 16각형으로 화면을 변형해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였다.

2013년 처음 『그림 시화집』을 출간한 이후 여러 권의 시화집을 내면서 작가는 삽화 형식에
서 벗어나 연필, 색연필, 플러스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 특히 여행하면
서 본 것과 느낀 것을 담은 시화집 형태의 에세이집을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연보

- 1953년 전라북도 정읍 출생
- 1968년 조선대학교 부속 중학교 졸업
- 1971년 조선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졸업
- 1973년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입학
- 1977년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1980년 충남 천안 천성중학교 미술교사로 부임
- 1997-1999년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11대 지부장
- 1999년 《제1회 개인전》(충남학생회관) 개최
- 2004년 《제2회 개인전》(천안시민회관) 개최
- 2007년 《제3회 개인전》(서울, 수갤러리) 개최
- 2008년 《제4회 개인전》(천안법원갤러리) 개최
- 2010년 《제5회 개인전》(천안, 지산갤러리) 개최
- 2013년 《제6회 개인전》(천안, 쌍용갤러리/ 천안, 미담갤러리) 개최
『그림 시화집 - 산마르코 종소리』(다시올시선) 출간
- 2015년 천안상업고등학교 정년 퇴임
- 2017년 《제7회 개인전》(천안, 삼거리갤러리) 개최
- 2019년 『산행시화집-산이 있고 시가 있어 그리다』(출판사 커뷰) 출간
- 2020년 『사랑 시화집-사랑해 그리워』(출판사 커뷰) 출간
- 2021년 『여행시화집-중앙아시아 카라코람 하이웨이』(출판사 커뷰) 출간
- 2022년 《제8회 개인전》(천안, 신부문화회관 제1전시실) 개최
『畫 人生七十 김영규 화첩』(출판사 커뷰) 출간
- 2023년 『시의 나그네 I 오세아니아 이집트』(출판사 커뷰) 출간
- 2024년 『시의 나그네 II 북아프리카 아메리카』(출판사 커뷰) 출간

이강희 (李康熙, 1954~)



이강희, 〈무제〉, 1992, 보리·잡풀·콩·벼, 설치
(출처: 『이강희』, 나무갤러리, 1992)

이강희는 1954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했다. 중앙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세종대학교 대학원을 마쳤다.

1980년대 《Remain》 연작에서 이강희는 선사시대의 주거지나 그 유적지와 같은 분위기를 전시장에 구현하여 관람자를 지금, 현재의 이 자리가 아닌 과거의 저 먼 장소로 이끌었다. 작가는 돌과 흙, 나무와의 작업으로 언제나 특정 시간대의 시각적 함정 속에 빠져들게 하여 불가시적 존재성을 일깨워 놓고 그 속에 내재

된 사물과 공간, 생명과 허상 등 일련의 이미지들의 관계성 속에서 돌아보게 한다고 말한다.¹ 특히하게 이강희는 통제되고 제어된 실험실 구조에서 콩, 보리와 같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물의 성장이라는 비가시적인 실재를 가시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이강희의 작업을 통해 관람객은 화랑이라는 문명의 공간에서 원초적인 생명체와 그들이 성장하는 무대장치를 보며 오늘날 생태계가 안고 있는 절박한 환경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²

자연물과 인공물의 대비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부조화의 이미지들로 한동안 지속했던 《Remain》 연작은 1990년대 들어 변화를 보였다. 작가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다루었던 자연물 중 흙, 돌, 나무토막 등 무생물뿐 아니라 풀, 새, 짐승과 같은 생명체와 공기, 물, 햇빛과 같은 변화무쌍한 자연물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음을 새로이 자각한 후 소재 선택의 폭을 확장하였다.³

이강희는 작품을 구상하거나 설계하면서 자신의 체험이나 상상력에 한계를 느낄 때면 주로 교외나 시골의 들판을 찾았다. 습관적인 일상생활이나 작품에 관한 생각에서 벗어나 물고기, 새, 잡초, 벼를 보며 이런 모든 사소한 것을 신기하고 아름답게 느꼈던 어린 시절을 상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회상이나 환상은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현대적인 네온 또는 발광물체(전광판을 이용한 시계)와 벼, 보리, 새, 병아리 등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감상자로 하여

1 윤우하, 「전시하이라이트-사유적 교감의 장」, 『월간미술』(1991. 8).

2 윤우하, 「전시하이라이트-생태계 문제를 환기시키는 작업」, 『월간미술』(1995. 5).

3 『미술과 테크놀로지』(서울, 예술의전당, 1991), p. 32

금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⁴

치밀한 계획성을 바탕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돋보이게 하는 이강희의 설치작업은 육중한 터치와 색채를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자연 생태계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문명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보여 준다.⁵

연보

- 1954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
- 1980년 중앙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82년 세종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二人전》(서울, 아람미술관)에 참여
- 1983년 《제2회 전환의 회화전》(서울, 문예진흥원)에 참여
《제20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대구, 수화랑)에 참여
- 1983~1986년 《앙데팡당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4년 《겨울, 대성리48인전》(경기 대성리 북한강변)에 참여
- 1985년 《청년미술전》(서울, 청년미술관)에 참여
《제5회 TA-RA: Tabula Rasa》(서울, 관훈미술관)에 참여
《겨울 대성리 101인전》(경기 대성리 북한강변)에 참여
- 1986년 대원중학교 재직/《이강희전 : 유적지, 빛에서》(서울, 하나로미술관) 개최
《서울 행위·설치미술제》(서울, 아르코스모미술관)에 참여
《물의 신세대전》(서울, 관훈미술관)에 참여
《이강희전》(서울, 관훈갤러리)/《청년작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아시아현대미술전》(일본, 도쿄미술관)에 참여
- 1987년 일본 도치기현립미술관(栃木県立美術館) 아트도큐멘트 우수상 수상
- 1988년 《제3회 375-1전》(서울, 백악미술관)/《개인전》(일본 오사카, On Gallery) 개최
《제1회 아트비디오 서울전》(제3갤러리)에 참여
《Technology Group Show》(서울, 토탈미술관)에 참여
- 1990년 프랑스 리옹국립미술학교 졸업/《개인전》(미국 산호세, Cultural Center) 개최
《개인전》(독일, 베를린 로호갤러리/ 프랑스 앙스, Chateau des Tours) 개최
- 1991년 《이강희》(서울, 토아트스페이스)/《미술과 테크놀로지》(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2년 《이강희전》(서울, 나우갤러리) 개최
- 1993년 《이강희전-설치·평면》(서울, 키미 아트갤러리) 개최
- 1995년 《이강희전: 설치》(양주, 토탈미술관)/《이강희전》(서울, 금호미술관) 개최
《제1회~제4회 토탈미술상 수상작가전》(양주, 토탈미술관)⁶에 참여

4 안의 도록(서울, 예술의전당, 1991), p. 33.

5 장인태, 「조형미로 환지시킨 유년시절의 정서」, 『미술세계』 130(미술세계, 1995), pp. 106~109.

6 이강희는 제2회 토탈미술상을 수상했다. 「90년대 한국 미술 새비람 이끈 문제작들, 30여년 만에 나왔다」, 『한겨레』(2023. 4. 4).

김근중(金謹中, 1955~)



김근중, <귀장연작-망상록>, 1990, 전성 벽화, 140×160cm(출처: 『김근중현대벽화전』, 금호미술관, 1990)

김근중은 1955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나, 어릴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면서 서울로 이주했다. 한양공업고등학교 공예과를 다닐 때 동양화를 전공한 미술교사의 권유로 미술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한 후, 헌책방에서 구입한 일본 소묘책을 보며 석고 소묘를 공부했다. 이렇게 독학한 실력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에 들어갔다. 홍익대학교에 다닐 때, 예산 출신인 서울대학교 이종상 교수에게 문인화를 두 달간 배우기도 했다. 1977년 대학을 졸업한 후 대만으

로의 유학을 감행해 1986년 중국문화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¹

1987년까지 구체적으로 대상을 형상화한 도시풍경 산수를 주로 제작한 김근중은 1988년 초부터 상형문자와 같은 상징화된 기호나 문양으로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다. 필묵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선에 담긴 철학을 배우고자 대만으로 유학을 떠난 김근중은 대만문화대학교 예술연구소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며 청나라 산수화 대가 팔대산인(八大山人, 1624~1703)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석사논문으로 「팔대산인 회화상 필묵과 구도 연구」를 발표했으며, 명말 청초의 승려화가 석도(石濤, 1641~1720?)의 작품 세계에도 경도되었다고 한다.² 대만 유학 시절 고궁박물원의 소장품을 감상하고 동양 고전 회화의 특질을 탐구하며 돈황 석굴 벽화에 매료된 김근중은 이후 회벽의 성질을 활용해 채색이 짙은 작품을 제작했다. 합판에 마포를 부착한 뒤 석회·호분·석고·모래·접착제 등을 활용해 독특한 제작 방식을 발전시켰다.

귀국 후, 여러 단체전에 참여하며 창작활동을 하다가 1990년 금호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이 전시에서 김근중은 고구려 고분이나 중국 둔황의 벽화를 연구하며 터득한 프레스코 방식으로 벽화 형식을 차용한 추상회화를 선보였다.³ 이 시기 작품은 흙, 석고 그리고 소석회 등을 혼합해 바탕을 만들고, 표면이 마르기 전에 긁어내거나 세라믹 파편이나 구슬, 빗짚 등과 같

1 작가 연보는 다음의 책을 참조했다. 김근중, 『한국현대미술전 059: 김근중』(출판회사 역사관, 2024).

2 『이 화가가 30년 걸려서 일게 된 작가 정신』, 『오마이뉴스』(2023. 1. 22).

3 『김근중 작가 “나의 화풍은 자유의지의爆發이다”』, 『뉴스프리존』(2023. 6. 19).

은 재료들을 붙인 후에 덧칠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⁴ 이후 1994년 10월경 양평에 작업실을 마련한 김근중은 한성대학교, 전북대학교 등에서 강의했으며,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작업과 미술 교육에 매진했다.

2002년 무렵, 김근중은 형상을 배제하는 실험적인 작업에 집중하며 3년간의 세월을 보냈다.⁵ 이후 2005년 경 모란 병풍의 매력에 심취해 모란을 소재로 재해석한 꽃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후 《꽃 세상(Natural Being)》연작에서는 새와 발풍선을 통해 해학성과 풍류의식을 표출했다. 평론가 윤범모는 김근중에 대해 전통 화조화와 민화를 바탕으로 현대적 모란도를 창조하며 동양정신의 본질을 꾸준히 탐구하는 기본자세를 지닌 작가라고 평가했다.⁶

전통 회화를 기반으로 10여 년간 꽃을 탐구한 김근중은 2014년 《개인전》(고려대학교박물관)에서 추상회화로 전환한 새로운 화풍을 선보였다. 이전의 《꽃세상》연작을 《꽃, 이후》연작으로 이어가는 한편, 추상적 작업에는 ‘꽃, 이전’이라는 제목을 붙여 구분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는 단색화 경향의 작품을 창작하며 또 다른 작품 경향을 모색했다. 이후 김근중의 추상 회화는 단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평론가 윤진섭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김근중의 단색화는 화면에서 조성된 마티엘 효과로 인해 퇴락한 벽을 연상시킨다. 반면에 거즈를 부착한 화면에서는 횡적으로 죽죽 간 주름의 흔적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질감들은 펄이 섞인 원색과 함께 작가의 독특한 취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근중의 단색화가 지닌 개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김근중 작품의 고유한 성질이다.”⁷

김근중은 1980년대 사실적 수목 풍경, 1990년대 전통 벽화의 재해석과 추상 이미지 탐색, 2000년대 모란의 현대화와 꽃의 추상, 현재 단색 추상까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독창적 예술 세계를 구축한 작가이다.⁸ 동아미술상(1990), 도탈미술상(1993), 안평안장창작미술상(2022)을 수상했으며, 현재 가천대학교 예술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김근중, 《꽃세상(원본자연도, Natural Being)》9-23, 2009, 캔버스에 아크릴, 303×259cm(출처: 김근중, 『한국현대미술선 059: 김근중』, 출판회사 역사관, 2024)

4 『김근중원대백화전』(글로벌미술관, 1990).

5 김너리, 「우리 동네 예술가」, 『경기도뉴스포털』(2017. 9. 6).

6 윤범모, 「모란의 세계 혹은 不然之大然의 논리-김근중의 근작을 보고」, 『김근중전』(동산방화랑, 2008); 김근중, 『한국현대미술선 059: 김근중』(출판회사 역사관, 2024), p. 114 재수록.

7 『김근중 작가, 존재 탐구에 대한 의미 있는 변주를 이어오다』, 『K스피릿』(2022. 5. 11).

8 「목직인 색의 울림 단색추상 선보이는 김근중 작가」, 『뉴스프리존』(2021. 10. 12).

- 1955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
- 1977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1986년 대만문화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졸업
《현대운필전》(서울, 관훈미술관)에 참여
- 1987년 《한국화 100인초대전》(서울, 세종문화회관)/《한국화 모색전》(대전시민회관)에 참여
- 1988년 《'88 한국화신구상대전》(전주, 전북예술회관)에 참여
- 1989년 《동방의 빛》(독일, 베를린시립미술관 · 헝가리 부다페스트갤러리)에 참여
《한국화신행상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90년 《'90 동아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 동아미술상 수상
《개인전》(서울, 금호미술관) 개최
- 1993년 《제3회 토탈미술대상전》(경기 장흥, 토탈미술관) 토탈미술상 수상
- 1994년 《현대미술 40년전의 얼굴전》(경기, 호암갤러리)에 참여
- 1995년 《환류 일 · 한 현대미술전》(일본 나고야, 에이치현대미술관)
《'95 한국현대미술 순회전》(헝가리 외 8개국)에 참여
- 1998년 《4+1=5 artist in Korea》(미국 뉴욕, 에밀리 로우갤러리)에 참여
- 2000년 《개인전》(일본 도쿄, 젠지다키갤러리) 개최
- 2002년 《아름다움과 깨달음》(서울, 가나아트센터)
- 2005년 《세화전문목》(서울, 예술의전당)
- 2006년 《개인전》(서울, 동인갤러리) 개최
- 2007년 《평론가선정 현대작가 55인전》(서울, 골드인사이드)에 참여
- 2008년 《개인전》(서울, 동산방화랑) 개최
- 2011년 《개인전》(서울, 공아트스페이스) 개최
- 2015년 《한독문화교류전》(독일 베를린)에 참여
- 2017년 《개인전》(서울, 김세중미술관) 개최
《한국의 전경, 독도와 울릉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2018년 《개인전》(광주, 롯데갤러리)/《2.2.2 전》(미국 달라스, Mary Tomas Gallery)에 참여
- 2019년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에 참여
- 2020년 《개인전》(서울, 아트비트갤러리)/《꽃 꽃 꽃》(서울, 서울식물원 마곡문화관)에 참여
- 2021년 《개인전》(경기 용인, 갤러리 WE) 개최
- 2022년 안평 안전창작 미술상(안평안전현창사업회) 수상
《개인전》(서울, 도원갤러리/부산, 삼정갤러리) 개최

김석환(金錫煥, 1956~)

1956년 충청남도 아산에서 출생한 김석환은 1981년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서양화과에 들어가 1984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대부터 김석환은 추상회화와 판화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국내외 다양한 전시에 참여했다. 첫 개인전은 1984년 천안 피카소회랑과 서울 관훈미술관에서 열렸으며, 이를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개인전을 개최했다. 1986년부터 오리진회화협회 전시에 참여했으며, 그해 후쿠오카미술관에서 열린 《한·일 현대미술 교류전》을 시작으로, 1993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현대판화 40년전》, 2003~2004년 《뉴욕 판화순회전》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했다.



김석환, 〈산그늘 1〉, 1992, 목판화, 크기미상(출처: 『김석환 목판화전』, 서울 갤러리 고도, 1992)

김석환의 작품세계는 형식 실험과 다채로운 재료 활용이 돋보인다. 초기에는 수묵과 드로잉 중심의 작업을 선보였으나, 이후 전통 판화 기법과 현대적 표현 방식을 융합한 독특한 작품을 창작했다. 1992년 개인전에서는 26점의 목판화를 선보였다. 당시 배니어 합판을 활용한 김석환의 목판화 작품들은 목가적이고 자연을 예찬하는 정취를 발산했고, 다색 목판화의 번거롭고 까다로운 공정을 극복하면서 칼맛의 다양한 표현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¹ 김석환 목판화의 특징은 자연과 도시와의 현격한 대비, 분방한 드로잉을 통한 형식미의 추구, 난색의 은은한 그라데이션을 통한 목가적 정취의 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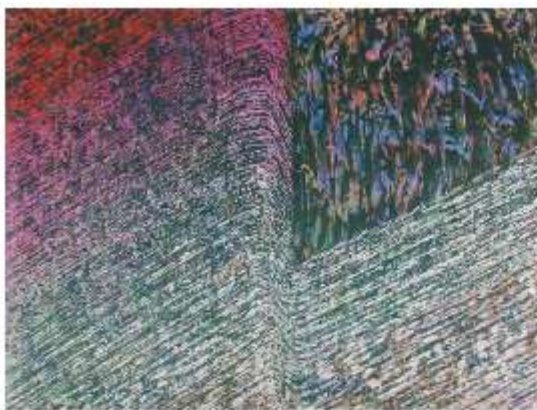
2003년 캐나다 토론토 총영사관 전시실에서 열린 개인전은 그의 작품 세계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무렵 평면의 입체적 해석을 끊임없이 고민한 김석환은 '에폭시 레진'을 활용해 굽어내거나 그 위에 색을 칠하는 등 새로운 판화 기법을 탐색했다.³ 즉 에폭시 레진을 손으로 깎아내려서 표면에 붙여 두께감을 강조한 후, 못자국을 조각도로 새겨 넣었다. 또한 부분적으로 상감기법과 암각화 기법을 활용해 화면을 회석화했다.⁴ 이러한 표현 방식은 원시적인 것과

1 유진섭, 『자연과 문명, 그 판화적 탐색-김석환의 판화개인전에 부쳐』, 『김석환 목판화전』(서울 갤러리 고도, 1992).

2 유진섭, 위의 글.

3 『김석환전: '2004 시간 거슬르기』(서울 갤러리미즈, 2004).

4 『현대미술의 원원과 확산-오리진회화협회 1982-2006』(도서출판 아트나우, 2006), p. 97.



김석환, 〈기억의 나열〉, 2006, 혼합재료, 101×138cm(출처: 『현대미술의 원천과 확산-오리진회화협회 1962-2006』, 도서출판 아트나우, 2006)

현대적인 것, 서양과 동양, 입체와 평면, 입회성과 영원성 등을 한 화면에 융합하고자 한 시도였다.

2022년에는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목판화 작품 47점을 선보이며 지속적인 창작 열정을 보여주었다. 이 전시의 출품작은 단색인 먹색 배경에 한지를 바르고, 그 위에 추상적인 주제와 구상적인 주제를 함께 구성한 판화 작품들이었다. 이처럼 김석환은 끊임없이 판화 예술의 표현법을 확장하고 현대미술

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가이다.

김석환은 한국목판문화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미술협회, 오리진회화협회, 한국판화협회, 홍익판화가협회, 일본 신미술회 등 다양한 미술단체에서 활동했다. 숭의여자대학, 홍익대학교, 단국대학교에 출강했으며, 국립천안공업전문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과 예술 활동을 병행했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공주대학교 공과대학(산업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7년에는 복경공업대학 교환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국립공주대학교 명예교수이다.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조형 언어를 발전시킨 김석환은 한국 판화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연보

- 1956년 충청남도 아산 출생
- 1980년 《향 10인전》(온양)에 참여
- 198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2918전》(서울, 관훈미술관)에 참여
- 1981~1992년 《홍익판화회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82년 《한국현대미술 모색전》(해영화랑)에 참여
- 1983년 《13인 지각전》(서울, 관훈미술관)에 참여
《서울국제드로잉 '83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초대전》(인천, Montmartre화랑) 개최
- 1983~1985년 《앙데팡당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3~1991년 《서울현대미술제》(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84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학과 졸업
《개인전》(서울, 관훈미술관/ 천안, 피카소화랑) 개최
《제1회 서울국제드로잉 비엔날레》(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84~1986년 《홍익 MFA전》(서울, 동방폴라자)에 참여
- 1985년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제5회 한국판화가협회》(서울, 공보관)/《미술가협회회원전》(국립현대미술관)
- 1986년 《개인전》(서울, 윤젤러리)/《서울현대미술 6인전》(일본 도쿄, K젤러리)에 참여
《한·일 현대미술교류전》(일본, 후쿠오카시립미술관)에 참여
- 1986~2006년 《오리진협회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87년 《한국현대판화공모전》(서울, 바탕폴미술관)에 참여
《한&중 현대회화전》(관훈미술관)에 참여
- 1987~1989년 《향토작가초대전》(온양)에 참여
- 1989년 《개인전》(서울, 신화랑) 개최/《서울현대작가전》(서울, 청년미술관)
《단국대학교 미술관 개관기념 교수작품전》(천안, 단국대학교)에 참여
- 1990년 《설치미술제》(장흥 토탈미술관)에 참여
- 1990~1992년 《한국현대판화가협회전》에 참여
- 1991년 《개인전》(서울, 미술회관)/《제16회 애플 드 서울》(서울, 관훈미술관)
- 1992년 《개인전》(서울, 고도젤러리)/《서울현대판화대전》(서울시립미술관)
- 1993년 《한국현대판화 40년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4년 《개인전》(천안, 아라리오 젤러리)/서울, 무역센터 현대아트젤러리
- 1995년 《제1회 서울판화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7년 《아시아현대미술전》(일본, 도쿄도미술관 · 고베아트홀)에 참여
- 1998년 《바람, 꽃, 나무전》(서울, 한원미술관)에 참여
《판화가 있는 시전》(서울, 학교재)에 참여
- 2000년 《개인전》(서울, 세종문화회관/서울, 한서젤러리) 개최
- 2001년 《개인전》(서울, 인사아트센터) 개최
- 2002년 《개인전》(천안, 이계성화랑) 개최
- 2003년 《개인전》(캐나다 토론토, 총영사관) 개최
- 2003~2004년 《뉴욕판화순회전》(미국 뉴욕, 버클리대학교젤러리)에 참여
- 2004년 《개인전》(서울, 미즈젤러리) 개최
- 2005년 《제15회 자연의흐름전》(공주대학교)에 참여
- 2011년 《개인전》(서울, 나무화랑) 개최
- 2012년 《자연, 인간 그리고 소리》(공주, 금강자연미술센터)에 참여
- 2016년 《개인전》(중국 하얼빈, 흑룡강성 화원미술관) 개최
- 2019년 《바람흔적 미술관》(라오스)에 참여
- 2022년 《개인전》(경기 안성, 결젤러리) 개최

박종화(朴鍾華, 1956~)



박종화, 2009, 《OPUS전》 출품작(출처: 아트리브 홈페이지)

박종화는 1956년 대전에서 태어나 목원대학교를 졸업한 후, 1980년대 초반 원주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1982년 《5인전》(대전시민회관)을 시작으로, 1983년 《오늘전》(원주문화원), 《원주미 협회원전》(원주 KBS별관), 《강원교원미전》(춘천 어린이회관) 등에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미술 활동을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원주에 거주하며 《기획 원주청년작가 9인전》(서울, 제3미술관) 등에 출품해 청년 작가로서 주목받았다. 1984년 무렵 대전으로 이주한 후, 《제1회 한밭회화전》(대전문화원)에 참여하며 충남 미술계에 복귀했다.

박종화는 주로 나무를 소재 삼아 나무 표면처럼 느껴지는 추상적 표현을 화폭에 담았다. 한국미술협회, OPUS, 대전현대미술협회, 앙코르지리산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46번가관화가회와 대전관화가협회 등 관화 단체의 회원전에 참여하며 관화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1998년 한남대학교 대학원 조형미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박종화는 같은 해 대전 현대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을 펼쳤다. 이 전시에서는 나무 단면을 매끄럽게 표현하거나 투박한 질감으로 나타낸 작품 20여 점을 선보이며 '대림과 조화'라는 테마로 추상미를 탐구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작품 경향에 대해 "문명의 뒤편에 밀리는 정신세계와 파괴되는 자연, 소외되는 듯한 씁쓸한 인상을 간결한 조형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즉 인간 이면의 참모습과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탐구한 것이다.¹ 같은 해, 그는 《제10회 대전미술대전》(대전시립미술관)에서 관화 부문 특선을 수상하며 관화가로서의 입지도 확고히 다졌다.

박종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 삶의 본질과 가치를 추상회화로 표출하기 위해 독특한 표현 방식을 고안하며 간결한 조형미를 추구했다. 일반적인 조형 기법과 현대적 감각이 발현된 독창적인 표현 방식을 결합해 내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했으며, 주로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했다.

1 「박종화 작품전」, 『중도일보』(1998. 9. 22).

- 1956년 대전 출생
- 1982년 《5인전》(대전시민회관)에 참여
- 1983년 《오늘전》(원주문화원)에 참여
《원주미협회원전》(원주, K.B.S.별관)에 참여
《강원교원미전》(춘천어린이회관)에 참여
- 1984년 《기획 원주청년작가 9인전》(서울, 제3미술관)에 참여
《제1회 한밭회화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89년 《충청미술 청년작가전》(대전시민회관)
- 1990년 《제5회 OPUS전》(대전, 현대화랑)에 참여
- 1994년 《제9회 OPUS전》(대전, MBC문화공간)에 참여
- 1995년 《OPUS 창립 10주년전》(대전, 창신이벤트홀)에 참여
《대전미술의 어제와 오늘》(대전문화원)에 참여
- 1998년 한남대학교 대학원 조형미술학과 졸업
《제1회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조형미술학과 석사과정 연구발표전》(대전, 한림갤러리)
《대전현대미술 표상전》(대전, 현대화랑)에 참여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개최
《한밭미술의 오늘전》(대전시민회관)에 참여
《제10회 대전미술대전》(대전시립미술관)에서 판화부분 특선 수상
- 2000년 《대전 미술문화의 조망전》(대전, 롯데갤러리)에 참여
- 2009년 《OPUS》(대전, 모리스갤러리)에 참여
- 2010년 《OPUS 25주년 기념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에 참여
- 2011년 《제26회 OPUS전》(대전, LH ART갤러리)에 참여
- 2019년 《OPUS 창립 33주년전》(대전예술가의집)에 참여

이종섭 (李鍾燮, 1956~)



이종섭, 《내 안에 당신이 있어요》, 2024, 입체 드로잉·영상, 가변설치, 정경숙 촬영

이종섭은 1956년 충청남도 당진군 읍내동에서 출생했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그림을 즐겨 그린 이종섭은 당진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세종대학교 회화과에 입학했다. 동대학원에서 서양화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다.

“호기심과 상상력이 작업의 동력”이라고 말하는 이종섭은 특정한 형식이나 내용에 고정되지 않고 작가 특유의 생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작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종섭의 작품은 자유자재하고 활력이 넘치는 동시에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¹ 작가를 닮은 듯 익살스러운 인물 형상의 '졸로비(ZOLO-B)'는 관객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작가가 만든 캐릭터다. 작가의 분신인 이 졸로비는 관객들이 자신들을 쉽게 투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가와 관객을 친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이종섭은 관람객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전시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종섭, 《카메라 테스트 ZOLO-B 5707》, 2023, 철, 산소절단, 650×1,050×15cm(출처: 『2023 당진 올해의 작가전』, 당진문화재단, 2023)

이종섭은 전통 연회의 형식을 현대적으로 미술에 접목한 매체통합방식의 《흙소리전》(당진실험지하전시실, 1991), 외외의 상황을 마주하는 관객들의 반응에서 교감의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여보세요》(당진, 남산공원, 2008),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사회와 시대를 돌아보는 《I & KOREA Project 1 - I〈나〉》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2009), 공연예술과 미술이 만나 시너지가 일어나는 《바람불다》(국립극장 달오름극장, 2017), 1991년 흙소리의 두 번째 연작 《흙소리Ⅱ -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1 민병직, 「자유자재하고 활력넘치는, 함께 유희할 수 있도록 하는, 모험은 참 재미있었다」, 『2023 당진 올해의 작가전』(당진문화재단, 2023).

을 때까지》(SPACE B1, 2018), 패션의 변천사를 작품으로 소환하고, 몸에 대한 상상력을 패션으로 확장하는 《Open Run 10 Collection-See through》(갤러리 밀스튜디오, 2022), 캐릭터 풀로비를 통해 관객 스스로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오늘은 참 재미있었다》(당진문예의전당, 2023) 등의 전시를 통해 장르, 매체에 얽매이지 않고 회화·드로잉·입체·설치·행위·춤·음악·영상·디자인 등 영역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연보

- 1956년 충청남도 당진군 읍내리 출생
당진국민학교·중학교 졸업
세종대학교 회화과, 세종대학교 대학원(서양화 전공) 졸업
- 1988년 《이종섭전》(서울, 청남미술관) 개최
- 1991년 《이종섭 '윙소리'종합예술전》(당진, 신협지하전시실) 개최
- 2008년 《여보세요》(당진, 남산공원) 개최
- 2009년 《이종섭 개인전: I & KOREA Project 1 - I〈나〉》(서울, 조제사 대웅전 앞마당/ 나무갤러리) 개최
- 2017년 《이종섭 개인전: 얼어보다》(서울, 금보성아트센터) 개최
《이종섭 개인전: 바람불다》(서울,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개최
- 2018년 《이종섭 개인전: 윙소리Ⅱ》(서울, Space B1) 개최
《이종섭 개인전: 나도 끼워줘》(서울, Space B1) 개최
- 2022년 《이종섭 개인전: Open Run 10 Collections》(서울, 갤러리 밀스튜디오) 개최
- 2023년 《올해의 작가전 이종섭-오늘은 참 재미있었다》(당진, 당진문예의전당) 개최

한주섭 (韓柱燮,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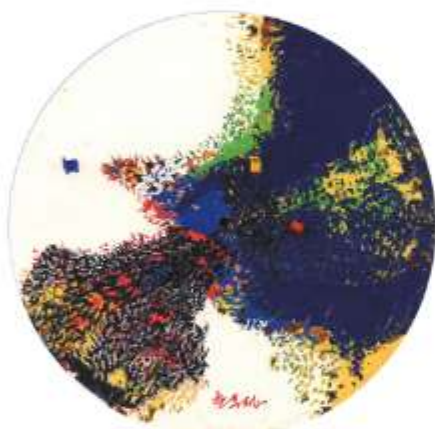


한주섭, 〈무제〉, 1992, 혼합매체, 162.2×97cm, 작가 제공

1956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출생한 한주섭은 어려서부터 미술에 대한 뛰어난 감각과 재능으로 주목을 받으며 1975년 경희대학교 주최로 열린 전국 고교 미술대회 수채화 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1982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학과에 입학한 한주섭은 1987년까지 《흐름수채화전》에 참여했다. 작가는 1988년 천안 동

성중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하며 대전에서 천안으로 이주하였다. 일찍부터 수채화 작업에 매진했던 한주섭은 1989년 천안에서 뜻이 맞는 작가들과 ‘천안수채화협회’를 결성하며 1991년까지 창립회장을 맡았다.



한주섭, 〈무제〉, 2019, 혼합매체, 30×30cm, 작가 제공

고교 시절부터 친숙한 수채화 작업과 함께 새로운 원형 작업을 모색하던 작가는 소장하고 있던 LP음반이 음반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활용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LP와 CD를 활용한 《원형》 연작의 초창기에는 콜라주를 한 듯 물감을 여러 겹 덧칠해 형상을 구현하였으나 차츰 기법에 변화를 보였다. 음반 위에

여러 번 채색을 한 다음에 각기 다른 크기의 점과 선 등 여러 형태로 구멍을 내 흔적을 남겼다. 이러한 작업에 대해 작가는 세상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원형 작업을 했으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빈 공간은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과편이라고 설명하였다.¹ 일부 작품의 화면에는 오브제로 작은 의자들이 등장한다. 의자는 우리 삶에 있어 꼭 필요한 어머니, 휴식, 쉼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원형》 연작에 등장하는 ‘심상 그리고 멈춤’, ‘기억의 단편’, ‘기억과 비움’ 등 부제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한주섭은 작가로서의 행보 외 제15대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장으로서 천안이 미술문화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만들고가 힘썼다. 특히 미술관이라는 특정 공간을 벗어나 시청 로비, 성환

1 한주섭 작가의 전파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한주섭 작가와의 인터뷰: 2024. 11. 19).

역사 등 개방된 공간에서 전시회를 개최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쉽게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미술인들의 작품 활동을 돕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작가는 2007년 동성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중 천안시 교육대상을 수상하는 등 교육자로서도 뛰어난 면모를 보였다.

연보

- 1956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출생
- 1982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입학
- 1982~1987년 《호름 수채화전》(대전시민회관)에 참여
- 1983년 《서양화4인전》(천안문화원)에 참여
- 1986년 《제3미술관 초대전》(대전시민회관)에 참여
- 1986~1994년 《한발회화전》(대전시민회관)에 참여
- 1988년 천안 동성중학교 미술교사로 부임
- 1989년 청년예술단체 '신세대' 창립 및 《창립전》(천안문화원)에 참여
- 1990년 《아라리오화랑 개관초대전》에 참여
- 1990~2005년 《천안수채화협회(현 충남수채화협회)》²⁾(천안시민회관, 천안학생회관)에 참여
- 1990~2024년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전》(천안예술의전당 외)에 참여
- 1992년 《천안문화원 개관초대전》(천안문화원)/《6인의 제안전》(천안문화원)에 참여
- 1993년 《시대감성전》(천안시민회관)/《트임전》(서울, 관훈미술관)에 참여
- 1993~2004년 《존재전》(대전시민회관 외)에 참여
- 1994~1995년 《서양화5인전》(천안, 아라리오화랑)에 참여
- 1994~1997년 《오늘의충남미술전》(부여청소년수련원, 보령시 보건소 2층, 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1998~2017년 《향토작가 초대전》(천안시민문화회관, 성환역 특별 전시장 등)에 참여
- 2004~2009년 《내포현대미술제》(홍성, 홍주문화회관)에 참여
- 2006년 《개인전》(천안시민문화회관) 개최
- 2009년 《제3회 중견작가회 하모니전》(천안시청 로비)에 참여
- 2010년 《한주섭 개인전》(천안, 지산갤러리) 개최
- 2013년 《천안, 흥에 취하다》(천안예술의전당)에 참여
- 2013~2021년 《터전》(서울, 인사아트센터)에 참여
- 2019년 동성중학교 정년 퇴임/《개인전-기억의 단편》(천안, 산방도서관 한뼘미술관) 개최
- 2022년 《개인전-기억 그리고 비움》(천안문화재단 삼거리갤러리) 개최
- 2023년 《천안미술의 길을 본다》(천안, 리각미술관)에 참여

2 1993년 제4회부터 협회명은 '충남수채화협회'로 변경되었다.

강인옥(姜仁玉, 1957~)



강인옥, 〈Inside Scenery〉, 판넬에 혼합매제, 117×91cm(출처: 『내 마음의 풍경: 꿈꾸는 자작나무 강인옥』, 당림미술관, 2013)

1957년 대전에서 출생한 강인옥은 서울 건국대학교 생활미술과를 졸업했다. 대학교 졸업 후 이산중학교 미술교사로 잠시 재직했으나 퇴직 후 전업작가로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전업작가로 전환한 뒤 강인옥은 이전의 사실적 묘사 중심에서 벗어나 비 오는 거리의 모습, 야경, 새벽안개 등을 통해 회화적이면서 감성적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후 자신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작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파노라마 형식에 동화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관람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작가의 생각은 《Inside Scenery(내 마음의 풍경)》 연작으로 구현되었다.¹ 2004년 처음으로 자작나무를 화폭에 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겨울의 끝

자락에 지루해하는데, 저 하얗게 뻗은 자작나무 사이사이를 노오란 봄 나비가 살랑살랑 날아가는 그 느낌이 어떨까 싶어서 그것을 첫 작업으로” 그린 것이라고 한다.²

2009년부터 강인옥은 본격적으로 《내 마음의 풍경: 꿈꾸는 자작나무》 연작을 제작하였다. 작가는 상투적인 자작나무 그림에서 벗어나 보편성을 지니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자작나무를 그리고자 회화에서 사용하지 않는 두꺼운 건축용 알루미늄으로 자작나무를 형상화하였다. 건축용 알루미늄을 활용한 것에 대해 작가는 “일반적인 자작나무 그림에서 느끼는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림 안에 자연과 사람, 우주 심지어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든 것들이 어색함 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다. 아연판을 활용해 점묘법으로 표현한 화면에는 동화적, 서정적 요소들이 가득하다. 또 자연과 인간과 동물, 그리고 과학이 모두 어우러지는 그런 표현을 하고자 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상징물로 알루미늄을 택했다”고 한다.³

1 『그림은 나를 완성시키는 도구이다』, 『은양신문』(2013. 6. 13).

2 위의 기사.

3 『당림미술관, 아산출신 강인옥 초대전』, 『아산투데이』(2013. 6. 7).

알루미늄판에 채색을 하고 나무 부분을 긁어 내어 온색의 매끈한 자작나무 줄기의 느낌을 살렸다. 화면 속의 자작나무는 빛의 각도에 따라 다르게 반사되어 다양한 색이 만들어진다. 알루미늄을 오브제로 빛과 알루미늄이 충돌하며 만들내는 오묘한 색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통해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

강인옥은 자연을 바라보는 의식과 기억 등 작가 개인의 감성을 시적 이야기로 풀어냈다. 막연하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풍경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애잔하면서도 쓸쓸하게 묘사하여 관람자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화면에 펼쳐진 자연 위

로 작은 물줄기가 흐르고 버스가 지나고 있다. 그 위에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집, 종이배, 오리 등의 형상도 그려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간이고 터전일 수밖에 없음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들이 삶의 사유가 되어 화면에 담긴다. 유난히 작게 그린 인물, 차, 오리, 집 등과 세밀로 무수하게 반복한 붓질, 중첩된 선과 색의 표현이 현실적인 소재를 동화의 세계로 이끈다.⁴



강인옥, 〈Inside Scenery〉, 2019, 혼합매체, 100×100cm
(출처: 「2019 아산작가 12인 초대전」, 당림미술관, 2019)

연보

- 1957년 대전 출생
- 1975년 건국대학교 입학
- 1979년 건국대학교 생활미술과 졸업
- 1983년 《3인전》(천안소방서 지하)에 참여
- 1986년 아산중학교 미술교사로 근무
- 1993년 《제8회 한국미협 온양·아산지부전》(도고 글로리 콘도)에 참여
- 2003년~현재 《충남 여류작가전》(천안중앙도서관 분관 쌍용갤러리, 천안예술의전당)에 참여
- 2009년 《강인옥 개인전》(서울무역센터 전시장) 개최
 《2009 어울림 아트 쇼》(아산, 아산갤러리)에 참여
- 2010년 《한국미술의 빛》(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제2회 강인옥 특별전》(아산, 삼성코닝정밀주식회사) 개최
- 2011년 《제3회 개인전》(서울, 한가람미술관) 개최
- 2011~2013년 《대구 국제 아트페어》/《베이징 아트 엑스포》(중국 북경)에 참여

4 김수열, 「내 마음의 풍경」, 『Inside Scenery』(아산갤러리, 2013).

- 2011~2014년 《서울 오픈 아트페어》에 참여
《독일 쾰른아트페어》에 참여
《부산 아트쇼》(부산 벡스코 전시관)에 참여
- 2013년 <AHAF>(서울, 콘라드호텔)에 참여
《당림미술관 초대 개인전-내 마음의 풍경: 꿈꾸는 자작나무》(아산, 당림미술관) 개최
《아산갤러리 초대전》(아산, 아산갤러리) 개최
- 2014년 《New york Fountain Art fair》(미국 뉴욕)에 참여
《KIAF KASF 씬머 페스티벌》(서울무역센타)에 참여
《투바이전》에 참여
《Marco polo Hong Kong》에 참여
《강인욱 초대전》(삼성코닝정밀주식회사) 개최
- 2015년 《아산 아트페어-아산, 예술로 문을 열다》(온양민속박물관 구정아트센터)에 참여
《전국 우수작가초대전》(보령, 웅천문화공원내 갤러리탐)에 참여
- 2017년 《Inside scenery》(온양민속박물관 구정아트센터)에 참여
《당림 이종부화백 탄생100주년 추모전》(아산, 당림갤러리)에 참여
《충남 종진작가회전-충남미술 맥을 찾다》에 참여
- 2022년 《홍주천년미술 맥을 찾아서》(홍주문화회관)에 참여
- 2023년 《제6회 개인전》(아산, Gallery 루트102) 개최
《12인 초대전》(온양민속박물관 구정아트센터)에 참여
《충남 종진작가회전-충남미술 맥을 찾다》(서산, 지곡 해인미술관/ 서해미술관)에 참여
- 2024년 《대구 국제아트페어》(대구 엑스코 전시관)에 참여
《2024 아트부산》(부산 벡스코 전시관)에 참여
《모나렐리 갤러리 초대 개인전》(아산, 모나렐리 갤러리) 개최

송인욱(宋寅旭, 1957~)

송인욱은 공주사범대학교를 졸업한 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에 창립된 '호동인' 회원으로 창립전부터 참여했다.¹

1980년과 1982년 《구상전》에서 특선을 두 번 받았으며,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충남미술대전》에서 특선을 5차례 수상했다. 특히 1987년 《제17회 충남미술대전》에서는 우수상을 받았다. 1996년 《제15회 대한민국미술대전》(서양화 부문)에서 특선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교사미술대전》에서 1등을 차지해 주목을 받았다.

송인욱은 독창적인 형태와 시각 이미지로 '시간'과 '공간'을 추상화하는 표현 방식에 몰두해온 작가이다. 색채·질감·선·창조된 형태 등 추상적 요소를 활용한 화면구성을 통해 내면의 정신세계를 화폭에 드러내고자 했다. 〈정물 87-c〉는 1987년 《제17회 충남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으로, 갈색조의 물감을 두껍게 덧바른 다음에 표면을 깎아 냄으로써 입체감이 돋보이는 화면 질감을 표현했다. 송인욱은 형태를 변형하고 상징적인 이미지로 추상화시킨 자신의 표현 방식에 대해 내적 표현의 자유로움과 더불어 억압된 의식의 해방을 통해 내면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²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15대 한국미술협회 대전시지부 부회장을 맡았고, 충남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대전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공주대학교·공주교육대학교·충남대학교에 출강했다. 대덕공업고등학교·대전두리중학교·한밭고등학교 등에서 교사로 재직



송인욱, 〈정물 87-c〉, 1987, 캔버스에 유채, 112×145cm, 대전시립미술관(《제17회 충청남도미술대전》 우수상(도교육감상) 수상작)



송인욱, 〈컴포지션(Composition)〉, 2007, 캔버스에 유채, 91×116.8cm(출처: 『대전미술하나 : 그림으로 말한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1 《호동인전》(1980) 창립전 참여 작가는 송인욱, 나진기, 신진호, 심웅택, 이원희 등이다.

2 『대전미술하나 : 그림으로 말한다』(대전시립미술관, 2008), p. 165.

했으며, 대덕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에 퇴임했다. 송인옥은 구상전 회원으로 매년 전시에 꾸준히 참여했으며, 대전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특히, 교육자로서 예술과 교육의 융합을 실천하며, 후진 양성과 지역 미술계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연보

- 1957년 출생지 미상
- 1980년 《제9회 구상전 공모전》 특선
- 1980~1988년 《충남미술대전》 특선 5회
- 1981년 《제10회 구상전 공모전》 우수상
- 1982년 《제11회 구상전 공모전》 특선
- 1985년 《창립 형상전》(대전시민회관)에 참여
《제4회 가들미술대전》(문화예술진흥원 주최) 입선
- 1987년 《제17회 충청남도미술대전》 우수상(도교육감상) 수상
《8인의 시각전》(서울, 제3미술관)에 참여
- 1996년 《제15회 대한민국미술대전》(서양화 부문) 특선
《교사미술대전》에서 1등상 수상
- 2004~2008년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부회장 역임
- 2006년 《대전교원 5인 초대작가전》(공주, 임립미술관)에 참여
- 2007년 《공주국제미술제》(대전교육미술관)에 참여
- 2008년 《나눔과 섬김전》(대전, 대청문화전시관)에 참여
《제9회 향토작가 초대전》(공주, 임립미술관)에 참여
- 2009년 《제10회 향토작가 초대전》(공주, 임립미술관)에 참여
《송인옥 서양화전》(대전, 현대화랑) 개최

윤태중 (尹台重, 1957~)

1957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했다. 윤태중은 목공 일을 하는 친구의 작업장이 화재로 인해 잣더미로 변한 중에 돌 두꺼비 한 마리가 그을음 속에 남아 있는 것을 보고 화재를 견디는 돌에 감흥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 돌을 만지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석장의 나이는 서른 다섯이었다. 보통 석공들과 달리 35살에 문득 생을 마치기 전에 돌 작품을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¹ 일이 너무 재미있어 이후 10년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돌 두드리는 작업에 매진했다. 7년 정도 돌을 두드리니 돌에서 자신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8년을 넘어서면서 돌에서 작가 본연의 빛깔이 느껴졌다고 한다.

1990년부터 석공일을 한 윤태중은 공주시에 금강조각연구소를 만들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 석물들은 일본인의 기호에 맞춰 일본식으로 변형되었으며, 1970년대 수출위주 정책으로 다시 일본인의 요구에 따라 일본적인 요소가 가미된 석물을 주로 제작했다. 이것이 우리 고유의 석물 양식이 흐려지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석물의 수요 감소에 따라 침체기에 들어서자 석공업에서 비로소 우리 고유의 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석장은 현재와 같은 한류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더욱 한국적인 미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윤태중은 돌을 고르는 안목, 돌의 물성을 파악하는 능력, 미적 감수성을 통해 돌이라는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열심히가 아닌 죽기 살기로 한다'는 작가는 조형물이 1mm의 오차만 나도 바로 알아차려 '움직이는 자'로 불린다. 작업장을 가진 석공들이 대부분 전시장을 갖고 있지만 윤태중은 전시장을 만들지 않았다. 작업이 끝나면 다음날 출고 되는 상황이라 전시할 석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300점 이상의 석재문화재 보수에 참여했고, 그 중 국보가 30여 점에 이른다. 윤태중은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 조성공사 및 연꽃 석함을 제작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는 남산 추모공원의 '기억의 터'의 석물 공사도 담당하였다.



윤태중, 〈파멸사 사자자삼층석탑〉 수리 후 북측면
(출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¹ 윤태중 석장과 전례불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윤태중 석장과의 전화 인터뷰: 2024. 8. 21).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보물 제298호), 부여 대조사 미륵대불(보물 제217호), 산청 범왕리 삼층석탑(국보 제105호), 동국대박물관 보협인석탑(국보 제209호), 월정사 석조보살 좌상(국보 제48-2호), 구례 화엄사 사시자삼층석탑 복원(국보 제35호)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이 윤태중 석장의 손끝에 의해 보전되고 복원되고 있다.

석공 일을 배우고자 하는 후학이 드문 현실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석공 일을 하고 있다. 석장은 아들을 스승인 석장 고석산의 문하에서 석공의 기초인 망치질부터 배우도록 하였다. 아들에게 실기에 머물지 않고 이론도 익히도록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에서 수학하도록 하였다.² 문화재기능인 제2156호(석조각) 윤태중은 2020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로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³

연보

- 1957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
논산 성동면 원봉국민학교 졸업, 논산중학교 2학년 때 건강 문제로 자퇴
- 1995년 국립공주박물관 석조 중대석(보물 149호) 복원
- 2001년 국보 54호 연곡사 부도 복제품 제작
- 2006년 경복궁-국립중앙박물관 내 봉인사 부도암 사리탈(보물 928호)
- 2007년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보물 184호) 해체 복원
- 2008년 논산 관촉사 온진미륵불(보물 218호) 의석 제작
공주 국립박물관 중동석조(보물 148호) 해체 복원
- 2010년 고 노무현대통령 묘역공사(행정안전부) 국가 묘역 1호
- 2011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보물 100호) 수리, 복원
- 2013년 백제창왕명석조사리함(국보 288호) 이전
- 2014년 청량사 석등(보물 253호) 이전, 복원
- 2015년 부여 무량사 석등(보물 233호) 해체 복원
- 2016년 정토사지 흥법국사 석상탑비(국보 102호) 이전, 복원
《제13회 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 충남지회초대기획전》(웅천돌문화공원 갤러리탑)에 참여
- 2017년 나주 서문안 석등(보물 364호) 해체 이전, 복원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보물 298호) 해체 복원
정주 천룡사지 삼층석탑(보물 1188호) 외 다수 복원
- 2018년 산청 범왕리 삼층석탑(국보 105호) 복원
- 2019년 월정사 괘각구층석탑(국보 48-1호) 상륜부 해체 작업 진행
- 2024년 한국 전통춤의 거장 한성준(1874-1941) 비석 제작

2 「열심히 하지 않는다. 죽기 살기로 한다」, 『특급뉴스』(2020. 6. 20).

3 「[수상소식] 윤태중 금강조각연구소장 “2020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대통령상 영예」, 『농민신문』(2020. 12. 12). 윤태중은 ‘2020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으로 받은 상금 5백만 원을 ‘희망2021 나눔캠페인’에 기탁했다.

최원락(崔元洛, 1957~)

1957년 충청남도 아산에서 출생한 최원락은 국민학교 입학 선물로 외숙모로부터 고급 크레파스를 선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일찍부터 그림을 그렸다. 작가의 실력을 인정한 국민학교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미술대회에 자주 선발되었다. 아산중학교 2학년 때 미술부에 가입해 미술을 전공한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서울 경신고등학교로 전학해 서양화가 박용인 화실에 다니면서 비로소 전문적으로 미술교육을 받았다. 1979년 동국대학교 미술학과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최원락은 유화를 먼저 접했으나 한국화의 선과 채색에 매료되어 한국화의 전통 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을 했다. 조선시대 관복 흉배에 있는 두 마리 학을 소재로 한 작품 〈흉배+서〉, 〈흉배와 문양〉처럼 전통적인 문양을 재해석한 작품을 제작했다. 문관을 상징하는 학이 있는 흉배와 연꽃, 여의두문 또는 한시(漢詩)와 조합하여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켰다. 2022년 작품 〈쌍호흉배〉에서는 흉배라는 틀을 벗어나 무관을 상징하는 호랑이 두 마리의 본체만을 살리는 변화를 선보였다. 호랑이의 주위에는 전통적인 문양인 칠보문(구름문양)을 배치하였다. 묵어와 풍정(風情), 솟대, 삼죽오, 태극, 단청, 해태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작품 소재를 통해 전통 문양과 유물에 대한 작가의 탐구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작가는 스스로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붓을 쥐고 그림을 그린다. 이 과정에서 옛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선현의 숭고한 열과 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구현하고자 한다. 과거와 현재,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벽이 허물어진 하나의 세계를 담고 그 안에서 한국적인 미를 찾으려고 한다. 최원락은 그림을 그리면서 외적으로 사물을 보는 눈이 성장하고 미적 요소들이 어우러지도록 심상들을 표현하는 능력이 점차 발전하고 있는 것을 스



최원락, 〈활와 驢〉, 1993. 화선지에 수묵채색, 60×50cm(출처: 『제8회 한국미술협회 온양아산 지부전』, 도고글로벌리온드, 1993)



최원락, 〈쌍호흉배〉, 2022. 한지에 채색, 50×50cm(출처: 『아산시대』, 표지화)

스로 느낀다고 한다. 동시에 작가는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¹

연보

- 1957년 충청남도 아산 출생
- 1976년 서울 경신고등학교 졸업
- 1979년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입학
- 1986년 《제1회 개인전》(서울, 공간사랑) 개최
- 1987~2019년 온양 한울중고등학교 미술교사 역임
- 1987~2023년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전》에 참여
- 1988~1999년 《한국미술협회 충남지회전》에 참여
- 1993년 《오늘의 한국미술전》(온양민속박물관)에 참여
- 1995년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 송년미술제》(온양문화원)에 참여
- 1997~1999년 한국미술협회 제4대 아산지부장 역임
- 2000년 충남예술문화상 수상
- 2001년 《아산미술 모색전》(아산시청 특별전시실)에 참여
- 2002~2004년 《충남 한국화협회전》(천안시민회관/ 공주문예회관)에 참여
- 2008년 《한국의 가을비전》(중국 베이징, Raing Gallery)에 참여
- 2009년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현대미술전》(온양민속박물관)에 참여
《제13회 연기 가을예술제》(연기문화예술회관)에 참여
- 2009~2014년 《충청현대한국화회전》(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 외)에 참여
- 2011년 《제2회 최원락 한국화 개인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갤러리) 개최
- 2012년 《한국미술 회망의 동행전》(아산평생학습관 갤러리)에 참여
《한국조각회화 초대전》(아산평생학습관 갤러리)에 참여
- 2014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초대전》(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캠퍼스)에 참여
- 2015년 《제3회 최원락 한국화전》(온양민속박물관) 개최
- 2023년 《아산 우수작가 초대전》(온양민속박물관)에 참여
《설화예술제미술전》(아산문화재단)에 참여
《제4회 최원락 개인전》(아산, 킹스베리 갤러리) 개최
『아산시대』 20호 표지화 선정/ 《미술의 성립전》(아산, 킹스베리 갤러리)에 참여
《아산지역 작가 24인전》(호서대학교 학술정보관)에 참여
- 2024년 《미술의 성립전》(아산, 루트 102 갤러리)에 참여

1 『제4회 최원락 한국화 개인전』(킹스베리 갤러리, 2023).

김윤숙(金允淑, 1958~)

호는 늘꿈.¹ 김윤숙은 1958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출생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김윤숙은 미술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택했다. 결혼과 이어진 육아에 시어머니 돌봄까지 맡았던 작가는 가정의 역할을 위해 '개구장이'라는 이름으로 아동복 매장을 약 10여 년간 운영하였다.



김윤숙, 〈충장사〉, 2019, 종이에 수묵담채, 56×91cm, 작가 제공

1996년 그동안 가정사로 잊고 있던 그림의 세계로 다시 입문하게 되었다. 서울, 경기, 홍성으로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어렵게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된 작가의 눈에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이 문인화였다. 작가는 채움과 비움의 미학이 담긴 한 편의 시와 같이 화선지에 퍼지는 먹과 물감의 느낌이 좋아 문인화에 끌렸다고 한다. 문인화는 봉석 임환철과 화정 김무호, 한국화는 박진균과 설지 이영환에게 사사했다. 홍익대학교 예술교육원과 상명대학교 교육원에서 미술을 전공하면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적 시야를 확장시키려고 노력했다.

작가는 아호 '늘꿈'과 같이 '늘 꿈을 꾸는 생'을 주제로 인간의 근본적인 삶과 의미가 담긴 작품들을 선보여 왔다. 작품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감정과 의미를 작가만의 회화적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앵벌레와 나비, 거울과 꽃, 물방울과 날개, 절벽, 소나무 등은 '생'의 시련과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담아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드러낸다.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나비로 탄생하는 모습을 그린 10폭의 평면작품 《生》을 비롯해 〈너에게〉, 〈정열〉, 〈파랑나라〉, 〈초록나라〉, 〈우아〉, 〈그 곳을 향하여〉, 〈승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축제〉로 연결된다. 나비의 탄생 과정을 통해 환경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스토리텔링하듯 담겨있다. 〈충장사〉는 한국의 전통 사찰과 자연의 조화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이 그림은 충장사의 담장과 건물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펼쳐진 자연 풍경을 은은한 담채로 그린 작품이다. 화면 중앙의 오래된 나무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 자연의 상징으로,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과 고요한 내면을 떠올리게 한다.

〈비상〉은 부엉이 두 마리가 소나무 가지 위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을 포착한 그림이

¹ 본 해제문은 김윤숙 작가가 직접 작성한 초고와 탈진문화재단에서 제작한 동영상 중심적으로 작성하였다. 작가는 늘꿈, 옥암, 설호, 여운 등 네 개의 호가 있으나 늘꿈을 가장 즐겨 사용한다. 이는 늘 꿈을 꾸는 모습에서 늘꿈이 인생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김윤숙, 〈비상〉, 2024. 종이에 수묵담채, 118×139cm. 작가 제공

다.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부엉이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힘찬 날개짓이 눈길을 끈다. 부엉이들은 지혜와 예지력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이 그림에는 힘차게 날아오르는 부엉이의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자신만의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김윤숙은 일관되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인간의 삶과 생물체들의 연결 관계를 다양한 조형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평면에 머물지 않고

소재를 침구, 커튼, 한지 등과 같은 생활용품으로 확장해 나갔다. 초기에는 ‘늘꿈먹그림실’을 운영했으며, 2008년 《먹그림사랑 창립전》을 시작으로 꾸준히 먹그림의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숙은 2022년 당진문화원장에 취임해 당진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비롯해 충청남도미술대전 심사와 운영위원, 고불서화대전 심사와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보

- 1958년 충청남도 홍성 출생
홍성중학교 졸업/ 홍성여자고등학교 졸업
- 1997년 《당진미협전》(당진, 문예의전당)에 참여
- 2003년 《개인전》(당진, 수선화공간) 개최
- 2006년 《개인전》(당진, 문예의전당) 개최/ 합덕읍자치센터 문인화 강사
- 2008년 《대한민국 현대여성 미술대전》 한국화부문 대상 수상
- 2009년 《제2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우수상 수상/ 《개인전》(당진, 문예의전당) 개최
- 2010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선정/ 《시화전》(합덕, 소들회관)에 참여
당진문화예술학교 한국화&문인화 강사
- 2011년 《부스전》(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 참여/ 《시화전》(합덕, 소들회관)에 참여
《개인전》(당진, 문예의전당) 개최/ 《개인전》(서울, 덕원갤러리) 개최
- 2012년 신성대학교 교육원 문인화 강사
- 2013년 《부채전》(합덕, 소들회관)에 참여/ 《아트바젤 갤러리 초대전》(당진, 왜곡마을)에 참여
- 2015년 당진복지센터 문인화 강사
- 2016년 《당진문화재단 초대전》(당진, 문예의전당)에 참여
- 2019년 늘꿈 갤러리 개관
- 2022년 제12대 당진문화원 원장 취임

김진국(金振國, 1958~)

호는 嶠甫(승보). 김진국은 1958년 충청북도 제천에서 출생했다. 출산 과정 중 얻은 병으로 학교를 다니기 어려웠던 김진국은 집 근처 가까운 서당을 다니며 한글과 한문을 깨우쳤다. 훗날 김진국은 “서당에서 훈장님을 통해 배웠던 한글과 한문이 자신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했다.¹

1973년 남정 최정균(崔正均, 1924~2021)에게 사군자와 문인화를 배웠고, 1992년 화정 김무호에게 문인화를 배웠으며, 1988년에는 임홍규(林弘圭)에게 서예를 배워 문인화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993년 **천안으로 이주한** 김진국은 문인화의 현대적 발전을 위해 2001년, ‘전통먹그림 연구실’을 개원해 2024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김진국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민족의 미술 양식도 변한다. 문인화 역시 시대적 요구에 맞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이러한 생각은 ‘전통먹그림 연구실’ 운영과 문인화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로 이어졌다. 그 결과 회원들과 함께 『전통과 현대의 마중』(2013), 『自然 山水 행복한 나를 찾아서』(2016)를 출간했다. 문인화의 기본을 잃지 않으면서 전통 속에 현대를 아우르는 작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작품집들이다.

1985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출품을 시작으로 《문인화 대전》에서 특선 3회, 입선을 2회 했으며,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동아미술대전》에서 특선 2회와 입선 3회를 했다. 이후 《충청남도 미술대전》에 출품해 특선 2회, 3회 입선했으며, 2003년에는 문인화 부문에 〈연륜〉을 출품해 대상을 받았다.² 1998년 제8회 문인화부문 한국 청년작가로 선정되었다.



김진국, 〈자연의 순환〉, 180×100cm, 종이에 수묵담채, 작가 제공

1 작가와의 인터뷰(2024. 12. 7).

2 박희애, 「[충남미술 부문별 대상자 인터뷰] 문인화 김진국씨」, 『충청투데이』(2003. 5. 21).

연보

- 1958년 충청북도 제천 출생
- 1985~1995년 《충청북도 미술대전》 특선 2회, 입선 3회
- 1985~2004년 《대한민국 미술협회 문인화 대전》 특선 3회, 입선 2회
- 1990~1997년 《동아 미술대전》(동아일보사 주최) 특선 2회, 입선 3회
- 1993년 《제8회 전국회화대회》(세종문화회관) 참여
- 1997~2005년 《충청남도 미술대전》 특선 2회, 입선 3회
- 1998년 대한민국 국제 서법 문인화 부문 초대작가
제8회 한국청년작가 선정 문인화부문(예술의 전당)
- 2003년 《제33회 충청남도 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대상으로 〈연륜〉 선정
- 2003~2021년 대한민국 문인화협회 이사 역임
- 2004년 대한민국 미술협회 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초대작가
- 2004~2012년 대한민국 미술협회 이사 역임
- 2005년 《충청남도 미술협회 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초대작가
- 2005~2010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울미술협회 부분과위원장 역임
- 2005~2016년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미술 평생교육원 문인화 전임강사 역임
- 2007년 《성호묵연회 회원전》(충남학생회관)에 참여
- 2007~2015년 《경기도 미술대전》 특선 3회
- 2008년 성호묵연회 회원전, 《문인화 생활용품 특별기획전》(천안, 충남학생회관) 개최
- 2009년 《제1회 천안 성호묵연회 · 제주 문인화연구회 교류전》(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개최
- 2010년 《제2회 천안 성호묵연회 · 제주 문인화연구회 교류전》(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개최
- 2011년 《제7회 성호묵연회전》(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개최
- 2013년 『전통과 현대의 마중』(학마을B&M) 출간
- 2016년 『自然 山水 행복한 나를 찾아서』(학마을B&M) 출간
- 2023년 성호묵연회 《생활용품 도자기전》(천안, 삼거리갤러리) 개최
- 2024년 천안중진작가 《프로젝트 10》(천안, 명동갤러리) 〈자연의 순환〉, 〈과초〉 등 작품

이강일 (李康一, 1958~)

1958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출생한 이강일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1986년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2008년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서 본 통합의 미술교육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작가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세한대학교 공간문화컨텐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주소지를 2015년 충남 당진으로 옮겼으며,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세한대학교 본교와 당진캠퍼스를 오가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¹

이강일은 가족과 지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일상생활에서 관찰되는 인접환경을 주된 소재로 그려왔으나² 대학원 시절부터 전통회화, 특히 민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민화에 등장하는 소나무를 조형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학강사 시절 우연히 신원동 작업실 뒤편 산에 올라 본 리기다소나무를 통해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작품화했다.³ '소나무는 사람과 비슷하게 나무마다 특정한 표정과 언어가 있기에 그 속에 간직된 생명의 기운을 포착하고자' 즐겨 그렸다. 1993년 금호미술관 초대전에서 선보인 소나무 작품들이 성공적인 반응을 얻어 '소나무 작가'로 불렸다.⁴ 초빙교수로 미국을 다녀와 정착한 목포에서 접한 해송을 소재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작가 본래의 정서를 회복하게 되었다.⁵ 남도의 황토와 해풍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은 작가에서 무한한 즐거움과 동시에 삶에 대한 교훈을 자연스럽게 들려주었으며 이 소리를 화면으로 옮겼다.⁶

고향인 전남 영암 바닷가에 작업실을 마련하면서 남도의 거친 황토와 어우러진 해송을 그



이강일, 〈소나무〉, 2007,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 184×336cm(출처: 『이강일 전』, 토포하우스갤러리, 2007)

1 2015년 조형문화과에서 공간문화컨텐츠학과로 변경되었다.

2 『새로운 예술세계에 대하여』, 『이강일 전』(금호미술관, 1997), p. 6.

3 이강일, 『나의 길 아리랑』, 『나의 길 아리랑』(당진문화재단, 2020), p. 14.

4 『세한대 교수인 이강일 작가, 갤러리 토크서 개인전 열어』, 『정향신문』(2013. 6. 11).

5 이강일, 앞의 글.

6 박영택, 『이강일-생명의 법칙을 그린다』, 『이강일』(토포하우스갤러리, 2007).



이강일, 〈기린봉〉, 2022, 장지에 채색, 180×300cm, 정경숙 촬영

리게 되었다. 작가는 오래된 커피로 자신만의 황토색을 만들어 사용하였다.⁷ 투박하고 거친 표현적인 회화를 위해 1990년대 초 이후 프레스코 습식벽화 기법으로 해송을 그리는데 세련된 맛은 덜해도 생명력을 불어 넣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⁸ 벽화에 대한 작가의 애착은 세한대학교에 벽화

전공수업 개설로 이어져 벽화기법의 저변화와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소나무에 이어 이강일은 〈아리랑〉 연작을 제작하고 있다. 2020년 당진문화재단 주최의 〈오늘의 작가전〉에서 이강일은 당진의 역사와 삶을 그려낸 작품들을 선보였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 왔고 넘어가듯 우리 한의 정서를 흥으로 승화시킨 아리랑처럼 이웃과 사랑하며 따뜻하게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정신을 〈아리랑〉 연작에 담고자 했다.⁹ 이 작품은 동양의 종이 습식기법과 서양의 유화 건식기법의 중간 기법 중 하나인 프레스코 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실험적 기법을 과감히 도입해 당진을 바라보는 작가 내면의 생각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¹⁰

2022년 고향 해남에서 열린 첫 전시회에서 이강일은 해남에서의 기억을 그린 〈이강일 작가전-해남길 아리랑〉전을 개최했다. 두륜산 대흥사, 달마산과 미황사, 소나무, 모란, 나한상을 비롯한 해남의 자연풍광과 문화 속에 작가의 성장 과정과 고향에 대한 기억을 담아냈다. 2024년에는 해남 인근 지역인 진도를 그린 작품들로 〈남도길 아리랑〉전을 열었다. 특히 어머니 임종 후 49재를 마치고 본 남도의 동백꽃 지는 모습과 어머니의 생의 마감을 중첩시켰다. 작가 스스로 “나는 무속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진도에서의 전시회는 진도 셋김굿을 통해 유년기를 회상하는 형식의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¹¹ 패널 위에 장지를 배접하고 안료, 먹 그리고 아크릴을 사용해 실존적인 자신의 역사의 의미를 담아낸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남도의 정신은 그동안 한 서린 질곡의 역사를 이겨 낸 깊은 인간의 심성과 이지적인 사대부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표현했는데, 작가에게는 풀어헤치고 싶은 사명으로 생각됐다. 전시회를 준비하며 유년시절의 기억을 새롭게 떠올렸는데 과거의 흔적이 작품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비집고 나왔다고 한다.¹²

이강일은 〈모란도〉 연작에서 조선시대 궁중장식화의 소재인 모란과 봉황을, 대중의 그림인 〈민화〉 연작에서는 꽃과 새를 새롭게 해석해 자신만의 회화적 요소를 적용했다. 꼭두, 동자도 등

7 『소나무도 표정이 있죠. 이강일 작가 드로잉전』, 『세계일보』(2013. 6. 9).

8 2012년 명암 세반대에 국내 최초의 조형문화과에 환경미디어 벽화 전공이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벽화운동 꿈치는 '해송 작가' 이강일씨』, 『세계일보』(2011. 7. 13).

9 장규돈, 『2020 당진 올해의 작가전-이강일을 개최하며』, 『나의 길 아리랑』(당진문화재단, 2020), p. 5.

10 『투박한 선이 주는 감동함... 아티스트 이강일의 힘』, 『ASIAA』(2020. 5. 28).

11 『유년시절 기억의 편린』, 『당진신문』(2024. 7. 22).

12 위의 기사.

다소 부거울 수 있는 무속적인 주제를 색다른 표현 방법으로 구현해 관객의 흥미를 유발했다.

연보

- 1958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출생
- 1981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1985년 《앙데광당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6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학위 취득)/《개인전-죽음》(서울, 관훈미술관) 개최
- 1988년 『소묘의 이해』(미진사) 저술/《개인전-생명》(서울, 관훈미술관/인재미술관) 개최
- 1989년 《현대미술의 정황전》(서울, 동숭아트센터)에 참여
- 1990년 《개인전》(나우갤러리) 개최
- 1991년 『드로잉의 원리와 실습』(태학원) 저술
- 1993년 《개인전》(서울, 금호미술관) 개최
- 1994~1995년 미국 코네티컷주 브리짓포트대 교환교수
- 1995년 《개인전》(미국, Bridgeport대학교 Calsongallery) 개최
- 1996년 『만화조형해법』(미디어하우스) 저술
- 1997년 《개인전》(서울, 금호미술관) 개최
- 1998~2023년 세한대학교(전 대불대학교) 조형문화과(후에 공간문화컨텐츠학과) 교수 재직
- 2000년 《개인전-벽화전》(목포, 대불대학교 체육관 실내 정면 로비) 개최
- 2001년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개최
- 2004년 《가고시마 교류전》(광주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5년 《화합의메시지》(세종문화회관)에 참여
- 2007년 전북대학교대학원 졸업(박사학위 취득)/《한중정예작가전》(전북도청갤러리)에 참여
《개인전》(광주, 나인갤러리/서울, 토포하우스갤러리) 개최
- 2008년 《개인전》(고흥, 남포미술관) 개최
- 2009년 《우체국미술관전》(목포우체국)/《토포하우스 초대전》(서울, 토포하우스갤러리) 개최
- 2010년 『교육철학 및 교육사』(태영출판사) 저술
《개인전》(일본 동경, 그래인갤러리) 개최
- 2010~2019년 중국 천진사범대학 대학원 강의 교수 역임
- 2013년 《이강일 드로잉전》(서울, 갤러리 룩스) 개최
- 2017년 《개인전》(당진문예의전당) 개최
- 2020년 《2020 당진 올해의 작가전 나의길 아리랑전》(당진문예의전당) 개최
- 2022년 《이강일 작가전-해남길 아리랑》(해남문화예술회관) 개최
- 2024년 《남도길 아리랑》(진도, 현대미술관) 개최

최평곤(崔平坤, 1958~)



최평곤, 《최평곤 설치 작업전》, 1999, 철·대나무, 4~10m, 당진 의목해변. 작가 제공

최평곤은 1958년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면 금곡리의 소농가에서 태어났다.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화가가 되기를 꿈꾸며 그림을 그렸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군대에 입대했다. 제대 후 혼자 그림을 그리다가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느껴 1981년 세종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했다. 대학교 졸업 후 고향으로 내려와 작품 활동을 이어가면서 지역신문인 『당진시대』에 10년 동안 만평을 연재하는 등 시민운동을 펼쳤다.

최평곤이 조각, 설치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열린 《동학미술제》에 대나무 인간을 설치하면서부터다. 충남민족미술협회에서 주최한 이 행사에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 고민하던 작가는 작업실 주변에 있는 대나무에서 동학 혁명군의 죽창을 떠올렸다. 그는 대나무로 6m 50cm에 이르는 거대한 동학 혁명군의 형상을 제작하여 공주 우금치에 설치했다. 이 작품이 계기가 되어 대나무는 최평곤 조형 작업의 주요 재료가 되었다.

1999년 최평곤은 당진 ‘왜목’에서 《최평곤 설치 작업전》을 열었다. 작가의 첫 개인전의 공간으로 선택한 ‘왜목’은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당진의 갯벌 포구다. 이곳은 해가 뜨고 지는 곳이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곳이다. 생명의 원천인 심해에서 해가 지는 서해로 이어지는 이곳에 작가는 대나무로 만든 6m에서 12m에 이르는 인간 원형을 형상화한 19점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새천년을 여는 인류를 향해 ‘원형성 회복을 통해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 조형물은 2000년 1월 다수의 언론에 소개되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후 최평곤은 《전너간다展》(성곡미술관, 2001),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해운대, 2002), 《분단의 벽을 넘어서展》(서울시립미술관, 2003), 《자연미술비엔날레》(공주 장군봉, 2004), 《공공연한프로젝트》(동대구역, 2004) 등의 전시와 공간에 대나무 인간을 세웠다.

2000년대 초반 최평곤이 제작한 ‘대나무 인간’은 6m 이상의 높이와 2m에 이르는 몸통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 원통형의 몸에 팔과 게란형의 머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작품은 서 있는 형상에 맞게 대나무를 길게 이어 붙인 다음 몸통을 움아매듯 지그재그로 묶은 것으로, 두 손을 가지

런히 옆구리에 붙이거나 기도하듯 모은 자세다.¹ 최근에는 영구적 보존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부 프레임은 스테인레스를 열처리해 뒀다.

최평곤의 작품은 장대한 스케일로 관람자들의 눈길을 끈다. 이렇게 거대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사전에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 최평곤은 작품 제작을 위해 우선 작품이 놓일 장소가 지닌 이야기를 생각한다. 이후 형태와 규모를 결정하고, 드로잉을 해서 골조 설계를 한 뒤 모형을 제작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최평곤의 작품은 규모가 큰 데다 장소가 지닌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2005년 평택 대추리에 설치한 <파랑새>, 2007년 임진각 평화누리에 설치한 <통일 부르기>, 2009년 제주현대미술관 본관 건물 입구에 설치한 <여보세요>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꼭 보게 된다. 그러나 이 작품들의 제작 목적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있지 않다.



최평곤, <파랑새>, 2017, 대나무·철, 3×3×9m, 제주 알뜨르비행장

최평곤에게 설치 작업은 예술 활동인 동시에 사회운동이다. 평택 대추리에 설치한 조형물 <파랑새>는 '미군기지터'의 반대 운동이며, 임진각의 <통일 부르기>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다. 2011년 제주 강정마을에 설치한 <구럼비 지킴이>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상징성을 담은 조형물이며, 2019년 오키나와 평화 박물관에 <오키나와 파랑새>를 설치한 것은 세계평화를 위한 인류의 바람을 담아 조소(彫塑)한 것이다. 최평곤의 작업은 환경 파괴에 대한 저항과 사회적 불평등이나 폭력에 대한 '침묵의 저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제주현대미술관 입구에 설치돼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조형물인 <여보세요>나 2023년 광주광역시 미로센터에 설치한 <따뜻한 손>은 '큰 사람'이 손을 내밀어 인간을 환대하고 있는 형상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최평곤의 작품은 이처럼 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진행한 것들이며, 그 안에는 공동체 정신을 담아 인간애를 성찰하게 한다.²

연보

- 1958년 충청남도 당진 출생
- 1981-1985년 세종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 김종길, 『거대한 일어섬의 민중미술-최평곤의 대나무 인간, 그 조형성과 환경미학』, 『공간』 (2005. 5).

2 최평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저의 작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통시대성과 그 시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사람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우리시대에 필요한 것은 아니 시대를 초월해 요구되는 것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박성천, 『따뜻한 손 최평곤 작가』, 『광주일보』 (2023. 12. 5).

- 1994년 《동학미술제》(공주 동학혁명기념탑)에 참여
- 1995년 《민족미술전》(미술회관)/《충남민족미술 창립전》(대전시민회관)에 참여
《해방 50년 역사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6년 《당진사랑 환경미술제》(당진)/《조국의 산하 '강' 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충남민족미술 환경전》(서산문화원)/《한국미협 당진지부 창립전》(당진, 수선화 공간)
- 1996~1998년 《상록문화계 기념 초대전》(당진)에 참여
- 1997년 《김복진미술제》(청주예술회관)/《충남 민족미술 북한동포 돕기 기금마련전》에 참여
《광주비엔날레 특별전》(광주)/《충남 민족미술전》(공주문예회관)에 참여
- 1999년 《최평곤 설치작업전》(당진 왜목)/《환경기금마련 초대전》(천안, 아라리오갤러리)에 참여
- 2000년 《금강국제자연미술제》(공주)/《충남민족미술 환경전》(가로림만 별천포)에 참여
《문화관광부지정 새로운 예술의 해 기념 '월인천강지곡'》(서울, 국립극장)에 참여
- 2001년 《건너간다》(서울, 성곡미술관)에 참여
- 2002년 《부산비엔날레 '아가를 위하여'》(부산 해운대)에 참여
- 2003년 《'분단의 벽을 넘어'》(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4년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작은미술관》(동대구역)/《금강국제자연미술비엔날레》(공주)
- 2005년 《통일문화페스티벌》(통일교육원)/ 개관기념 《내 안의 블루》(성남아트센터)에 참여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터에 <파랑새> 설치
- 2006년 《최평곤 초대전》(포스코미술관)/ <용오름-124년의 꿈>(서울-용산구 삼각지) 설치
《아시아의 지금》(중국 베이징, 아라리오)/《충남민족미술 '평화 나눔'》(천안문화회관)
- 2007년 6월항쟁 기념조형물(서대전공원) 설치/《공간을 지다》(경기도미술관)
《동학미술제》(공주 우금치)/ 세종시 기공식 기념조형물 <평화의 손> 설치
평화누리 기획 《시선》(임진각 평화누리)/ <중촌 가슴에 품다>(중촌동 공공미술프로젝트)
- 2009년 부천무형문화엑스포 기념조형물(부천시) 설치/《양평환경미술제》에 참여
- 2011년 인권재단 사람 기획전 《대지의 꿈》(서울, 인사아트프라자)에 참여
제주 강정마을 <구림비 지킴이>(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설치
- 2012년 《프로젝트 대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13년 《해인아트프로젝트》(합천, 해인사)에 참여
- 2014년 《충남민족미술 '백범생각'》(공주, 마곡사)에 참여
- 2015년 CH자연미술 프로젝트(송추 CH아트벨리)에 참여
《공원이 예술이다》(부산시민공원)/ 문화로름 중구로 프로젝트(대전 중구)에 참여
- 2016년 《순천국제 자연미술비엔날레》(순천만 국가정원)에 참여
- 2017년 《제주비엔날레》(제주도 알뜨르비행장)/《평창비엔날레》(평창 알펜시아)에 참여
- 2019년 《마부니 프로젝트》(오키나와 평화 박물관)/《충남민족미술 환경전》(가로림만 별천포)
-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조형물(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설치
- 2021년 《탄도예술섬 프로젝트》(안산 대부도 누에섬)에 참여
- 2023년 <따뜻한 손>(광주광역시 미로센터) 설치

김정호(金正昊, 1959~)

호는 의암(義嶽). 1959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난 김정호는 고등학생 시절 친구를 따라 간 교회에서 서예를 처음 접했다. 교회에서 받은 붓과 베틀을 가지고 학교에서 '한 일(一)'자를 따라 그리며 '줄긋기'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청주대학교 이공대에 진학해 조경학과에 입학했지만, 처음부터 적성에 맞지 않았던 탓에 학교 동아리 중 서예동아리에 들어가 서법 연구에 매진했다. 청주에서 천안으로 이주한 것도 지인이 없는 곳에서 서예 수련에 집중하고자 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김정호는 졸업 후, 서예동아리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해 1986년 천안에 서예학원을 차렸다.



김정호, 2016, <삼조승찬심명(三祖贊禪心銘)>, 《제41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작

김정호는 한국 서예계의 거목이었던 여초(如初) 김용현의 마지막 제자로 알려져 있다. 1989년 《대한민국서예대전》에 작품을 출품했을 때, 여초 김용현이 김정호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고른 것이 인연이 되었다. 이후 김용현이 지도하던 동방연서회에 들어가 서예의 이론과 서법을 다시 배웠다. '사경(寫經)' 작업 역시 김용현의 지도가 있었다. 대학 졸업 작품을 준비하며 낙관이 필요해 직접 서각을 하던 김정호에게 김용현은 '각(刻)'이 아닌 '사경(寫經)'을 지도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호는 "아마 자신의 제자가 각에 맞을 들어 글에 소홀해진 '도장장이'가 될까 걱정하셨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¹

스승의 지도로 사경을 시작한 김정호는 역대 서예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위진·남북조, 당나라의 자료까지 모두 섭렵하며 사경에 매달렸다. 그 결과 필력이 탄탄해진 김정호는 1999년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한 《제2회 불교사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10년에는 첫 개인전을 통해 가로 16m, 세로 2m의 32폭 법화경 병풍과 900여 쪽에 달하는 사경용 교재를 선보이기도 했다.

김정호는 여기서 더 발전시켜 화재나 보관에 취약한 종이가 아닌 돌에 새기는 '석경' 작업에 매진했다. 하루 평균 약 300자, 총 7만여 글자의 법화경을 가로 15cm, 세로 30cm 검은 베틀석 위에 새겨 서각 작업을 마무리했다. 총 513판의 법화석경이 완성된 것이다. 2년간 이어진 이 작

1 남수연, 『법화석경 513판 서각한 의암 김정호 씨』, 『법보신문』(2014. 2. 11).

업은 2014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나무갤러리에서 《의암김정호서법예술: 法華石經展》을 통해 공개되었다.

2016년에는 탄탄한 솜씨로 《제41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석경 작품 〈삼조승찬신심명(三祖僧璨信心銘)〉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삼조승찬신심명〉은 “도법과 글자의 획이 힘차고 아름다우며 서법과 각법이 탁월하여 석경의 재현이 가능한 전승적 기량을 갖춘 데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² 김정호는 1995년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를 역임하였으며 1998년 《중국 항주 국제 서법, 전각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다. 현재는 천안에서 ‘의암서법예술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정호, 〈심전경작(心田耕作)〉, 작가제공

연보

- 1959년 충청북도 청주 출생
- 1979년 청주 충북고등학교 졸업
- 1986년 청주대학교 이공대 조경학과 졸업
- 1989년 《충청북도미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 1995년 《국제 서법대전》(중국 북경) 청년부 금상 수상
- 1998년 《국제 서법, 전각대전》(중국 항주 서령인사 주최) 서령인사상(대상)
- 1999년 《제2회 불교사경대회》(동방언서회 및 대한조계종 공동 주최) 대상
- 2003년 성균관대학교 유교대학원 서예전공
- 2010년 《의암김정호서법예술: 儒佛仙展》(한국미술관) 개최
- 2014년 《의암김정호서법예술: 法華石經展》(나무갤러리) 개최
《석경전(石經展)-돌 위에 핀 법의 꽃》(서울 조계사) 개최
- 2016년 《법화석경 장엄전》(그림손갤러리) 개최
《제41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
《2016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출품
- 2019년 《불교미술대전》 은상 수상
- 2021년 《천태예술공모전》 대상 수상

2 김연수, 「제41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에 의암 김정호 작품 선정」, 『문화경제』(2016. 10. 19).

이은경 (李殷慶, 1959~)

1959년 충청남도 아산에서 출생한 이은경은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로 칭찬을 받았다.¹ 자연스럽게 미술을 전공으로 택하여 1984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에 진학한 뒤, 동대학 예술대학원을 졸업했다. 2008년 고향 아산에 작업실을 만들고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다.

1992년 《동시대 회화-사고·감각전》과 1993년 《제1회 개인전》에서 이은경은 어두운 청회색과 암갈색의 청동기와 토기를 소재로 시공간을 재해석한 《잃어버린 감성을 찾아서》 연작을 발표했다. 이후 《원형》 연작과 《순환》 연작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이은경, 《순환》, 2008, 혼합매체, 72×90cm, 작가 제공

작가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세 시기로 구분한다.² “제1기는 신프로이트학과 칼 융의 영향을 받아 원시적 이미지, 원형에 대한 관심을 발현한 시기이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가’라는 근원에 대한 탐구시기로 선사시대의 석기, 청동기, 철기 등 유물과 고분벽화의 형상에서 추출한 형상을 회화적으로 표현하였다. 제2기는 자연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이미지는 새로운 형태로 재현되며 이는 사실과 추상, 정과 합, 자연과 인공, 생성과 소멸 등 반명제들의 조화에 의한 이중구조를 만든다. 이들 구조는 주제, 의미, 상징들을 지니며 이는 화면에서의 시각적, 내적 울림을 강화시키며 명징한 이미지가 창출된다. 제3기의 주제 ‘순환’은 어떤 현상이나 일련의 변화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되풀이해 도는 것을 의미한다. 되풀이 되는 계절이나 달의 변화와 같은 자연의 순환, 유기체의 삶과 죽음 같은 생명의 순환, 또는 사회적, 정치적 권력에 의한 역사의 순환 등 시간적 연결고리를 조형언어로 구체화하여 새로운 삶은 반추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³

작가 자신이 밝힌 작품세계의 변화과정에서 엿보이듯이 이은경은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회화적인 표현을 시도하고, 생명체의 생성과 변화과정을 움직임으로 구현하는 탐구 중심의 작품

1 「미술적 고집, 예술적 철학 … 그가 붓을 쥐다」, 『은암신문』(2015. 8. 25).

2 이은경, 『순환』, 『이은경 초대전』(아산문화예술공간작소 2층 바스락 전시실, 2018).

3 「지역작가 이은경 초대전시: 『순환』전」, 『은암신문』(2018. 9. 14).



이은경, 〈순환〉, 2024, 혼합매제, 117×91cm, 작가 제공

을 제작해 왔다.

“보이는 그대로 느낌대로 보면 된다. 현대 미술과 동시대 미술은 다양하고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에 보는 방식에 대한 모범적인 범례를 제시하긴 어렵다. 다만 감상자의 생활문화 속에서 축적된 문화양식 또는 미술문화에 대한 접근은 노력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펼쳐진다”며 “제목에 따라 사고가 간헐히봐 무제라고 놓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즉 삶과 죽음의 문제, 순환을 주제로 자연에 대한 여러 관점들과 생명체 사이의 관계를 통해 미적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⁴ ‘노력 없이 천재가 될 수 없다. 연습이 천재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일반 직장인과 같이 생활규칙을 정해 하루 최소 8시간은 작업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작업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완성된 작품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야 마음이 편하다는 작가는 떠오르는 생각을 습관처럼 메모지에 옮기는 성실한 작가다.⁵

연보⁶

- 1959년 충청남도 아산에서 출생
- 1984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입학
- 1993년 《제1회 이은경 회화전》(서울, 관훈미술관) 개최
- 1995년 《제2회 개인전-原型으로》(서울, 단성갤러리) 개최
- 1998년 《제3회 개인전-原型으로》(은양, 아산문화의집) 개최
- 2000년 《제4회 개인전-생명의 순환》(서울,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개최
《제3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인간의 숲, 회화의 숲'》(광주 일원)에 참여
- 2001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졸업
- 2011년 《제5회 개인전-생명의 순환》(서울, 쿤스트독 갤러리) 개최
- 2016년 《아트프로젝트 울산2016:ICAPU》(울산 중구 문화의거리 일원)에 참여
- 2018년 《이은경 초대전-생명의 순환》(아산문화예술공작소 2층 바스락 전시실) 개최
- 2024년 《이은경 초대전-Circulation》(아산, 복합문화공간 모나텔리) 개최

4 『미술적 고집, 예술적 철학 - 그가 붓을 쥐다』, 『은양신문』(2015. 8. 25).

5 위의 기사.

6 작가의 요청으로 연보에는 2000년과 2018년 단채전만 포함하였다.

장애경 (張愛京, 1959~)

장애경은 1959년 충청남도 당진시 행정리에서 6남매 중 막내로 출생했다.¹ 어릴 적 꿈이 뭐냐는 질문에 늘 “화가”라고 답했을 정도로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학교에 갔다오면 나가서 놀기보다 대청마루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른 죽음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취업을 선택했다.

22~23세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림을 접할 수 없었던 작가는 박기호 화가가 운영하는 화실에서 그림을 시작하였다. 작가의 재능을

일찍 알아본 박기호 화백의 추천으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했다. 24세에 늦은 대학생활을 시작했으나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학업을 병행했다. 2년 후 할 수 없이 휴학을 한 작가는 당진에 내려와 미술교습소를 차렸다. 그렇게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학업을 지속한 작가는 1987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고향에 정착했다. 장애경은 미술교습소를 통해 제자들을 양성하며 지난 20년간 많은 미술학도를 배출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돌보지 않았던 고향집 일부를 개보수해 개인 작업실로 조성했다. 담장을 세우는 대신 찔레꽃을 둘레에 심고, 작업실에 ‘찔레꽃 향기’라는 이름을 지었다. 작가는 항상 언젠가는 고향집으로 돌아올 것 같다는 글을 썼던 것처럼 고향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고향집을 작업실로 삼아 작업하면서 작가는 “보이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정감 어리지 않은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열광하고 화려한 꽃들에 시선이 가지만 … 그냥 지나칠 뻔 했던 작은 풀꽃들이 보고 또 보고 있으며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 앞뜰 꽃밭, 뒤란, 마당끝, 이름 모를 꽃들 모든 것들이 내 시선을 잡고 내 그림 소재가 되고야 만다, 이렇게 그림 소재가 지천에 있으니 난 언제나 이곳에 있고 이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특출나게 예쁜 꽃은 아니지만 한데 어울려 화려하게 빛을 내는 작은 꽃들이 작가의 붓끝에서 생생하게 탄생하게 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이렇듯 들에 밭에 부심하게 뻗어나 꽃을 피우는 다양한 식물들을 화폭으로 옮겨 담아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의미를 부여한다.



장애경, 〈어느날 문득〉, 2024, 종이에 수채, 72.7×90.9cm, 작가 제공

1 본 해제문은 당진문화재단에서 제작한 「당진의 예술인-장애경」 편(<https://www.youtube.com/watch?v=TsXzTH9bnPA>)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첫 개인전에서 작가는 기존의 유화에 대한 통념을 벗어나 거칠고 생생한 유화적인 아름다움을 고수하면서 맑은 수채화적인 느낌이 더해진 장애경만의 화법을 선보였다. 유화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맑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유화의 반복적인 덧칠을 통한 탁함에서 벗어나 수채화처럼 맑게 그린 점이 특징이다.

작가는 작업실 근처와 당진 일대의 산과 들, 꽃, 나무 등 자연을 주제로 유화작품을 그렸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유화 중심의 기법에서 벗어나 담백한 색조의 수채화를 제작하고 있다. 자신의 고향집이자 작업실이 있는 행정리의 사계를 그린 작품은 시공간을 넘어 세월의 흔적을 잘 표현한 수작으로 평가된다.²

2005년 이상옥 작가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당진시대』에 사생과 에세이를 더한 글을 싣는 작업을 1년간 진행했다. 당진문화원의 수채화반 강사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수채화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수채화 수강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2007년 ‘당진수채화작가회’를 창립했다. 당진에서 수채화 인구의 저변화에 기여한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작가는 2019년 ‘당진사생회’를 만들고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야외로 나가 그리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작가는 ‘장애경 수채화사랑방’을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수채화 인구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보

- 1959년 충청남도 당진시 행정리에서 출생
- 1982년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입학
- 1987년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2001년 《제1회 개인전》(당진, 수선화 공간/ 서울, 삼정아트스페이스) 개최
- 2006년 《장애경·이상옥 2인전》(당진문예의전당)에 참여
- 2007년 《제2회 개인전》(당진문예의전당) 개최
- 2009년 《제3회 개인전》(성남아트센터) 개최
- 2015년 《제4회 당진문화재단 초대전》(당진문예의전당)에 참여
- 2016년 《제5회 개인전》(당진, 왜곡마을 아트마젤 갤러리) 개최
- 2017년 《제6회 개인전》(당진, 해오름갤러리) 개최
- 2018년 《제7회 개인전》(당진문예의전당) 개최
- 2021년 《제8회 장애경-익숙함 편안함에 대해서》(당진, 갤러리 늘봄) 개최
- 2023년 《장애경 초대전-갯바람~갈바람!》(당진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전시관) 개최

2 장규돈, 「당진 읍해의 작가전 2015를 개최하며」, 『당진 읍해의 작가전 2015』(당진문화재단, 2015), pp. 6~7.

장철석 (張喆錫, 1959~)

장철석은 1959년 충청남도 당진에서 출생했다.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했으며 유년시절의 기억과 기록, 부모의 농촌에서의 삶을 회상하는 그림일기 형식의 《일기Diary》 연작을 제작했다. 《일기Diary》 연작에 대해 작가는 “내 그림의 주제는 일기다. 내게 또는 내 주변에서 일어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작품에 담는다”고 하였다.¹ 흙을 통해 삶의 진실을 표현하고자 한 장철석은 폐허화된 당진 시내의 모습, 흙을 연상시키는 마티에르 위에 그린 호미, 고무신, 공기돌, 하얀 저고리와 같은 이미지와 낱말로 당시 농촌의 모습과 개인사를 이야기한다.² 이후 개인사 중심에서 소재를 확장해 역사적 사건을 함께 화면에 구현하였다.



장철석, 〈to you〉, 2013, 캔버스에 유채, 168×93cm, 점검속 촬영

1997년 신문지로 꽃을 감싼 《꽃다발 to you》 연작을 시작했는데, 작품에 들어있는 신문지에 동시대의 대표적인 사건, 세계적인 이슈를 담았다. 따라서 작품 속 신문지는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시대의 일기’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장철석은 꽃을 가장 돋보이게 하고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매개물이 신문지라고 생각한다. 작가는 개인 일기의 기록에서 시대적 기록을 넘어 민족의 상징을 기록하는 방향으로 주제를 확장하고 있다.

작품을 보면 먼저 신문지에 싸인 꽃다발이 눈에 들어오지만 이내 신문지로 시선이 옮겨진다. 이러한 장철석의 작품은 신문지 속 사진이나 기사를 통해 사건이 초래한 사회적 파장과 시대에 꽃다발을 헌정하는 일종의 시각적 오마주라 할 수 있다.³ 작품 〈농부의 일기〉에서는 신문지 대신 비료포대로 꽃다발을 포장해 농부의 일기 대신 꽃다발을 접목한 일기 연작으로 변주를 보였다.

장철석은 꽃과 신문지를 매개체로 시대의 역사상을 화폭에 기록하는 작가다. 작가가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신문지의 기사에 담겨있으며, 관객 역시 신문지의 글자를 읽으며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게 된다. 작가는 하이퍼리얼리즘(극사실주의)을 추구하면서도 서정적인 매

1 「(SW인터뷰) 장철석 작가 “K-SKAF, 대중·작가 모두 원원하는 아티페어”」, 『스포츠헤드』(2019. 4. 24).

2 오서연, 「장철석 전에 부처(1996)」, 『장철석 시대를 그리다』(당진문화재단, 2023), p. 24.

3 서길현, 「지난 시간에 대한 오마주」, 위의 도록, p. 7.



장철석, <21C 빅게임 라운드>, 2018, 캔버스 패넬에 유채, 76×150cm, 정경숙 촬영

개체를 작품에 넣는다. 극사실주의 작업을 하다보면 서정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소재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⁴ 작가는 전 세계의 신문에 싸인 꽃다발을 작품으로 제작해 나라마다의 역사적 시간 또는 사건을 표현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완성된 작품을 UN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⁵

장철석 작가는 꽃다발, 신문, 편지, 연필 등 지극히 일상적인 소재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한다. 소소한 작가의 일상을 그린 작품은 어느새 역사의 기록이 된다. 일기, 꽃다발에 이어 꽃봉오리, 해바라기, 장미, 사과, 양귀비꽃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화살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그려낸 <Target of Love>(2020)는 향후 작가 작품세계의 방향을 의미하는 작품이다. 사랑과 평화, 희망을 의미하는 꽃을 화살이 관통하는 것처럼 긍정을 파격으로 삼아 혁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⁶

장철석은 왕성한 작품 활동과 함께 당진 지역의 미술문화 저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당진에서 활동하는 서양화가들을 중심으로 2004년 '터치바이터치회'를 결성해 꾸준히 정기회원전을 개최하고 있다. 1995년 <제1회 개인전>(당진 수선화공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6회의 개인전을 개최한 작가는 당진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작가상(2014)과 이 시대의 작가전(2023)을 수상하였다.

연보

- 1959년 충청남도 당진에서 출생
- 1995년 <서해조형작가전>(서산시민회관)에 참여
- 1995~2024년 <학동인전>(당진, 수선화공간 외)에 참여
<개인전> 56회(당진, 서울, 부산, 아산, 상하이 등) 개최
- 1996년 <한국성 그 발현전>(미국, LA Gallery SUN SPACE)에 참여
- 1996~2024년 <한국미협 당진미협 창립전>(당진, 수선화공간)에 참여
- 1997~2022년 <시행회전>(천안시민회관 외)에 참여

4 「[지상전시] 작품에 시대의 역사를 담다」, 『당진신문』, (2021. 5. 8).

5 위의 기사.

6 「이 시대의 작가전, 장철석 시대를 그리다」, 『당진신문』, (2023. 6. 2); 「2023 이 시대의 작가전 (장철석 작가) "시대를 그리다"」, 『당진시대』, (2023. 6. 2).

- 1998년 《M갤러리 3인전 (장철석, 김수익, 장부남)》(당진, M갤러리)에 참여
- 2004년 터치바이터치회 설립 주도 및 《터치바이터치회 창립전》에 참여
- 2006~2009년 《드로잉전》(평택예술회관 외)에 참여
- 2008년 《에스프리트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2010년 《어게인2010》(아산갤러리)에 참여
《아제르바이젠 초대전》(아제르바이젠 바쿠)에 참여
- 2011년 《신미술회 정기전》(서울, 인사아트센터)에 참여
《A&C 아트페어》(서울무역전시관)에 참여
- 2012년 올해의 미술인상 수상
《예산미협 초대전》(예산시민회관)에 참여
《전북방문기념전》(전북도청)에 참여
《천안비경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2013년 《여성가족부 초대 위안부 그림전》(경기도, 국립여성사전시관)에 참여
《정송윤 그리다전》(서울, 한전아트센터/ 청송종합문화센터)에 참여
- 2014년 당진 올해의 작가상 수상
《당진 올해의작가전 2014》(당진문예의전당) 개최
- 2015년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대상(미술부문) 대상 수상
《한·러수교 25주년 기념 초대전》(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 주립미술관) 개최
- 2016년 《모네갤러리 초대전》(대전, 모네갤러리)/ 《지오갤러리 초대전》(인천, 지오갤러리) 개최
- 2017년 《대한민국 회화제》(서울, 한전아트센터)에 참여
《충남중견작가전》(천안, 리각미술관)에 참여
- 2018년 《구상대제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시대의 공감전》(인천, 지오갤러리)에 참여
- 2019년 《안중근을 그리다》(안중근기념관)에 참여
- 2019~2022년 《해를 품다전》(보령시민회관)에 참여
- 2020년 《당진사생회전》(당진문예의전당)에 참여
- 2022년 《CN갤러리 개관초대전》(서울, CN갤러리)에 참여
《서해미술관 초대전》(서산, 서해미술관)에 참여
- 2023년 《2023 당진 이시대의 작가전 장철석-시대를 그리다》(당진문예의전당) 개최
- 2024년 《2024 JAKKA JANG》(당진, 영진철강미술관) 개최

현남주(玄男周, 1959~)



현남주, 〈또 다른 시간〉, 1987, 캔버스에 유채, 161×130cm,
《제6회 대한민국미술대전》입선작

1959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출생한 현남주는 천안에서 비구상 회화의 경향을 이끈 서양화가이자 예술행정가이다.¹ 1983년 복원대학교 미술과를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예술 활동을 시작했다. 졸업과 동시에 프랑스 파리에 서 열린 전위미술 전시회 《살롱드메(Salon de Mai)》에 참여하며 해외 활동도 시작했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각종 공모전에 도전한 현남주는 1980년부터 구상전과 목우회 등에 출품해 특선과 입선을 6차례 수상했으며, 1983년부터 1996년까지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11차례 입

선을 기록했다. 천안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고, 복원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회화과에 출강하며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병행했다.

1987년 천안 지역 청년 작가들과 함께 'PURE GROUP'을 결성해 조형적 실험을 모색했다. 같은 해 대전 현대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해 추상표현주의적 경향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 시기 대표작인 〈또 다른 시간〉은 색면의 구성과 색채의 조화를 통해 공간감을 형성한 추상회화로, 조형성의 실험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² 1988년에는 '천안미술인회'의 창립 멤버로 활동했고, 이듬해인 1989년에는 '신세대'라는 미술 그룹 창립에 참여해 천안미술의 발전을 도모했다.

1991년에는 《충남미술대전》 양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예술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한편 1990년대 초 천안 평립화방에서는 매년 유망한 작가 1명을 선정해 개인전 개최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1993년 현남주가 선정되어 천안 평립화랑과 서울 갤러리타임에서 개인전을 열었다.³ 이 전시에서는 다소 거친 붓질로 화면을 구획해 붓질의 흔적을 강조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당시 전시된 작품들은 "화면에 칠해진 색채 상호 간의 대비 효과에 의거한 색채 심리적 공간감이 형

1 현남주 작가의 출생연도는 1980년대 후반에 참여한 단체전 도록에 1958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천안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천안미술 1951-1989: 기록과 기억으로 말한다〉(2024)의 도록에는 1961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작가에게 확인한 결과 현남주의 출생 연도는 1959년생이다.

2 '천안미술 1951-1989: 기록과 기억으로 말한다' (천안시립미술관, 2024), p. 64.

3 '천안미술사: 2022년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천안시립미술관·김달진미술연구소, 2022), p. 36.

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⁴

이후 1995년에는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
으며, 1996년에는 아라리오갤러리
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2001년에
는 뉴욕 스페이스월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어 활동 영역을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장시켰다. 그
는 남부현대미술제·충남미술대전



현남주, 〈생명을 꿈꾸며〉, 2005, 캔버스에 아크릴, 90×180cm,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미술대전·금강미술대전 등에서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을 역임하며 충남 미술계의 발
전에 이바지했으며, 한국미술협회·남부현대미술제·존재전·갑자전·천안미술인회·충남현대미
술협회 등의 단체에서 활동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미술협회 충남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예총 천안지회
회장으로 4회 연임 중이다. 2014년 제28회 한국예술문화상 대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화예술계에
서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남주는 꾸준한 작품 창작과 더불어 교육자이자 미술행정가로서 다방
면에서 활약하며 충남 미술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화
풍의 작품세계를 구축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연보

- 1959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
- 1980~1986년 구상전 및 목우회 공모전에서 특선과 입선 6회
- 1983년 목원대학교 미술과 졸업/《살롱드메(Salon de Mai)》(프랑스 파리)에 참여
- 1983~1996년 《대한민국미술대전》 11회 입선
- 1984년 《제1회 양지미술작품전》(천안, 미도백화점)에 참여
- 1986년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 성화봉축 맞이 경축 미술·사진·서화협회전》(천안, 파고다백화점)
- 1987년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개최
《앙데팡당전》(국립현대미술관)/《PURE展 창립전》(천안문화원)에 참여
- 1988년 《개인전》(천안문화원)/《천안미술인회 창립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남부현대미술제》(광주, 남도예술회관)에 참여
- 1989년 《신세대 소품전》(천안문화원)/《새로운 모색전》(천안문화원)에 참여
《사각거부전》(천안문화원)/《한국미술 청년작가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90년 《천안구상작가전》(천안, 아라리오갤러리)에 참여

4 임투빈, 「현남주 뒤에 부지」, 『현남주작품전』(서울 갤러리타임, 1993).

- 1990~1993년 《충남미술대전》 특선 3회 및 대상
- 1991년 《의식과 체험전》(서울, 청년회관)에 참여
- 1992년 《천안문화원 신축개관기념 천안미술협회 초대전》(천안문화원)에 참여
- 1993년 《현남주작품전》(천안, 평림화랑/ 서울, 갤러리타임) 개최
- 1994년 《천안미술작가전》(천안, 아라리오갤러리)에 참여
- 1994~2001년 《남부현대미술제》 운영위원
- 1995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 1996년 《개인전》(천안, 아라리오갤러리) 개최
- 1998년 《대한민국청년비엔날레》(대구문화예술회관)에 참여
- 1999년 《오늘의 천안미술전》(천안문화원)에 참여
- 2000년 《존재전》(대전시민회관)에 참여
- 2000~2005년 경기도·경상남도·전라남도·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심사위원
- 2001년 《개인전》(미국 뉴욕, 스페이스월드 갤러리)/《PS1》(천안중앙도서관)에 참여
- 2002년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천안시민회관) 개최
- 2003년 《한국현대미술 100인 초대전》(경주, 동방문화관)/《제35회 갑자전》(서울, 하나로갤러리)
- 2004년 《한국현대미술의 다양성전》(서울, 하나로갤러리)/《제2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 2005년 《개인전》(일본도쿄, 스노우미술관)/《대륙의 메아리전》(안산, 단원미술관)에 참여
- 2006년 《제3회 공주국제미술제-주제전》(공주, 임림미술관)에 참여
《한국의美 100인초대전》(성남, 남송미술관)에 참여
- 2007년 《개인전》(대구, 두산아트센터)/《AP111展》(서울, 아미화랑)에 참여
- 2008년 《함평세계나비엑스포 30인초대전》(함평, 갤러리함평)에 참여
- 2009년 《한국미술대표작가 100인의 오늘전》(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참여
- 2010년 《한국미술의 빛》(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2011년 《현대미술스펙트럼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에 참여
- 2012년~현재 한국예총 천안지회장(4회 연임)
- 2013년 《서해아트페어초대전》(평택호미술관)에 참여
- 2014년 제28회 한국예술문화상 대상 수상/《예술, 봄을 만나다》(천안, 예술의전당)에 참여
- 2017년 《역사의 흔적전》(천안, 쌍용갤러리)에 참여
- 2018년 《현대미술 신동방통전》(아산, 모네갤러리)에 참여
- 2019년 《아트로드100인전》(서울, 인사아트프라자)에 참여
- 2020년 《제7회 보령미술: 해를품다전》(보령문화예술회관)에 참여
- 2021년 《경제를 걷다》(순천, 조강훈아트스튜디오)에 참여
- 2022년 제1회 봉영국제트리엔날레 조직위원/《기억의 반복전》(아산, 모네갤러리)에 참여
- 2023년 《현대미술 존재와 비존재》(공주, 갤러리쉬갈)에 참여
- 2024년 《천안미술 1951-1989: 기록과 기억으로 말하다》(천안시립미술관)에 참여

미술이론가

최완수(崔完秀, 1942~)



최완수, 『점재 점선』(연암사, 2009)

호는 가현(嘉軒). 1942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난 최완수는 겸재(謙齋) 정선(鄭敼, 1676~1759)으로 대표되는 진경 시대를 널리 알린 학자이자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연구에 평생을 바친 미술사학자이다.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가학(家學)의 영향이 컸다. 최완수는 엄격한 선친 아래서 집안 가득했던 한문 경전을 읽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이러한 집안 분위기와 더불어 경북고등학교의 진학이 최완수가 학

자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경북고등학교 재학 시절 한학자였던 백아 김창현(金彰顯, 1923~1991)에게 한학과 보학(譜學)을 배우면서 역사의식을 키워갔다.¹

최완수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술한 식민사관을 바로잡고자 서울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했고, 1965년 졸업 직후 국립박물관(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구원으로 1년간 근무했다. 이때 연을 맺은 최순우(崔淳雨, 1916~1984)가 최완수를 간송미술관에 추천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66년 4월부터 2013년까지 간송미술관 학예연구실장과 한국민족미술연구소장을 역임했다.

간송미술관 한국민족미술연구소에서 꾸준한 연구를 토대로 1971년 가을 《제1회 간송문화전》을 ‘점재전(謙齋展)’으로 개최하였고, 이듬해 1972년 ‘추사 김정희’를 주제로 《제2회 간송문화전》을 열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조선시대 진경문화 연구를 위해 1977년부터 3년간 조선왕릉 조사를 감행하며 연구에 매진했다. 겸재 서거 250주년에 맞춰 최완수는 겸재의 이력을 보충하고 누락된 그림들을 추가하여 『점재 정선』(3권)을 출간해 겸재 연구를 총결산했다. 이러한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우현 학술상(미술사)’, ‘위암 장지연상’을 수상하였고 2012년에는 겸재 정선과 더불어 불상, 왕릉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제10회 일민문화상’을 수상하였다.

1970년대 초부터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이화여대, 동국대, 중앙대, 연세대 등에서 한국미술사를 강의하였으며,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소장을 역임할 때까지 심도 있는 연구를 토대로 약 87

¹ 김창현은 서예로 명성을 날렸던 안동 김씨 4형제 중 한 명으로, 서화가 김용진(金容鎭)으로부터 서예를 익혔다. 김문현(金文顯, 1913~1974), 김충현(金忠顯, 1921~2006), 김응현(金應顯, 1926~2007)의 형제이다.

회의 《간송문화전》을 개최해 우리 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

연보

- 1942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지곡리 출생
- 1960~1965년 서울대학교 사학과 졸업
- 1965~1966년 국립박물관(현 국립중앙박물관) 근무
- 1966~2013년 간송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및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소장 역임
- 1967년 「葆華閣 所藏「龍龜手鑑」에 對하여」, 『미술사학연구』84(한국미술사학회)
- 「檀巖寺址 舍利塔의 建立緣起」, 『미술사학연구』87(한국미술사학회)
- 1974년 「髣髴考」, 『미술자료』15(국립중앙박물관)
- 「석가불경 도설(釋迦佛頂 圖說)」,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8(국립문화재연구원)
- 1976년 「추사집」(현암사), 『金秋史研究』(지식산업서)
- 1979년 「美術史: 高麗·朝鮮」, 『역사학보』84(역사학회)
- 1982년 「겸재명품첩」(현암사)
- 「추사명품첩별집」(한국학자료원)
- 1984년 「불상연구」(지식산업사)
- 1985년 「그림과 글씨」(교양국사총서33)
- 1993년 「진경산수화」(범우사)
- 1994년 「명찰순례」(전3권)(대원사)
- 1996년 「진경시대의 미술」, 『건축역사연구』5(한국건축역사학회)
- 1998년 「조선왕조 충의일전」(돌베개)
- 「진경시대」(전2권)(돌베개)
- 1999년 「겸재를 따라가는 금강산 여행」(대원사)
- 2002년 「내포문화의 재조명1: 충남의 재발견; 태포지역의 불교」, 『열린충남』18(충남발전연구원)
- 2004년 「겸재의 한양 진경」(현암사)
- 2007년 「한국 불상의 원류를 찾아서 3」(대원사)
- 2009년 「겸재 정선」(전3권)(현암사)
- 2010년 우현 학술상(미술사 분야) 수상
- 제21회 위암 장지연상(한국학부문) 수상
- 2012년 제10회 일민문화상 수상
- 2014년 「추사집」(현암사)
- 「한국 불상의 원류를 찾아서 1」(대원사)
- 2017년 「추사 명품」(현암사)
- 2022년 「추사」(현암사)

유홍준(兪弘濬, 1949~)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남도답사 일번지』(창작과비평사, 1993) 표지

1949년 서울에서 출생한 유홍준은 한국 미술사와 문화유산 보존 및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미술사학자이자 미술평론가, 교육자, 문화유산 전문가이다. 서울 청운국민학교를 나와, 중동중학교와 중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7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미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로 인해 졸업이 늦어졌다.¹

대학교 졸업 전 월간 『공간』(1977년)과 『계간미술』(1978년)의 기자로 활동하며 한국 미술계와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적 안목을 키웠다. 1980년(31세) 3월에 이르러 복학이 허용되자, 그해 10월에 학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교 졸업 후 곧바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 들어가 1983년 『능호관 이인상의 생애와 예술』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학원 재학 중 198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해 미술평론 부문에서 당선되며 미술사 연구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비평을 시작했다. 1984년 민족미술협회 공동대표로 나섰으며, 당시 미술이론가로서의 사회참여의 방편으로 신촌 우리마당에서 ‘젊은이를 위한 한국미술사 슬라이드 강좌’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답사회를 이끌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술평론 집필을 비롯해 조선시대 회화사 연구에 집중했다.²

1991년 영남대학교 교수로 부임해 후학을 양성했고, 이 시기에 학문 탐구와 대중 강연 및 답사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1991년 5월 『사회평론』 창간호부터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라는 제목의 연재를 시작했으며, 1년간 이어진 연재는 1993년 단행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출간되었다. 1권 출간 이후 남도를 시작으로 한국 전역을 답사기로 출간했다. 이 시리즈는 북한, 일본, 중국의 문화유산까지 아우르며, 독자들에게 문화재 답사의 즐거움과 가치를 일깨웠다.

1995년에는 전시기획자로 나서, 제1회 광주비엔날레 커미셔너로서 한국과 오세아니아 지역의 예술가들을 선정해 ‘정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전시를 기획·구성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

1 유홍준은 1974년 군복무를 마치고 재대한 지 2개월이 지나, 일명 ‘민청학련 사건’으로 불리는 긴급조치 4호로 인해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되었고, 11개월간의 수감생활 후 풀려났다. 이 때문에 월집행정지 중인 관계로 학교에 바로 복학하지 못하고 지체다가 1980년 복학이 허용되어 14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다. 유홍준,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유홍준 산문집」(창비, 2024), pp. 227~228.

2 1990년대 초반 『남태영의 『정국화사』의 회화사적 의의』(『미술자료』 45, 1990); 『공재 윤루서: 조선 후기 회화의 선구』(『역사비평』 11, 1990, 12); 『탄원 김홍도: 조선적인, 가장 조선적인 문세종의 화가』(『역사비평』 20, 1993, 가을); 『관아재 조영석: 선비정신과 사실정신의 만남』(『역사비평』 22, 1993, 봄) 등 다수의 조선시대 회화사 논문을 집필했다.

받아 1997년 문화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인 금마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1998년(49세)에 이르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해 『조선시대 화론 연구』를 학고재에서 출간했다. 같은 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린 공로로 제9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작부문 간행물윤리상을 수상했다. 2001년 『화인열전』을 통해 한국 미술사의 주요 인물들을 대중적으로 소개하며, 대중과 학문을 잇는 역할을 이어갔다. 2002년에는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제18회 만해문학상을 수상하며 학문적 깊이와 대중적 저술 활동의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3대 문화재청장으로 재임하며 한국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특히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조선 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제도 추진했다. 이처럼 한국의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에 크게 기여했지만, 2008년 송제문 방화 사건으로 인해 문화재 관리 책임을 지고 문화재청장을 사퇴했다.

문화재청장 퇴임 후, 유홍준은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에 거처를 마련해 지역 유적지 답사를 통한 문화유산 강의를 지속했다. 부여는 두 번째 고향으로 삼은 곳으로, 2005년 ‘휴휴당(休休堂)’을 짓고 이곳에서 ‘5도 2촌’ 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부여와의 이러한 인연으로, 부여군은 2011년부터 ‘유홍준과 함께하는 백제문화유적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 프로그램의 해설사로 직접 나서 부여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그뿐만 아니라 유홍준은 연구와 집필을 위해 평생 수집한 서화와 도자를 비롯한 공예품 등 다양한 작품을 부여군에 기증했다. 기증품은 2016년부터 매년 ‘유홍준 교수 기증유물 전시회’ 개최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특히 2024년 전시는 ‘목조건축물의 얼굴, 현판’이라는 주제로, 전통 건축과 서화의 미학적 가치를 조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장 퇴임 후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로 복귀해 학문과 대중 강연 활동을 병행하며 미술사 연구와 문화유산 보존에 힘썼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홍성 이용노의집 운영위원장으로서 이용노의 예술 세계를 알리는 데 이바지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 추사기념관 명예관장을 역임하며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연구와 전시를 이끌었다. 2017년에는 서울 역사문화 벨트조성 공약 기획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아 서울의 역사 공간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 기획을 주도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계획을 검토하고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책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한국학 연구와 문화유산 보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는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와 저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국내편 1~12, 일본편, 1~5, 중국편 1~3),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1~6), 『화인열전』(1·2), 『국보순례』, 『명작순례』, 『추사 김정희』, 『다시 현실과

전통의 지평에서』 등이 있다. 최근 그간 쓴 글을 모아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유홍준 잡문집』(창비, 2024)을 펴내기도 했다. 유홍준은 미술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미술사와 문화유산 연구의 대중화에 공헌한 인물이다.

연보

- 1949년 서울 출생
- 1955년 서울 참성동으로 이사
- 1967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미학과 입학
- 1974년 일명 '민청학련 사건'으로 영등포교도소 수감
- 1975년 11개월간 수감 후, 2월 1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1977년 월간 『공간』 기자
- 1978년 『계간미술』 기자
- 1980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미학과 졸업
- 1981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미술평론 부문 당선
- 1983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졸업
- 1984년 민족미술협회 공동대표 역임
- 신촌 우리마당에서 '젊은이를 위한 한국미술사 슬라이드 강좌' 시작
- 1991~2001년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동양화과 교수 역임
- 1993년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권』(창작과비평사) 출간
- 1997년 금마문화예술상 수상
- 1998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 박사 졸업
- 『조선시대 화론 연구』(학고재) 출간/ 제9회 한국간행윤리위원회 저작상 수상
- 1998·2001년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상·하)』(중앙M&B) 출간
- 2001년 『화인열전(상·하)』(역사비평사) 출간
- 2002~2014년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 2003년 제18회 만해문학상 수상
- 2003~2008년 양구 박수근미술관 명예관장
- 2004~2008년 문화재청장 역임
- 2011~2013년 홍성 이용노의집 운영위원장
- 2014년~현재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 2015~2018년 제주추사기념관 명예관장
- 2018년 『추사 김정희』(창비) 출간
- 2018~2019년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위원장
- 2021~2024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 2024년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유홍준 산문집』(창비) 출간

윤범모(尹凡牟, 1951~)

윤범모는 1951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으로, 미술사학자이자 비평가, 전시기획자로서 한국 근현대미술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72년 동국대학교 미술학과에 입학해 1977년에 졸업했다. 이후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 진학했고, 1979년 「조선전기 도화서화원의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중앙일보 출판국 기자로 활동했으며,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미술평론으로 당선되며 평론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 조선시대 도화서 제도와 도화원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고 『계간미술』, 『화랑』, 『선미술』 등에 여러 편의 미술평론을 실었다. 1983년부터 『한국일보』에 매주 토요일 전면 기사로 한국 근대미술가를 소개하는 연재를 시작했다. 이 연재물은 1984년 『한국 현대미술 100년』(현암사)으로 출간되었고,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과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나혜석, 고희동, 임군홍 등의 작가를 조명했다. 미술사 연구와 미술평론 집필을 이어가면서 미술의 사회적 실천에 관심을 갖고 1979년 민중미술 소집단 '현실과 발언' 창립에 참여했다. 이어 민족미술협회의 회산하 '그림마당 민'의 운영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참여적 미술운동의 저변을 확대했다.

1980년대 중반 윤범모는 삼성 호암갤러리의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호암아트홀 전시장의 개관 준비 실무 책임을 맡았다. 호암갤러리 큐레이터 시절 미국 유학을 선택해 뉴욕대학 대학원에서 예술행정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한중수교 이전 호암갤러리로부터 중국 기행의 기회를 제공받아 중국 답사를 다니며 『중앙일보』에 답사기를 연재했다.¹ 이 연재는 1989년 사진기행집 『중국 대륙의 숨결』(가나아트갤러리)로 출판되었다. 또한 그해에 아프리카, 남미 등의 미술 문화와 함께 북한미술을 소개한 『제3세계의 미술문화』(과학과 사상)도 펴냈다.

1990년대에는 한국근대미술사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예술의전당 미술관, 이응노미술관, 경주솔거미술관 등 국공립 미술관의 개관과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1992



윤범모의 2024년 발간 저서 『현대미술관장의 수첩』(좌), 『미술현장과 전시』(우) 표지

1 『북한 사람들도 모를 '평양 문화사' 전해줄 수 있어 보람』, 『한겨레』(2018. 4. 28).

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남한 최초의 북한미술전 《그리운 산하》를 기획했으며, 1998년에는 평양을 방문해 미술 현장을 답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 『평양미술기행』(옛오늘)을 출간했다. 이러한 행보는 남북 미술 교류의 초석을 다지고 북한미술을 체계적으로 국내에 소개하는데 기여했다. 1993년에는 『미술관과 대통령』(예경)을 출간하며 미술과 권력의 관계를 분석하고, 미술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1995년에는 제1회 광주비엔날레의 집행위원 및 특별전 큐레이터로 참여하여 전시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했다.

2000년대 초반 윤범모는 다양한 저술과 비평 활동을 통해 현대미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작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2002년에는 『미술본색: 우리 미술계의 일그러진 자화상』(개마고원)을 통해 한국 미술계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005년에는 미국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했으며, 2007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한국 근대 조각의 선구자인 김복진(1901~1940)의 생애와 작품을 연구해 「김복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 연구는 2010년 단행본 『김복진 연구』(동국대 출판부)로 출간되었다.

2014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달콤한 이슬》을 기획했고, 2016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예술총감독으로서 경주의 역사적 문화유산과 현대 예술의 접목을 성공적으로 기획했다. 2017년에는 『한국미술론』(칼라박스)을 출간하며 한국미술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2018년에는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으로 활동하며 조각을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담론을 제시했다.

2019년 윤범모는 국립현대미술관의 20대 관장으로 임명되어 한국 근현대미술의 주요 흐름을 조명하는 전시와 세계적인 작가들의 전시를 기획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는 디지털 아카이브와 온라인 전시를 강화했다. 또한 재임 시절 서울관 로비에 '미술책방'을 개설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300』(2020)을 발간해 미술관의 주요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영문판으로도 출간해 한국미술의 국제적인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한국근현대미술 120년사를 조망한 개론서인 『한국미술 1990-2020』(2021) 발간에 힘썼다. 2023년 21대 관장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의 디지털 전환과 대중 접근성 향상이라는 중요한 유산을 남겼다.

윤범모는 한국큐레이터협회장,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장, 한국미술품감정가협회 회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여러 미술관과 기관의 작품 구입 심의에도 참여해 경기도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등의 작품 구입 심의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소장 미술품 심의위원장 등을 맡았다. 한편 학문적 연구와 미술평론뿐만 아니라 뉴욕 체류 시절 첫 시집 『불법 체류자』(다할미디어, 1988)를 출간한 이후, 『노을씨, 안녕!』(시학, 2009), 『바람 미술관』(다할미디어, 2020) 등의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하다.

저서로 『미술과 함께, 사회와 함께』, 『한국 근대미술:시대정신과 정체성의 탐구』, 『김복진 연구』, 『한국미술론』, 『시인과 화가』 외 다수가 있으며, 2017년 김세중기념사업회에서 수여하는 '제19회 한국미술 저작 출판상'을 수상했다. 최근 전시기획자로서의 경험과 관점을 총망라한 저서인 『현대미술관장의 수첩』(예술시대, 2024)과 『미술현장과 전시』(예술시대, 2024)를 발간했

다. 2017년 정년으로 퇴임할 때까지 23년간 가천대학교(옛 경원대)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명예석좌교수이다.

연보

- 1951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
- 1972년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입학(1977년 졸업)
- 1979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졸업
‘현실과 발언’ 창립에 참여
- 1979~1982년 중앙일보 출판국 기자
- 198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부문 당선
- 1984년 『한국 현대미술 100년』(현암사) 출간
- 1990년 예술의전당 미술관 미술부장
- 1992년 북한미술전 《그리운 산하》(서울, 예술의전당) 기획
- 1993년 『미술관과 대통령』(예경)
- 1993~1999년 한국근대미술사학회 회장 역임
- 1995년 1회 광주비엔날레 집행위원 및 특별전 큐레이터
- 2000년 『평양미술기행』(옛오늘) 출간
- 2002년 『미술본색: 우리 미술계의 일그러진 자화상』(개마고원)
- 2005년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 연구교수
- 2008년 계간 『시와 시학』 신춘 문예 시부문 당선
- 2010년 『김복진 연구』(동국대출판부)
- 2014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달콤한 이슬》 기획
- 2014~2016년 가천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디자인학부 교수
- 2016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예술총감독/ 광주비엔날레 책임큐레이터
미국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 연구교수
- 2017년 『한국미술론』(칼라박스) 출간
‘제19회 한국미술 저작 출판상(김세중기념사업회)’을 수상
가천대학교 교수로 정년 퇴임/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 2018년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 2019~2023년 국립현대미술관 20·21대 관장 역임
- 2024년 『현대미술관장의 수첩』·『미술현장과 전시』(예술시대) 발간

이은기 (李銀基, 1951~)



이은기 저, 『르네상스 미술과 후원자』 (시공사, 2002; 2018 개정판)

1951년 인천에서 출생한 이은기는 1987년부터 2017년까지 30년 동안 대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교육자이자, 서양 중세와 르네상스 미술사 연구에 국내 최고의 권위자다.

1970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에 입학했으나 1974년 대학교를 졸업한 후 진로를 바꾸어 같은 학교 대학원에 새로 개설된 미술사학과에 진학했다.² 1976년 「신라 말 고려초기의 귀질부(龜跌碑)와 부도(浮屠)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은 이은기는 이해 대학원 입학 동기로 같은 학교 대학원 조소과에서 「조선시대 왕릉의 석인석수상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유영교(劉永敎, 1946~2006)와 결혼한 후 1978년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다.

이탈리아 피사대학에서 서양미술사 전공으로 문학박사 학위(Dott. in Storia dell'Arte, Letteratura)를 취득한 후 1987년 대전 목원대학교 교수로 부임하면서 대전에 정착했다.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전 충청지역 미술대학의 거의 유일한 미술이론 전공 교수였던 이은기는 실기 중심의 미술대학 풍토에서 당면한 여러 역할을 맡아 많은 미술교육자를 배출했다.³

이탈리아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던 해 『역사학보』에 「13~15세기의 이탈리아 說敎畵研究」(1987. 12)를 발표한 이은기는 1989년 서양미술사학회가 창립되자 「십자형 채색패널(Croce Dipinta)의 도상 변천과 종교적 배경: 13세기 이탈리아」를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1집에 발표하는 등 현재까지 30여 편이 넘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 또한 프린스턴 대학교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주립대학의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1998년 제5대 서양미술사학회 회장, 2000~2001년 한국미술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유일한 서양 중세와 르네상스 미술사 전공자였던 이은기는 이 분야 전공자가 드문데다 뛰어난 연구 성과로 대학원의 서양 중세미술사와 르네상스미술사 강의를 도맡아 했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10여 년 동안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2 홍익대학교 대학원에 미술사학과가 개설된 것은 1973년으로 1회 입학생이 한 명, 1974년 2회 입학생이 3명이었다. 2회 입학생인 이은기는 동기생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미술사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3 임재광, 「근현대기 충남 미술교육사」, 『충남미술 연구총서3: 충남미술·문화사(1900~1999)』(충남문화관광재단, 2023).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하며 후진을 양성했다.

이처럼 교육자로, 연구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2002년 『르네상스 미술과 후원자』(시공사, 2018 개정판)를 출간했다. 이 책은 르네상스 시대 미술을 작품 자체보다 미술작품의 '주문자'와 주문 목적을 밝힘으로써 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 관점은 2006년 출간한 『서양미술사』(김미정과 공저, 미진사)로 이어졌다. 이 책은 외국인 저자의 시각에서 쓴 서양미술사가 주를 이루던 상황에서 한국인 정통 미술사학자가 쓴 개설서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고전 미술사의 장점을 담고 있으면서도 미술품과 사회, 수용자와의 관계, 남성과 여성의 시각에 따른 해석의 차이 등 삶을 이해하는 도구로서의 미술이라는 새로운 연구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미술을 사회문화사적인 관점에서 연구해온 이은기는 『욕망하는 중세』(사회평론, 2013)에서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변화하는 과정이 13-14세기의 종교미술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흥미롭게 풀어나갔다. 3년 후 출간한 『권력이 묻고 이미지가 답하다』(아트북스, 2016)에서는 미술이 사회적 목적이나 개인적 욕망에 어떻게 응답하였고, 권력은 미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 예술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해나갔다.

2022년 출간한 『중세의 침묵을 깬 여성들』(사회평론 아카데미)은 중세 여성미술로 시선을 넓힌 책이다. 이 책은 종교미술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거나 종교 일화의 설명으로 감상하는 게 아니라, 성녀들의 비전 체험과 발언, 성녀 이미지에 투영된 여성상 등의 문제를 구체적이면서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신선함을 준다. 현재 목원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미술사를 연구하며, 집필에 열중하고 있다.



이은기 저, 『중세의 침묵을 깬 여성들』(사회평론, 2022)

연보

- 1951년 인천 출생
- 1970년 인천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197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藝術史에 있어서의 藝術意志』: 개념의 전개, 『弘益美術』 3(1974. 11)
- 1976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졸업
『新羅末高麗初期의 龜趺碑와 浮屠研究』, 『歷史學報』 제71호(1976. 9)
- 1987년 이탈리아 피사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 취득/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부임
『13~15세기의 이탈리아 說敎畵研究』, 『歷史學報』 제116호

- 1989~1998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강사(중세, 르네상스 미술사)
- 1992년 『마리아의 도상 변천과 종교상의 역할 변천』,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4집
- 1992~1993년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방문교수(Visiting Scholar at Princeton University)
- 1994년 『메디치家の 미술후원과 정치적인 목적』,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6집
- 1995년 『미술관의 성립과 후원자의 역할: 역사적 전개와 의의』, 『현대미술관연구』 제6집
- 1996년 『작가에게 도움이 되는 미술사이기 위하여』, 『美術史學』 제10호
『개인적인 종교체험과 그의 작품』(동아갤러리; 『유영교』, 가나아트, 2008 재수록)
- 1997년 『르네상스 美術과 宗教 II』, 『美術史論壇』 제5집
『카라바지오의 자화상, 그 해석과 문제점』,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9집
- 1997~1998년 서양미술사학회 회장 역임
- 1998년 『14~15세기 피렌체의 가족예배실 벽화 읽기』, 『美術史論壇』 제7호
- 1999년 『르네상스 광장과 미술, 그리고 정치이념』, 『美術史學』 제13호
- 1999~2000년 한국미술사교육학과 회장 역임
- 2000년 『우피치(Uffizi)의 전시와 변천』,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13집
『이사벨라 데스테의 미술후원과 성격』, 『美術史論壇』 제11호
- 2001년 『라파엘의 〈아테네 학당〉과 교황의 인문주의 정책』, 『美術史學報』 제15호
- 2002년 『초기 르네상스의 옆면 초상 연구』,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17집
『르네상스 미술과 후원자』(시공사, 2002; 개정판, 2018) 출간
- 2003년 『예수 수난의 종교의식과 미술』,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20집
- 2003~200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방문교수(Visiting Scholar at UC Berkeley)
- 2004년 『14~5세기 이탈리아에서의 이브인식의 변화』, 『미술사연구』 제18호
- 2004~200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강사(중세, 르네상스 미술사)
- 2005년 『우리의 서양미술사 개론서 어떻게 가능한가』, 『美術史學』 제19호(2005.08)
- 2006년 김미정 공저, 『서양미술사』(미진사) 출간
- 2008년 『중세 말 이탈리아의 박달레나 이미지와 신앙』,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30집
- 2010년 『중세 말 지옥의 광경: 14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美術史學』 제24호
『참회인가 또 다른 사업인가: 스크로베니 예배당의 주문자 엔리코와 화가 조토』,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32집
- 2011년 『지옥의 마왕 루시퍼: 중세 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美術史論壇』 제32호
- 2012년 『중세말 문학적 상상력의 근원으로서의 시각이미지』,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37집
- 2013년 『욕망하는 중세』(사회평론) 출간
『시에나의 카타리나 이미지: 성인전과 실제 사이』, 『미술사연구』 제27호
- 2015년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결혼』과 에로스적인 사랑』,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42집
- 2016년 『권력이 묻고 이미지가 답하다』(아트북스) 출간
- 2017년 목원대학교 정년퇴임
- 2022년 저서 『중세의 침묵을 깬 여성들』(사회평론 아카데미) 출간

김이순(金伊順, 1957~)

김이순은 1957년 충청남도 보령 출생으로, 1976년 대전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 입학해 실기를 익혔다. 1980년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 삼선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했으며, 1982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미술사 공부를 시작했고, 1985년 「폴 고갱: 브르타뉴 시기(1886-1890)의 作品」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미국으로 건너가 1994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버펄로)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페미니즘 연구 방법론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서양 미술사 관련한 번역서를 냈는데, 대표적 번역서로 『여성, 미술, 사회: 중세부터 현대까지 여성미술의 역사』(시공사, 2006)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이후 여성 이미지와 나혜석, 박래현, 천경자, 김정숙, 윤석남, 이정지, 김윤신, 이은호 등의 여성 작가 연구로 이어졌다.

한편, 1996년에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해 서양미술사 연구를 넘어 한국근현대미술사로 연구 범위를 확장했다. 2002년 한국 현대조각을 서양과 연계시켜 통시적 관점에서 연구한 「戰後의 용접조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논문은 서양의 용접조각과 함께 6·25전쟁 직후 전쟁의 잔해물과 같은 철 오브제나 철판 자투리로 제작된 철 용접조각을 전후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한 연구이다.

김이순이 박사학위 논문을 집필하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조각사 연구의 주요 대상은 전통 불교조각이었고 생존 작가를 토대로 한 한국 현대조각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현대 조각가들을 미술사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생존 작가들의 경우는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1차 자료를 토대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 작고한 작가의 경우에는 유족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당시로서는 생소했는데, 그 스스로 터득한 미술사 연구 방법론이었으며, 이 논문을 저본(底本)으로 『현대조각의 새로운 지평』(혜안, 2005)을 출판했다.

2005년에는 서울대학교 Post-Doc 연수과정에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다. 2008년 3월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로 부임하여 한국근현대미술사와 한국조각사를



김이순 저, 『현대조각의 새로운 지평』(혜안, 2005) 표지

강의했고 2022년 8월에 정년퇴직했다.

대학 강의와 별도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제간조각』 편집장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는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문화재전문위원과 문화재위원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ICOMOS-Korea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자문 및 평가, 작품 구입 제안 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미술사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러한 대외활동 외에는 주로 강의와 연구에 집중했다. 「한국 구상조각의 외연과 내포」(2005), 「1910년대 심전 안중식의 실경산수화에 나타난 근대성」(2016), 「제국일본의 식민지배와 공공기념물」(2017), 「한국 추상조각의 형성과 전개」(2019), 「1970년대 미술가들의 정체성 찾기: '한국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의 착종과 접합」(2020), 「1950~1960년대 한국 전위미술 논의에 대한 재고」(2022)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외에 국내 국공립미술관과 주요 갤러리에서 열린 기획전 도록의 전시 서문을 집필했다. 연구 작가로는 오지호, 김환기, 이중섭, 박수근, 장욱진, 김종영, 최영림, 전혁림, 권진규, 문신, 민복진, 전희진, 송영수, 문우식, 이승택, 최만린, 조성묵, 최병상, 박병욱, 윤석남, 박석원, 이정지, 유영교, 김영원, 전준호, 오제성 등이 있다. 한편, 조선왕릉의 석물조각에 관한 연구를 병행했다. 2009년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준비 과정에서 석물 부문의 연구에 참여하여 남한에 있는 조선왕릉 40기를 일일이 답사하여 석물을 조사했으며 이후 조선왕릉 석물 관련해서 다수의 논문과 단행본을 출간했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선왕릉 석물 관련 연구보고서 집필에 참여했다.

연구 저서로는 『현대조각의 새로운 지평』(도서출판 해안, 2005), 『한국의 근현대미술』(조형교육, 2007), 『대한제국 황제릉』(소와당, 2010), 『조선왕실 원(園)의 석물』(한국미술연구소, 2016)이 있다. 공저로 『근대와 만난 미술과 도시』(2008), 『시대의 눈: 한국 근현대미술작가론』(2011), 『나혜석, 한국 문화사를 기린다』(2015), *Images of Familial Intimacy in Eastern and Western Art* (Leiden, Boston: Brill, 2014), *Korean Art From 1953: Collision Innovation Interaction* (London: Phaidon, 2020), *Korean Art 1900-2020* (Seoul: MMCA, 2021) 등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이 기획한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에 참여해 오광수(2016)와 김윤신(2023)의 생애사를 연구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여 김영원(2020)과 김윤신(2024)을 연구했다. 한국조각평론상(2003), 제16회 월간미술대상 학술평론 장려상(2011), 이대원 평론상(2015) 등을 받았으며, 현재 한국미술품 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보

- 1957년 충청남도 보령 출생
- 1980년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1980~1982년 서울 삼전중학교 미술교사
- 1985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졸업
- 1985~1989년 덕성여자대학교 강사
- 1994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버펄로)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졸업
- 1996~2007년 홍익대학교 강사
- 2001년 공저 『한국조각사 논저해제』(시공사, 2001)
번역서 『북유럽 르네상스의 미술』, 도서출판 예경
- 2002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 졸업
- 2003년 MBC한국조각평론상 수상
- 2005년 서울대학교 Post-Doc. 연수과정 수료
『현대조각의 새로운 지평』(해안)
- 2005년 서울대 박물관 객원연구원
- 2005~2007년 문화관광부 미술은행 운영위원
- 2006년 번역서 『비잔틴 미술』(도서출판 예경) 출간
- 2006~2011년 『계간조각』 편집장
- 2007년 『한국의 근현대미술』(조형교육) 출간
- 2007~2008년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연구 참여
- 2008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부교수 취임
국제학술발표 "Orientalizing Western Art/Westernizing Oriental Art - Welded Sculpture in the Era of Korean Informal,"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hilosophy and Literature(호주 멜버른)
공저 『근대와 만난 미술과 도시』(두산동아) 출간
- 2009~2023년 서울시 문화재전문위원 및 문화재위원(기념물분과)
- 2010년 『대한제국 황제릉』(소와당) 출간
- 2011년 월간미술대상 학술평론 부문 장려상
- 2011~2023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및 문화재위원(근대분과)
- 2012~2017년 ICOMOS-Korea 집행위원
- 2014~2015년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 2015년 이대원평론상 수상
- 2016년 『조선왕실 원(園)의 석물』(한국미술연구소) 출간
- 2016~2019년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역임
- 2021~2023년 미술사연구회 회장 역임

박일호 (朴一浩, 1959~)



박일호 저, 『미학과 미술』(미진사, 2014; 개정판 2019)

1959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출생한 박일호는 미술평론가이자, 전시기획자, 대학교수이다. 대전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며, 1977년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에 입학했다. 1983년 대학교 졸업 후 같은 학교 대학원 미학과에 들어가 「E.H. 고프리치의 재현론을 기초로 한 미술사관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사과정 중이던 1995년 1월, 동아일보사에서 공모하는 신춘문에 미술평론 부문에 「리얼리티와 미술 그리고 키치」가 당선되면서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신춘문에 당선 소감에서 박일호는 너무 쉽게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정리한 글이라며, “예술 현상과

그 근본을 묻는 미학의 물음들이 어떤 관련성을 갖고 나타나는가를 밝혀내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¹ 당선소감에서도 드러나듯이 박일호는 미학과 미술의 관계 등 미술의 본질적인 문제 연구에 천착해왔다. 1996년 8월 「E. 캣시러의 상징형식으로서 예술에 관한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박일호는 1997년부터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조소과의 전임강사를 거쳐 2003년까지 교수로 재직했다.

박일호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1999년 12월 31일 새천년을 앞두고 국립중앙극장 야외 무대에서 진행된 《출발 2000》을 기획했다. 또 2000년 12월 대전시립미술관의 2대 관장으로 취임하여 《다시 보는 도불전 고암 이응노》, 《미술에 담긴 과학》, 《2002 미디어아트-대전 뉴욕》, 《제17회 아시아 국제미술전람회》 등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반영한 전시와 지역미술관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시아 미술로 시선을 확장한 국제미술전 등 다양한 전시를 기획했다.² 이렇게 연달아 대규모 전시를 기획했던 박일호는 미술비평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미술은 언어다』(문예마당, 2002)를 출간했다.

1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 심사를 맡았던 임영랑은 “미술의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리얼리티를 그것과 상반된 키치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고 있으며, 현대미술이 키치화할 수 있는 여러 한계를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물론 그 대안까지 찾고자 한 태도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당선소감-너무 쉽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동아일보』(1995. 1. 13).

2 《2002 미디어 아트-대전 뉴욕》전은 대전지역 작가를 포함한 국내 작가와 뉴욕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인 작가 총 28인이 참여한 미디어아트 전시로, 테크놀로지가 우리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으면서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제17회 아시아 국제미술전람회》는 아시아 12개국 253명의 중견작가가 참여한 대규모 전시로, 각국의 문화적 고유성과 전통을 이해하고 아시아 미술의 위치를 조명해 주목받았다.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dma/DmaExhibView.do?exYear=1est&exType=03&menuSeq=6083&exSeq=24&pageIndex=33>

대전시립미술관 관장의 임기를 마치고, 2003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으로 교수로 자리를 옮긴 박일호는 2004년부터 현대미술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미술작품의 개념이 역사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한 『감성으로 보고 이성으로 읽는다』(삶과 꿈, 2004), 『예술의 길 문화의 길』(중앙일보 시사미디어, 2005), 『예술과 상징 상징형식』(예전사, 2006) 등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다. 그런가 하면 2008년 《제5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전시 총감독, 2009년 《대구 텍스타일 아트 도큐멘타》 전시 총감독을 맡아 전시기획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했다.

2011년 다시 현대미술학회 회장을 맡은 박일호는 미학자로서의 시각을 반영한 『문화와 미술』(미진사, 2012), 『미학과 미술』(미진사, 2014)을 출간했다. ‘미술 작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며 또 보기를 기대하는가? 예술의 가치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미학의 답을 고대부터 동시대에 이르는 서양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짚어본 이 책들은 오랜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술과 미학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책들이다. 박일호의 연구 분야는 이처럼 미술비평에서부터 미학, 매체,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 미술이론까지 다양하다.

2014년 UCLA 방문교수를, 2021년 한국미학회 회장을 지냈다. 이밖에 KOTRA 아이치현 엑스포관 조형물 심사위원, 서울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위원, 예술의 전당 미술자문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선정 운영위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조형물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미술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연보

- 1959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
- 1977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 1983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졸업
- 198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에서 석사학위 취득
- 1994년 「문화철학의 수립 가능성에 관한 고찰」, 『미학』 19집(한국미학회)
-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부문 당선
「에른스트 캣시러의 상징형식으로서의 예술에 관한 연구」, 『미학』 20집
- 199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에서 철학박사학위 취득
- 1997~2003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조소과 전임강사, 조교수 역임
- 1998년 「형식주의 예술론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E.캣시러의 예술론」, 『미학』 24집(한국미학회, 1998. 5)
- 1999년 「환경미술의 의미와 전망: 생태학과 미술」, 『현대미술학논문집』 제3집
- 2000년 「예술심리학의 현황 및 미학과와의 관계」, 『미술평단』 57(한국미술평론가협회)
「미술비평의 기능과 오늘날의 미술비평」, 『미학』 29집(2000, 11)
- 2000~2003년 대전시립미술관장 역임

- 2002년 『환경미술의 의미와 전망 : 생태학과 미술』,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6집
『미술은 언어다』(문예마당) 출간
- 2003년 『카시러의 상징형식으로서 예술』,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7집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미술관』, 『예술경영연구』 제2집
『E. 과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과 원근법이론』, 『미학』 36집(2003, 가을)
- 2003~2024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 2004년 『감성으로 보고 이성으로 읽는다』(삶과 꿈) 출간
『미술작품의 표절에 관한 미학적 접근』,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8집
KOTRA 아이치현 엑스포관 조형물 심사위원
- 2004~2005년 문화예술진흥원 시각예술분야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2004~2008년 현대미술학회 회장 역임
- 2005년 『예술의 길 문화의 길』(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출간
- 2006년 『예술과 상징 상징형식』(예전사) 출간
서울시립미술관 미술전문직 면접위원/ 구상조각대전 심의위원
- 2007년 『진지한 예술과 키치』, 『미학』 제52집(2007, 겨울)
- 2007~2008년 《제5회 서울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전시 총감독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공공미술 추천소위원회 위원
- 2008년 『매체의 전환, 미적경험의 확장』,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12호
- 2008~2010년 예술의 전당 미술 자문위원/ 서울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위원
- 2009년 《2009 대구 텍스타일아트 도큐멘타》 전시 총감독
『예술과 경제』, 『현대미술학 논문집』 13호
『예술과 리얼리티 그리고 일상적인 삶』, 『기초조형학연구』 10(6)
- 2011년 『M. 맥부언의 미디어 이론과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기초조형학연구』 12(1)
- 2011~2013년 현대미술학회 회장 역임
- 2012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 『문화와 미술』(미진사) 출간
- 2012~2013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선정 운영위원/ 국회도서관 문헌 선정 추천위원
- 2014년 UCLA 방문학자/ 『미학과 미술』(미진사; 2019 개정판) 출간
- 2016년 『페미니즘 미술의 전개와 그 의의』, 『기초조형학연구』 17(5)
- 2017년 평창올림픽 기념 서울스퀘어 미디어 파사드 전시 운영위원
- 2017~2018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 2 터미널 조형물 자문위원
- 2018년 『손에 잡히는 서양미술사』(미진사) 출간
- 2018~2023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4단계 건설 자문위원
- 2021~2022년 한국미학회 회장 역임
- 2024년 이화여자대학교 정년퇴임, 현재 명예교수

III

충남미술 전시공간

전시공간 목록

번호	지역	장소	전시일자	전시명
1	당진	감리교회	1999. 10. 1.	《제9회 당진서예인회 회원전》
2		갤러리 전람회의 그림	1999. 9. 30. 2001. 4. 1.~4. 15.	《제19회 학동인전》 《탑초대전》
3		농업협동조합	1982. 11. 1.~11. 6. 1990. 9. 22.	《학동인회 창립전》 《제8회 학동인전》
4		당진 신도새마을금고 전시실	1992. 9. 25.	《제3회 당진서예인회 회원전》
5		새터서예전시실 ¹	1998. 12. 12.	《제8회 새터서회전》
6		신평면사무소 회의실	1988. 11. 28.~11. 30.	《제1회 신평중고등학교 서도회전》
7		천주교 신평 지하1층	1991. 9. 14.	《제9회 학동인전》
8		축산농업협동조합	1990. 11. 24.	《제1회 새터서회 창립전》
9	대전	남양다방	1968. 3.	《제5회 한유동 동양화 개인전》
10		서라벌다방	1969. 6. 2.	《박성섭 유화 개인전》
11	예산	신신다방	1969. 2. 6.	《신봉균 개인전》
12	온양	고려당 지하다방	1988. 4. 26.~4. 30.	《한국미협 온양지부 제1회 향토작가 초대전》
		신용협동조합 3층	1980. 11. 26.~12. 1.	《제1회 아미회전》
13		연지다방	1983.	《아미회전》
15	조치원	백조다방	1959. 2. 4.	《桂谷선생 전시회》
16	천안	로얄다방	1970. 6. 20.~6. 25.	《신양섭 개인전》
17		백궁다방	1976. 12. 24.~12. 30.	《한국미협 천안지부 창립회원전》
18		성립다방	1958. 6. 16.~6. 20.	《소석 배동일 화백 동양화 개인전》
19			1969. 1. 19.~1. 23.	《이종각 개인전》
20		시온다방	1960. 7. 30.~8. 1.	《김화경 天窓別美術展》
21		연실다방(돌다방)	1960. 7. 30.~8. 1.	《김화경리천송별미술전》
			1961. 3. 8.~3. 15.	《이동식 1회 동양화전》
22		장춘관	1929. 10. 19.	《김영훈·김보윤 서화전람회》
23		전원다방	1956. 5. 21.~5. 25.	《김화경 개인전》
24		천안경찰서 무도장	1935. 6. 27.	《조선서화미술회》
25		추억다방	1956. 5. 21.~5. 25.	《김화경 개인전》
26		파고다백화점	1986.	《미술·사진·서화협회전》
27		한일다방	1977. 10. 31.	《제1회 천안문화의 밤》
28		행지회 회관(行之會 會館)	1932. 4. 24.	《이경배 서화전람회》

1 이영상이 운영했던 새터서예학원(당진시 읍내동 275-1)을 의미한다.

당진 감리교회

당진시 북문길 1-21(읍내동 513-10)에 있다². 정식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당진교회이다. 1929년 임대순 전도사가 당진 남산에 기도처를 설립했으며, 1933년 교회로 승격되었다. 1949년 제2성전을 옛 일제 신사터에 신축하면서 교회로 자리 잡았다. 1957년 현 교회 부지에 석조예배당을 착공하였으며, 1987년 3월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

1999년 《당진서예인회 회원전》이 열렸다. 교회라는 장소를 고려하면 본당보다는 교육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진 감리교회 외관 및 위치(당진 감리교회 홈페이지<http://www.dangjin.or.kr>)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9. 10. 1.	《제9회 당진서예인회 회원전》

² 디지털 당진문화대전 <https://www.grandculture.net/dangjin/toc/GC06400911>

당진 갤러리 전람회의 그림

현 당진수산업협동조합(당진 중앙로 179) 건물의 맞은편에 있었다.³ 1999년 6월 14일 당진에서 개업했다.⁴ 당진에서 활동하던 박기술, 장철식과 정복식 등 화가 세 명이 '문화적 대안공간'의 성격을 지닌 '갤러리 전람회의 그림'을 열었다. 미술 전시 전용공간에서 확장해 시화전, 시낭송회, 작은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당진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갤러리 카페로 짐작된다.⁵

첫 전시로 당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학동인회의 《당진 숨결전》이 열렸다. 화가들이 조성한 공간인 만큼 다양한 전시가 열렸던 것으로 보이나 언제까지 운영되었는지 알 수 없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9. 9. 30.	《제19회 학동인전》
1999. 12. 22.	《한국미협 당진지부 제4회 정기전》
2000	《제20회 학동인전》
2000	《OPUS 새천년기획 초대전》
2001. 4. 1~4. 15.	《탐초대전》
2001	《정종기 개인전-봄의 울트임》

3 「충남수재화협회 초대전」, 『당진시대』(1999. 6. 28).

4 「『갤러리 전람회의 그림』 개관기념」, 『당진시대』(1999. 6. 14).

5 '차와 음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단지 이 공간에 계속 전시회를 유치하고 이 공간을 허랑으로서 유지 운영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화가 박기술의 말에 따르면 주류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기사.

당진 농업협동조합

정식 명칭은 농협중앙회 당진군 지부다. 옛 버스터미널 건너편, 충남 당진군 읍내동 489-2에 있었다. 1950년대 말에 신축한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건물 2층에 있었던 회의실을 전시장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전시공간이 부족했던 당진에서 농협 회의실이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2004년 당진 버스터미널이 교통 혼잡으로 인해 읍내동에서 수청동으로 이전하면서 당진농업협동조합은 2008년 신터미널 근처에 신축 이전하였다. 현재는 NH농협 당진 해나무지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⁶



현 당진해나무지점의 외관(출처: 네이버 지도)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2. 11. 12~11. 6.	《화동인회 창립전》
1990. 9. 22.	《제8회 화동안전》
1994. 9. 28.	《제5회 당진시서예인회 회원전》

⁶ 「농협군지부 신축이전」, 『당진투데이』(2008. 9. 22).

당진 신평면사무소 회의실

충남 당진시 신평로 834(금천리 458)에 있다.

기록에 의하면 면사무소 건물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지어졌다.⁷ 현재는 신평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용하고 있으며, 신축 이전을 진행 중이다.⁸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서예 전시와 남송 채규선이 이끄는 서도회의 전시를 개최하였다. 전시 공간으로 회의실 또는 로비가 활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평면행정복지센터의 외관(출처: 네이버 지도)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8. 11. 28~11. 30.	《제1회 신평중고등학교 서도회전》
1989. 11. 11~11. 15.	《제2회 신평서도회전》
1991. 1. 25.	《제3회 신평서도회전 남송서도회》

⁷ 『조선일보』(1986. 10. 2).

⁸ 『당진시대』(2022. 9. 30).

당진 천주교 신협 지하 1층

1990년 당진시 당진중앙2로 89(읍내동 531-8)에 자리하고 있다.

신협은 1979년 천주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수 조합이다.⁹ 초창기 신협은 임대한 사무실에서 운영했으나 1990년 현 위치에 사옥을 지었다. 현재는 종교색을 지우고 당진신용협동조합으로 불린다. 당진신협과 유사한 신협으로 당진감리교회가 운영하는 당진우리신협이 있다.



당진신협 건물 외관 및 위치(출처: 네이버 지도)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1. 9. 14.	《제9회 학동인전》

⁹ 「당진신용협동조합 제12대 이사장 선거」, 『당진투데이』(2008. 1. 28).

당진 축산농업협동조합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다.

1990년 새터서회 창립전이 열렸다.¹⁰ 새터서회는 서예가 허영삼¹¹이 운영한 새터서예학원¹²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모임으로, 당진과 서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진에서 결성된 새터서회의 창립전이 열린 장소로 의의가 있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0. 11. 24.	《제1회 새터서회 창립전》

¹⁰ 새터서예회는 문산 허영삼의 지도아래 서예를 사랑하는 40여 명의 회원이 모여 작품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제18회 새터서예전 개최」, 『당진신문』(2008. 11. 17).

¹¹ 허영삼은 현재까지 당진에 거주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제12대 당진시민 대상 수상자, 허영삼」, 『충도일보』(2023. 9. 16).

¹² 1987년 허영삼이 새터서예학원(당진시 을내동 275-11)을 개원하였다. 새터서회를 결성하였으며 서산에도 새터서회를 마련하고 주 2회 방문 지도를 했다. 「새터서예학원」, 『당진시대』(2007. 7. 2).

온양(현 아산) 고려당 지하다방

현 온양온천역 인근 아산시 온천대로 1492(온천동 212-1)에 있었다. 현재 파riba게트가 자리하고 있는 건물의 1층에 고려당이 있었다.¹³ 전시회는 고려당이 있던 건물 지하에 있던 다방에서 열렸다. 정확한 명칭이 없었던 듯 고려당 지하다방이라는 기록만 전한다.

온양온천역 진입로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 때문에 이용객이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온양지부 향토 작가전》과 천안과 온양 두 지역의 연합전이 열린 것으로 미루어 다방의 규모가 비교적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 고려당 지하 다방이 있던 건물의 외관(정경숙 촬영)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8. 4. 26~4. 30.	《한국미협 온양지부 제1회 향토작가 초대전》
1988. 5. 7~5. 18.	《제1회 한국미술협회 천안·온양지부 회원 작품 교류전》

¹³ 아산 출신의 최원탁 작가가 고려당의 위치를 알려주었다(2024. 9. 11).

온양 신용협동조합 3층

옛 온양경찰서(온천동 94-6) 옆 건물(온천동 94-2)에 있었다.¹⁴ 경찰서 건물은 현재 아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로 운영 중이며, 온양(아산)신용협동조합은 배방읍 모산로 189로 이전하였다.¹⁵

전시가 열렸던 온양신협은 현재 용한의원이 있는 건물에 있었다. 온양 내 미술교사들이 결성한 아미회의 창립전과 천안지부 회원 순회전이 열렸던 3층에는 다목적실이 있었다. 필요에 따라 회의실과 강당, 전시실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온양신용협동조합이 있었던 건물의
외관(정경숙 촬영)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0. 11. 26~12. 1.	《제1회 아미회전》
1982. 10.	《제7회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와 아미회 회원 합동전》

¹⁴ 아산 출신의 최원락 작가가 온양 신협의 위치와 내부 시설에 대해 설명해주었다(최원락 작가와의 인터뷰: 2024. 9. 11).

¹⁵ 1995년 온양시와 아산군이 아산시로 통합되었다. 온양신협 역시 아산신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온양 연지다방

현 온양온천초등학교 건너편 건물 지하에 있었다.¹⁶

1980년 온양시 아산군 내 중등미술교사들이 결성한 '아미회'의 전시가 1983~1985년까지 열렸다. 1984년 《한국미협 천안지부 회원전》이 열린 것으로 미루어 비교적 넓은 공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연지다방의 위치(출처: 네이버 지도)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3	《아미회전》
1984. 7. 20~7. 24.	《한국미협 천안지부 회원전》
1984	《아미회전》
1985	《아미회전》

¹⁶ 아산 출신의 회원작가가 연지다방의 위치를 알려주었다(2024. 9. 11).

천안 백궁다방

천안역 사거리에 있던 건물의 지하에 있었다. 1976년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창립전》이 열린 장소로 의의가 있다.¹⁷ 당시 다방 내부 모습을 보면 벽면 가득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부 창립전 이외 다른 전시회를 개최한 이력은 찾을 수 없다.



백궁다방이 있던 건물(출처: 『문화예술도시 천안을 꿈꾸다』, 천안박물관, 2013)



백궁다방 내부의 모습(출처: 『천안미술 1951-1989: 기록과 기억으로 말하다』, 천안시립미술관, 2024)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76. 12. 24~12. 30.	《한국미술 천안지부 창립회원전》

17 「미술평천안지부전」, 『동아일보』(1976. 12. 25).

천안 연실다방(돌다방)

천안시청 관내에 있던 천안보건소(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15번지)의 건너편, 지금의 오룡동 상당 인근에 있었다. 시청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에 자리했던 다방 중 하나로, 1960년 김화경이 서울로 이주를 결정하고 연실다방과 시온다방에서 《김화경리천송별미술전(金華慶離天送別美術展)》을 개최했다. 이후 1961년 '시화보고전(試畫報告展)'이라는 부제를 달고 《이동식 1회 동양화전》이 열렸다. 이동식 개인전 사진을 통해서 연실다방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연실다방은 《김성재 양화전》이 열린 1963년 무렵부터는 '돌다방'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¹⁸ 1970년대가 되면서 '다방' 대신 '다실'로 불렸다. 《김영천유화개인전》 리플렛에는 '돌다실'로 표기되어 있다.



돌다방의 위치를 밝힌 김영천 전시리플릿



연실다방 내부(출처: 『천안미술 1951-1989: 기록과 기억으로 말한다』, 천안시립미술관, 2024)



《이동식 동양화전》(1961) 리플릿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60. 7. 30~8. 1.	《김화경리천송별미술전(金華慶離天送別美術展)》(연실다방 · 시온다방)
1961. 3. 8~3. 15.	《이동식 1회 동양화전》(연실다방)
1961. 11. 15~11. 24.	《제6회 녹정회전》(연실다방)
1963. 10. 26~10. 31.	《김성재 양화전》(돌다방)
1964. 10.	《하엽회 창립전》(돌다방)
1975. 11. 24~11. 30.	《김영천 유화개인전》(돌다실)
1976. 10. 16~10. 23.	《취묵헌 안영선 개인전》(돌다실)

¹⁸ 다방 주인 이름을 따서 '연실다방'이라고 불렀다는 이동식과의 전화인터뷰와 같은 위치인 '돌다방'에서 《하엽회 창립전》을 열었던 박인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다방 이름만 바꾸어 운영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안경찰서 무도장(武道場)



『조선서화미술회』, 『무산일보』(1935. 6. 27)

1924년 천안시 문화동 93에 경찰서를 신축, 이전하였다.¹⁹ 당시 있던 무도장은 1950년 9·28 수복 시 유치장, 무기고와 함께 소실되었다. 1955년 무도장을 신축하였으며, 천안경찰서는 1965년 12월 5일 천안시 문화동 101-2와 원성동 261-18, 총 1,000평의 부지에 현대식 건물을 지어 이전하였다.

1935년 천안경찰서 무도장에서 열린 전시회는 일본인 사스가(流石)로 짐작되는 인물이 10여 년간 수집한 조선시대 화가 백여 명의 작품을 전시한 것으로 추정된다.²⁰

전시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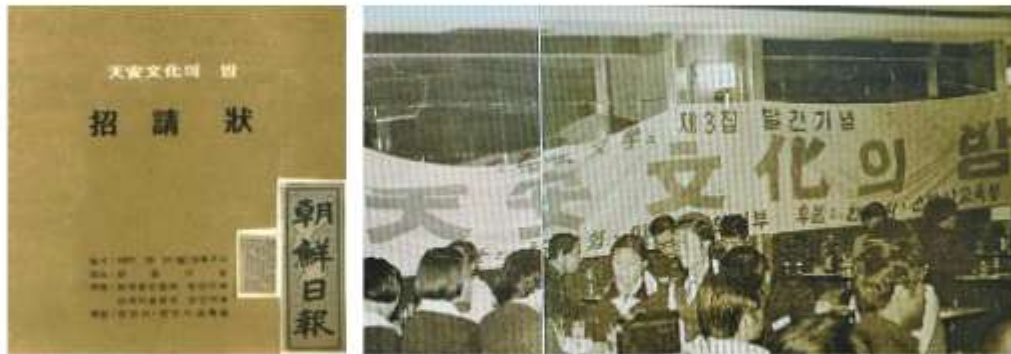
전시일자	전시명
1935. 6. 27.	《조선서화미술회》

19 1919년 예산헌병대 관할에서 분리하여 천안경찰서가 발족하였다. 1946년에는 미군정 감무국 소속으로 제3관구 경찰청 제4지구 검합서로 개칭되었으나 1948년 8월 천안검합서로 환원되었다. 『제7집 경찰행정』, 『천안시지 상』, (천안시지편집위원회, 1997), p. 491.; 문화동은 1920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대화정으로 불리다 1946년 일본식 명칭의 변경에 따라 문화동으로 변경되었다. 『제6편 옛 지명』, 『천안향토사』, (천안문화원, 1994), p. 669.; 천안시의 확장으로 인해 2008년 서북경찰서와 동남경찰서로 분리되었다. 출처: 디지털천안문화대전 <https://cheonan.grandculture.net/cheonan>

20 『조선서화미술회』, 『무산일보』(1935. 6. 27). 일제강점기에 조직된 미술단체 '조선서화미술회'와는 상관없다.

천안 한일다방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1977년 10월 31일 천안미술협회가 천안문인협회와 함께 <제1회 천안문화의 밤>을 개최한 장소이다.²¹ 문화의 밤 현수막 뒤에 창문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지상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행사에는 천안에서 활동하는 작가 중 국전에서 처음으로 특선한 강관옥과 시집을 펴낸 양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행사가 있었다. 두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안문화의 밤』 초청장과 행사가 열린 한일다방의 내부 모습(출처:『천안시 승격 50주년 기념 특별전-문화예술도시 천안을 꿈꾸다』, 천안박물관, 2013)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77. 10. 31.	《제1회 천안문화의 밤》

²¹ 『천안시 승격 50주년 기념 특별전-문화예술도시 천안을 꿈꾸다』(천안박물관, 2013), pp. 24-25.

천안 행지회 회관(行之會 會館)

회관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²² 행지회는 천안 재력가와 관료들의 모임이다. 1928년 12월 8일 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해 수도 문제, 중등학교 설립, 면장 선출 등 지역 관련사항을 논의하였다.²³ 중앙에서 활동한 이경배를 초청하면서 행지회 회관을 전시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행지회 총회」, 『부산일보』(1928. 12. 12)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32. 4. 24.	《이경배 서화전람회》

22 관련 신문 기사를 확인했으나 위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경성일보』(1924. 6. 22); 『부산일보』(1928. 12. 12; 1932. 5. 19; 1935. 8. 21).

23 『天安 商工會報』, 『부산일보』(1935. 8. 21). 행지회 총회를 요리집인 초입관에서 열었던 것으로 보면 행지회 회관은 1928년 이후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行之會の總會』, 『부산일보』(1928. 12. 12).



충남미술단체

미술단체 목록

번호	단체명	창립연도	개요
1	하업회	1964	김관옥, 박인희 등이 참여한 천안 최초의 고등학생 중심의 문학·미술 연합동아리
2	청목회	1973	대전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직한 서예 동아리
3	충남대학교 회화동인회	1973	홍동식 교수 문하생 회화 동아리
4	예우회	1974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출신 작가 모임
5	북우회	1979	대전 북중학교 미술동우회, 임양수 제자 모임
6	존재회	1985	대전 반도화랑에서 창립한 현대미술가 모임
7	일신회	1986	대전 거주 작가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8	PURE	1987	천안시 소재 허새비화실 회원 모임
9	신세대	1989	1950년대 중후반 출생한 천안 미술교사 모임
10	천안여류화가회	1989	천안시에서 활동하는 여성 작가 모임
11	천안한국화회	1989	천안시 거주 한국화 작가 모임
12	참이전	1991	이화여자대학교 동·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대전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모임
13	한원회(한원 조각회)	1991	한남대학교 미술학과 동문회. 제5회(1995)부터 회화와 분리해 '한원조각회'로 개칭
14	충남산업디자인협회	1992	충남 산업디자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창립
15	대전가톨릭미술가회	1995	천주교 대전교구 신자들로 구성된 미술단체
16	시월회	1998	천안, 아산 거점 구상 계열 작가 모임
17	한국전업미술가 대전·충남협회	1998	대전·충남 거주 전업작가 단체

하엽회(河葉會, 1964~1966)

1964년 결성된 천안 최초의 고등학생 문학·미술 연합 동아리이다. 서울 홍익공업고등전문학교에 재학 중이던 강관옥이 동년배 문학도와 박인희 등 미술학도를 모아 하엽회를 결성하고 같은 해 10월 천안 돌다방에서 《하엽회 창립전》을 개최했다. 창립전 참가자는 강관옥·박광수·박인희·임승소·한연임 등이다. 《제2회 하엽회전》은 1965년 5월 천안문화원에서 열렸고, 1회 때 참여하지 않았던 박명신이 합류했다. 1966년까지 총 3차례의 전시를 개최한 하엽회는 3회전을 다시 돌다방에서 열었으며, 제3회 전시에 서울예술고등학교에 다니던 심상순이 합류했다. 하엽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1960년대 이후 천안의 문화계를 이끈 인물로 성장했다.



《하엽회 창립전》 기념(1964. 10. 24. 촬영, 박인희 작가 제공)



《제2회 하엽회전》 기념(1965. 5. 16. 촬영, 박인희 작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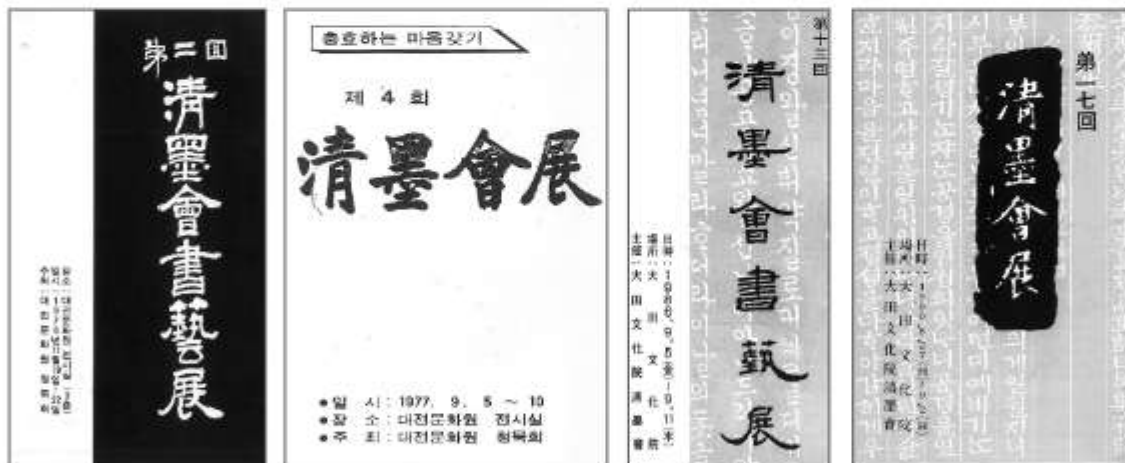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64. 10.	《하엽회 창립전》	천안 돌다방
	강관옥, 박광수, 박인희, 임승소, 한연임 등	
1965. 5.	《제2회 하엽회전》	천안문화원
	강관옥, 박광수, 박명신, 박인희, 임승소, 한연임 등	
1966	《제3회 하엽회전》	천안 돌다방
	강관옥, 박광수, 박명신, 박인희, 임승소, 한연임, 심상순	

청묵회(淸墨會, 1973~현재)

‘청묵회(淸墨會)’는 대전 최초 고등학교 연합 서예 동아리이다. 1973년 11월 10일 충남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손환일(孫煥一, 1955~), 유형재(兪衡在, 1955~) 등 5인이 서예의 연구와 실력 향상, 서예의 저변화를 목적으로 창립했다. 1974년 3월, 대전문화원의 후원을 받아 문화원 내의 동아리로 공식 출발했으며, 같은 해 9월 《제1회 청묵회전》을 개최했다. 이후 1975년 11월 《제2회 청묵회전》을 여는 등 매년 가을 정기적으로 회원전을 열었다.¹

청묵회는 대전 시내 남녀 5개 고등학교의 학생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매주 수요일 문화원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충북 심천 등지에서 탁본 실습을 하며 전통 서체의 아름다움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서예대회에 나가 좋은 수상 성적을 거두었다. 1999년까지 총 26회의 회원전을 개최했으며, 1999년 해체된 이후에도 회원들이 비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2005년 우정의 만남전》을 열기도 했다.



청묵회 전시 관련 자료

1 1970년대 동아리 활동을 장려한 대전문화원(현 대전중구문화원)이 기록한 미카이브자료 『대전중구문화원육십년사 1953~2013』에는 “오래 전동을 자립하는 동아리 모임은 여전히 주 1회의 정기모임과 함께 9개 동아리의 방학 중 자체 훈련과 실습을 계속하는 한편 강습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중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한 동아리는 청묵회, 미상학 등 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전중구문화원육십년사 1953~2013』(대전중구문화원, 2013), p. 419.



《제12회 청목회전》(1985. 12) 전시 오픈식 장면
 (왼쪽에서 두 번째는 대성고등학교 교사이자 청목회 지도교사 차상학, 세 번째는 대전
 중구문화원장 박운석, 네 번째는 청목회 13기 회장 김병준)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 2005)
 포스터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4. 9.	《제1회 청목회전》	대전문화원
1975. 11. 19~11. 22.	《제2회 청목회전》	대전문화원
1976. 9.	《제3회 청목회전》	대전문화원
1977. 9. 5~9. 10.	《제4회 청목회전》	대전문화원
1981. 9. 11~9. 19.	《제8회 청목회전》	대전문화원
1986. 9. 5~9. 11.	《제13회 청목회전》	대전문화원
1987. 8. 30~9. 5.	《제14회 청목회전》	대전문화원
1990. 8. 27~9. 2.	《제17회 청목회전》	대전문화원
1999. 9.	《제26회 청목회전》	대전중구문화원

충남대학교 회화동인회(1973~현재)

충남대학교 회화동인회는 1973년 홍동식 교수의 지도로 창립된 충남대학교 교내 미술 동아리로, 줄여서 '충대동인회'로도 부른다. 창립 초기에는 토요일마다 야외스케치를 다니며 사생 실력을 키웠고, 봄과 가을에 정기전을 개최했다. 전공에 상관없이 예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단체로, 졸업생도 함께 활동했다. 홍동식은 동아리 지도교수로서 꾸준히 작품을 출품하며 학생들의 창작 의지를 북돋웠다. 이 단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2024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전 갤러리메르헨에서 《SINCE 1973-1/2cent.展》을 개최했다.



충남대학교 회화동인회 홍보물
(출처: 충남대학교 충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



창립 50주년 기념 《SINCE 1973-1/2cent.展》(2024) 전시 포스터(출처: 대전 갤러리메르헨 공식블로그)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3. 10. 1~10. 7.	《창립 충대동인전》	미상
1997. 5. 11~5. 15.	《제38회 동안작품전》	충남대학교 1학생회관
2011. 10. 20~10. 26.	《창립기념 충대동인전》	대전 시민회관
2024. 5. 8~5. 14.	《SINCE 1973-1/2cent.展》	대전 갤러리메르헨

예우회(藝友會, 1974~현재)

1974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출신 작가들이 모여 창립한 단체이다. 대전예우회와 한밭예우회 두 단체로 분리되어 있다가 2007년 6월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로 통합되었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4. 10. 13~10. 17. 1974. 10. 27~10. 31.	《창립 예우회전》	천안교육청회관/ 대전 산강화랑
	김수길, 백종천, 신현국, 신봉균, 신양섭, 손성훈, 이종근, 임립, 정영복	
1994. 4. 9~4. 15.	《예우회 작품전》	대전시민회관
1996. 4. 20~4. 25.	《제18회 예우회전》	대전시민회관

북우회(北友會, 1979~현재)

1979년 9월에 창립한 북우회는 대전 북중학교 동문 미술단체이다.²⁾ 대전 북중학교 미술교사 임양수를 주축으로 제자들과 함께 매년 정기전을 치르는 단체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1회 창립전은 홍명미술관에서 치렀고 강신우, 김국관, 김종기, 김종설, 박성택, 손정근, 신동주, 이범현, 임양수 등이 참여했다.



《북우회전》(윤 갤러리, 2023) 전시 포스터 및 임양수의 작품작(출처: 아트히브 홈페이지)



《북우회전》(문갤러리, 2024) 전시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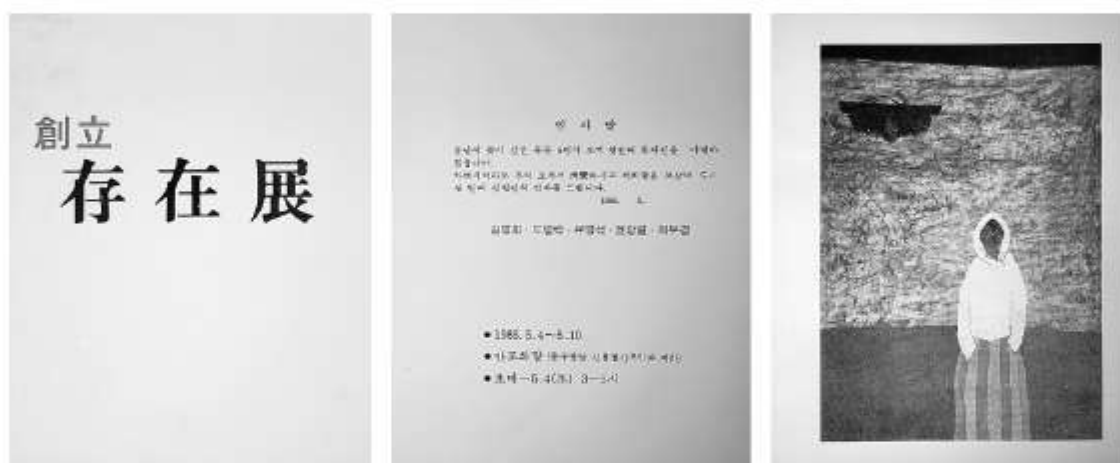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9. 9. 6~9. 10.	《제1회 북우전》 강신우, 김국관, 김종기, 김종설, 박성택, 손정근, 신동주, 이범현, 임양수 등 참여	대전 홍명미술관
2023. 10. 26~11. 1.	《2023 윤갤러리 초대: 북우회展》	대전 윤갤러리
2024. 12. 19~12. 24.	《2024 북우회展》	대전 윤갤러리

²⁾ 대전 북중학교는 1970년 4월 6일 개교했으며, 2007년 3월 1일 대전 제일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2012년 학교법인 동춘학원은 원도심 공통화 현상으로 인해 학교군 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제일중학교의 지원율이 저조함에 따라 '2014년 2월 28일 학교폐지'를 신청하여 대전시교육청에서 인가함에 따라 폐교되었다. 「대전 제일중학교 2014년 폐교」, 『연합뉴스』(2012. 7. 31).

존재회(存在會, 1985~?)

존재회는 1985년 목원대학교 서양화 전공 작가 5명이 모여 창립한 단체이다. 추상회화를 추구하는 작가들이 결성한 존재회는 대전 반도화랑에서 창립전을 개최했다. 창립 회원은 김병휘·도병락·유영석·윤장열·최무경이며, 이후 전체 동문 단체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존재전》 창립전 도록 표지 및 내지(내지의 인사말과 윤장열의 출품작)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5. 5. 4~5. 10.	《창립 존재전》 김병휘, 도병락, 유영석, 윤장열, 최무경	대전 반도화랑
1986. 9. 5~9. 11.	《존재전》	대전 현대화랑
1987. 9. 3~9. 9.	《제3회 존재전》	대전 현대화랑
1997. 10. 9~10. 15.	《존재전》	대전 현대화랑
1998. 8. 27~9. 2.	《존재전》	대전 현대화랑
1999. 8. 19~8. 25.	《제15회 존재전》	대전 현대화랑
2000	《존재전》	대전시민회관
2004	《존재전》	대전 이공갤러리
2009.10. ?~10. 15.	《존재전》	대전 현대화랑

일신회(日新會, 1986~?)

일신회는 1986년 대전에서 거주하던 작가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 창립전은 대전 현대 화랑에서 개최했으며, 창립회장은 부여 출신으로 국전에서 여러 차례 특선한 서양화가 이인영이 맡았다. 당시 예술문화 전반의 중앙집중적인 현상에 대한 우려와 지역 미술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일신(日日新)하고 우일신(又日新)하라’는 옛글의 의미를 새겨 단체명을 일신회로 정했다.³ 창립전에는 이인영·이완중·조종국·임립·이곤순이 회원으로 참여했으며, 서양화·한국화·서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일신전》(1986) 도록 표지 및 내지(이인영의 출품작 〈산〉)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6. 5. 24~5. 30.	《일신전》	대전 현대화랑
	창립회원: 이인영, 이완중, 조종국, 임립, 이곤순 명예회원: 강용식, 박종배, 오복동, 이선우, 이지영	
1987. 5. 23~5. 29.	《일신전》	대전 호화랑

³ 『일신전』, 〈대전 현대화랑, 1986〉 도록 서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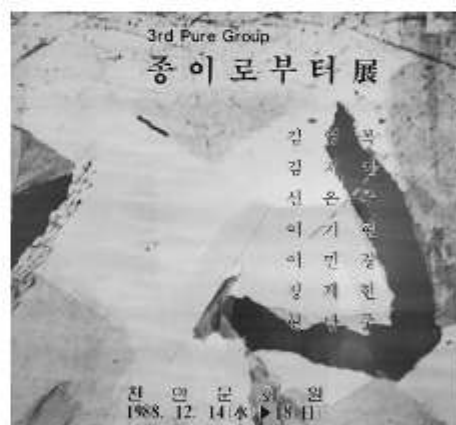
PURE(1987~?)

PURE는 1987년 천안시 사직동에 위치한 허세비화실에 모인 작가들이 결성한 모임으로, 같은 해 10월 천안문화원 전시실에서 창립전을 개최했다. 창립전 이후, 1989년 11월까지 5번의 전시회를 열었으며, 1980년대 후반 천안미술의 서양화 창작과 관련한 새로운 방향성을 주도적으로 모색했다.⁴ 서양화가 현남주를 중심으로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면서 공동작업 의지를 고취했다. 창립전 리플릿 서문에 따르면, “‘PURE’라는 단어는 ‘순수’란 뜻으로 그림을 아끼고 좋아하는 이들이 모여 때로는 어설피고, 때로는 사치스러운 것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가슴으로 새롭고 순수한 그림, 살아 숨쉬는 그림을 그리고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창립 의미를 밝혔다.

《제3회 PURE GROUP전》 부제는 ‘종이로부터전’이며, 《제5회 PURE GROUP전》 부제는 ‘사각거부전’이다. 이처럼 전시마다 재료나 화면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모색했다. 지방 도시에서 기획하기 쉽지 않은 테마전을 시도하며 1980년대 후반 천안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전개한 단체이다. PURE 그룹이 언제까지 존속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1990년대 초반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제1회 PURE展》(1987) 전시 리플릿



《제3회 PURE 그룹 종이로부터展》(1988) 포스터

⁴ 최경현, 「1950~80년대 천안미술의 흐름과 특징」, 『천안미술 1951-1989: 기록과 기억으로 말한다』(천안시립미술관, 2024), pp. 90~100.

⁵ 홍지식, 「1980년대 후반 천안 미술 그룹 연구」, 위의 도록, pp. 90~100.



《제2회 PURE展》(1988) 포스터



《제4회 Pure展》(1989) 포스터



《제5회 PURE 그룹 사각거부전》(1989)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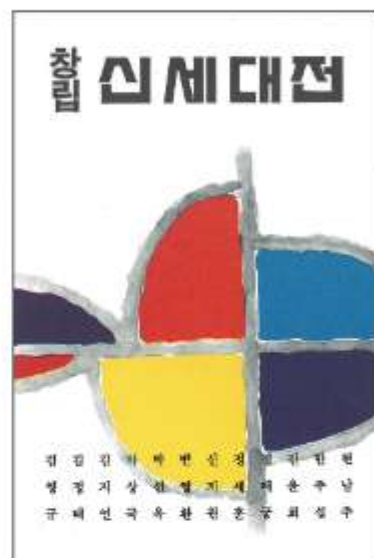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6. 10. 12~10. 16.	《제1회 PURE展》	천안문화원
	김지연, 정계현, 조윤심, 황규란, 홍동석, 현남주 찬조 출품	
1988. 5. 26~5. 30.	《제2회 PURE展》	천안문화원
1988. 12. 14~12. 18.	《제3회 Pure Group: 종이로부터展》	천안문화원
1989. 5. 24~5. 28.	《제4회 Pure展》	천안문화원
1989. 11. 17~11. 21.	《제5회 Pure Group: 사각거부전》	천안문화원

신세대(1989~?)

신세대는 1950년대 중후반에 출생한 천안 미술 교사 모임으로, 1989년 5월 결성되었다. 창립전은 그해 6월 천안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렸으며, 참여 작가는 대부분 천안미술협회 회원이었다. 신세대 그룹은 천안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청년작가들이 새로운 세대임을 자처하며 결성한 동인이었다.⁶ 즉 동시대의 다양한 미술 흐름을 수용해 지역미술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모인 그룹이었다.

초대회장을 맡은 정세훈은 창립전 도록의 「모시는 글」에서 “각자가 스스로를 닫아 놓고 공부하는 것보다 서로를 드러내놓고 보일 때에 자기의 결점도 보이고 장점도 나타나는 것이기에 그림에 뜻을 둔 젊은이들이 뜻을 한데 모아 첫 번째 전람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라며 작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창립했음을 밝혔다.⁷ 1992년까지 다섯 번의 전시를 연 기록이 확인되지만, 해체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제1회 신세대전》(1989) 전시 초대장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9. 6. 16~6. 20.	《제1회 신세대전》 김영규, 김정태, 김지연, 박상국, 박선옥, 변영환, 신지원, 정세훈, 정태궁, 진윤희, 한주섭, 현남주	천안문화원
1989. 12. 26~12. 30.	《신세대 소품전》	천안문화원
1990. 4. 13~4. 17.	《제3회 신세대전》	천안문화원
1991. 6. 14~6. 19	《제4회 신세대전》	천안문화원
1992. 6. 29~7. 5.	《제5회 신세대전》	천안 아라리오 화랑

6 홍지석, 앞의 글, p. 141.

7 최경변, 앞의 글, p. 92에서 재인용.

천안여류화가회(天安女流畫家會, 1989~현재)

천안여류화가회는 1988년 1월에 단체 결성을 위해 모임을 발기한 후, 1989년 4월 정식으로 창립했다. 창립전에는 천안 시내 학교와 미술학원에서 미술 실기를 지도하는 여성 작가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충남 일대에 거주하는 정규 대학 미술 관련 학과 전공자들로, 1년에 한 번 씩 정기전을 통해 작품을 선보였다. 이후 명칭을 '충남여류작가회'로 변경해 현재까지 매년 전시를 열고 있다.



《창립 천안여류화가전》(1989) 도록 표지 및 내지(성정숙의 출품작)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9. 4. 15~4. 30.	《창립 천안여류화가전》 김미혜, 성정숙, 이영순, 이준희, 정금옥, 채금숙	천안 로얄전시장
2014. 9. 30~10. 5.	《제19회 충남여류작가전》	천안중앙도서관
2018.10. 30~11. 4.	《제23회 충남여류작가전》	천안예술의전당
2020. 10. 13~10. 25.	《제25회 충남여류작가전》	천안예술의전당
2024. 6. 18~6. 30.	《제29회 충남여류작가전》	서울 CN갤러리

천안한국화회(天安韓國畫會, 1989~?)

천안한국화회는 1989년 1월 21일 천안에서 창립한 한국화 작가 단체로, 그해 10월 천안시 민회관에서 창립전을 가졌으며, 초대회장은 어윤섭이 맡았다.⁸ 어윤섭의 창립전 인사말에 따르면 천안한국화회는 “한국화가 미술 분야의 한 장르로서 고르게 자리 잡기를 바라며 지역 발전과 더불어 한국화의 정통성과 순수한 민족화를 공부하고 연구”할 것을 추구했다.⁹ 당시 몇몇 작가들은 수묵화 재료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채색과 수묵이 어우러진 작품을 출품했다. 창립 당시 천안한국화회 회원들은 전통적인 수묵화의 재료와 형식을 사용하자는 보수적인 성향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한국화의 현대화를 모색했다.¹⁰



《천안한국화회 창립전》(1989) 도록 표지 및 내지(이재창의 출품작)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9. 10. 19~10. 25.	《천안한국화회 창립전》	천안시민회관
	고광숙, 김무호, 김철성, 류명길, 박순래, 박진균, 서경원, 어윤섭, 유명길, 이근배, 이동식, 이성구, 이재창, 전영화, 한동순	
1990. 11. 8~11. 13.	《제2회 천안한국화회전》	천안시민회관
1991. 12. 2~12. 8.	《제3회 천안한국화회전》	천안시민회관
1992. 11. 23~11. 30.	《제4회 천안한국화회전》	천안시민회관

⁸ 『창립 천안한국화회전』(천안시민회관, 1989).

⁹ 어윤섭, 「작품전을 열면서」, 『제2회 천안한국화회전』(천안시민회관, 1990).

¹⁰ 홍지식, 앞의 글, p. 141.

창이전(創梨展, 1991~?)

1991년 창립한 창이전은 전시명이자 단체명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동·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대전에서 거주하는 동문들이 모인 단체이다. 졸업 후 활발히 작품 활동을 이어온 작가는 물론, 졸업 후 창작을 멈췄던 작가도 창이전 창립을 계기로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대전 반도 화랑에서 창립전을 열었으며, 창립전 참여 작가는 박용자·송미숙·정미현·오의숙·이문주·이현숙·이보경이다.



《창이전》(1991) 창립전 도록 표지 및 내지(박용자의 작품)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1. 6. 13~6. 18.	《창이전》 박용자, 송미숙, 정미현, 오의숙, 이문주, 이현숙, 이보경	대전 반도화랑
1996. 10. 13~10. 16.	《창이전》	대전 21세기갤러리
1997. 9. 25~9. 30.	《창이전》	대전증구문화원
1998. 6. 22~6. 30.	《창이전》	대전 창신갤러리
1999. 11. 23~11. 28.	《창이전》	대전 한림갤러리

한원회(한원 조각회, 1991~?)

한원회는 한남대학교 미술학과 동문 단체로, 1991년 ‘한원회’로 창립했다. 그러나 1995년 제5회 전시부터 회화 전공과 분리해 조소 전공 작가만 참여하면서 ‘한원 조각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원 조각회 전시에는 재학생이나 졸업생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참여했으며, 제7회 전시에서는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였던 최국병·박병희·국경오 등의 작가도 작품을 찬조 출품했다. 2000년대 대전시청, 대전 이공갤러리 등에서 전시가 열린 기록이 있지만 언제까지 이어진 단체인지 확인되지 않는다.¹¹⁾



《제7회 한원 조각회전》(1997) 도록 표지 및 내지(최국병의 출품작)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1	《한원회전》	
1995. 5. 25~5. 29.	《제5회 한원 조각회전》	대전 대화문화사랑
1996. 10. 9~10. 11.	《제6회 한원 조각회전》	대전 통인갤러리
	《제7회 한원 조각회전》	대전중구문화원
1997. 9. 25~9. 30.	최국병, 박병희, 국경오, 강은정, 김미현, 김영희, 김시찬, 김종필, 김지송, 이상국, 나요환, 박대순, 박진용, 박종오, 배 현, 백종영, 심성규, 송미숙, 이상필, 임재현, 안소현, 안의중, 장백순, 장성희, 전범수, 정기웅, 정연우, 조인혁, 한승완	
1998. 9. 5~9. 11.	《제8회 한원 조각회전》	대전중구문화원
	《제16회 한원 조각회전》	대전 이공갤러리
2006. 5. 25~5. 29.	박병희, 정찬국, 김성용, 김종필, 서창호, 김선심, 주매희, 차정옥 등 참여	

11 「작가 80인 조각으로 개성표현」, 『충청투데이』(2006. 10. 20).

충남산업디자인협회(1992~현재)

충남산업디자인협회는 1992년 충남의 산업디자인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여, 충남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고급화를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현재 단체명은 충남디자인협회이지만, 제1회 전시 도록에는 단체명이 '충남산업디자인협회'로 표기되어 있다.¹² 창립 당시 회장은 이용직이었다.

창립전 때부터 전문 디자이너들이 대거 참여해, 100여 명에 가까운 작가가 공예와 섬유·제품·포장·광고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작품을 출품했다. 많은 단체와 기업의 후원을 받으며 창립한 충남산업디자인협회는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천안상공회의소, 한국문예진흥원, 충남예총,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신문, 대전MBC 등의 후원을 받았다. 창립전과 제2회 전시는 천안시민회관과 공주문예회관 두 곳에서 대규모 전시로 개최되었다.

1995년 충남산업디자인전의 주관처가 충남예총에서 충남산업디자인협회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매년 '충남산업디자인대전'을 주관하며 도내 기업과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 개발을 지원했으며, 공모전을 통해 산업디자인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24년 11월 《제38회 충남산업디자인대전》이 논산문화원에서 개최되었다.



《제1회 충남산업디자인협회전》(1992)·《제2회 충남산업디자인전》(1993) 포스터

12 『제1회 충남산업디자인협회전』(충남산업디자인협회, 1992).



2024년 《제38회 충남산업디자인대전》 도내 기업지원 디자인 부문 대상 수상작품,
공주대학교 신지현의 학생 출품작(출처: 국립공주대학교 홈페이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2. 8. 10~8. 16. 1992. 8. 19~8. 25.	《제1회 충남산업디자인협회전》	천안시민회관 공주문예회관
1993. 11. 10~11. 16. 1993. 11. 19~11. 25.	《제2회 충남산업디자인전》	천안시민회관 공주문예회관
1995. 10. 25~10. 29.	《제4회 충남산업디자인전》	천안시민회관
1996. 10. 10 ~10. 14. 1996. 10. 16~10. 20.	《제5회 충남산업디자인전》	공주문예회관 서천군민회관
1998. 10. 15~10. 21.	《제7회 충남산업디자인전》	공주문예회관
2024. 11. 8~11. 14.	《제38회 충남산업디자인대전》	논산문화원

대전가톨릭미술가회(1995~현재)

1995년 창립한 대전가톨릭미술가회는 천주교 대전교구 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미술로서 선교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다음 해 창립한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연합전에도 참여하며 전국 회원들과의 교류에 참여했다. 매년 정기전을 개최하며 친목을 도모해 왔다.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서양화·조소·판화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2024년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대전예술가의집에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신’을 주제로 51명의 회원이 참여한 전시가 열렸다.



〈구세주 강생 2000년 맞이 새날 새삼 대회년 미술전〉(2000) 고영환의 작품작



〈대전가톨릭미술가회 창립 30주년 기념전〉(2024) 포스터 및 허 이종수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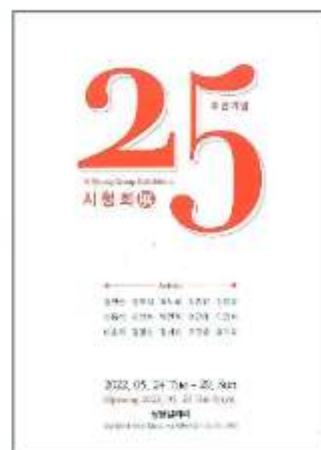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5. 12. 22~12. 28.	《대전가톨릭미술가회 창립전》	대전 용인갤러리
1997. 9. 18~9. 24.	《제3회 대전가톨릭미술가회전》	대전중구문화원
1998. 4. 28~5. 3.	《제2회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	대구문화예술회관
1998. 9. 12~9. 28.	《제4회 대전가톨릭미술가회전》	대전중구문화원
1999. 9. 28~10. 3.	《제5회 대전가톨릭미술가회전》	대전중구문화원
2000. 2. 11~2. 21.	《구세주 강생 2000년 맞이 새날 새삼 대회년 미술전》	서울예술의전당
2024. 4. 16~4. 21.	《대전가톨릭미술가회 창립 30주년 기념전》	대전예술가의집

시형회(視形會, 1998~현재)

시형회는 1998년 구상 회화를 추구하는 서양화 작가들이 모여 창립한 단체이다. ‘형상이 보인다(視形)’라는 뜻에서 단체명을 시형회로 지었으며, 직업과 연령이 다양한 작가들이 모여 매년 정기전을 열고 있다.¹³ 아산과 천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이지만, 대전과 당진 등에서도 전시를 열었다.

정기전 외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작가들의 작업실에 모여 작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실력을 쌓고 친목을 도모했다. 1999년에는 100호 작품전을 열었으며, 2017년 창립 20주년 기념전은 ‘시형20 秀作展’이라는 타이틀로 개최했다.



《제15회 시형회 초대전》(2012)·《25주년 기념 시형회전》(2022)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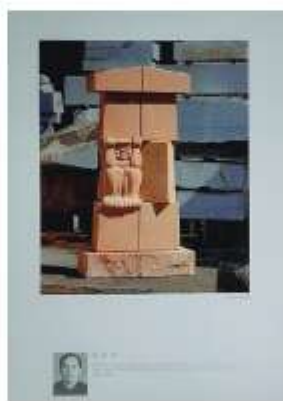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8	《시형회 창립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9. 7. 9~7. 17. 1999. 8. 7~8. 13.	《제2회 시형회 100호전》	충남학생회관/ 달진갤러리
2002. 6. 17~6. 23.	《제5회 시형회전》	천안시민회관
2012. 6. 1~6. 7. 2012. 11. 26~12. 1.	《제15회 시형회전》	달진문예의전당/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2017. 11. 14~11. 24.	《시형20 수작(秀作)전》	천안 삼거리갤러리
2021. 11. 9~11. 14.	《2021 시형회 정기전: 가을의 중심에 화폭을 펴다》	천안 쌍용갤러리
2022. 5. 24~5. 29.	《25주년 기념 시형회전》	천안 쌍용갤러리

13 「시형회전」, 『천안문화』 제29호(천안문화원, 1999, 12), p. 100.

한국전업미술가 대전 · 충남협회(1998~)

한국전업미술가 대전 · 충남협회는 1998년 작가로 활동하는 것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창작에만 전념하는 작가들이 모여 창립한 단체이다. 그해 11월 대전광역시와 한국미술협회 대전지회의 후원으로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창립전에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분야 작가 49명이 참여했다. 창립 당시 회장은 서양화가 신현국이었으며, 부회장은 한국화가 이완중, 서양화가 박명규, 조각가 유영교가 맡았고, 서양화가 김철호가 고문으로 참여했다. 창립 선언문에서는 “한국미술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주도하는 중추적 미술가임을 자각하고 더욱 뜨겁게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상호 협력하여 전업 미술가의 권익과 사회 ·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창립”했음을 밝히고 있다.¹⁴ 현재는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전 · 세종지회와 충남지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전업미술가 대전 · 충남협회 창립전〉(1998) 도록 표지 및 내지(신현국 · 유영교의 작품작)



〈제6회 한국전업미술가 대전 · 충남협회전〉(2003) 도록 표지 및 내지(박명규의 작품작)



〈제8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전 · 충남지회전〉(2005) 도록 표지

¹⁴ 『한국전업미술가 대전 · 충남협회 창립전』(대전시립미술관, 1998).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8. 11. 1~11. 7.	《한국전업미술가 대전 · 충남협회 창립전》	대전시립미술관
1999. 11. 5~11. 11.	《제2회 한국전업미술가 대전 · 충남협회전》	대전시립미술관
2000. 5. 9~5. 14.	《제3회 한국전업미술가 대전 · 충남협회전》	대전시립미술관
2001. 9. 17~9. 24.	《제4회 한국전업미술가 대전 · 충남협회전》	대전광역시청
2002. 11. 6~11. 12.	《제5회 한국전업미술가 대전 · 충남협회전》	대전중구문화원
2003. 4. 14~4. 18. 2003. 4. 28~5. 3.	《제6회 한국전업미술가 대전 · 충남협회전》	공주문화원/ 대전광역시청
2005. 4. 25~4. 29.	《제8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전 · 충남지회전》	대전광역시청/ 보령모산조형미술관

IV

충남미술 연표


충남미술 연표 일러두기

1. 충남미술 연표는 충남에서 개최된 전시, 결성된 단체, 작가 활동, 기관 및 미술대학 설립 등을 추출하여 충남미술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2. 기간·제목·내용·이미지로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제목'에는 작가, 전시 또는 단체명, 학교명 등을 기입했다. '내용'에는 전시 장소 외 부연 설명을 포함하였으며, '이미지'는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사진이나 작품 이미지를 실었다. 사용된 이미지의 출처는 『충남미술 연구총서』(1~4)를 참고하면 된다.
3. 전시는 충남에서 개최된 전시를 위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중앙 화단에서 두각을 나타낸 충남미술가들의 활약을 살피기 위해 '조선미술전람회'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등 중요한 전시의 수상 실적을 수록하였다.
4. 개인전과 단체전의 경우, 지면의 제한으로 작가의 '첫 개인전' 또는 '단체 창립전'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개인전'보다는 '단체전'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5. 교사 또는 교수 부임을 포함한 작가 개인 약력은 재직 시기가 아닌 부임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연도별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각 연도 맨 끝에 배치하였다. 작가 약력은 일부만 수록하였으므로 각 작가의 연보는 『충남미술 연구총서: 충남미술가편람 I·II』와 『충남미술사 보유권』의 '충남미술가'를 참고하기 바란다.
6. 충남 각 지역에 설립된 문화원과 전시 공간을 수록하여 문화사의 흐름을 살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충남 소재 미술대학 설립 연도와 미술 관련학과 개설 시기도 정리해 각 대학의 특성과 전공 학과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1914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14	이상범	서회미술회 화과(畫科) 입학	

1921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21.4.1.	《제1회 서화협회전》	•출품 동양화부 이상범	
1921.7.31.	《공주백일장》	공주 공자묘 명륜당 서회가 임봉수·정술원 3등상 수상	
1921.8.9.~8.10.	《해강 김규진 서화전》	공주 봉산구락부	「공주백일장개최기」, 『동아일보』, 1921.7.19.

1922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22.6.1.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	• 입선 동양화부 이상범	


1923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23.3.9.	‘동연사(同研社)’ 조직	• 참여 이상범, 노수현, 변관식, 이용우	
1923.5.11.	《제2회 조선미술전람회》	• 입선 동양화부 이상범	

1924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24.5.25.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	• 입선 서양화부 송병돈 사군자부 이용노	

1925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25.6.1.	《제4회 조선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이상범 <소슬(瀟瑟)> • 입선 서(書)부 유창환 	 <p>이상범, <소슬(瀟瑟)>, 《제4회 조선미술전람회》 특선작</p>


1926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26.3.18.	《서화대회와 학예회》	대화정(大和町) 예배당 영명학교 주최	 <p>대화정 예배당(구 선교사 가옥)</p>
1926.5.15.	《제5회 조선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이상범 <첩장(疊嶂), <초동(初冬)> • 입선 서양화부 송병돈 서(書)부 유창환 	 <p>유창환, <고시(古詩)>, 《제5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작</p>
1926.6.19.	《이남하 서화전람회》	공주 봉산구락부	

1927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27.5.25.	《제6회 조선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이상범 〈소사(肅寺)〉, 〈우후(雨後)〉 • 입선 서(書)부 유창환 	

1928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28.6.10.	《제7회 조선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이상범 〈산음(山蔭)〉 • 입선 서양화부 이동훈, 이마동 서(書)부 유창환 	 <p>이마동, 〈스케치〉, 《제7회 조선 미술전람회》 입선작</p>

1929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29.5.24.	《제1회 녹향회(綠香會)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선 서양화부 이동훈 	 <p>「녹향회제1회전개막」, 『조선일보』, 1929.5.24.</p>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29.9.1.	《제8회 조선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이상범 〈만후(晩秋)〉 • 입선 서(書)부 이경배 	

이경배, 〈목란(木蘭)〉, 《제8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작


1929.11.23. ~11.25.	《공주서화 공동대회》	협산자예배당	
1908년 건립된 협산자예배당 모습(공주학아카이브)			

1929	《제9회 서화협회전》	• 참여 한유동
------	-------------	------------

1930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30.5.18.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이상범 • 입선 동양화부 한유동 서(書)부 이경배 	


한유동, 〈취(鷗)〉, 《제9회 조선 미술전람회》 입선작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30.10.16. ~10.18.	《공주 서화전람회》	공주 영명학교 강당	
			「공주서화전람회」, 「동아일보」, 1930.10.24.
1930.10.18.	(제10회 서화협회전)	• 특선 서(書)부 이경배 <난(蘭)>	
1930	(전조선아동생도 (全朝鮮兒童生徒) 미술대회)	• 입선 박상옥	

1931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31.5.24.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이상범 서군자부 이응노 <청죽(晴竹)> • 입선 동양화부 한유동 서양화부 박성섭, 이동훈, 구중서 서(書)부 조동욱 	
			이응노, <청죽(晴竹)>,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 특선작
1931.7.18.	《조동욱 · 이경배 합동 전시회》	충남도평의회장 매일신보 후원	
1931.11.22. ~11.23.	(제1회 공주회화회(公州繪畫會))	공주공립보통학교 강당 • 출품 송병돈, 구중서	
			《제1회 공주회화회 전람회》 관련 신문기사
1931	《제2회 동미전》	• 참여 이마동	

1932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32.5.29. ~6.18.	《제11회 조선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이상범 〈귀초(歸樵)〉 서양화부 이마동 〈남자〉 사군자부 이응노 3점 • 입선 동양화부 한유동 서양화부 박성섭, 이동훈, 이마동 서(書)부 조동욱 	 <p>박성섭, 〈정물〉, 《제11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작</p>
1932.12.23. ~12.24.	《박성섭 양화전람회》	동아일보사 · 중앙일보 부여지국 후원	
1932	《제3회 동미전》	• 참여 이마동	

1933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33	백우회 창립	• 참여 구중서	
1933.5.14. ~6.3.	《제12회 조선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선 서양화부 이마동 	 <p>이마동, 〈소나무(松)〉, 《제12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작</p>

1934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34.5.20.	《제13회 조선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이상범 • 입선 동양화부 한유동 서양화부 이동훈, 이마동 서(書)부 조동욱 	
1934.10.17.	《제13회 서화협회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선 서(書)부 조동욱 • 참여 한유동 	
1934	《제1회 목일회전》	• 출품 송병돈, 이마동	

조동욱, 〈석란(石蘭)〉, 《제13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작


1935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35.5.19. ~6.8.	《제14회 조선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선 서양화부 이동훈, 박상욱 	
1935.10.23. ~10.30.	《제14회 서화협회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선 서(書)부 조동욱 	

1936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36.5.17. ~6.6.	《제15회 조선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선 동양화부 조중현 서양화부 이동훈, 박상옥 조각부 이국전 서(書)부 조동욱 	 <p>조중현, 《쇠재두루미》, 《제15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작</p>
1936.10.	《제1회 후소회전》 ‘후소회(後素會)’결성	조선실업구락부 • 참여 김기창, 백문문, 장우성, 이윤택, 정용거, 조중현, 한유동	 <p>《후소회 창립 제1회전》 기념 사진, 1936.11.3.</p>
1936.11.8. ~11.15.	《제15회 서화협회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선 서(書)부 조동욱 	



1937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37.5.16. ~6.5.	《제16회 조선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선 동양화부 조중현 서양화부 이동훈 조각부 이국전 	 <p>이동훈, 《坐像》, 《제16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작</p>
1937	《목시회(牧時會)》	화신백화점 • 참여 이봉영, 송병돈, 이마동	


1938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38.6.5. ~6.25.	《제17회 조선미술전람회》	• 입선 동양화부 조중현 사군자부 이응노	

1939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39.4.	조선총독부 박물관 부여분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9년 4월 재단법인 '부여고적 보존회'가 창립된 뒤 설치되었으며 1945년 8월 국립박물관 부여분관으로 개칭 • 1971년 9월 1일 부소산 기슭에 신축 개관 • 1975년 8월 국립부여박물관으로 승격 	 <p>조선 역사시절 부여박물관</p>
1939.6.4.	《제18회 조선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사군자부 이응노 <왕랑(荒凉)> • 입선 서양화부 이동훈, 박상옥, 김재석, 문후근 조 각 부 이국전 공 예 부 김재석 	 <p>문후근, <민왕과 성현(仁王と聖賢)>, 《제18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작</p>

1940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40.1.15. ~1.21.	《문인서화전 (文人書畫展)》	서울, 조선일보사 강당 • 정성원, 조동욱 외 8인 합작 《사군자》 병풍 2점 출품	
1940.6.2. ~6.23.	《제19회 조선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선 동양화부 이팔찬, 김화경 서양화부 이동훈, 구종서, 김두환, 박상옥, 장육진 조 각 부 이국전 공 예 부 김재석 	 <p>이팔찬, <타조>, 《제19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작</p>


1941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41.6.1. ~6.22.	《제20회 조선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공예부 김재석 〈화입(花入)〉 • 입선 동양화부 한유동, 조중현, 이팔찬, 김화경 서양화부 김두환, 박상옥, 장욱진 조 각 부 이국전 공 예 부 김재석 	

1942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42.5.31. ~6.21.	《제21회 조선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조중현 〈독수리(鷲)〉 조 각 부 이국전 〈머리(髑)〉 • 입선 동양화부 조중현, 이팔찬, 김화경 서양화부 김두환, 박상옥, 장욱진 	

1943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43.5.30. ~6.20.	《제22회 조선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조 각 부 이국전 〈소년〉 • 입선 동양화부 조중현, 이팔찬, 김화경, 이창호 서양화부 박상옥, 장욱진, 황진국 조 각 부 유진명 공 예 부 김재석 	 <p>이국전, 〈소년〉, 《제22회 조선미술전람회》 특선작</p>
1943.7.21. ~7.25.	《이경배 서화 전람회》		
1943	정택은	살고공립국민학교 교사 부임	

1944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44.6.4. ~6.25.	《제23회 조선미술전람회》	• 특선 동양화부 조중현 <대기(待機)> • 입선 동양화부 김재배 공예부 김재석 조각부 이국전	
1944.10.15. ~10.19.	《이동훈 개인전》	본청동 후생관 대전문화협회 주최	
1944	김철호	금남국민학교 교사로 부임	

1945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45	단구미술원 조직	• 참여 이응노	
1945	'조선산업미술가협회' 창립	• 참여 이완석, 권영휴, 한흥택, 조병덕	
1945.10.10.	'충남미술협회' 결성	이동훈(대전공업학교 미술교사)과 박성심(대전사범학교 미술교사)이 결성	
1945.10.20. ~10.30.	《해방기념문화대축전 미술전람회》	덕수궁미술관 • 출품 박성심, 이동훈, 김두환	
1945.11.24. ~11.29.	《해방기념전람회》	대전 세무사 사무실 • 충남미술협회 주최	
1945	박성심	대전사범학교 교사로 부임	
1945	김재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부임	
1945	이동훈	대전공업학교에서 근무	

1946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46	조선공예가협회 창립	• 초대회장 김재석 • 참여 이완석	
1946.10.	《이동훈 개인전》	대전후생관	
1946	고봉주	예산여자중·고등학교 교사로 부임	
1946	김기숙	충남중·고등학교 미술교사 및 교감으로 부임	


1947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47	이동훈	대전사범학교 미술교사로 부임	

1948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48.11.	《대전사범학교 미술전람회》		
1948.12.	《충청남북도 학생미술 전람회》		


1949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49.10.25. ~10.31.	《제1회 충청남도미술전람회》	대전시청 공회당 • 입선 윤후근	
1949.11.21. ~12.10.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 특선 서양화부 이동훈 〈목장의 아침〉, 최창식 〈석고있는정물〉 서예부 김기송 〈고시행서이품 (古詩行書二幅)〉, 정환섭 〈전서대련 (篆書對聯)〉 • 입선 동양화부 박노수 서양화부 김두환, 최덕휴 조각부 윤영자 서예부 이경배	 <p>이동훈, 〈목장의 아침〉,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p>
1949	《박성섭 화백 유화전》		
1949	윤후근	강경상업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부임	

1951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51.10.20.	《전시후방(戰時後方) 미술전람회》	온양 새마을 • 참여 김화경, 신흥오, 허훈	
1951.12.	충남사진연구회 결성	• 참여 송영현, 김재위, 권용지, 성재경, 정현태, 박여일, 방명환, 정희설, 허두천, 임태준 등	

1952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52.5.12. ~5.17.	《충남사진연우회 창립전》	대전 미국공보원 • 참여 박여일, 성재경	
1952.5.22. ~5.28.	《이동훈 화백 개인전》	대전 미국공보원 • 대전사범학교 주최	 「이동훈화백 개인전」, 『대전일보』, 1952.5.20.
1952.8.13. ~8.19.	《광복절 축하 미술전람회》	대전 미국공보원 • 참여 이동훈	
1952	《사진동인전》	대전 미국공보원 • 참여 성재경	
1952	김기숙	한밭중학교 교사로 부임	
1952	김성재	강경여자고등학교(논산) 교사로 부임	

1953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53.1.25.	충남미술협회 창립총회	대전미국공보원 이동훈(회장), 김기숙(부회장), 이종학(간사), 이세훈(간사) 선출	
1953.3.1. ~3.7.	《삼일기념미협전》	대전미국공보원 • 참여 이동훈, 김기숙, 이종학, 김태성, 이세훈, 김용준, 정진철	
1953.5.25.	대전문화원 개원식 (현, 대전중구문화원)	• 대전 중구 선화동 6-2번지(현 갤러리아 동백점)에 자리한 미국공보원(USIS)이 본국으로 철수하자 기자재와 시설을 인수받아 개원	 1955년 대전문화원(전 미공보 원 건물) 전경  대전문화원이 있던 극장 시민관
1953.8.7. ~8.10.	《석연 이경배 개인전》	대전문화원 • 대전일보 후원	
1953.8.25. ~8.30.	《정해준 개인전》	대전문화원 • 대전일보 후원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53.9.14. ~9.17.	《최기재 작품전》	대전문화원 • 대전철도국 후원	
1953.10.24. ~10.30.	《충남미술협회전》	대전문화원 총 20점 출품 • 참여 이동훈, 김기숙, 이종학, 강태성, 이세훈, 김용준, 정진철	
1953.11.25. ~12.20.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p>• 특선 동양화부 박노수 <청상부(淸想賦)> 서양화부 이동훈 <목장>, 박상옥 <소와목동> 조 각 부 윤영자 <애정(愛情)>, 송영수 <희망> 서 예 부 김기승 <해서칠언대련 (楷書七言對聯)>, 정환섭 <행서일대(行書一帯)></p> <p>• 입선 동양화부 김화경, 박노수 서양화부 이증무, 장선백 서 예 부 이경배, 정환섭 조 각 부 강태성</p>	 <p>박노수, <청상부(淸想賦)>,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p>
1953.12.	《김기숙 개인전》		
1953.12.3. ~12.8.	《제2회 충남사진연우회전》	대전문화원	
1953	《김성재 제1회 개인전》	강경(논산)	
1953 ~1957	박성섭	충남미술협회장 역임 * 1953년 초대회장은 이동훈	

1954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54.1.11. ~1.15.	《고암 이응노화백 개인전》	대전문화원 및 상공장려관	
1954.4.	부여문화원 발족	<p>• 1954년 4월 발족하여 1964년 4월 사단법인 인가, 이후 1986년 부여군민회관 건물로 이전</p>	 <p>1960년대 부여문화원</p>
1954.6.23. ~6.27.	《정해준 동양화 개인전》	대전문화원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54.7.10.	천안문화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 동남구 옛 농고7길 11-1 (구 문화동 78번지)에 800평의 대지를 구입해 천안문화원과 문화관 신축 • 1992년 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 5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신축, 이전 	 <p>1954년 문화동 시절 천안문화원</p>  <p>1972년 천안문화원에서 열린 자유의 날 기념식</p>
1954.11.1. ~11.30.	《제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박노수 <雅> 서양화부 박상옥 <한일(閑日)> 조각부 윤영자 <여인상>, 송영수 <가족> 서예부 김기승 <죽서오언대련(竹露五言對聯)>, 정환실 <에서춘풍대아(棘書春風大雅)> • 입선 동양화부 박노수, 최종걸, 전영화 서양화부 이동훈, 강환섭, 김순기, 문우식, 박상옥, 장옥진, 이종무, 최덕휴 서예부 김기승, 정환실 조각부 윤영자, 송영수 	 <p>박상옥, <한일(閑日)>, 《제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p>
1954.12.10. ~12.14.	《제4회 충남사진연우회전》	대전문화원	
1954.12.15. ~12.21.	《김규송 조각전람회》	미진예술연구회 주최 대전일보, 문화원 후원	
1954	《충남미술협회전》	• 참여 김성재	
1954	김철호	강경상업고등학교 교사로 부임	

1955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55.4.17.	청양문화원 창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5년 2월 정식 설립인가. 1989년 9월 문화원 건물 3층을 증축 완공 	
1955.6.21. ~5.27.	《이동훈 화백 개인전》	대전문화원	
1955.8.10. ~8.12.	《숙당 배정례 소품 개인전》	대전문화원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55.9.1.	당진문화원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 공보원의 지원을 받아 설립 • 1965년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당진을 읍내리 515에 개관 	 <p>옛 당진문화원(당진읍 읍내리 515 소재)</p>
1955.10.	예산문화원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5년 10월 미국공보원의 기자재 지원으로 예산읍사무소 (예산리 429)에 임시 개원 	 <p>1960년대 예산문화원의 모습 (이진자 작가 제공)</p>
1955.11.1. ~11.31.	《제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박노수 <선소운(仙簫韻)> 서양화부 이종무 <향원정> 조 각 부 윤영자 <젊은이>, 송영수 <악기를가진여인들> 서 예 부 김기승 <전자칠언절구(蓀字七言絶句)> • 입선 동양화부 민경갑, 전영화, 최종걸, 이희세, 박노수 서양화부 장선배, 이종무, 최덕휴 서 예 부 김기승, 정환섭 	 <p>이종무, <향원정>, 1955, 캔버스에 유채, 162.2×130.3cm, 국립현대미술관, 《제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p>
1955.11.2. ~11.6.	《제6회 충남사진연우회전》	대전문화원	
1955.11.20. ~11.30.	《제1회 백우회미전》	일본 제국미술학교 동창생 모임 • 출품 김학경	
1955.12.16. ~12.18.	《공주문화원 개원 1주년 기념 사진전》	공주 곁나루 다방	 <p><공주문화원 개원 1주년 기념 사진전>(출처: 공주학아카이브)</p>
1955	《전국사진연합전》	• 특선 박여립	
1955	홍동식	대전여자중학교 교사로 부임	

1956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56.3.1.	대천문화원(현 보령문화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공보원에서 기지재를 지원받아 설립되었으며 1962년 2월 4일 사단법인 대천문화원으로 설립 허가 	 <p>대천문화원 외관</p>
1956.4.8. ~4.18.	《미국영화전람회》	대천문화원 총40여 점 전시	
1956.5.21. ~5.25.	《김화경 개인전》	천안 추억다방 · 전원다방	
1956.11.10. ~11.31.	《제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박노수 <월향>, 민경갑 <시청> 서양화부 이종무 <태극선(太極扇)>, 최덕휴 <풍경> 조 각 부 윤영자 <얼굴>, 송영수 <향(簪)> 서 예 부 정관설 <전액(簪額)> • 입선 동양화부 김재배, 장선백, 전영화, 이희세, 박노수 서양화부 장선백, 이종무 조 각 부 윤영자, 송영수 	 <p>민경갑, <시청(試聽)>, 《제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p>
1956.11.	《김기숙 유화 개인전》	대천문화원	
1956	《미국영화전》	공주읍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공보원에서 주최한 순회전으로 공주읍사무소가 전시장으로 활용된 유일한 사례 	 <p>1955년 공주읍사무소 앞 공주 사범학교 재학생 사진</p>

1957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57.1.5.	천안극장 개관		
1957.3.12. ~3.17.	《임봉재 수채개인전》	대전문화원	
1957.5.	온양문화원 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양읍 온천리 57번지에 개원 • 1986년 9월부터 매달 『온양소식』을 간행해 온양 관련 소식과 전시 소개 	
1957.6.15.	서산문화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7년 설립해 1965년 2월 정식인가 • 1987년 10월 관아문길1에서 동천로149로 이전 • 2001년 12월 현 위치인 부춘공원2로 11(읍내동516번지)로 신축 이전 	 <p>1993년 서산문화원(서산시 동천로 149)</p>
1957.7.10. ~7.14.	《어린이 미술작품 전시회》	천안문화원 천안문화원 3주년 기념전	
1957.10.15. ~11.13.	《제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서양화부 이증무 〈오후〉, 박창돈 〈성지(城址)〉 서예부 정환섭 〈송동소남서(送董邵南書)〉 • 입선 동양화부 김재배, 이창호, 최종걸, 전영화, 민경갑 서양화부 김한, 최덕휴 서예부 이경배 조각부 김태성 	
1957.12.1. ~12.5.	《김화경 동양화 개인전》	천안 월세계 · 선경다방	
1957.12.7. ~12.14.	《충남작가초대전람회》	대전문화원 중도일보 주최 • 출품 김화경	
1957	《정영복 제1회 개인전》	청양문화원	
1957	충청남도 문학상 제정	제1회 충청남도 미술문학상, 박승무 수상	

1958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58	수요동인회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일에 음악감상회와 미술감상회를 개최하면서 결성 참여 오기선신부(대흥동성당), 이남규, 이종수, 이지휘, 조영동, 최종태 등 	 <p>1963년 수요동인회 기념 사진</p>
1958.1.16. ~1.22.	《석연 이경배 동양화 개인전》	대전일보사 2층	
1958.2.29.	'루-블 미술동인'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 최초 고등학생 연합 미술그룹으로 '루-블'이란 그룹명은 이중상이 만든 것으로 당시 미술인들에게 꿈으로 여겨졌던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을 뜻함 대전고등학교 미술교사인 김철호와 대전여자고등학교 홍동식이 고문을 맡아 지도 	 <p>루-블 미술동인 결성 기념 사진, 1958.2.9.</p>
1958.4.	'녹청회(綠靑會)'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미술인 김화경이 주도한 최초의 모더니즘 미술 그룹으로 충남 지역 중고등학교 미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 참여 김성재, 김화경, 조중현, 한유동, 이창호 	 <p>'문화계소식-녹청회발족', 『경향신문』, 1958.4.9.</p>
1958.9.10. ~9.14.	《대전상고미전》	대전문화원 대전상업고등학교 주최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일보, 대전금융단, 중도일보 후원	
1958.10.1. ~10.5.	《제10회 충남사진연우회전》	대전문화원	
1958.10.1. ~10.30.	《제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선 동양화부 전영화 <귀로> 서양화부 이종무 <자화상>, 최덕휴 <돌산이 보이는 풍경>, 박창돈 <청계> 서예부 정환섭 <전서일대(篆書一帶)> 입선 동양화부 민경갑, 김동수, 조평휘 서양화부 장선백, 이종무, 최덕휴 서예부 이경배 조각부 강태성, 이종각 	 <p>정환섭, <전서일대(篆書一帶)>, 《제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p>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58.10.6. ~10.10.	《제5회 충남미술협회전》	대전문화원 총 30여 점 작품 출품 • 참여 민경갑, 이지홍, 최종태, 이만구, 김철호, 황진국, 이동훈, 이덕영, 김기숙, 홍동식, 백병기, 한유동, 박태호, 김화경, 이남규, 임상묵, 임한빈, 임봉재, 김철호, 이인영 등	 「충남미술협회전」, 「대전일보」, 1958.10.7.
1958.11.	《제1회 녹청회전》	천안 월세계 다방 • 참여 김화경, 한유동, 이덕영, 김성재, 황진국, 허훈, 정택은	 《제1회 녹청회전》이 개최된 월 세계 다방 입구
1958.12.	《제2회 녹청회전》	온양(장소불명)	
1958.12.26. ~12.31.	《제1회 무-불미술동인전》	대전문화원 • 참여 김인중, 문정수, 송순옥, 송영숙, 유병창, 윤병화, 이근신, 이종상, 이철주, 최희권	 《제1회 무-불미술동인전》 리플릿
1958	이동훈	제2회 충청남도 미술 문화상 수상	
1958	박승무	대전(대흥동) 이주 및 정착	
1958	한유동	충남 합덕중학교 교사로 부임	
1958~1961	김기숙	충남미술협회장 역임	

1959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59	「다-결 동인회」 창설	• 참여 박여일	
1959.1.19. ~1.23.	《이종각 조각개인전》	천안 성립다방 천안문화원, 녹청회, 중도일보사후원	
1959.2.	《제3회 녹청회전》	광천	
1959.3.25. ~3.30.	《오은 김동순 서화개인전》	대전문화원 회랑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59.6.27. ~7.2.	《제1회 청포도회 미술작품전》	천안 자연다방 천안 소재 국민학교 교사들의 모임	 <p>《제1회 청포도회 미술작품전》 (1959) 리플릿</p>
1959.10.1. ~10.30.	《제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서양화부 장선백 〈청관〉, 최덕휴 〈돌산〉 서 예 부 이경배 〈목란(墨蘭)〉 조 각 부 최병삼 〈대지(大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선 동양화부 최종걸, 조평휘, 민경갑, 전영화, 장선백, 김동수 서양화부 김한, 최덕휴 서 예 부 이경배, 손경식 조 각 부 최병삼, 이종각, 최종태, 김창희 	 <p>조평휘, 〈소녀와 댕〉, 《제8회 대 한민국미술전람회》 입선작</p>
1959.10.24. ~30.	《김기숙 유화전》	대전문화원	
1959.10.29. ~11.2.	《제4회 녹청회전》	천안 향촌다방	
1959.11.10. ~11.15.	《제6회 충남미술가협회전》	대전문화원 • 참여 황진국, 임상묵, 한유동, 홍동식, 김성재, 이지위, 이창호, 박태호, 이동훈, 김화경, 정택은, 신봉균, 김철호, 조중현, 우민형, 최종태, 김상순, 김동순	
1959.11.28. ~12.2.	《제1회 김철호 개인전》	대전문화원 • 김철호는 이 전시를 시작으로 작고할 때까지 6회의 개인전을 개최 • 〈충렬탑〉을 비롯하여 총 24점 출품	 <p>「김철호씨 회화 개인전에 인 기」, 『대전일보』, 1959.11.30.</p>
1959.12.5. ~12.9.	《이인영 수채화전》	대전문화원 총 23점 출품	 <p>「이인영씨 수채화전 성황」, 『대 전일보』, 1959.12.8.</p>
1959	조중현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	

1960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60.1.10. ~1.16.	《제2회 루-불미술동인전》	대전문화원 • 출품 김인중, 손순옥, 송영숙, 윤병화, 이근신, 이종상, 이철주, 최희권	
1960.1.20. ~1.26.	《신봉균미술전》	대전문화원	
1960.3.28. ~4.2.	《제1회 재경 충남미술학우회전》	대전문화원	
			《제1회 재경 충남미술학우회 전》(1960) 리플릿
1960.5.1. ~5.10.	《제1회 충남미술전람회》	우남도서관 국민회 충남도본부 주최	
1960.6.25. ~6.29.	《제15회 충남사진연우회전》	대전문화원	
1960.7.30. ~8.1.	《김화경 이진송별미술전 (離天送別美術展)》	천안 연실다방 · 시온다방	
1960.10.1. ~10.30.	《제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 특선 동양화부 오태학 <달장> 조 각 부 이종각 <하품하는 여인>, 최종태 <서 있는 여인>, 조성묵 <여인상> • 입선 동양화부 최종길, 권택원, 이명희, 장선백 서양화부 김환섭, 유희영, 이명자, 최덕휴 조 각 부 강태성, 최국병, 최병상, 황교영, 이종각, 김창희	
			《제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 <달장> 앞에서
1960.10.14. ~10.18.	《제1회 도내 중고등학생미술실기대회》	대전문화원 충남미협 주최	
1960.11.1. ~11.5.	《제1회 미술동인전》	대전문화원 충남미술협회 후원 • 참여 이동훈, 조종현, 문하생 진시: 박영홍, 유우연, 정정한, 손중성, 이철자, 권택원, 이명희	
1960.11.6. ~11.10.	《제15회 충남사진연우회전》	대전문화원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60.11.11. ~11.15.	《제7회 충남미술협회전》	대전문화원 • 참여 동양화부 고경자, 김동순, 성낙일, 우민형, 허훈, 김상순 서양화부 이인영, 이지홍, 윤원호, 심상규, 황진국, 임봉재, 이남규, 김철호, 김기숙, 윤후근, 신봉균, 김동승, 이동훈, 김태주, 박태호, 조영동 조 각 부 최종태 디자인부 임상묵	
1960	《한국미술협회전》	대전문화원	
1960	김기숙	충청남도교육청 학무과 장학사 역임	
1960	이종학	대전중학교 및 대전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부임	



1961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61.1.15. ~1.19.	《P.A.S.소품전》	천안 향촌다방 • 참여 안승각, 박득순, 손응성, 조병덕, 남관, 김병교, 김영희, 김찬희, 이규호, 김성재 등	
1961.3.8. ~3.15.	《이동식 동양화전》	천안 연실다방	
1961.4.20. ~4.26.	《제3회 호은 김동순 화백서화전》	대전문화원	

《P.A.S. 소품전》 리플릿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61.11.1. ~12.15.	《제1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오태학 <군우(群牛)>, 민경갑 <파생(派生)>, 이종상 <장(匠)>, 김화경 <춘가> 서양화부 유희영 <가두의 여인상> 조 각 부 최중태 <어머니와 아들>, 남철 <환상> • 입선 동양화부 이석구, 황만영, 장선백, 전영화, 권탁원, 이명희, 감신철, 이창호, 신영삼 서양화부 김한, 조영동 서 예 부 손경식 조 각 부 남철, 송영수, 이종각, 최국병, 최병상, 김창희 	 <p>최중태, <어머니와 아들>, 《제1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p>
1961.11.15. ~11.24.	《제5회 녹청회전》	천안 연실다방	
1961	《제2회 신봉군개인전》	대전 에츠헤관	
1961	《일본 국제사전전》	• 입상 박여일 <혈연>	 <p>박여일, <혈연(血緣)>, 1961, 《국제사전전》 입선작</p>

1962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62	연기 조치원문화원 개관 (현세종문화원의전신)	• 연기군 교육청 건물에 조치원문화원을 개원해 임시로 사용하다가 1963년 조치원읍사무소로 사무실을 이전, 1964년 조치원문화원의 설립 허가	 <p>1963년 조치원문화원</p>
1962	'미우회(美友會)' 결성	공주고등학교 미술부 학생들의 주도로 결성	 <p>1963년 <미우전> 기념 사진</p>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62	'죽미회(竹美術)'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공업고등학교와 한밭상업고등학교 미술반 학생 5명의 주도로 결성 참여 김룡, 정명희, 임양수, 이명수 	 <p>안영리에서 가진 죽미회 야외스케치</p>
1962.3.23. ~4.3.	《양창제 개인전》	충남공보관	
1962.4.10. ~5.7.	《제6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	경북공미술관 조선일보사주최 • 참여 전영화, 이종각, 신양섭	
1962.5.15.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 인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미술협회(이하 한국미협으로 약칭) 충남지부는 1962년 한국미술협회가 사회단체로 설립 허가를 받아 1945년부터 활동한 충남미술협회가 한국미협 충남지부로 인준받아 활동 시작 	
1962.5.16. ~5.22.	《충남미술협회 5.16혁명 기념 미전》	충남공보관 • 참여 이동훈, 김성재, 김철호, 이남규, 조영동, 윤후근, 서진달, 김동승, 신봉균, 이지휘, 박태호, 조한홍, 황진국, 유우연, 이명, 송용달, 손중성, 박영홍, 우민형, 이만구, 권택원, 이명희, 김동순, 임상묵, 전태진, 최중태, 정택은	 <p>《5.16 혁명기념미전》 리플릿</p>
1962.7.23. ~7.2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생 미전》	충남공보관	
1962.9.11. ~9.18.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전》	대전문화원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62.9.21. ~9.23.	《제1회 미우전》	공주문화원 • 공주고등학교와 공주문화원 공동주최 • 1964년 공주고등학교, 공주여자고등학교, 공주시대부고, 영명고등학교 학생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발전해 '일수회(一樹會)'라고 이름을 바꾸어 활동	 <p>《미우전》 초청장(출처: 공주학 아카이브)</p>  <p>1963년 《미우전》 기념 사진</p>
1962.10.1. ~10.7.	《죽미화 5인전》	충남공보관 • 출품 김동, 양창제, 이영수, 임양수, 정명희	 <p>1962년 《죽미화 5인전》 전시 모습</p>
1962.10.10. ~11.10.	《제1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p>• 특선</p> <p>동양화부 이종상 <작업>, 오태학 <회(回)>, 민경갑 <부(部)>, 김화경 <설촌> 신영삼 <여주></p> <p>서양화부 김인중 <소지(素地)> 공 예 부 임홍순 <만자장식탁장 <卍字裝飾卓樞)> 신권희 <책상></p> <p>조 각 부 최종태 <소녀좌상></p> <p>• 입선</p> <p>동양화부 최종걸, 이명희, 전영화, 김철성</p> <p>서양화부 강환섭, 김한, 유희영, 이명지</p> <p>서 예 부 이윤섭</p> <p>조 각 부 강태성, 남철, 최병삼, 정관모, 황교영, 조성묵</p> <p>공 예 부 이종수, 남철</p>	 <p>김화경, <설촌>, 《제11회 대한 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p>
1962.12.	《박성섭 개인전》	충남공보관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62.12.18. ~12.25.	《제7회 녹청회전》	대전 개미다방 • 참여 김화경, 이덕영, 이창호, 한유동, 김성재, 김철호, 이규호, 홍석표, 황병식, 정택은	
			《제7회 녹청회》 리플릿
1962	《제7회 국제사진전》	프랑스 • 입상 박여일 〈파이프〉	
1962	《국제사진전》	포르투갈 • 수상 박여일 〈보릿고개〉 금상	
1962	김기숙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	
1962	박여일	한국사진협회 충남지부 초대지부장	

1963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63.2.1. ~2.11.	《재경 충남미술학우회전》		
1963.4.14. ~4.21.	《임양수 작품전》	대전문화원 •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임양수의 개인전으로 총 41점을 출품	
1963.6.11. ~6.15.	《5·16혁명 2주년 기념예술제 종합전시회》	대전문화원 미술, 사진, 시화연합전으로 개최 • 참여 김동순, 임봉재, 윤후근, 김성재, 이동훈, 황진국, 이지휘, 조영동, 이종수, 이영, 김철호, 이인영, 권택원, 우민형	
1963.8.	《제2회 미우전》	공주문화원	
1963.10.10. ~10.15.	《김성재 미술소품전》	천안 향촌갤러리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63.10.16. ~11.15.	《제1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이종상 <장비>, 이석구 <파초>, 민경갑 <땀>, 김화경 <내고향> 공예부 임홍준 <필탁(筆卓)책장> 조각부 최병상 <꿈의 틈바구니>, 이종각 <작품>, 청관모 <작품 63-7회>, 조성묵 <작품 66-SM> • 입선 동양화부 이명희, 권탁원, 전영화, 하태진, 이창호, 신영삼, 김철성 서양화부 이인영, 김배희, 김인중, 김한, 박명규, 유희영, 이건용, 이명자, 하동철 서예부 이윤섭 조각부 황교영, 백현옥 공예부 이종수, 신권희 	 <p>이종상, <장비>, 《제1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p>
1963.10.26. ~10.31.	《김성재 유화전》	천안 돌다방	
1963.11.1. ~11.7.	《한국미술협회 충남지회 정가전》	대전문화원 • 참여 우민형, 김성재, 홍동식	
1963.12.	원형회(原形會) 결성 《제1회원형회조각전》	서울, 신문회관 화랑 • 참여 김영화	
1963	《이종무개인전》	대전	
1963	김기숙	공주교육대학 교수로 부임	
1963	안종호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로 부임	
1963	공주(여자)사범학교(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개설 • 김기숙, 안종호 등이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 이후 이남규, 최종태, 조영동, 강신철, 이지휘, 황교영 등이 교수로 재직	

1964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64	'일수회(一樹會)'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그루의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수회'는 공주고등학교 미술부 모임으로 시작한 미우회(美友會)가 발전한 모임 • 타 학교 학생들의 참여로 전시가 확대되며 1964년부터 '일수회(一樹會)'라고 이름을 바꾸어 활동 	 <p>1965년 《일수전》 당시 교사와 학생들의 토론 모습</p>
1964.5.27. ~5.31.	《수요동인전》	대전문화원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64.6.14. ~6.19.	《김기숙 개인전》	대전문화원	
1964.10.	《하업회(河業會) 창립전》	<p>천안 돌다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 최초의 고등학생 문화 및 미술 연합 동아리 • 참여 강관옥, 박광수, 박인희, 임승소, 한연임 등 	 <p>《하업회(河業會) 창립전》기념 사진(박인희 작가 제공)</p>
1964.10.16. ~11.15.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양화부 신영삼 <군동(群童)> 서양화부 유희영 <귀로(歸路)>, 이인영 <달 파는 여인>, 하동철 <낙조(落照) I> 공 예 부 임홍순 <화병> 조 각 부 정과모 <갈(渴)> 서 예 부 이운섭 <석고문> • 입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 진 부 박여일, 성재경 서양화부 이명자 조 각 부 김태성, 최병삼, 남철, 이종각, 김창희, 백현옥, 조성묵, 황교영 	 <p>신영삼, <군동(群童)>,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p>
1964.11.1. ~11.5.	《제2회 한국미술협회충남지부전》	대전문화원	
1964.11.11.	'미상록'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연합 동아리로 대전문화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창립 • 지도교사로 송진세가 있었고, 정관을 만들어 대전문화원 소속으로 활동 	
1964.11.14. ~11.19.	《제1회 미상록 창립전》	<p>대전문화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김여성, 김치중, 남상균, 박건용, 박장식, 이기복, 이영수, 이유섭, 이준희, 정현순, 조창례, 차선영, 최영근, 김영희, 백승철, 최창욱, 정원삼, 박영희 	 <p>1964년 11월 첫 전시 후 촬영한 미상록 회원들의 기념사진</p>
1964	《제3회 신봉균 개인전》	대전문화원	
1964	대전실업전문학교(현 우송정보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년 '응용미술과'가 개설되기 이전부터 도예 혹은 기술을 요구하는 생활미술 교육이 이루어짐 • 1964년부터 1975년까지 도예가 이종수가 '생활미술과' 주임교수로 재직 	

1965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65.1.	서천문화원 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천읍사무소(현 서천읍 서천로 92)에 개원 1989년 2월 서천읍 군사리 176-2에 있는 서천군민회관으로 이전 및 운영 	 <p>1989년 서천문화원 외관</p>
1965.4.18. ~4.26.	《4·19 기념 미상특전》	대전문화원	
1965.5.1. ~5.6.	《김성재 유화 개인전》	천안 자연다방	
1965.5.10. ~5.16.	《임봉재 수채화전》	대전문화원	
1965.8.	《일수회 창립전》	공주문화원	
1965.10.1. ~10.5.	《제3회 미상특전》	대전문화원 • 35명의 회원과 8명의 졸업생이 전시에 작품을 출품	 <p>《제3회 미상특전》</p>
1965.10.8. ~10.30.	《최학노 개인유화전》	부여문화원	
1965.10.16. ~11.15.	《제1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 특선 서양화부 이인명 〈가을날(秋日)〉, 하동철 〈낙조(落照) P〉 사 진 부 성재경 〈흑발〉 공 예 부 임홍순 〈문갑〉 조 각 부 정관모 〈소록도의 넋〉, 강태성 〈지평선〉, 남철 〈영원의 대화〉, 이종각 〈작품 50〉, 김창희 〈귀로〉 • 입선 동양화부 성창경, 이영수, 이철주, 진래식, 신영상, 김철성 서양화부 김배희, 김수평, 이명자 공 예 부 이창호, 이종수 서 예 부 이운섭, 손경식 조 각 부 정관모, 최병상, 백현옥, 조성묵, 황교영, 이영길	 <p>성재경, 〈흑발〉, 1965, 《제1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p>
1965.10.	《조치원 학생 사생대회》	연기 조치원문화원(현 세종문화원)	
1965.11.12. ~11.16.	《한국미협충남지부전》	대전문화원	
1965	《이창호 개인전》	대전문화원	
1965	이남규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로 부임	

1966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66.2.4. ~2.9.	《제4회 신봉균 개인전》	대전문화원	
1966.2.25. ~3.3.	《이동훈 유화개인전》	대전문화원	
1966.3.14. ~3.20.	《심향 박승무 동양화개인전》	장소 불명	
1966.3.19. ~3.25.	《최무순 서예전》	대전문화원	
1966.7.18. ~7.22.	《서울미대생전》	대전문화원	
1966.9.11. ~9.17.	《김성재 유화 개인전》	대전문화원	
1966.9.18. ~9.24.	《전국지역별문화 예술작품전》	대전문화원	
1966.10.11. ~11.15.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p>• 특선 동양화부 김세원 〈환희〉 서예부 이문섭 〈잠부론(潛夫論)〉 조각부 강태성 〈해율(海律)〉, 남칠 〈영원의 합창〉, 정관모 〈설리〉</p> <p>• 입선 동양화부 성창경, 이석구, 이영수, 이철주, 신영상 서양화부 김수평, 김인중, 김한, 김희직, 송진세, 유재일, 유희명, 이건용, 이명자, 이효숙, 임봉재, 하동철, 유재일 공예부 이종수 서예부 손경식 조각부 최병상, 최국병, 황교영, 이명길, 유명교</p>	 <p>강태성, 〈해율(海律)〉,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p>
1966.10.19. ~10.24.	《제5회 미상특전》	대전문화원	
1966.10.31. ~11.3.	《제1회 상업미전》	대전문화원	
1966.11.10. ~11.13.	《제8회 충남미협전》	대전문화원	
1966.12.9. ~12.16.	《미상록 X-마스 카드전》	대전문화원	
1966	성재경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지부 지부장 역임	
1966	김성재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	

1967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67.3.	함미회(鄕美會) 결성	서울에 거주하는 충남 출신 미술인 20여 명이 모여 만든 단체	
1967.3.7. ~3.15.	《충남예총화랑 개관 기념 종합전》	대전 충남예총화랑	 <p>「충남예총화랑 개관」, 『대전일보』, 1967.3.8.</p>
1967.3.15. ~3.31.	《근대세계명화전》	대전문화원	
1967.3.23. ~4.2.	《김인중 개인전》	충남예총화랑	
1967.8.	금산문화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금산로 1559에 위치 • 미국공보원 지원으로 설립된 타지역 문화원과 달리 지역 유지들의 후원을 받아 설립 	 <p>1967년 금산문화원의 모습</p>
1967.8.2.	《하태진, 김재순 부부전》	충남예총화랑	
1967.8.28. ~8.31.	《최영환 서예전》	대전문화원	
1967.8.28. ~8.31.	《송승섭 서예전》	대전문화원	
1967.9.30. ~10.31.	《제1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서양화부 이인영 <늦은 여름(晩夏)> 조각부 김태성 <해>, 남철 <빙점> • 입선 동양화부 이철주, 신영상 서양화부 김인중, 김희직, 오세명, 유재일, 이명자, 이효숙, 하동철 서예부 이운섭 공예부 이종수 조각부 최병상, 황교영, 이영길 	
1967.11.6. ~11.10.	《제7회 충남미술협회전》	충남예총화랑	
1967.11.17. ~11.23.	《김완배 전》	대전문화원	
1967.12.20. ~12.26.	《이준희 전》	충남예총화랑	
1967.12.20. ~12.26.	《유병돈 전》	충남예총화랑	
1967	최종태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로 부임	
1967	조영동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로 부임	
1967~1968	윤후근	대전미협 부지회장 역임	

1968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68.3.	《제5회 한유동 동양화 개인전》	대전 남양다방	
1968.5.	《박승무화백 대 설경전》		
1968.7.18. ~7.25.	향미회 《재경충남출신화가전》	충남에총화랑 • 참여 이상범, 조종현, 박노수, 민경갑, 이종삼, 김화경, 전영화, 최OO, 오탉학, 하태진, 이마동, 최덕휴, 김두환, 이종학	
1968.9.22. ~9.28.	《도불기념 제3회 김인중 개인전》	대전 애총화랑	
1968.10.5. ~11.5.	《제1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 특선 동양화부 신영삼 《호수(湖)》 조 각 부 강태성 《산가》, 남철 《구름》, 최병상 《악과 싸우는 인간들》, 김창희 《탈출(脫出)》 • 입선 동양화부 이철주 서양화부 송번수, 유희영, 이명자, 이효숙 사 진 부 성재경 서 예 부 이운섭 조 각 부 최국병, 조성목, 황교영, 이명길, 유영교	
1968.11.10. ~11.13.	《충남미술협회전》	대전문화원 화랑	
1968.12.17.	《미상록 회원카드전》	대전문화원 화랑	 <p>「미상록」會員카드展 文化院과 함께</p> <p>「미상록 회원카드전」, 『대전일보』, 1967.12.17.</p>
1968	이창호	충남문화상 수상	
1968	이지휘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로 부임	

1969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69.1.15. ~1.19.	《이시홍 개인전》	대전문화원	
1969.2.7. ~2.10.	《이덕영 동양화전》	대전문화원	
1969.2.25. ~3.2.	《이동훈 화력 50주년 기념전》	대전예총화랑 충남미술협회주최	
1969.6.2. ~6.8.	《아무 박성섭화백 유화전》	대전 서라벌다방	
1969.10.14. ~10.16.	《박관옥 개인전》	대전문화원	
1969.10.18. ~11.20.	《제1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서양화부 유희영 <잔상> 조 각 부 최병상 <싸우는 인간들 Ⅲ> 공 예 부 이창호 <해수(海獸)> 서 예 부 이운섭 <전서(篆書)>, 손경식 <고시처세명(古詩處世銘)> • 입선 동양화부 이철주, 신영상 서양화부 김수평, 오세열, 이호숙 공 예 부 이종수 조 각 부 김창희, 최국병, 황교영, 이영길, 유영교 	 <p>유희영, <잔상>, 《제1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p>
1969.11.3. ~11.11.	《제2회 도내 종교교 미술교사 작품전시회》	충남예총화랑	
1969.11.22. ~11.27.	《이명복 동양화전》	대전문화원	
1969.12.22. ~12.26.	《충남미협전》	대전예총화랑 한국미술협회충남지부	
1969	《제5회 일수회전》		
1969	김철호	한국미협 충남지부장 및 대전지부장 역임	
1969	홍동식	충남대학교 교수로 부임	
1969	강신철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로 부임	
1969	황교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로 부임	

1970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0.6.14. ~6.18.	《충남청년미술인회 창립전》	충남예총화랑 • 1972년 '정미회(靑美會)'로 명칭 변경, 대전예총화랑에서 창립전 개최 • 참여 강성렬, 김여성, 김영제, 김치중, 박관옥, 백승철, 양창제, 예종국, 우옥순, 이영희, 이윤구, 정명희, 임양수 등	
1970.6.20. ~6.25.	《신양섭 미술개인전》	천안 로알다방	
1970.8.6. ~8.10.	《제2회 충남청년미술인회》	충남예총화랑	
1970.10.17. ~11.30.	《제1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신영삼 <잔회> 서양화부 이호숙 <여름 날>, 하동철 <만가> 서 예 부 손경식 <최수운선생 <崔水雲先生> 영소시> 조 각 부 이영길 <무제> • 입선 동양화부 이석구, 이영수 서양화부 김수평, 오세열, 유희영 서 예 부 이운실 조 각 부 최병상, 최국범, 백현옥, 조성묵, 황교영, 박병희 	 <p>신영삼, <잔회(殘會)>, 《제1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p>
1970.11.27. ~12.2.	《제17회 충남미협전》	충남예총화랑	
1970	《김철호 개인전》	대전, 충남예총화랑	

1971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1	충청남도미술대전 서예부문 신설		
1971	빌리잔 활동	공주교육대학교 서양화 동아리로 조영동 교수 지도	
1971.5.11. ~5.20.	《제1회 충청남도 미술전》	대전문화원 충남미술협회 주최 • 수상 김철호(도지사상)	 <p>71年度 忠清南道 美術展 期 : 1971.5.11 ~ 5.20 會 場 : 忠清南道 文化院 主 辦 : 忠清南道 美術協會 協 辦 : 忠清南道 文化院</p> <p>《제1회 충청남도 미술전》 (1971) 리플릿</p>
1971.6.13. ~6.20.	《제1회 일요스케치회 창립전》	대전문화원 • 참여 문동원, 지형민, 김여성, 백승철, 김처중, 김재권, 김배희, 이영수, 김영재, 안수복 • 1986년부터 '대전사생회(大田寫生會)'로 명칭 변경	
1971.10.11. ~11.14.	《제2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p>• 특선 동양화부 신영삼 <잔을> 서 예 부 손경식 <주희암선생찬문부시> <朱晦菴先生贊文夫詩></p> <p>• 입선 서 예 부 이윤섭 서양화부 오세열, 유희영, 이효숙, 하동철 동양화부 김동수, 이동식, 이영수 조 각 부 최병상, 김창희, 백현옥, 이명길</p>	 <p>김동수, <산>, 《제2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입선작</p>
1971.10.16.	《제1회 청초회 조각전》	공주문화원 •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조직한 충남 최초 대학생 조각 동아리로 1982년까지 활동 • 참여 강중식, 박명규, 정찬국, 유명숙, 김연숙, 이소자	
1971.11.22.	《임웅수 시화전》	천안 아카데미 지하다방	
1971.12.8. ~12.14.	《신양섭 유화개인전》	천안 아카데미 지하다방	
1971	《동양화 6인전》	서울 신문회관 참여 박승무, 이상범	
1971~1979	이창호	대전문화원장 역임	


1972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2.6.20. ~6.25.	《청미회 창립전》	대전예총화랑 • 참여 김배희, 김여성, 김치중, 박명규, 이인영, 이종수, 이명자, 이영수, 임봉재, 임립, 조영동	
1972.10.10. ~11.15.	《제2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이영수 <잔영> 신영상 <가족> 서양화부 유희영 <생동> 조 각 부 최명상 <십자가> 이명길 <유성 1972> 서 예 부 이윤실 <행서(行書)> • 입선 동양화부 김동수, 이철주, 전래식 서양화부 김관옥, 모세열, 이효숙, 하동철 공 예 부 이종수 조 각 부 황교영, 백현옥, 유영교 	 <p>이영수, <잔영>, 《제21회 대한 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p>
1972.10.29. ~11.2.	《제19회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 회원전》	중도일보사 화랑	
1972.11.3. ~11.8.	《놀이미술회 창립전》	논산 궁전예식장 • 1972년 9월 7일 서양화가 박준화를 중심으로 설립	
1972.12.15. ~12.23.	《제2회 청미회소품전》	대전시민다실	 <p>《청미회 창립전》 리플릿</p>
			 <p>《청미회 창립전》 전시 모습</p>
1972	《제1회 대전실업초급대학 생활미술과 생활미술전》	대전문화원 • 대전실업전문학교 응용미술과 주임교수 이종수(도에)의 지도로 개최	
1972	김철호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	
1972~1973	홍동식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장 역임	
1972	김철호	호수돈여자고등학교 교사로 부임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2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개설	
1972	송전대학교(원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개설	


1973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3.5.21. ~5.27.	《제3회 충청남도미술전람회》	대전 가톨릭문화회관	
1973.10.1. ~10.7.	《창립 충대동인전》	충남대학교 회화동인회의 졸업말로 홍동식교수의 지도로 창립된 충남대학교 교내 미술 동아리	 <p>충남대학교 회화동인회 홍보물</p>
1973.10.10. ~11.15.	《제2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p>• 특선</p> <p>동양화부 이영수 <유산> 서양화부 하동철 <파일 L> 조 각 부 최병상 <일두사람>, 유영교 <운영></p> <p>• 입선</p> <p>서 예 부 이윤섭, 이곤순 서양화부 신양섭, 오세열, 이효숙 동양화부 강신철, 김동수, 김세원, 이철주 공 예 부 이종수 조 각 부 황교명, 김창희, 최국병, 백현옥, 이영길</p>	 <p>유영교, <운영>, 《제22회 대한 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p>
1973.11.25. ~12.10.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수상작품 대전전시》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회관 충남미협 주최	
1973.12.26. ~12.31.	《제3회 청미회원전》	대전 산강화랑	
1973	《충남항우회 창립 20주년 초대작가서화전》	서울 코스모스화랑	
1973	《한국현대작가 100인전》	국립현대미술관 이동훈 참여	
1973~1975	신봉균	한국미협 충남지부장 역임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3	윤영자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조소) 교수로 부임	
1973	공주사범대학 (현 국립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개설	
1973	김광식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서양화) 교수로 부임	
1973	김수범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서양화) 교수로 부임	

목원대학교 실기실에서 윤영자 교수와 학생들의 수업장면

1974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4.2.21. ~2.26.	《천안미술인협회 창립전》	천안시교육청 구관	
1974.2.28. ~3.4.	《제1회 홍대동문전》	경암빌딩 2층 • 참여 권영우, 남상명, 박명규, 박봉춘, 신동주, 유근영, 유성숙, 유재일, 이기석, 이명자, 이성태, 이순실, 정명희, 정성근, 황효창	
1974.5.29. ~6.2.	《제2회 일요스케치회원전》	대전문화원	
1974.7.3. ~7.7.	《제1회 충남조각회전》	공주문화원 • 공주교육대학교 출신 작가들이 창립한 충남 최초의 조각가 단체로 공주교육대학교 재학생 동아리인 '청조회'에서 활동하던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만든 단체 • 참여 김광식, 김윤열, 박명규, 박승수, 이준호, 임선빈	

《제1회 충남조각회전》 리플릿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4.9.	《제1회 청목회전》	대전문화원 • 대전 최초의 고등학교 연합 서예 동아리 • 1973년 11월 10일 충남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손환일, 유형재 등이 모여 서예의 연구와 실력 향상, 서예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창립	
《제2회 청목회서예전》 리플릿			
1974.10.2. ~10.31.	《제2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p>• 특선 동양화부 이영수 <태고 No.3>, 이철주 <명장> 서양화부 오세열 <이향>, 유희영 <부활>, 하동철 <한원> 서예부 이운섭 <오양지전립 (吳讓之篆籀)> 조각부 백현옥 <飛>, 유영교 <문무></p> <p>• 입선 동양화부 강신철, 김세원, 성향경, 우희춘, 정명희 서양화부 강관옥, 신양섭, 이효숙, 임봉재, 장순열 서예부 임재우 조각부 황교영, 김창희, 최국병, 이영길</p>	
백현옥, <飛>, 《제2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			
1974.10.9. ~10.15.	《충남미술가협회전》	대전 산강화랑 충남청년미술인회가 '충남미술가협회'로 이름을 변경	
1974. 10. 13. ~10. 17. 1974. 10. 27. ~10. 31.	《메우회 창립전》	천안교육청회관/ 대전 산강화랑 • 참여 김수길, 백종천, 신현국, 신봉균, 신양섭, 손성훈, 이종근, 임립, 정영복	
《창립 메우회전》 리플릿			
1974.11.	《충남서예협회 창립전》	대전	
1974.11.6. ~11.14.	《백제 미소 사진전》	대전문화원	
1974.11.23. ~11.29.	《제2회 홍대동문전》	대전 경암빌딩 화랑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4.12.18. ~12.24.	《충남서예협회 회원전》	서울 국립공보관	
1974	《김철호 개인전》	대전 증도일보화랑	
1974	《아무 박성섭화백 유화전》	대전 서라벌 다방	
1974	《제4회 충청남도 미술전람회》	• 독선 서양화부 김영천 • 입선 서양화부 신양섭	
1974	《조중현 개인전》	대전 문헌화랑	
1974	유재일	대전 성모여고 교사로 부임	
1974	김세원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한국화) 교수로 부임	

1975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5.1.6.	그림회 창립	공주교육대학교 서양화 동아리 '빌리잔'의 후신	
1975.1.19. ~1.24.	그림회 제1차 동계세미나	공주교육대학교 •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서양화 전공 동문들이 중심이 된 단체로, 창립 후, 1월 19일부터 5일간 동계세미나 개최	 <p>『그림회』 제2집 표지(임재광 작가 제공)</p>
1975.5.6.~5.10.	《제1회 그림회전》	공주문화원	
1975.7.10. ~7.20.	《1400~1800년대 유네스코세계명화전》	대전문화원	
1975.9.10. ~9.14.	《제2회 충남조각회전》	대전문화원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5.10.1. ~10.31.	《제2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이명수 <상혼> 서양화부 임립 <가을의 노래>, 하동천 <여명> 서예부 이운섭 <건곤무화> <乾坤無話> 조각부 백현옥 <비>, 유명교 <화선> • 입선 동양화부 강신철, 성창경, 이석구 서양화부 강관욱, 오세열, 이효숙, 장순업 서예부 이근순, 임재우 공예부 이종수 조각부 김창희, 황교영, 이영길, 김영대 	
1975.10.21. ~10.24.	《제2회 민동기 유화전》	대전문화원	
1975.11.8. ~11.13.	《제2회 송전미전》	<p>대전 홍명미술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수평 교수의 지도로 개최된 전시. • 출품 동양화(17점), 유화(36점), 수채화(13점), 조소(36점), 구성(15점), 판화(17점), 생활미술(39점), 사진(12점), 서예(8점) 	 <p>《제2회 송전미전》 리플릿</p>
1975.11.13. ~11.18.	《인영선 · 강관욱 작품전》	천안 사랑방다실	
1975.11.24. ~11.30.	《김영천 유화 개인전》	천안 둘다실	
1975.12.25.	19751215 결성	<p>대전역 광장</p> <p>'19751225'는 1975년 12월 25일 오후 대전역 광장에서 '해프닝'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1976년 5월 정식으로 결성한 미술단체</p>	 <p>'19751225'의 대전역 이벤트 장면</p>
1975	《제5회 신봉균 개인전》	대전 맥그리거화랑	
1975	《제5회 충청남도 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서양화부 김영천, 신양섭 서예부 인영선 	
1975	이남규	국립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서양화) 교수로 부임	
1975	이인영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서양화) 교수로 부임	

1976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6.1.18.	19751215 《아외 현장작업》	대평리 금강 백사장	
1976.2.15.	19751215 《아외 현장작업》	대전 내탑	
1976.3.17.	아사달회 창립	부여문화원 • 참여 임영우, 인동환, 호두환, 신인식, 장찬국, 강명준, 김계숙, 우종복, 이병인, 서관석, 한금자, 김명자, 김치수	
			《아사달회 창립전》 리플릿
1976.4.10. ~4.14.	《망향 30년전-재일동포 모국 방문단 전국 순례 보도 사진전》	대전문화원	
1976.5.7. ~5.23.	(19751225 GROUP 창립전)	대전 홍명희랑	
			《19751225 창립전》 전사판결
1976.5.14. ~5.18.	《제2회 그릴회전》	대전 홍명미술관	
1976.5.19. ~5.24.	《르보동인회 창립전》	대전문화원 대전 추상화 1세대 작가들의 모임으로 '르포르타주(reportage)'의 준말로, '현지' 또는 '현장'을 뜻함 • 참여 권영우, 박명규, 박봉춘, 신동주, 유근영	
			《르보동인회 창립전》 표지
1976.6.1.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인준	천안문화원	
1976.6.19. ~6.29.	《제6회 충청남도 미술진람회》	대전고등학교 감당 • 특선 서양화부 김영천 • 입선 서양화부 김영천, 신양섭 서 예 부 인영선	
			1927년 염서 속 대전공립중학 교(대전고등학교)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6.10.1. ~10.31.	《제2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심창경 <작품 76-2>, 이철주 <영일(寧日)> 서양화부 오세열 <실내> 공예부 이종수 <겨울열매 1, 2> 조각부 김창희 <이상향>, 백현옥 <새날>, 유영교 <자매> • 입선 동양화부 우희춘, 이길원, 이동식, 이석구, 김철성 서양화부 김배희, 신양섭, 이효숙, 임동식 서예부 인명선 조각부 최국병, 황교영, 박병희 	 <p>이철주, <영일(寧日)>, 《제2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p>
1976.10.3. ~10.8.	《제3회 충남조각회전》	대전문화원	
1976.11.6. ~11.13.	《아사달회 제1회 랑토미전》	부여문화원 아사달화실	
1976.11.9. ~11.15.	《제1회 송전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졸업작품전》	<p>홍명미술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교수 서양화 김수평, 이인영, 강광식 동양화 김세원 조소 전준, 김승자 생활미술 윤환, 오근재 	
1976.12.2. ~12.6.	《두령전》	<p>대전문화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원대학교 미술과 졸업생 한국화 단체 • 참여 김학원, 복원규, 조재성, 허진권 	
1976.12.22. ~12.30.	《서미회 창립전》	<p>서산 향원다실</p> <p>서산 출신 미술인 모임, 초기에는 중고등학교 미술교사 주축 활동</p>	 <p>《제8회 서미회》(1984) 리플릿 표지</p>
1976.12.24. ~12.31.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창립전》	<p>천안 백궁다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신양섭, 남길희, 김영천, 김광희, 이용희, 김수길, 서경원, 고원필 등 	 <p>《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100호전》(1989) 표지</p>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6 ~1979	김철호	한국예총 충남지부 부지부장 역임	
1976	조평휘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한국화) 교수로 부임	
1976	백현옥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조소) 교수로 부임	

1977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7.4.22. ~4.26.	《대전우석회 제1회 수석전》	대전 가톨릭문화회관	
1977.4.24. ~4.26.	《대전향전회원소장 고서화전》	대전 가톨릭문화회관	
1977.5.2. ~5.7.	《제2회 그림화전》	대전 시민회관	
1977.5.16. ~5.21.	《제1회 토형회조각전》	대전 홍명미술관 • 공주교육대, 목원대, 송전대(현 한남대) 조각전공 동문들의 단체로 초대출품으로 각 대학의 교수 및 강사들이 출품, 1회로 종료 • 참여 김규성, 김광일, 김석우, 김옥순, 김민숙, 김지택, 박병희, 박종석, 양현조, 유승옥, 윤혜연, 임선빈, 정순호, 정창훈 조숙의, 한중환, 황성익	 
1977.9.30. ~10.31.	《제2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 특선 동양화부 이철주 <모운(暮韻)> 서양화부 김관옥 <전설 A-2> 오세열 <다락방> 장순업 <그날> 조 각 부 김창희 <약동> 백현옥 <내일> • 입선 동양화부 우희춘, 이동식, 이환영, 김철성 서양화부 김영진, 신양설, 이효숙, 김영배 서 예 부 이근순, 인영선, 임재우, 조종국 공 예 부 이종수 조 각 부 최국병, 황교영, 이영길, 박병희	
1977.10.1. ~10.6.	《제2회 19751225 GROUP전》	대전 홍명화랑	
1977	《제4회 충남조각회전》	대전 홍명미술관	

《토형회 창립전》 리플릿 내지

김관옥, <전설 A-2>, 《제2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7.10.20. ~10.24.	《아사달회 제2회 항토미전》	부여교육청	
1977.10.31.	《제1회 천안문화의 밤》	천안 한일다방 천안문인협회 · 천안미술협회 주관	
1977.12.8. ~12.12.	《제2회 르브론인회》	대전문화원	
1977.12.16. ~12.20.	《제2회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전》	천안문화원	
1977.12.23. ~12.29.	《제2회 서미회전》	서산 반공회관	
1977	《남계화랑 개관전-6대 화가 소품전》	대전 남계화랑	
1977	《대전실업대학 교수전》	대전문화원	
1977	《목원대 교수작품전》		
1977	《충남작가초대전》	대전문화원	
1977	목원대학교	산업미술과 · 건축미술과 개설	

1978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8	원곡(原谷) 서예상 제정	부여 출신 서예가 원곡(原谷) 김기승이 제정한 상으로 한국 서단의 대표적인 상	
1978.1.17. ~1.23.	《이영수 동양화-도자기전》	대전 남계화랑	
1978.1.25. ~1.29.	《곽남배 동양화전》	대전 남계화랑	
1978.2.27. ~3.6.	《조중현 초대전》	대전 남계화랑	
1978.3.15. ~3.30.	《제1회 숭전대 미술교육과 교수작품전》	대전 남계화랑 · 참여 김수형, 이인영, 김세원, 백현욱	
1978.4.17. ~4.23.	《동양화 증견 10인전》	대전 남계화랑	
1978.5.2. ~5.31.	《제2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서예, 공예, 건축, 사진)	· 입선 서예부 이곤순, 임재우, 조종국 공예부 이종수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8.5.27. ~5.31.	《청림회(靑林會) 창립전》	대전문화원 • 승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한국화 전공 졸업생 주축으로 창립	 《제16회 청림회전》(1993) 도 록 표지
1978.6.12. ~6.15.	《여그린 화실 제1회 작품전시회》	당진문화원	
1978.6.30.~7.7.	《제8회 충남미술전람회》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1978.9.23. ~9.30.	《제1회 이북서회전》	천안문화원	
1978.9.30. ~10.31.	《제2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동양화, 서양화, 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서양화부 신양섭 〈초추〉, 오세열 〈가을의 정〉, 장순업 〈소원〉 조 각 부 김창희 〈상승(上昇)〉, 최국병 〈의치-7(얼림)〉 • 입선 동양화부 이동식, 이석구, 김철성 서양화부 강관옥, 김영천, 임봉재 조 각 부 황교영, 이영길 	 신양섭, 〈초추〉, 《제27회 대한 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
1978.10.	《한길미전 창립전》	공주문화원 • 공주시범대학 미술교육과 동문단체로 설립	 《제6회 한길회전》(1983) 표지
1978.10.9. ~10.13.	《제5회 충남조각회전》	대전문화원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8.10.14. ~10.18.	《대전 78세대 창립전》	대전문화원 • 참여 김정현, 김익규, 김철겸, 송일영, 신현태, 안치민, 이종봉, 장금자, 정상희, 지석철, 최덕희, 최병규	 〈대전 78세대 창립전〉 리플릿 표지
1978.10.25. ~10.29.	《아사달회 제3회 향토미전》	부여유스호스텔	
1978.11.7. ~11.20.	《제27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순회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1978.11.9. ~1.12.	《서산예술인협회전》	서산문화원	
1978.12.1.	《제1회 목미회(牧美會)전》	대전문화원 • 목원대학교 미술과 동양화 전공작가들에 의해 창립된 단체 • 제2회 전시 때부터 '목묵회(牧默會)'로 단체명 개칭	
1978.12.9. ~12.14.	《제3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천안문화원	
1978.12.27. ~12.29.	《제1회 야외전》	대전 해변	
1978.12.27. ~12.29.	《제2회 대전 78세대전》	대전 날계화랑	
1978	《제3회 브로동인회》	대전문화원	
1978	《충남작가초대전》	대전문화원	
1978	강신철	국립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한국화) 교수로 부임	

1979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9.4.24. ~4.30.	《구상작가15인전》	대전문화원	
1979.5.1. ~5.6.	《제3회 대전 78세대전》	대전 날계화랑	
1979.5.1. ~5.6.	《제2회 청림회전》	대전문화원	
1979.5.1. ~5.30.	《제2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서예, 공예, 건축, 사진)	• 입선 서예부 이곤순, 인영선, 임채우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9.6.1. ~6.10.	《제9회 충남미술전람회》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1979.6.2. ~6.4.	《대전 78세대 초대전》	서울 그로리치화랑	
1979.6.10. ~6.16.	《이건용 드로잉 이벤트전》	대전 남계화랑	
1979.7.10. ~7.16.	(19751225, 대전 78세대 연합전)	서울 청년작가회관	
1979.9.6. ~9.10.	《제1회 복우전》	대전 홍명미술관 • 참여 강신우, 김국관, 김종기, 김종섭, 박성택, 손정근, 신동주, 이범현, 임양수 등	
1979.10.2. ~10.31.	(제2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동양화, 서양화, 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동양화부 김철성 <염원> 서양화부 신양섭 <토질>, 장순업 <아(我)-79> • 입선 동양화부 강신철, 김세원, 이석구 서양화부 오세열, 이효숙 조 각 부 이명길, 박병희 	 <p>장순업, <아(我)-79>, 《제2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p>
1979.10.7. ~10.11.	《제3회 19751225 GROUP전》	대전 홍명화랑	
1979.10.20. ~10.24.	《이신회(以新會) 창립전》	<p>대전문화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신회'는 한국미협 대전지부 소속 작가 중에서 구상회화를 추구하는 작가들이 결성한 단체. 1984년 7월 '충남구상작가회'로 개칭. 이후 1988년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면서 '대전구상작가회'로 명칭을 변경 • 참여 김철호, 이인영, 임봉재, 정영복, 김배희, 유재일, 임립, 김정호, 김희직, 박세은, 김치중, 박한동, 현광국 	 <p>《제7회 이신회전》(1984) 도록 표지</p>
1979.11.4. ~11.7.	《제2회 한길미전》	공주문화원	
1979.11.10. ~11.15.	《아사달회 제4회 향토미전》	부여단위농협	
1979.11.16.	대전시민회관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 병참학교의 군용지를 연무상환 조건으로 승인받아 1975년 8월 15일 기공식 진행 • 대극장(857석 규모), 소극장(253석 규모)과 다섯 개의 전시실을 갖춘 대전에서 유일한 복합 예술공간 	 <p>대전시민회관의 전경</p>
1979.12.3. ~12.7.	《제4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천안문화원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79.12.4. ~12.8.	《충남디자인협회 창립전》	대전 남계화랑 • 공예 및 디자인 분야 작가 단체, 대전에 거주하면서 각 대학에 재직하던 5명의 작가가 모여 창립 • 참여 강지민(대전실업전문대학), 남용태(증경공업전문대학), 이중훈(목원대), 정해조(배재대학), 최영근(한남대)	
《충남디자인협회전》(1986) 내지			
1979.12.11. ~12.13.	《이근순·정태희·조종국 합동서예전》	대전 남계화랑	
1979	《도자기연구발표회》	대전 홍명화랑	
1979	《조선오백년민족미술전》	대전소방서 • 한발라이온스 클럽이 전국체전 싱금 마련을 위해 개최한 전시 김시습의 8폭 병풍, 대원군 이하응과 추사 김정희의 작품 등 총 1,000여 점 출품	
1979	《충남서예가협회전》	대전 남계화랑	
1979	《현대작가 15인 초대전》	대전 홍명화랑	
1979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업미술학과 개설	
1979	대전실업전문학교 (현 우송정보대학교)	응용미술과 개설	
1979	송전대학교 (현 한남대학교)	응용미술과 개설	
1979	이영길	목원대학교 조소과 교수로 부임	
1979	임립	배재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	
1979	백철	배재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	

1980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0	여일미술관 개관	대전 한국 수석관 4층	
1980.1.	《제2회 야외전》	신탄진 김변	
1980.3.25. ~3.31.	《제3회 청림전》	대전 라이카·여일화랑	
1980.4.	《향10인전》	은양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0.5.2. ~5.31.	《제2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서예, 공예, 건축, 사진)	• 입선 사진부 심재경 서예부 이곤순, 민영선, 임재우, 조종국 공예부 이종수	
1980.5.14. ~5.19.	《제4회 대전 78세대전》	대전시민회관	
1980.5.17. ~5.23.	《제4회 19751225 GROUP 기획관화전》	대전문화원	
1980.8.15. ~8.20.	《제1회 아사달 청년회전》	부여 공회당사무실	 <p>《제6회 아사달 청년회전》(1990) 리플릿</p>
1980.9.	《제3회 이신회(以新會)전》	대전문화원	
1980.9.24. ~9.27.	《유펜그래픽 창립전》	대전시민회관 목원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자들이 결성한 전시	
1980.10.	《송전조각회 창립전》	대전시민회관 • 現 한밭조각회(1983~)의 전신 • 참여 박병희, 김지택, 양현조, 박용각, 장준문, 변수현, 고웅곤, 박수용, 심춘자 등	 <p>《제3회 송전조각회전》(1982) 리플릿</p>
1980.10.2. ~10.31	《제2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동양화, 서양화, 조각)	• 특선 서양화부 신양섭 〈영일(寧日)〉, 오세열 〈방(房)〉, 임립 〈고가의 정담〉 조 각 부 최국병 〈의지-9(進)〉 • 입선 동양화부 전래식, 김철성 서양화부 이효숙 조 각 부 황교영, 이영길, 박병희	 <p>임립, 〈고가(古家)의 정담(情談)〉, 《제2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작</p>
1980.10.10. ~10.16.	《제7회 충남조각회전》	대전문화원	
1980.11.7. ~11.11.	《제5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천안문화원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0.11.16. ~11.22.	《금강현대미술제》	공주 금강백사장	
1980.11.22. ~11.26.	《제3회 한길미전》	공주문화원	
1980.11.26. ~12.1.	《제1회 아미전》	온양신협	
1980.12.25. ~12.31.	《제3회 목목회(牧墨會)전》	대전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복원규, 허진권, 남영자, 장정란, 장성욱, 방복희, 이세영, 정구인, 정성숙, 정옥규, 정진숙, 윤명희, 최재숙 • 제1회전은 '목미회'로 개최, 제2회전부터 '목목회' 	 <p>《제3회 목목회전》(1980) 리플릿 표지</p>
1980	《김두환 화백전》	대전 라이카·여일미술관 김두환 도불(渡佛)기념으로 열린 전시로, 예총 충남지부 후원을 받아 개최	
1980	《예산향토작가초대전》	예산 우리전시실	
1980	《제2회 대전일보사 초대 윤영자 개인전》	대전	
1980	배재대학교	미술교육과 개설	
1980	최영근	한남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로 부임	
1980	김영순	목원대학교 산업미술과 교수로 부임	
1980	김정현	국립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	
1980	김경화	국립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조소) 교수로 부임	
1980	정해조	배재대학교 미술교육과(칠공예) 교수로 부임	

1981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1.4.18. ~4.30.	《제2회 금강현대미술제》	대전문화원 금강현대미술제는 제2회를 끝으로 중단되었지만, 이후 임동식을 주축으로 '야투'라는 명칭으로 전환해 '야외현장미술연구회'로 발전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1.5.1. ~5.6.	《드름열색회 창립전》	대전시민회관 • 참여 강명선, 김미현, 손계순, 우영미, 윤진경, 이재화, 이화복, 장대원, 황현주 등	
《제12회 드름성유조형전》 (1992) 도록 표지			
1981.5.22. ~6.15.	《제3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서예, 공예, 건축, 사진)	• 입선 서예부 이곤순, 인영선, 임재우, 조종국	
1981.6.20. ~6.28.	《오오(五悟)현대미술동인 창립전》	공주문화원 • 참여 고승현, 유동조, 임동식, 지석철, 허진권	
《창립 오오현대미술동인전》 (1981) 홍보 엽서			
1981.8.14. ~8.19.	《창립 野投》	공주 금강 배사장 '야외현장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1986년부터 자연미술이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	
《창립 野投》(1981) 도록 표지			
1981.9.	《금동인회 창립전》	금산고등학교 미술반 출신 작가들 주도로 창설	
1981.10.2. ~10.31.	《제3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동양화, 서양화, 조각)	• 특선 서양화부 임림 〈한가위와 아이들〉, 장순임 〈인간예찬〉 조 각 부 최국병 〈의지-10(아침의 나라-3)〉 • 입선 동양화부 강신철, 이길원, 이석구, 전래식, 김철성 서양화부 김영천, 오세일 조 각 부 황교영, 김영대	
1981.10.15. ~10.20.	《제4회 르뽁동인전》	대전 라이카 · 여일화랑	
1981.11.19. ~11.22.	《제1회 송산서화전》	대전 가들락문화회관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1	《유재일 유화전》	대전 신신화랑	
1981	《제11회 충청남도미술대전》	대전문화원	
1981	《제6회 천안지부 및 천안 현대미술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	천안 태화산방	
1981	《충남향토작가초대전》	대전문화원	
1981~1987	김철호	한국미협대전지부장 및 충남지부장 역임	
1981	대전실업전문학교 (현우송정보대학교)	상업디자인과 개설	
1981	목원대학교	미술학과 개설	
1981	최국병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조소) 교수로 부임	
1981	김홍주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	

1982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2.2.15. ~3.15.	《제5회전: 근대화랑 개관 기념 르부동인 초대전》	대전 근대화랑	
1982.3.	《미로회 청림전》	대전문화원 배재대학교 동문 미술단체	
1982.4.18. ~4.24.	《르부동인회, 19751225, 대전 78세대 연합전》	대전시민회관	
1982.5.29. ~6.5.	《화촌회 창립전》	서산문화원 1981년 창립. 창립전은 1982년 개최	 <p>《제15회 화촌전》(1995) 도록 표지</p>
1982.7.1. ~7.6.	《제2회 드림염색회전》	대전시민회관	
1982.10.10. ~10.15.	《대전 78세대-현대미술 현장에서의 논리적 비전》	대구 강정 낙동강면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2.10.18. ~10.24.	《도원회 창립전》	대전동양백화점 화랑 • 참여 권용란, 김수겸, 이순호, 이윤자, 이재희, 주현숙, 김봉남, 김주양, 여종영, 지은희, 진남영, 김경숙, 김연동, 김원석, 김종남, 신영미, 신상돈, 이선숙, 이인순, 이은희, 유애숙, 한수정 등	
1982.10.21. ~11.2.	(제7회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온양 아미회 합동전)	온양신협 3층·천안문화원	
1982.11.1. ~11.6. 1982.11.8. ~11.14.	《학동인회 창립전》	당진/함덕 순회전 개최	
1982.11.25. ~12.5.	(한국도예가전)	대전 동양백화점	
1982.11.27. ~11.30.	《제2회 오오현대미술동인전》	대전문화원	
1982.12.23. ~12.27.	《목원조각회 창립전》	대전시민회관 목원대학교 동문 미술단체	
1982	《제4회 르브르동인회》	대전 여일미술관	
1982	《10인 초대전》	대전 공간사람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2	충남대학교	• 미술학과(한국화·서양화 ·조소·디자인·공예) 개설	
1982	홍동식	충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부임	
1982	남철	충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부임	

1983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3	《반도화랑 개관 초대전》	대전 반도화랑 • 판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병호 작가가 일본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운영	
1988.3.11. ~3.20.	《한국화 자선 초대전》	대전 동양백화점	
1983.4.20. ~4.27.	《충남의 자연전》	• 충남의 자연전은 현직미술교사들로 구성된 단체. • 참여 김철호, 정영복, 정성근, 이성태, 유재일, 이명자	
1983.9.29. ~10.4.	《제2회 도원회전》	대전 동양백화점	
1983.10.20. ~10.23.	《제3회 부여예술회 회원전》	부여문화원	
1983.10.26. ~10.30.	《제8회 천안지부전 및 제51회 한국미협 충남도지부전》	천안 미도파백화점(현 로얄백화점) 전시실	
1983.11.8. ~11.14.	《금강디자인전》	대전 반도화랑	
1983.12.27. ~12.31.	《제6회 한길미전》	공주문화원	
1983	《항토작가 초대전》	대전문화원	
1983	호서대학교	응용미술학과 개설	
1983	김대열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	
1983	이재호	한남대학교 회화과(한국화) 교수로 부임	
1983	김영배	충남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부임	
1983	임립	충남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부임	

반도화랑이 있던 건물의 외관
(유병호 작가 제공)

1984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4.2.25. ~2.27.	《제1회 구주전》	대전 반도화랑	
1984.2.25. ~2.29.	《벽·바닥, 그리고 의식 창립전》	대전시민회관 공주사범대학 동문 미술단체 • 참여 이경우, 이동구, 이응우, 이종관, 임재광	 <p>《제6회 벽·바닥, 그리고 의식》 (1990) 도록 표지</p>
1984.3.20. ~3.31.	《대전 IMAGE전》	대전 공간사랑	
1984.4.1. ~4.30.	《충남한국화전》	대전 공간사랑	
1984.4.21. ~4.27.	《대전 '84 드로잉전》	대전 반도화랑	
1984.5.16. ~5.31.	《문정규 수채화전》	대전 공간사랑	
1984.6.2. ~6.8.	《충남판화협회 창립전》	대전 반도화랑 • 참여 김승훈, 김지태, 김진, 김철근, 박관우, 백승철, 백철, 송참만, 유병호, 이종현, 장시웅, 정길호, 정장직, 추문자, 홍영선	 <p>《충남판화협회 창립전》 도록 표 지 및 내지</p>
1984.6.9. ~6.17.	《대전실험작가회 창립전》	대전 반도화랑 • 참여 고현희, 김인숙, 김정명, 니경자, 복종순, 안치인, 이두한, 이정훈, 이재우, 송일영, 조수행 참여(명예회원: 김영배, 권영우, 박명규, 유병호, 신동주)	 <p>《제3회 대전실험작가회전》 (1986) 포스터</p>
1984.6.18. ~6.23.	《창작판화가순회전》	대전 반도화랑	
1984.6.27. ~7.1.	《제1회 양지미술작품전》	미도백화점 전시실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4.7.15.	《일요스케치 회원전》	대전 공간사랑	
1984.7.15. ~7.19.	《제9회 한국미협천안지부회원전》	천안문화원	
1984.8.1. ~8.15.	《제13회 시공 84순회전》	대전 공간사랑	
1984.8.15. ~8.23.	《제6회 19751225 GROUP전》	대전 반도화랑	
1984.9.22. ~9.28.	《일요스케치 회원전》	대전 반도화랑	
1984.10.6. ~10.12.	《대전 실험작가회 기획 금일의 상황전》	대전 반도화랑	
1984.10.15. ~10.21.	《제1회 충남 시각디자인협회전》	대전 반도화랑	
1984.10.20. ~10.24.	《예산문화원 창립 30주년 기념 도예전》	예산문화원	
1984.10.23. ~10.28.	《제11회 충남조각회전》	대전문화원 · 참여 강정숙, 김윤집, 박명규, 박승수, 박재용, 박종석, 유미선, 이춘호, 전경옥, 정찬국, 현광덕, 황교영 등	
1984.11.	《제8회 충남구상작가협회전》	대전문화원 이신희의 후신	
1984.11.	대전 현대갤러리 개관	· 현재 대전시 중구 중교로33에 위치 · 당시에는 대전시 중구 대흥 2동 481-1번지(현 대흥로 121번길 43) 이미동 산부인과 건물 지하에 개관	 <p>개관 당시 현대갤러리가 있던 이미동 산부인과 건물</p>
1984.11.3. ~11.8.	《제9회 한국미협 천안지부회전》	천안 미도파백화점(현 로알백화점)	
1984.11.7. ~11.13.	《제5회 홍익금속공예전》	대전 반도화랑	
1984.11.10. ~11.6.	《제9회 충남향토작가 100인 초대전》	대전문화원	
1984.11.24. ~12.14.	《현대화랑 개관기념 초대전》	대전 현대화랑	
1984.12.1. ~12.3.	《제3회 천안사우회원전》	천안문화원	
1984.12.8. ~12.13.	《제8회 서천웨이드인 사진동호회전》	서천문화원	
1984.12.8. ~12.14.	《제9회 르브론인회전》	대전 반도화랑	
1984.12.8. ~12.14.	《84 한남디자인전》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1984.12.11. ~12.20.	《공간사랑송년기획전》	대전 공간사랑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4.12.12.	《제1회 삼양시화전》	금산문화원	
1984.12.12. ~12.18	《서양화3인전》	천안문화원 • 참여 강인목, 김세열, 남길희	
1984.12.28. ~1985.1.5.	《도술화랑 개관기념 천안지부초대전》	천안 도술화랑	
1984	대전실업전문학교 (현우송정보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개설	
1984	목원대학교	회화과 개설	
1984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회화과 개설	
1984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산업디자인과 개설	
1984	김치중	배재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	
1984	오정길	목원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부임	
1984	장순업	한남대학교 회화과(서양화) 교수로 부임	


1985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5.1.26. ~1.30.	《제2회 세라비전》	대전 반도화랑	
1985.2.1. ~2.15.	《그림회전》	천안 도술화랑	
1985.2.12. ~2.18.	《19751225 GROUP 10주년 기념전》	대전 현대/반도화랑	 <p>1985년 《19751225그룹 10주년 기념전》이 열린 전시장 내부(유병호 작가 제공)</p>
1985.2.16. ~3.1.	《한국미협 서산지부초대전》	천안 도술화랑	
1985.3.16. ~3.22.	《제1회 창형전》	대전 반도화랑 • 한남대 회화과 동문 전시 • 참여 김동창, 김면유, 임영신, 허강	 <p>《제1회 창형전》 라플릿</p>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5.3.22. ~3.28.	《터Group 창립전》	대전시민회관 한남대학교동문미술단체	 <p>創立 存在展</p>
1985.3.23.	《창립 형상전》	대전시민회관 • 반구상화 작가들의 모임 • 참여 임봉재, 임립, 민동기, 손화동, 송인옥, 심용택, 안재옥, 이광원, 정철곡, 조은진, 최경화	
1985.4.28. ~5.14.	《권음사 대웅전 중창불사도에서화전》	대전 라이카 · 여일화랑	
1985.5.4. ~5.10.	《창립 존재전》	대전 반도화랑 • 참여 김병취, 도병락, 유영석, 윤장열, 최무경	
1985.5.17.	충남조각연구회 창립		《존재전》 창립전 도록 표지
1985.6.2. ~6.15.	《한국미협 공주지부전》	천안 도솔화랑	
1985.6.14. ~6.20.	《제4회 재충남서움미대동문전》	대전 현대화랑	
1985.7.12. ~7.19.	《대전수채화협회전》	대전 반도화랑	
1985.7.20. ~7.26.	《고 이동훈 화백 유작전》	대전문화원	
1985.8.	논산군민회관 설립	• 논산시 시민로 270번지에 위치 • 1996년 3월 논산시민회관으로 명칭 변경	
1985.9.5. ~9.29.	《85 충남작가 초대전》	대전 라이카 · 여일화랑	
1985.9.7. ~9.15.	《제1회 금강토화전》	대전 반도화랑	
1985.9.16. ~9.21.	《제12회 충남서예협회전》	천안문화원	
1985.10.16. ~10.31.	《방목화전》	대전 공간사랑	
1985.10.18. ~10.22.	《제20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순회전)》	대전상공회의소	
1985.10.19. ~10.25.	《제2회 형상79전》	대전 반도화랑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5.10.26. ~10.30.	《미협 서산·천안지부전》	서산문화원	
1985.11.	《제9회 충남구상작가 협회전: 충남 한국화 협회와 공동기획-아름다운 금강전》	대전시민회관	
1985.11.1. ~11.7.	《미협 서산·천안지부전》	천안 도술회랑	
1985.11.11. ~11.15.	《고서화 소장전》	대전 라이카·여일화랑	
1985.11.28. ~12.2.	《제1회 정산고 미전》	청양 예원사화랑	
1985.12.6. ~12.12.	《제1회 칠칠다섯조각전》	대전 반도화랑	
1985.12.6. ~12.12.	《청양군내미술 교사작품전》	청양문화원	
1985	실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사진예술학과 개설	
1985	대전개방대학 (현국립한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시각·공업디자인) 개설	
1985	백준기	국립공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교수로 부임	
1985	황만영	목원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부임	
1985	황용식	목원대학교 도자디자인학과 교수로 부임	
1985	박병희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조소) 교수로 부임	


1986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6.2.25.	부여군민회관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41에 위치해있으며 준공 당시 회의실, 전시실, 사무실로 구성 • 문화예술을 위한 전용공간이 없었던 부여에서 청소년수련원과 더불어 주요 문화예술장으로 활용 	 <p>1986년 부여군민회관 개관식 잠면</p>
1986.3.	《여일미술관 상설전》	대전 라이카·여일화랑	
1986.3.7. ~3.13.	《제9회 청림전: 힐간 미술세계 충남작가초대전》	서울 경인미술관	
1986.4.14. ~4.20.	《충남조각연구회 창립전》	대전시민회관 • 충남대학교 동문 미술단체로 1985년 5월 17일 창립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6.5.24. ~5.30.	《일신전》	대전 현대화랑 • 대전에서 거주하던 작가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 창립회원 이인영, 이완중, 조종국, 임립, 이곤순 • 명예회원 강용식, 박종배, 오복동, 이선우, 이지영	 〈일신전〉(1986) 도록 표지 및 내지
1986.6.1. ~6.5.	《제14회 대전사생회 회원전》	대전시민화관 일요스케치회의 후신	
1986.6.6. ~6.12.	《제8회 19751225 GROUP》	대전 신신화랑	
1986.6.8.	《한국예총 조치원지부 사진협회 제1회 사진전》	연기 조치원문화원(현 세종문화원)	
1986.10.8. ~10.14.	《제9회 대전 78세대전》	대전 중앙갤러리	
1986.10.14.	《OPUS 창립전》	대전 쌍안화랑 • 참여 김남진, 김철걸, 남일송, 문정규, 박관우, 박봉춘, 신영일, 유순식, 지치우	 〈OPUS 창립전〉 팸플릿 표지
1986.11.	《'86보문산 현장예술제》	보문산 야외음악당 • '86보문산 현장예술제는 3회정도 이어지다 해체 • 참여 강덕기, 고현희, 김정명, 김종근, 문정규, 복종순, 신영일, 안치인, 이두한, 장인봉, 전일국, 정장직, 조수행, 황영기	 〈'86 보문산 현장 예술제〉 포스터
1986.11.6. ~11.9.	《흥사단 충남지부서화전》	대전 라이카 · 여일화랑	
1986.11.14. ~11.18.	《천안지부 창립10주년 기념 천안지부회원전》	천안 미도파백화점(현 로얄백화점)	
1986.11.15. ~11.19.	《한국미협 서산지부전》	서산문화원	
1986.11.23. ~11.27.	《제7회 놀외사진회 회원전》	논산 화지산신문협동조합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6.11.29. ~12.5.	《목상회 회원전》	대전 MBC 문화공간	
1986.12.23. ~12.29.	《제2회 충남디자인협회전》	대전 쌍인미술관	
1986.12.27. ~12.28.	《현대미술에 있어서 6인의 퍼포먼스》	대전 중앙갤러리 • '현대미술에 있어서 6인의 퍼포먼스'는 대전에서 퍼포먼스 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전시 • 참여 권은순, 문정규, 박성자, 안치인, 이두한, 한건준	 <p>현대미술에 있어서 6인 퍼포먼스 권은순 문정규 박성자 안치인 이두한 한건준 대전중앙갤러리 1986.12.27 토요일 3시 1986.12.28 일요일 3시</p> <p>《현대미술에 있어서 6인의 퍼 포먼스》 포스터</p>
1986	《제16회 충청남도미술대전》	• 입선 김관진, 박상국	
1986	《MBC개국기념 초대전》	대전 MBC 문화공간	
1986	예가화랑 창립기념 《8인 원로작가초대전》	대전 예가화랑 • 참여 구종서, 윤후근	
1986	송전대학교 (현 한남대학교)	회화과 개설	
1986	최태신	목원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부임	
1986	윤여환	충남대학교 조소과 교수로 부임	


1987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7.	천안시민회관 개관 (현 신부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 동남구 신부2길 12에 위치. 1987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대·소강당과 3개의 전시실을 갖춘 건물로 개관 • 2009년 여성회관으로 편입되어 '천안시시민문화여성회관'으로 명칭변경 	 <p>구 천안시민회관</p>
1987.5.12. ~5.17.	《87 르브상황전》	대전 MBC 문화공간	
1987.6.22. ~6.27.	《천안문화원 개원 33주년 특별기념전 청사 이동식 초대전》	천안문화원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7.8.14.	《독립기념관 개관기념-한국미협 천안지부 초대전》	천안문화원	 <p>《독립기념관 개관기념-한국미협 천안지부 초대전》 리플릿</p>
1987.8.30. ~9.5.	《늘갈회 창립전》	공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동문미술단체	 <p>《제20회 늘갈회전》(2007) 포스터</p>
1987.9.11. ~9.29.	《대전미술관 개관기념 원로작가 초대전》	대전미술관	
1987.9.12. ~9.18.	《일청회전》	대전 MBC 문화공간	
1987.9.24. ~9.30.	《아름다운 금강전》	대전 MBC 문화공간	
1987.9.30. ~10.13.	《충남구상작가 초대전》	대전미술관	
1987.10.5.	《사진협회 제2회 사진전》	연기 조치원문화원(현 세종문화원)	
1987.10.12. ~10.16.	《제1회 PURE전》	천안문화원 • 출품 김지연, 정계현, 조윤상, 황규란, 홍동석, 현남주	 <p>《제1회 PURE展》(1987) 전시 리플릿</p>
1987.10.13. ~10.19.	《제1회 연우회전》	대전 MBC 문화공간	
1987.10.30. ~11.3.	《미협서산지부전》	서산문화원	
1987.11.6. ~11.12.	《제6회 천안사우회전》	천안시민회관(현 신부문화회관)	
1987.11.6. ~11.12.	《제11회 천안지부전 및 천안시민회관 개관기념전》	천안시민회관(현 신부문화회관)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7.11.7. ~11.11.	《서산서도회전》	서산문화원	
1987.11.16. ~11.21.	《제15회 놀뵤미술회원전》	논산군민회관	
1987.11.24. ~11.30.	《제2회 충남회화10인전》	대전 MBC 문화공간	
1987.12.2. ~12.8.	《제10회 송암한묵회전》	대전 MBC 문화공간	
1987.12.11. ~12.28.	《남현 서정철의 풍속화 초대전》	대전미술관	
1987	《7인 원로작가 초대전》	대전 예가회랑 • 참여 김철호(서양화가)	
1987	《대전 '87 청년 트리엔나레》	대전 '78세대의 강정현 · 안치민 · 양종모 · 신영일, 르뵤의 박관우, 19751225의 정길호 · 정장직, 배제대의 문정규 · 김기권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	 <p>대전에서 열린 첫 국제적인 전 시인 《대전'87청년트리엔나레》 도록</p>
1987	목원대학교	미술학부와 디자인학부로 분리	
1987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공예과 개설	
1987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섬유디자인과, 실내디자인학과, 요업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학과 개설	
1987	백인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	
1987	김영대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부임	

1988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8.1.	한국미술협회 논산지부 결성		
1988.1.4. ~1.31.	《원로작가 신년기획전》	대전미술관	
1988.1.19. ~1.22.	《금강조각회 창립전》	공주문화원 공주시범대학 동문 미술단체	 <p>《금강조각회 창립전》(1988) 도록 표지</p>
1988.1.25. ~2.7.	《서양화 중견작가 7인 초대전》	대전백화점 • 참여 김배희, 김종상, 김치중, 김한오, 송진세, 음영일, 최상선	
1988.2.1. ~2.13.	《신춘기획 서양화 16인 초대전》	대전미술관 • 참여 최광선, 전호, 박용인, 이종환, 김인화, 음영일, 강건호, 임종만, 이황, 김영태, 김보현, 기승환, 박창복, 김승부, 김인수, 이남찬	
1988.2.11. ~2.25.	《서양화 4인전》	천안문화원 화랑 • 참여 김세열, 남길희, 류의열, 이만우	
1988.2.20. ~2.27.	《서산미술관 개관기념전》	서산미술관	
1988.2.26. ~3.31.	《한국원로작가초대전》	대전 라이카 · 여일화랑	
1988.3.2. ~3.16.	《구상조각 12인 초대전》	대전미술관 • 참여 강관욱, 고정수, 김창희, 김경욱, 이선중, 김혜원 등	
1988.4.9. ~4.11.	《애호가를 위한 한국화소품전》	대전백화점	
1988.4.12. ~4.25.	《서양화 4인 초대전》	대전백화점	
1988.5.7. ~5.18.	《한국미협 천안 · 온양지부 교류전》	천안문화원	
1988.5.11. ~5.16.	《신세대문학전》	대전 MBC 문화공간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8.5.11. ~5.16.	《목가와신조형체》	대전 MBC 문화공간 충남대학교동문미술단체	
1988.5.17. ~5.14.	《한국미술협회 부여지부 창립전》	부여군민회관	 <p>《한국미술협회 부여지부 창립 전》 도록 표지</p>
1988.5.26. ~5.30.	《2rd PURE展》	천안문화원	 <p>《2rd PURE展》 리플릿</p>
1988.6.2. ~6.6.	《다시각 창립전》	대전시민회관 목원대학교동문미술단체	 <p>《제10회 다시각전》(1997) 도 록 내지</p>
1988.6.18. ~6.26.	《실내에서의 자연미술전》	대전 동아미술관	
1988.7.5. ~7.17.	《조각 5인 사진전》	대전미술관 • 참여 임선빈, 유영교, 박병희, 신현진, 김영대	
1988.8.5. ~5.15.	《제5회 아사달청년회원전》	부여군민회관	
1988.8.24. ~8.28.	《13인 모색전》	대전 MBC 문화공간	
1988.8.29. ~8.31.	《올림픽 성화맞이 기념 법광서화전》	홍성문화원	
1988.9.1. ~9.20.	《한국현대미술초대전》	대전미술관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8.9.10. ~10.20.	《제56회 한국미협 충남지부전》	서산미술관	
1988.9.12. ~9.20.	천안미술인회 창립전	천안시민회관	
1988.9.18. ~9.22.	《충남미협 대전직할시지부 창립전》	대전시민회관	
1988.10.5. ~10.30.	《한국88올림픽미술대전》	대전 라이카·여일화랑	
1988.10.8. ~10.15.	《제10회 금동인전》	금산문화원	
1988.10.8. ~10.15.	《제7회 금동인회전》	금산문화원 • 참여 김동욱, 김용빈, 김윤홍, 김일도, 김창수, 백수민, 양인규, 이돈희, 장경태, 전남준, 정창길, 주완식, 최산홍, 최진영, 고재선, 이형근, 이종필, 최상근, 정황래	
1988.10.19. ~10.25.	천안한국화회 창립전	천안시민회관	
1988.10.20. ~10.25.	《제12회 천안지부전》	천안시민회관(현 신부문화회관)	
1988.10.21. ~10.27.	《배연회 창립전》	대전 쌍인미술관 배재대학교미술동문단체	 <p>《제2회 배연전》(1989) 전시 도록 표지 및 내지</p>
1988.10.22. ~10.27.	《투잉전》	대전 문화화랑	
1988.10.25. ~10.30.	《1988 목화전》	대전 MBC 문화공간	
1988.11.8. ~11.13.	《세 곳의 섬으로부터...전》	대전문화원	
1988.11.11. ~11.17.	《대전구상작가회전》	대전 MBC 문화공간	
1988.11.16. ~11.19.	《아귀-토(土) 조각회 창립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관 • 한남대학교 출신 조각가 동문 단체로 '아귀-토'는 기와집 처마의 수키와 끝에 바르는 석회와 화강석이 섞인 황토를 의미 • 참여 전미정, 임재현, 이상수, 이진우, 송경숙, 심혜경, 박종오, 기우썸, 가주야, 김성웅 등	 <p>《8778 조각전》(1988) 창립전 홍보물</p>
1988.12.5. ~12.19.	《관화와 수채화의 만남전》	대전미술관 • 참여 박동일 전호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8.12.14. ~12.18.	《3rd PURE Group: 종이로부터전》	천안문화원	 <p>《3rd PURE Group: 종이로부터전》 리플릿</p>
1988.12.17. ~12.22.	《한국미협 논산치부 창립전》	논산 태림상가	
1988	《윤우근 교장 정년기념 회고전》	대전 예가화랑	
1988	강태성	제2회 김세중 조각상 수상	
1988	김철호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1988	윤영자	예총주관 예술문화대심 수상	
1988	이윤섭	충남문화상 수상	
1988	공주문화대학 (현 국립공주대학교)	민속공예과 개설	
1988	충남대학교	문과대학에서 분리하여 예술대학 설립, 산업미술학과 신설	 <p>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원관식 장면</p>
1988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광고디자인학과, 산업공예과 개설	
1988	구권환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	
1988	허진권	목원대학교 미술학부 교수로 부임	

1989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9	천안 이라리오화랑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9년 주식회사 이라리오가 천안종합버스터미널을 운영하면서 이라리오 조각공원 조성 	
1989	서산문화회관 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산문화회관은 1985년 서산시청과 인접한 서산시 읍내동 510번지에 착공해 1990년 1월 6일 지상 3층의 건물로 완공 대·소공연장과 3개의 전시실(330㎡, 지하 1개, 1층 2개) 구비 	 <p>서산문화회관 전경</p>
1989.1.20. ~2.2.	《대전직할시 승격 기념 서양화 6인전》	<p>대전미술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김동창, 신현국, 심웅택, 이인영, 임림, 임봉재 	
1989.1.21.	천안한국화회 창립		
1989.2.10. ~2.28.	《한국미술명가전》	대전미술관	
1989.3.24. ~3.28.	《제13회 미림 천안지부 회원전》	천안문화원	
1989.4.26. ~4.30.	《천안여류화가전》	<p>천안 로얄전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김민혜, 성경숙, 이영순, 이춘희, 정금옥, 채금숙 	 <p>《창립 천안여류화가전》(1989) 도록 표지</p>
1989.4.21. ~4.24.	《연목회전》	서산문화원	
1989.5.15. ~5.19.	《MOVE 창립전》	<p>대전 MBC문화공간</p> <p>충남대학교동문미술단체</p>	
1989.5.24. ~5.58.	《4th PURE展》	천안문화원	 <p>《4th Pure展》리플릿</p>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9.5.27. ~5.31.	《구상작가회 기념전》	서산미술관	
1989.6.7. ~6.10.	《목양회전》	서산문화원	
1989.6.9. ~6.15.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100호전》	천안문화원	
1989.6.16. ~6.20.	《제1회 신세대전》	천안문화원 • 참여 김영규, 김정태, 김지연, 박상국, 박선옥, 변영환, 신지원, 정세훈, 정태궁, 진윤희, 한주섭, 현남주	 <p>《제1회 신세대전》(1989) 전시 초대장</p>
1989.6.17. ~6.23.	《제2회 미협 부여지부전》	부여군민회관	
1989.8.24. ~8.30.	《제16회 서미회전: 맥-호름전》	서울 무역센터 현대미술관	
1989.9.8. ~9.13.	《목원한국화회》	대전 현대회랑 목원대학교동문미술단체	
1989.10.10. ~10.19.	《제1회 대전조각가협회 창립전》	대전미술관	 <p>《대전조각가협회 30주년 야외 조각전》(2018) 포스터</p>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89.10.19. ~10.25.	《천안한국화회 창립전》	천안시민회관 • 참여 고광숙, 김무호, 김철성, 류명걸, 박순래, 박진균, 서경원, 어운섭, 유명걸, 이근배, 이동식, 이성구, 이재창, 진영화, 한동순	
			《천안한국화회 창립전》(1989) 도록 표지
1989.10.20. ~11.15.	《연변서양화가9인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89.10.28. ~10.30.	《사우회 사진전》	서산문화원	
1989.11.16. ~11.21.	《제2회 천안미술작가회전》	천안시민회관	
1989.11.17. ~11.21.	《5th PURE Group: 사각거부전》	천안문화원	
			《5th PURE Group: 사각거부 전》 리플릿
1989.11.17. ~12.6.	《현대조각전》	천안 아라리오화랑	
1989.11.24. ~11.27.	《제2회 목련미전》	서산문화원	
1989.12.8.	《예산협회 회원작품전》	예산문화원	
1989.12.20. ~12.26.	《대전디자인협회전》	대전문화원 • 1989년 행정구역이 분리되면서 '대전디자인협회'로 개칭	
1989.12.26. ~12.30.	《신세대 소품전》	천안문화원	
1989	이창호	중요무형문화재 제94호 벼루장 지정	
1989	공주문화대학 (현 국립공주대학교)	만화예술과 개설	

1990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90.1.25. ~1.31.	《신춘기획전》	대전미술관 •출품 이용노 <투계>, 김리석<해녀>, 홍종명 <과수원집의 딸> 등	
1990.2.3. ~2.18.	《제15회 천안지부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0.2.15. ~2.19.	《중국현대채목전》	대전미술관	
1990.5.3. ~5.11.	《행위예술 별무리전》	연기군민회관(현 세종시민회관)	
1990.6.1. ~6.5.	《천안서예인회 창립전》	천안문화원	
1990.6.8. ~6.12.	《제6회 PURE전》	천안문화원	
1990.6.8. ~6.17.	《국내작가현대관화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0.6.15. ~6.19.	《천안수채화협회 창립전》	천안문화원 •참여 변명환, 이항, 이경호, 이영순, 손창유, 한주실, 김정태, 박상국, 황선익, 박기술 등	 <p>《제9회 천안수채화협회전》 (1998) 도록 표지</p>
1990.9.25. ~9.28.	《한일서예교류전》	부여군민회관	
1990.9.25. ~9.29.	《아사달회 제11회 향토미전: 제36회 백제문화제 기념》	부여군청 • 제11회를 끝으로 아사달회 해체	
1990.10.	자연미술의 집 개관		
1990.10.10.	태안문화원 창립	• 태안군 태안을 백화로 192번지에 위치한 태안문화원은 본래 태안군 태안을 남문리 637-9에서 창립	 <p>태안문화원 외관</p>
1990.10.10. ~10.15.	《공방판화전》	대전 시나위커피숍	
1990.10.10. ~10.16.	《6인 초대전》	태안문화원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90.11.1. ~11.7.	《이목회 서예전》		
1990.11.1. ~11.7.	《제2회 천안여류화가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0.11.19. ~11.23.	《제4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순회 사진전》	온양문화원	
1990.12.12. ~12.17.	《차은희 미술학원 미술전시회》	온양문화원	
1990.12.15. ~1991.1.20.	《자유로운 수단전》	공주 자연미술의 집 자연미술의 집 개관 기념전	 <p>1990년 자연미술의 집 외관</p>
1990	《김철호 청년회임기념전》	대전문화원	
1990	《르뽀동인 창립 15주년 기념 100호전》	대전 MBC문화공간 15회를 끝으로 르뽀동인 해체	
1990	《한반미술의 오늘전》	대전시민회관	
1990	대전개방대학 (현 국립한밭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개설	
1990	대전실업전문학교 (현 우송정보대학교)	광고디자인과 개설	
1990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학과 개설	

1991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91.1.22. ~1.31.	《아라리오미술관상설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1.2.3. ~2.15.	《대전수채화협회 초대전》	대전 시나위커피숍	
1991.2.9. ~2.13.	《제5회 화단전》	서산문화예술회관	
1991.5.31. ~6.11.	《서해조형작가회 정기전》	태안문화원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91.6.13. ~6.18.	《창이전》	대전 반도화랑 • 참여 박용자, 송미숙, 정미현, 오익숙, 이문주, 이현숙, 이보경	
			《창이전》(1991) 창립전 도록 표지
1991.7.14. ~8.11.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	공주 자연미술의 집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 (1991) 개막식 사진
1991.7.14. ~8.15.	《여름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	공주 금강 일원	
1991.8.17. ~8.22.	《단미회전》	서산문화원	
1991.9.13. ~9.19.	《중소도시작가전 -천안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1.10.13.	《제6회 연기 사진협회 회원전》	연기군민회관(현 세종시민회관)	
1991.10.31. ~11.5.	《제4회 홍주예술회전》	홍성문화원	
1991.11.9. ~12.9.	《서인사랑 개관 기념전》	서산 서인사랑	
1991.12.1. ~1992.1.	《27인의 드로잉방법전》	서산 서인사랑	

1992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92.2.	《현실과 시각전》	서산 서인사랑	
1992.3.	《국내중견 판화작가전》	서산 서인사랑	
1992.4.	《학동인전》	서산 서인사랑	
1992.4.27. ~6.14.	《수채화 3인전》	대전 시나위커피숍	
1992.5.	《종이를 통한 자연전》	공주문예회관	
1992.5.21. ~5.26.	《미협 천안지부전》	천안시민회관(현 신부문화회관)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92.5.30. ~6.5.	《창립 20주년 놀뢰미술회 회원전》	논산 화자산신림 문화공간	 <p>《창립 20주년 놀뢰미술회 회원 전》 표지</p>
1992.6.15. ~6.30.	《서해조형작가회 여름 테마전》	서산 서인사랑	
1992.7.6. ~7.31.	《제8회 벽·바닥, 그리고 의식전》	청주예술관/서산서인화랑	
1992.7.7. ~7.13.	《제3회 충남수채화협회전》	아라리오 갤러리 천안수채화협회를 충남수채화협회로 명칭 변경 • 참여 강장규, 박철홍, 김정태, 김지광, 민성동, 박기술, 박상국, 변영환, 손창유, 이경호, 이시백, 이영순, 이춘희, 이항, 정승용, 정태궁, 한주섭, 황선익	
1992.7.15. ~7.20.	《제12회 드림염색회전》	대전시민회관 • 참여 김영숙, 윤석지, 서남희, 김이분, 이현경, 이현주, 권명주, 류근주, 박경단, 박현경, 성열상, 신순일, 이양자, 정미숙, 조요상, 최도희, 함숙찬, 황인진 등	
1992.8.	《표상전》	서산 서인사랑	
1992.8.10. ~8.16. 1992.8.19. ~8.25.	《제1회 충남산업디자인협회전》	천안시민회관/ 공주문예회관	 <p>《제1회 충남산업디자인협회전》 (1992) 포스터</p>
1992.9.22.	《천안문화원 신축개관기념 -한국미협 천안지부 초대전》	천안문화원	
1992.10.	《6인의 제안전》	서산 서인사랑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92.10.1. ~10.6.	《제14회 19751225 GROUP》	대전문화원	
1992.10.24. ~10.30.	《제19회 충남서예가협회전》	당진 충청은행 수선화공간	
1992.11.4. ~11.10.	《제60회 한국미술협회 충남도지회전》	예산 종합터미널 전시장	
1992.11.9. ~11.15.	《제2회 천안미술작가회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2.11.16. ~11.30.	《서해조형작가회 정기전》	서산 서인사랑	
1992.12.	《화서전》	서산 서인사랑	
1992.12.5. ~12.9.	《부신협회 부여지부 & 부여 예사회 합동전》	부여군민회관	
1992	세종시 감태성 조각미술관 개관		
1992	호서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개설	

1993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93.2.	《가야시진 동우회전》	서산 서인사랑	
1993.3.	《서산미술대학생 동우회 화서전》	서산 서인사랑	
1993.4.27. ~4.30.	《움직이는 미술관》	서산문화예술회관	
1993.6.3. ~6.30.	《5인의 시각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3.6.8. ~6.30.	《서해조형작가회 여름 테마전》	서산 서인사랑	
1993.6.19. ~6.25.	《제4회 천안수채화협회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3.6.27. ~7.2.	《한서연서전》	서산문화예술회관	
1993.7.	《학동인전》	서산 서인사랑	
1993.9.	《중국연변 조선작가전》	서산 서인사랑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93.9.4. ~9.10.	《우정의 만남전》	대전문화원 • 대전에서 활동했던 원로작가와 출향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미술전	
1993.9.20. ~9.27.	《93 엑스포 기념 : 대학미술의 흐름전》	대전문화원	
1993.10.	《제1회 충남청년작가전》	서산 서인사랑	
1993.10.	예산문화원 건립	• 1993년 10월 건립. 505석의 공연장과 145㎡ 규모의 전시실 구비	
1993.10.12. ~10.17.	《미협 천안지부전 및 한국미협 충남지부전》	천안시민회관(현 신부문화회관)	
1993.10.25.	《제1회 연백서화전》	연기군민회관(현 세종시민회관)	
1993.11.	《김정현 · 이종구전》	서산 서인사랑	
1993.11.1. ~11.6.	《제1회 충청남도 청년미술제》	서산문화원	
1993.11.22. ~12.19.	《서해조형작가회 정기전》	서산 서인사랑	
1993.12.20. ~1994.1.20.	《예술과 원골전》	공주 원골마을 •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두 그룹의 회원들과 마을 주민이 함께 개최한 공동전시	
1993	김철호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수상	
1993	대전개방대학 (현 국립한밭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개설	

1994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94.1.15. ~2.14.	《'94 드로잉 방법전》	대전 시나위커피숍	
1994.2.	《한우리 사진 동우회전》	서산 서인사랑	
1994.3.25. ~4.28.	《제2회 한길포토라인회원전》	서산문화예술회관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94.4.26. ~4.29.	《움직이는 미술관전》	아산(온양)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1994.5.	《서해관화조형전 청립전》	서산 서인사랑	
1994.5.17. ~5.23.	《천안수채화협회전》	예산 종합터미널 전시장	
1994.6.10. ~6.17.	《서해조형작가회 여름 테마전》	서산 서인사랑	
1994.6.28. ~7.2.	《서해관화조형전》	당진 충청은행 수선화공간	
1994.7.	《한국화 5인전의 지·각·전》	서산 서인사랑	
1994.9.	《대전 충남 민족미술전》	서산 서인사랑	
1994.9.28. ~10.1.	《홍성미술협회전》	홍성문화원	
1994.10.1. ~10.7.	《제19회 미협 천안지부전》	천안시민회관(현 신부문화회관)	
1994.11.29. ~12.4.	《제5회 추사선생 추모 전국서예백일장 수상작품전시회》	예산문화원	
1994.12.	《서미회전》	서산 서인사랑	
1994.12.1. ~12.3.	《아미사진클럽창립전》	당진 충청은행 수선화공간	
1994.12.5. ~12.16.	《서해조형작가회 정기전》	서산 서인사랑	
1994.12.19. ~12.24.	《벽·바닥, 그리고 의식》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4	《한발미술의 오늘과 내일전》	대전 한발도서관 전시실	
1994	건양대학교	미술학과 개설	
1994	공주문화대학 (현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공예디자인학과, 산업영상과 개설	
1994	남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개설	
1994	배재대학교	산업미술학과 개설	

1995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95.1.	《벽·바닥, 그리고 의식전》	서산 서인사랑	
1995.4.22. ~4.23.	《농어촌청소년을 위한 미술작품 순회전 향토미전》	예산문화회관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95.5.25. ~5.27.	《북유럽의 건축물 풍경사진전》	예산문화회관	
1995.5.25. ~5.29.	《제5회 환원 조각회전》	대전 대화문화사랑 • 1991년 한남대학교 미술학과 동문단체로 결성된 '환원회'의 후신 • 1995년 제5회 전시부터 조소전공 작가만 참여하면서 '환원 조각회'로 명칭 변경	
1995.5.29. ~6.1.	《환경연합후원서화전》	서산문화예술회관	
1995.6.3. ~6.6.	《제14회 대한민국사진전사회》	서산문화예술회관	
1995.6.22. ~7.5.	《제12회 김상구 목판화 개인전》	천안 이채관화화랑	
1995.7.21. ~8.18.	《미술을 통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	공주 금강, 산성공원, 공나무 일원	
1995.7.28. ~8.3.	《제20회 목목회전》	대전 한림갤러리	
1995.8.	《충남 한국화회전》	서산 서인사랑	
1995.10.3. ~10.9.	《제22회 서미회전》	서울 문화일보갤러리	
1995.10.16. ~10.25.	《창립 20주년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천안시민회관(현 신부문화회관)	
1995.10.28. ~11.2.	《제15회 새터서화전》	서산문화예술회관	
1995.11.11. ~11.17.	《홍성미술협회전: 홍성향토작가초대전》	홍성문화원	
1995.11.27. ~12.16.	《서해조형작가회 정기전》	서산 서인사랑	
1995.12.4. ~12.9.	《서해조형작가회 정기전》	서산문화예술회관	
1995.12.15. ~12.20.	《한국미협 예산지부 작품전》	예산문화회관	
1995.12.22. ~12.28.	《대전가톨릭미술가회 창립전》	대전 홍인갤러리 • 천주교 대전교구 신자들로 구성된 단체	
1995	《우정의 만남전》	대전중구문화원	
1995	김영학 조각관 개관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1995	남서울대학교	환경조형학과(유리공예) 개설	
1995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예술대학 영상학부 사진전공 개설	
1995	호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개설	
1995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조형학부' 및 '광고·산업공예디자인학과' 개설	

1996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96.4.2. ~4.9.	《충청남도 문화재 사진전》	서천문화원	
1996.6.16.	《제5회 천안시 초등학교 미술실기대회》	천안문화원	
1996.10.18. ~10.25.	《제21회 미협 천안지부전》	천안시민회관(현 신부문화회관)	
1996.10.30. ~11.7.	《제6회 새터전》	서산문화예술회관	
1996.11.1. ~11.9.	《환경미술전》	서산문화원	
1996.11.15. ~1997.1.2.	《동시대작가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6.11.29. ~12.3.	《한국미협 예산지부전》	예산문화회관	
1996.12.20. ~12.26.	《제5회 안견미술대상 및 한국화 공모전》	서산문화예술회관	
1996	《한밭회향전》	대전시민회관 • 참여 김기숙	
1996	김교만	한국의 산업디자이너 100인 선정	
1996	윤영자	재단법인 석주문화재단 설립 승인	
1996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무대미술학과, 만화예술학과 개설	
1996	한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 영상미술학과 개설	

1997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97.4.20. ~4.26.	《충남수채화협회전》	천안시민회관(현 신부문화회관)	
1997.5.23. ~6.1.	《천안미술사진 서예초대작가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7.6.14.	아산 달림미술관 개관	• 서양화가 이종무가 고향인 아산에 전사실과 작업실을 겸해 개관	 <p>이종무 화백 생전 작업실</p>
1997.6.14.	《수채화 소품전》	아산 달림미술관	
1997.6.24. ~6.29.	《제21회 청림전: 대전재목화의 흐름》	대전 중구문화원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97.7.5. ~7.11.	《'97 유망판화가 순회전》	천안 이채판화화랑	
1997.10.	임립미술관 설립	• 공주시 계룡면 봉곡길 77-13에 위치한 미술관으로 공주 출신의 서양화가 임립이 설립	
1997.10.2. ~10.10.	《타블로전》	천안시민회관(현 신부문화회관)	
1997.10.13. ~10.20.	《목요누드크로키회전》	천안시민회관(현 신부문화회관)	
1997.10.21. ~10.27.	《홍대미대동문전》	천안시민회관(현 신부문화회관)	
1997.10.21. ~10.27.	《향토미술전》	논산군민회관	
1997.11.1. ~11.5.	《세라믹투데이전》	천안시민회관(현 신부문화회관)	
1997.11.3. ~11.9.	《서미회전》	서산문화예술회관	
1997.11.24. ~11.30.	《한국미협 예산지부전》	예산문화회관	
1997	《한발미술의 미래모색전》	대전시민회관	
1997	남서울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개설	

1998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98	《시형회(視形會) 창립전》	천안아라리오갤러리 • 구상 회화를 추구하는 서양화 작가들이 모여 창립한 단체로 '형상이 보인다(視形)'라는 뜻을 갖고 있음	
1998.5.4. ~6.2.	《충청남도미술대전》	천안시민회관(현 신부문화회관)	
1998.8.1. ~8.29.	《제3회 금강에서의 국제 자연미술전: 예술과 마을》	공주 원골마을	
1998.8.14. ~8.22.	《'98 여름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제》	공주 원골마을	
1998.9.7. ~9.13.	《제6회 충남 청년미술제》	예산문화회관	
1998.9.10. ~10.25.	《아라리오갤러리 개관 9주년 기념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8.10.15. ~10.31.	《KBS 미술초대전-평면 조각 설치전》	대전 KBS 방송국	
1998.10.20. ~10.25.	《제9회 충남수핵화합회전》	천안 충남학생회관(현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98.11.1. ~11.7.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전·충남협회 창립전》	대전시립미술관	
1998.11.7. ~11.10.	《제4회 소원회전》	천안 충남학생회관(현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1998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공간확산전》	대전시립미술관	
1998	《중원미술의 향기》	대전시립미술관	
1998	《충남도전 초대작가전- 신봉균 기획초대전》		
1998	공주문화대학(현 국립공주대학교)	귀금속가공디자인학과 개설	
1998	남서울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개설	
1998	대전대학교	서예과·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개설	
1998	대전실업전문학교 (현 우송정보대학교)	정보디자인 계열 학과 개설	
1998	배재대학교	미술학부 내, '산업미술', '순수미술' 전공학과 개설	
1998	한서대학교	예술대학원 영상예술관리학과 개설	
1998	호서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개설	

1999

기간	제목	내용	이미지
1999.5.24. ~5.30.	《제29회 충남도미술대전》	천안시민회관(현 신부문화회관)	
1999.6.17. ~6.25.	《다시보는한국전쟁- 우리들의자화상전》	천안 충남학생회관(현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1999.9.6. ~9.13.	《대전도예가회전》	대전 KBS 방송국	
1999.11.6. ~11.12.	《충남조각연구회전》	대전 KBS 방송국	
1999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 조형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 공예 전공학과 개설 • 미술학부-서양화, 동양화전공학과 개설	
1999	삼명대학교 천안캠퍼스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예술대학영상학부 개설	
1999	송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	미술·조형디자인학부 개설	
1999	한서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관리학과 개설	

기사(연도순)

- 『경성일보』, 1924.6.22.
 『行之會의 繪畵』, 『부산일보』, 1928.12.12.
 『조선서화미술회』, 『부산일보』, 1935.6.27.
 『天安 海工會例畵』, 『부산일보』, 1935.8.21.
 『演畵』, 『매일신보』, 1941.4.15.
 『文化消息-畫畵同好會創立』, 『한성일보』, 1946.5.6.
 『부여비명회조직』, 『경향신문』, 1949.6.6.
 『김화경미전성황』, 『조선일보』, 1958.5.30.
 『부여시국대위조직』, 『조선일보』, 1960.5.3.
 이동훈, 「년말 결산: 미술」, 『중도일보』, 1963.12.27.
 『한국신문상 시상』, 『경향신문』, 1968.10.13.
 『국립 공보관서 관화 공모전』, 『경향신문』, 1970.8.12.
 『미협천안지부전』, 『동아일보』, 1976.12.25.
 『세종문화2 전시실 행사 이동식 작품전』, 『매일경제』, 1979.5.14.
 『홍익선 서예 개인전』, 『경향신문』, 1980.4.15.
 『이동식씨 日서 금상』, 『조선일보』, 1980.10.11.
 『김용민 첫 개인전』, 『동아일보』, 1981.4.17.
 『아와미술연' 창립』, 『동아일보』, 1981.8.17.
 『작업실: 청사 이동식 동양화가』, 『매일경제』, 1982.11.5.
 『향배 고장 문화의 원장을 찾아 서산』, 『경향신문』, 1982.12.18.
 『當麻 高張 文化의 現場을 찾아 천안』, 『경향신문』, 1983.5.21.
 『향배 고장 문화의 원장을 찾아 부여』, 『경향신문』, 1983.6.25.
 『신광면사무소』, 『조선일보』, 1986.10.2.
 신정희, 「작업실을 찾아서 풍속화가 이동식씨 자연과 대화 실험정신으로 우뚝」, 『매일경제』, 1993.9.7.
 장철수, 「파랑에서: 파업30년 결산-대표작 50여점 출품」, 『경향신문』, 1993.8.27.
 『김용민씨 8년만에 개인전』, 『한겨레신문』, 1994.9.13.
 『당선소감-너무쉽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게 하고싶던 말』, 『동아일보』, 1995.1.13.
 『산업디자인 정규교육 확산』, 『동아일보』, 1996.8.4.
 『박종화 작품전』, 『중도일보』, 1998.9.22.
 『갤러리 전람회 그림 개관기념』, 『당진시대』, 1999.6.14.
 『갤러리 전람회 그림 '별' 초대전』, 『당진시대』, 2001.4.2.
 박희애, 「(충남)충청 무문발 대상자 인터뷰」 문인화 김진국씨, 『충청투데이』, 2003.5.21.
 『성찬경 시인. 집마당 고물 가득 "물장학대 비판"』, 『경향신문』, 2006.3.13.
 『그림 그리는데 학벌이 왜 필요해유?』, 『오마이뉴스』, 2007.3.30.
 『새터서예학원』, 『당진시대』, 2007.7.2.
 『뚝따라 나비따라 칠칠』, 『한국물고기』, 2007.4.12.
 『소수민족 삶 '화북에' 천안출신 김우석씨』, 『중도일보』, 2008.1.2.
 『당진신문협동조합 제12대 이사장 선거』, 『당진투데이』, 2008.1.28.
 『농림군지부 신축이전』, 『당진투데이』, 2008.9.22.
 『제18회 새터서예전 개최』, 『당진신문』, 2008.11.17.
 『동양화 동아 나비 창설 이재창 화백』, 『충남신문』, 2009.5.21.
 『한국 정서의 선경(仙境)을 거닐다-안상규, 마음으로 읽는 그림』, 『오마이뉴스』, 2009.12.13.
 『눈에 산다, 서각 예술가江山 박육철』, 『굿뉴스피플』, 2011.2.11.
 『박봉춘 개인전 일부이여라』, 『대전일보』, 2011.3.25.
 『박화운동 끝치는 '배송 작가' 이강일씨』, 『세계일보』, 2011.7.13.
 『(조상영)박봉춘-유근명의 2인 회화전』, 『중도일보』, 2011.7.13.

- 『한국서각학회 남계 선생 10주기 추모 창립전』, 『뉴스스』, 2011.10.3.
 유성우, 「(뉴스스이미지) 화랑가-홍명섭 개인전」, 『뉴스스』, 2012.12.3.
 『차차사자 새기는 우리 전통』, 『성대신문』, 2013.6.4.
 『달림미술관, 아산 출신 김인옥 초대전』, 『아산투데이』, 2013.6.7.
 『소나무도 표정이 있죠. 이강일 작가 드로잉전』, 『세계일보』, 2013.6.9.
 『세한대 교수인 이강일 작가, 갤러리 폭스씨 개인전 열어』, 『경향신문』, 2013.6.11.
 『그림은 나를 완성시키는 도구이다』, 『온양신문』, 2013.6.13.
 『내 삶이 다할 때까지』, 『온양신문』, 2013.7.4.
 『나비 그림은 내가 최고여』, 『e충남시사신문』, 2013.10.31.
 남수연, 『법화석경 513판 서각한 의암 김정호 씨』, 『법보신문』, 2014.2.11.
 『서종시 원로서예가 송암 민복기 선생』, 『세종스토리』, 2014.2.17.
 『미술적 고집, 예술적 철학... 그가 붓을 휘다』, 『온양신문』, 2015.8.25.
 『장천모개개인전. 무엇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가』, 『시사오늘』, 2016.2.19.
 『히말라야 종말 한지 그림 김진모 화백 "무엇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가" 아라아트초대전 3월 15일까지』, 『국민일보』, 2016.3.1.
 『[매경의 열매] 홍익선 <1> '꽃길에서 달콤 전하는 달란트' 주시에 놀감사』, 『국민일보』, 2016.9.6.
 김연수, 『제41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대동령상에 위암 김정호 작품 선정』, 『문화경제』, 2016.10.19.
 김나리, 『우리 동네 예술가』, 『경기도뉴스포털』, 2017.9.6.
 『북한 사람들도 모를 '평양 문화사' 전해줄 수 있어 보람』, 『한겨레』, 2018.4.26.
 『지역작가 이은경 초대전시: '순환'전』, 『온양신문』, 2018.9.14.
 『소나무화가' 임영우 화백 8번째 개인전』, 『매일경제』, 2019.5.3.
 박경미, 「[2019 달진 이 시대의 작가] 이경숙 서양화가... 작가의 시각으로 담은 풍경」, 『오마이뉴스』, 2019.5.14.
 『투박한 선이 주는 강렬함...아티스트 이강일의 힘』, 『ASIAA』, 2020.5.28.
 『열심히 하지 않는다. 죽기살기로 한다』, 『특금뉴스』, 2020.6.20.
 『올갤러리, 7월 11일까지 홍명섭 '토폴로지컬 레벨'展』, 『대구신문』, 2020.6.25.
 『[독자와의 만남] 이경숙 화가 "기자의 취재력 돋보여"』, 『당진시대』, 2020.11.28.
 『[수상소식] 윤태중 금강조각연구소장 "2020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대통령상 영예』, 『농평신문』, 2020.12.12.
 『[지상전시] 작품에 시대의 역사를 담다』, 『당진신문』, 2021.5.8.
 류환, 『화가, 시인 무공(無功) 김정수 작가 시집출간 화제』, 『뉴스룸』, 2021.5.21.
 『묵직한 색의 울림 단색추상 선보이는 김근중 작가』, 『뉴스프리존』, 2021.10.12.
 『[문진실의 비평프리즘] 말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고 김용민 (1943-2021) 선생의 삶과 예술 I』, 『서울문화투데이』, 2021.11.18.
 장병호, 『'로봇 제자' '도깨비 감투' 신문수 화백 별세』, 『이데일리』, 2021.12.1.
 박혜림, 『'로봇제자' '도깨비 감투' 만화가 신문수 타계』, 『인천일보』, 2021.12.2.

『문진섭의 비평프리즘』 말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고 김홍민 (1943-2021) 선생의 삶과 예술 I』, 『서울문화투데이』, 2021.12.8.

『김근중 작가, 존재 탐구에 대한 의미 있는 변주를 이어모다』, 『K스피릿』, 2022.5.11.

『서예 불모지 서산에 서예 씨를 뿌린 한글 문자조형박물관 관장 늘빛 심음섭 작가』, 『서산시대』, 2022.9.1.

『신평면사무소』, 『당진시대』, 2022.9.30.

『이 파가가 30년 걸려서 알게 된 '작가 정신'』, 『오마이뉴스』, 2023.1.22.

『백마강에서 백제문화제가 시작되다, 신명선』, 『e금강뉴스』, 2023.4.24.

『2023 이 시대의 작가전 (장철석 작가) '시대를 그리다'』, 『당진시대』, 2023.6.2.

『히말라야의 화가 강찬모...명상의 현실창조의 작가』, 『서울사정일보』, 2023.6.4.

『히말라야 산 그림의 작가 '강찬모 화가' 전시회』, 『브레이크뉴스』, 2023.6.8.

『김근중 작가 '나의 화족은 자유의지의 땅이다'』, 『뉴스프리존』, 2023.6.19.

『제12대 당진시민 대상 수상자, 허영삼』, 『증도일보』, 2023.9.16.

『계룡문화원 개원 및 임영무 계룡문화원장 취임식 가져』, 『충청매시지』, 2023.12.12.

박성천, 『다뜻한 손』 최평근 작가, 『광주일보』, 2023.12.5.

이만주, 『고 박내부 화백의 그림세계』, 『The Korea Journal』, 2024.3.25.

『유년시절 기억의 편린』, 『당진신문』, 2024.7.22.

논저

『계룡문화원』, 『월간 우리문화』, 한국문화원연합회, 2024. 5.

『내고장 문화예술인 조각가 민종식』, 『천안문화』 11. 천안문화원, 1990.

『논산문화를 일구는 사람들』-너무나도 낮은 이름들: 화가 박문화, 『논산문화』, 논산문화원, 2007.

『미술-천안미술인화』, 『천안문화』 5. 천안문화원, 1989.

『새로운 예술세계에 대하여』, 『이강일 전』, 금호미술관, 1997.

『신의 손, '일정(一定)' 오해균』, 『국공예 명장 - 그의 삶과 신념』, 『충청TV』, 2020.9.9.

김관옥, 『자생조각을 꿈꾸며』, 『김관옥 자생조각전』, 예술의전당 현대미술관, 1996.

강선학, 『부재하는 것에 대한 역산된 흔적』, 『다원 김수길 2008~1964』, 덕수출판사, 2008.

강선학, 『서문』, 『김수길전』, 부산시립미술관, 2002.

공공식, 『발토적 서정성으로 빚어진 조형적 공간과 아름다움』, 『제11회 이동훈 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 박돈』, 대전시립미술관, 2014.

김근중, 『한국현대미술선 059: 김근중』, 출판회사 역사관, 2024.

김남수, 『古譜를 題材로 한 새로운 美態 表現』, 『정년기념 김수길전』, 퍼스트경일, 2008.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박돈 작품 & 아카이브-고향의 정서, 추억 속의 편린』,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2015.

김대순, 『작가의 글』, 『김대순 기행 초대전』, 아트스페이스 웰리아, 2017.

김무호, 『우리민족의 상징...소나무』, 『제5회 서경원전』, 천안시 시민문화회관, 2006.

김미정, 『김우삼과 이능중을 통해 본 북한의 조선시대 회화사 인식』, 『인문과학연구논총』 78.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4.

김복수, 『구본경의 회화: 일상이 담긴 풍경들』, 『2021 당진 이 시대』의 작가전 구본경 전, 당진문화재단, 2021.

김상철, 『서문』, 『김수길전』, 공평아트센터, 2000.

김수열, 『내 마음의 풍경』, 『Inside Scenery』, 아산갤러리, 2013.

김영규, 『壽 人生七十 김영규 화집』, 출판사 큐뮤, 2022.

김영재, 『자주적 원형의식의 고결한 승화』, 『미술과비평』 73, 2024.

김원방, 『그를 '괴물'처럼 혹은 해석 없이 읽는다』, 『월간미술』, 2004. 4.

김이순, 『현대조각의 새로운 지평』, 해안, 2005.

김정수, 『정(情), 해회오(堂悔悟)』, 오늘의문학사, 2021.

김종길, 『거대한 입이십의 민중의자-최평근의 대나무 인간. 그 조형성과 환경미학』, 『공간』, 2005. 5.

김해성, 『서문』, 『제7회 김수길전』, 서울 예술의전당, 1994.

박영택, 『이강일-생명의 법칙을 그리다』, 『이강일』, 토포하우스갤러리, 2007.

박인식, 『時間의 눈』, 한국채색화의 새로운 지평 김찬모 초대전, 서초갤러리, 1992.

변종필, 『박돈의 '배고의 심비와 전설, 그 영혼을 향한 노정』, 『미술과비평』, 2012.

백준기, 『미완의 대륙: '일식(日蝕)』, 『박봉춘-일루이여라!』, 브로슈아, 갤러리 생리, 2011.

백지훈, 『선을 굶다 나를 했다: 김재선』, 『김재선 화집』, 월간미술세계, 2014.

성기완, 『《음양동 통정 고아원》 도록 발간에 부쳐』, 『음양동 통정고아원: 성찬경』, 소리보관, 2018.

신수경, 『전시공간으로 본 1950-70년대 천안미술』, 『천안미술 1951-1989: 기록과 기억으로 말한다』, 천안시립미술관, 2024.

신향섭, 『순수하고 정갈하며 단아한 이미지의 탐미적인 조형언어』, 『박돈 작품 & 아카이브』,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2015.

신향섭, 『한국 사실조각의 새로운 지평, 김관옥의 자생조각』, 『김관옥 자생조각전』, 서울 예술의전당, 1996.

신향섭, 『관념을 넘어 실제로 육박하는 채색 산수』, 『서경원개인전』, 아리리모 갤러리, 1999.

신향섭, 『시간의 흐름을 차단한 회고적인 정서』, 『박인화』, 2021.

오광수, 『입체에서 평면으로』, 『정년기념 김수길전』, 퍼스트경일, 2008.

유근영, 『전시 서문』, 『오원화랑 초대 김용민전』, 대전 오원화랑, 1995.

유용준, 『나의 인생만사 담시기-유용준 산문집』, 창비, 2024.

유용준, 『관아재 조영석: 선비정신과 사실정신의 만남』, 『역사비평』, 통권 22호, 역사비평사, 1993.

유용준, 『단편 김용도: 조선적인, 가장 조선적인 문세종의 화가』, 『역사비평』, 통권 24호, 역사비평사, 1993.

유용준, 『공재 윤두서: 조선 후기 회화의 선구』, 『역사비평』, 통권 11호, 역사비평사, 1990.

유용준, 『남태웅의 '청죽화사'의 회화사적 의미』, 『미술자료』 45, 국립중앙박물관, 1990.

윤범모, 『모란의 세계 혹은 不滅之大然의 논리-김근중의 근작을 보고』, 『김근중전』, 동산문화회관, 2008.

尹暎玉, 『韓國新派美術史』, 연희당, 1995.

윤우학, 『전시하이라이트-생태계 문제를 환기시키는 작업』, 『월간미술』 5. 월간미술, 1995.

윤우학, 『전시하이라이트-사유적 교감의 장』, 『월간미술』 8. 월간미술, 1991.

윤진섭, 『자연과 문명, 그 관학적 탐색-김석환의 관화개인전에 부쳐』, 『김석환 목판화전』, 서울 갤러리 고도, 1992.

이강일, 『나의 길 '하리랑』, 『나의 길 '하리랑』, 당진문화재단, 2020.

이구열, 『바창돈의 참재의식, 향도미의 천가』, 『제11회 이동훈 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 박돈, 대전시립미술관, 2014.
 이구열, 『항도의 천가』, 『박돈』, 권대사, 2014.
 이남규, 『나의 친구 이남규』, 『소온 이남규작품전』, 동덕미술관·동아미술관(대구), 1990.
 이명환, 『송운 성찬경 선생과의 인연』, 『거물나그네』, 시립생각, 2020.
 이병석, 『고요속의 큰 울림 서양화가 박인회』, 『충남예총』 136, 한국예총충청남도연합회, 2013.
 이준, 『人間, 그 존재하는 것: 김찬모』, 한국화 김찬모 개인전, 굿호미미술, 1990.
 이지희, 『이지희 연필그림 모음집』,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6.
 임두빈, 『연남주류에 부처』, 『연남주작품전』, 서울 갤러리타임, 1993.
 임재광, 『울음창상 낙락장송 서경원전』, 『제5회 서경원전』, 천안시 시민문화재단, 2006.
 임재광, 『근현대기 충남 미술교육사』, 『충남미술 연구총서3: 충남미술 - 문화사(1900~1999)』, 충남문화재단, 2023.
 장 루이 보트르방, 『하늘을 배고 높다』, 『김찬모』, 서문당, 2017.
 장규돈, 『2020 당진 올해의 작가전-이강일을 개최하며』, 『나의 길 아리랑』, 당진문화재단, 2020.
 장규돈, 『당진 올해의 작가전 2015를 개최하며』, 『당진 올해의 작가전 2015』, 당진문화재단, 2015.
 장석원, 『자생조각과 구원의 메시지』, 『김관록 자생조각전』, 서울 예술의전당, 1996.
 전상모, 『전람회를 통해 본 한국 근·현대 서예의 전개와 양상』, 『미술관에 올: 한국 근현대 서예전』, 국립현대미술관, 2020.
 정호준, 『홍명섭에 있어 조각 개념의 확장과 해석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기획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2.
 조기주, 『김우석 개인전 지구촌 사람들 시리즈 중 그 첫번째 고산지대 소수민족 전을 축하하며』, 『고산지대 소수민족전』, 서울 갤러리수, 2008.
 조선일보사 서문연구소, 『조선일보 사람들-일제시대』, 렘덱하우스중앙, 2005.
 조영동, 『제3회 김관진 개인전에 부처』, 『김관진 서양화전』, 2009.
 최경현, 『1950-80년대 천안미술의 흐름과 특징』, 『천안미술 1951-1989: 기록과 기억으로 말한다』, 천안시립미술관, 2024.
 최경애, 『박돈의 예술과 삶-기증작품 & 자료 중심으로』, 『박돈 작품 & 아카이브-고향의 정서, 추억 속의 편린』,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2015.
 최덕만, 『이원준 고문님의 영전에』, 『월간 서예』 7, 미술문화원, 2001.
 최병식, 『明靜한 氣韻과 自我의 승격』, 『정년기념 김수길전』, 퍼스트경일, 2008.
 최병식, 『人間의 眞白과 色의 淸淨, 김찬모 개인전』, 서울 창작미술관, 1989.
 홍지석, 『1980년대 후반 천안미술 그룹 연구』, 『천안미술 1951-1989: 기록과 기억으로 말한다』, 천안시립미술관, 2024.

도록 및 자료집

『2022 대전원로예술인 구술채록 사업 보고서』, 대전문화재단, 2022.
 『2023 당진 올해의 작가전』, 당진문화재단, 2023.
 『김관진 서양화전』, 2009.
 『김근중현대미술전』, 굿호미미술, 1990.
 『김대순 초대전』, 아산갤러리, 2007.
 『김석환전: 2004 시간 거슬르기』, 서울 갤러리미즈, 2004.
 『대전미술 불 공예조각』, 대전시립미술관, 2009.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대충동예술가들 1950~1960』, 대전시립미술관, 2011.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 대전시립미술관, 2018.

『문화예술도시 천안을 꿈꾸다-천안시 승격 50주년 기념 특별전』, 천안 박물관, 2013.
 『미술과리크놀로지』, 서울예술의전당, 1991.
 『박봉은 일부이며라』, 갤러리 썬리, 2011.
 『바창돈작품전』, 예하랑, 1980.
 『부머사랑 혹은 백재의 왕가』, 부머문화원, 2023.
 『빛의 탐색』, 인시아트센터, 2009.
 『창미술대전』, 인시아트센터, 2011.
 『서경원 작품전』, 아리리오화랑, 1994.
 『서경원개인전』, 아리리오 갤러리, 1999.
 『성찬경 추모전: 용암동 물질 교아원』, 백익미술관, 2016.
 『아트밸리 아산 100인 100색전』, 아산 신정호 아트밸리 일원, 2023.
 『안상규 초대전』, 미국 뉴욕 Gallery Stendhal, 1996.
 『문재현의 신부여발경』, 스킵스북스, 2010.
 『이은경 초대전』, 아산문화예술공작소 2층 바스락 전시실, 2018.
 『제1회 박준화 개인전』, 논산문화원, 1979.
 『제4회 제원락 한국화 개인전』, 켈스베리 갤러리, 2023.
 『제5회 서경원전』, 천안시 시민문화재단, 2006.
 『제6회 옛 지평』, 『천안일보사』, 천안문화원, 1994.
 『제7회 강철형전』, 『천안시지 상』, 천안시지편집위원회, 1997.
 『천안미술 1951-1989: 기록과 기억으로 말한다』, 천안시립미술관, 2024.
 『천안미술사: 2022년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천안시립미술관·김달진미술연구소, 2022.
 『천안시 승격 50주년 기념 특별전-문화예술도시 천안을 꿈꾸다』, 천안 박물관, 2013.
 『정금두 주인 상찬경』,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2022.
 『충남미술연구총서 1: 충남미술가편 1』, 충남문화재단, 2021.
 『충남미술연구총서 2: 충남미술가편 1』, 충남문화재단, 2022.
 『충남미술연구총서 3: 충남미술문화사(1900~1999)』, 충남문화재단, 2023.
 『충남예총6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청남도연합회, 2022.
 『한국역대서화가 사진』, 국립문화재단연구소, 2011.
 『현대미술의 원형과 확산-오리진화학회 1962-2006』, 도서출판 아트나우, 2006.

기타 (웹사이트)

『2021 당진 아 시대의 작가전 구본정展』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MzhCgYOPGY>
 『김정수 화가-2020 올해의 예술가상(충청예술문화협회)』, 『예술누리 TV』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4B_3qertb4k
 『당진의 예술인-장예경』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sXzTH9bnPA>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
 디지털 당진문화대전 <https://www.grandculture.net/dangjin/>
 디지털 천안문화대전 <https://www.grandculture.net/cheonan/>
 박인하, 『심문수(1939~2021)』, 코믹스픽닷컴 <https://blog.naver.com/enterani/222583239046>
 성찬경 구술·한진일 채록,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 성찬경』, 아르코예술기록원, 2008. <https://www.daarts.or.kr/handle/11080/16415>
 아르코 예술기록원 강만욱 블로그 <https://www.art500.or.kr/blog/kangkwanwook.do>
 한국서가협회 홈페이지 <http://seogak.or.kr/>

찾아보기

감관옥(姜寬玉, 1946~1988)	68, 69, 70, 78, 196, 197, 249, 257, 259, 260, 262, 265, 267	266
감관옥(姜寬玉, 1946~)	65, 66, 67, 286, 305	228
강성렬(姜聲烈, 1944~2005)	255	29
강신우	202, 269	103, 104, 105, 305, 306
강신철	244, 248, 254, 258, 260, 262, 268, 269, 273	239, 241, 256, 257, 258
강우석(姜佑錫, 1951~)	108, 109, 304, 306	240, 241, 243, 245, 247
강용식	204, 282	243, 245
강인옥(姜仁玉, 1957~)	130, 131, 132, 304	15
강정현(姜貞顯, 1956~)	268, 285	김두환(金斗煥, 1913~1994)
강태성(姜泰成, 1927~)	233, 234, 238, 239, 242, 246, 249, 250, 251, 253, 289, 297	229, 230, 231, 232, 253, 272
강찬모(姜讚模, 1949~)	97, 98, 99, 304, 305, 306	김무삼(金武森, 1907~?)
강환섭(姜煥燮, 1927~2011)	235, 242, 246	15, 16
강환춘(姜煥春, 1939~)	39, 40	김무호(金武鎬, 1953~)
갤러리 전람회 그림	9, 180, 182, 304	95, 139, 141, 209, 292, 305
고광숙	209, 292	김배희(金培熙, 1939~)
고려당 지하다방	77, 180, 187	248, 250, 256, 257, 264, 269, 286
고석산(高錫山, 1955~)	136	김병준
고봉주(高鳳柱, 1906~1993)	231	199
고웅근(高雄根, 1956~2022)	271	김병휘
고희동(高熙東, 1886~1965)	13	203, 280
공주교육대학교	20, 34, 85, 100, 101, 133, 248, 250, 251, 252, 253, 254, 256, 259, 261, 276, 284, 285, 289	김석환(金錫煥, 1956~)
공주문화원	17, 18, 19, 29, 35, 36, 82, 83, 85, 101, 217, 236, 246, 247, 250, 256, 259, 261, 267, 269, 272, 273, 276, 286	121, 122, 123, 305
공주서원대학(공주대학교)	84, 86, 122, 123, 133, 136, 213, 259, 267, 277, 286	김성재(金星在, 1923~1968)
공주사범학교	17, 19, 20	78, 191, 233, 234, 235, 239, 240, 241, 243, 245, 247, 248, 250, 251
구권환(丘權煥, 1951~)	289	김세원(金世源, 1940~)
구본웅(具本雄, 1906~1953)	15	251, 258, 260, 261, 264, 266, 269
구본창(具本昶, 1951~)	110, 111, 305, 306	김수근(金壽根, 1931~1986)
구상(具尙, 1919~2004)	25	25
구종서(具宗書, 1912~1968)	225, 226, 229, 283	김수길(金秀吉, 1943~)
국경오	67, 211	53, 54, 55, 201, 250, 264, 305, 306
권경승(權景昇, 1931~2010)	27, 28	김수평(金水平, 1942~1989)
권영무(權寧茂, 1941~)	259, 263, 277	250, 251, 254, 255, 259, 262, 264
권진규(權鎭圭, 1922~1973)	174	김여성(金如星, 1946~)
권택원(權卓遠, 1938~)	242, 244, 245, 247, 248	249, 255, 256, 257
그림회	86, 100, 101, 261	김영근(金永根, 1953~)
금강원대미술제	89, 272, 274	114, 115, 207, 291, 305
금동인회	273, 288	김영기
금산문화원	252, 279, 288	82
김관진(金寬鎭, 1949~)	52, 100, 101, 102, 283, 306	김영대(金榮大, 1949~)
김규진(金圭鎭, 1868~1933)	13, 221	262, 273, 285, 287
김국관	202, 269	김영원(金永元, 1947~)
김근중(金謹中, 1955~)	118, 119	174
김기숙(金基淑, 1924~2002)	231, 233, 234, 237, 240, 243, 246, 247, 248, 249, 301	김영천(金榮天, 1948~2012)
김기승(金基昇, 1909~2000)	74, 75, 232, 234, 235, 236	52, 191, 261, 262, 263, 264, 285, 267, 273
		211, 243, 249
		김용민(金容民, 1943~2021)
		56, 57, 304, 305
		김용준(金容俊, 1904~1967)
		15
		김우범(金愚範, 1890년 이전~1930년대)
		13
		김윤숙(金允淑, 1958~)
		139, 149
		김윤신(金允信, 1935~)
		173, 174
		김은호(以堂 金殷鎬, 1892~1979)
		29
		김용섭(金應燮, 1917~1989)
		44
		김용현(金應顯, 1927~2007)
		149, 162
		김이순(金伊順, 1957~)
		173, 305
		김민중(金寅中, 1940~)
		240, 242, 246, 248, 251, 252, 253
		김재배(金在培, 1919~1994)
		231, 237, 238
		김재석(金在奭, 1916~1987)
		229, 230, 231
		김재선(金在善, 1948~)
		44, 91, 92, 93, 305
		김정수(金定洙, 1942~)
		49, 50, 304, 305, 306
		김정숙(金貞淑, 1917~1991)
		76, 174
		김정태
		207, 291, 293, 296
		김정호(金正昊, 1959~)
		149, 150, 304
		김정희(金正喜, 1786~1856)
		162
		김종기
		202, 269
		김종선
		202, 269
		김종영(金鍾瑛, 1915~1982)
		174
		김지연
		206, 207, 284, 291

김진국(金振國, 1958~)	141	주-불미술동인	239, 240, 242
김창현(金彰顯, 1923~1991)	162	류명걸	209, 292
김창희(金昌熙, 1938~)	67, 241, 242, 244, 249, 250, 253, 254, 256, 258, 260, 262, 265, 267, 286	류의현	52, 286
김철경(金哲淸, 1954~)	288, 282	르본	71, 263, 266, 268, 274, 275
김철성(金澈性, 1941~)	209, 246, 248, 250, 264, 265, 267, 269, 271, 273, 292	리키미술관	80, 96, 102, 129, 157
김철호(金哲鎬, 1925~2011)	216, 231, 235, 240, 241, 243, 245, 247, 254, 255, 257	리커란(李可染, 1907~1989)	94
김충원(金忠源, 1921~2006)	59, 53, 162	목목회/목미회	268, 272, 300
김치중(金致中, 1947~2012)	82, 249, 255, 256, 257, 269, 279, 286	목무회	76, 77, 78, 79, 80, 81, 82, 83, 94, 96, 100, 158, 159
김환(金滿, 1938~2008)	238, 241, 244, 246, 248, 251	목원대학교	21, 23, 88, 128, 129, 158, 159, 170, 171, 172, 203, 257, 258, 263, 264, 265, 267, 269, 270, 271, 274, 275, 279, 281, 283, 285, 289
김파경(金華慶, 1922~1979)	41, 43, 46, 180, 229, 230, 232, 234,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4, 247, 248, 253	문신(文信, 1923~1995)	174
김환기(金煥基, 1913~1974)	174	문우식(文友植, 1932~2010)	174, 235
김희직(金喜直, 1944~)	251, 252, 269	미상록	198, 249, 250, 251, 253
나혜석(羅慧諤, 1896~1948)	167, 173, 174	미우회/미우전	244, 246, 247, 248
남만(南萬, 1911~1990)	243	민경갑(閔庚甲, 1933~2018)	236, 237, 238, 239, 240, 241, 244, 246, 248, 253
남길희	52, 264, 279, 286	민경찬(閔景燾, 1935~2021)	94, 95
남송서도회	31, 184	민동기(閔東基, 1955~)	262, 280
남양다방	180, 253	민복기(閔復基, 1944~)	81, 304
남 철(南徹, 1936~2017)	244, 246, 249, 250, 251, 252, 253, 276	민복진(閔福鎭, 1927~2016)	174
녹청회	191, 239, 240, 241, 244, 247	민종식(閔鍾植, 1947~)	76, 77, 305
농미미술회	82, 257, 296	박관우	277, 282, 285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108, 109, 123, 270, 279, 285, 303	박광수	68, 197, 249
당진 김리교회 전시설	180, 181	박기술	182, 293, 296
당진 농업협동조합	180, 183	박기호(朴起鎬, 1956~)	153
당진 신도 새마을금고 전시설	180	박내부(朴來厚, 1949~2009)	106, 107, 305
당진 축산농업협동조합	180, 186	박노수(朴魯壽, 1927~2013)	232, 234, 235, 236, 237, 253
당진문화원	140, 154, 236, 267	박돈/박창돈(朴昌敦, 1928~2022)	21, 22, 23, 238, 239(박 창돈), 305, 306
당진문화재단	111, 112, 113, 126, 140, 143, 144, 154, 155, 305, 306	박득순(朴得鎭, 1910~1990)	32, 243
당진시에인회	31, 180, 181	박래현(朴來賢, 1920~1976)	173
대전 78세대	268, 269, 271, 274, 282, 285	박명규(朴明圭, 1942~)	216, 248, 256, 257, 259, 263, 277, 278
대전가톨릭미술가회	196, 214, 300	박병욱(朴炳旭, 1939~2010)	174
대전문화원	19, 33, 34, 70, 73, 86, 87, 89, 102, 104, 124, 125, 198, 199,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6, 257, 259, 260, 261, 262, 263, 264, 266, 267, 268, 269, 271, 272, 274, 275, 276, 278, 280, 288, 292, 294, 297, 298	박병희(朴炳熙, 1948~2019)	211, 255, 264, 265, 269, 271, 281, 287
대전서범학교	39, 40, 231, 232	박봉춘(朴鳳春, 1946~)	71, 72, 73, 259, 263, 282, 304, 305, 306
대전중구문화원	198, 199, 210, 211, 214, 217, 233, 300	박상국(1958~)	207, 283, 291, 293, 296
대한민국미술전람회	75, 104, 141, 220, 232, 234, 235, 236, 237, 238, 239, 241, 242, 244, 246,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60, 264, 265, 266, 267, 268, 269, 271, 273	박성옥(朴成玉, 1915~1968)	225, 227, 229, 228, 230, 234, 235
도봉락(都鳳洛, 1958~)	203, 280	박생광(朴生光, 1904~1985)	106
도원회	275, 276	박서보(朴棲甫, 1931~2023)	24
돌다방/돌다실	70, 80, 180, 191, 197, 248, 249, 262	박석원(朴石元, 1942~)	174
로얄다방	180, 255	박선옥	207, 291
		박성섭(朴成燾, 1903~1974)	180, 225, 226, 231, 232, 234, 246
		박성택	202, 289
		박세문(朴世謨, 1952~)	269
		박수근(朴壽根, 1914~1965)	166, 174
		박순래	209, 292
		박승무(朴勝武, 1893~1980)	238, 240, 251, 253, 256
		박여일(朴如一, 1915~1992)	232, 233, 236, 240, 244, 247, 249
		박용인(朴容仁, 1944~)	137, 286
		박용자	210, 295

박문석	199	송용달(宋龍達, 1932~)	245
박인희(朴仁熙, 1947~)	68, 78, 79, 80, 197, 249, 305, 306	송원문(宋源文)	59
박일호(朴一浩, 1959~)	178, 177, 178	송민욱(宋寅旭, 1957~)	133, 134, 280
박종만(朴鍾萬, 1897~1957)	17	송진세(宋鎭世, 1938~)	249, 251, 286
박종배	204, 282	수요동인회	32, 33, 239, 248
박종오	211, 288	시온다방	180, 191, 242
박종화(朴鍾華, 1956~)	124, 125, 304	시향회	52, 78, 80, 101, 102, 109, 156, 196, 215, 302
박진규	209, 292	신권희(申權熙, 1937~1995)	246, 248
박진음	211	신통주(申東柱, 1942~2006)	202, 259, 263, 289, 277
박준화(朴鍾華, 1947~)	81	신두영(申斗榮, 1944~)	63
박태호	240, 241, 243, 245	신평선(辛平善, 1904~1983)	13, 305
박희진(朴喜鎭, 1931~2015)	24, 25, 26	신문수(申文洙, 1939~2021)	41, 42, 43, 304
반도화랑	203, 210, 276, 277, 278, 279, 280, 281, 295	신봉균(申鳳均, 1929~2000)	180, 201, 241, 243, 245, 249, 251, 258, 260, 262, 303
백궁다방	70, 96, 180, 190, 264	신세대	129, 158, 159, 196, 207, 291
백승철	349, 255, 258, 277	신신다방	180
백용문	61	신왕섭(申襄燮, 1942~)	180, 201, 245, 255, 256, 258, 260, 281, 262, 263, 264, 265, 267, 269, 271
백종치	201, 260	신왕상(辛永常, 1935~2017)	244, 246,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백철(白結, 1953~)	270, 277	신지원	207, 291
백현옥(白顯玉, 1939~)	248, 249, 250, 255, 256, 257, 258, 260, 262, 264, 265, 266	신평면사무소	180, 184, 303, 304, 305
변영환(邊英煥, 1956~)	3, 207, 291, 293, 296	신학군	44, 55
복원규(卜元圭, 1953~)	264, 272	신항섭(申恒燮, 1952~)	22, 65, 79, 94, 305, 306
부여문화원	13, 234, 250, 263, 264, 278	신현국(申鉉國, 1938~)	201, 216, 280, 290
부여미술당호회	13, 14	신헌태	82, 268
부여빈영회	13, 304	실상순	197
부여향토미전	85	심응섭(沈應燮, 1943~)	59, 60, 305
북우회	196, 202	아라리오갤러리/아라리오화랑	52, 67, 79, 80, 93, 96, 129, 148, 159, 160, 215, 290, 292, 293, 294, 295, 297, 299, 301, 302
삼미술회	40, 49, 50, 306	아미회	52, 180, 188, 189, 275
새터서여집시실	180	아사달회	85, 86, 263, 264, 266, 268, 269, 293
서결원(徐潔源, 1948~)	94, 95, 96, 209, 264, 282, 306	안민관(?~2011)	44, 45
서라벌 다방	180, 254	안상규(安象圭, 1937~)	37, 38, 304, 306
서미회	264, 266, 291, 299, 300, 302	안상철(安相鎭, 1927~1993)	53, 55
서산문화예술회관	294, 297, 298, 300, 301, 302	안중호(安鍾浩, 1926~1986)	20, 84, 248
서산문화원	60, 96, 148, 238, 268, 274, 281, 282, 284, 285, 290, 291, 292, 295, 298, 301, 295, 296, 297, 298, 299, 300	안치민(安致仁, 1955~)	268, 277, 282, 283
서인사람	295, 296, 297, 298, 299, 300	양창제	245, 246, 255
서천문화원	250, 278, 301	어문섭(魚允燮)	209, 292
서파럼회전	221, 224, 225, 227, 228	연실다방	47, 180, 191, 242, 243, 244
석도(石道, 1641~1720?)	118	연지다방	180, 189
성기문(成基文)	31	영광학교(공주)	17, 19, 222, 225
성기원(1967~)	25, 305	예산문화원	236, 278, 292, 298, 299
성능경(成能慶, 1944~)	24, 57	예우회	196, 201, 260
성재경(成在慶, 1920~1997)	232, 233, 249, 250, 251, 253, 271	오광수(吳光洙, 1938~)	53, 54, 305
성천경(成天慶, 1930~2013)	24, 25, 26, 304, 305, 306	오복동	204, 282
성창경(成昌慶, 1942~)	55, 250, 251, 260, 262, 264	오세열(吳世烈, 1945~)	252, 254, 255, 236, 257, 258, 260, 262, 264, 265, 267, 269, 271, 273
성훈(成渾, 1535~1598)	24	오승우(吳承雨, 1930~2023)	91
손겸식(孫謙植, 1937~)	241, 244, 250, 251, 254, 255, 256	오옥진(吳玉鎭, 1935~2014)	44
손성춘	201, 260	오의숙	210, 295
손응성(孫應星, 1916~1979)	243	오지호(吳之湖, 1905~1982)	174
손재형(孫在馨, 1902~1981)	15	오태박(吳泰植, 1938~)	242, 244, 246, 253
손정근	202, 269	오해균(吳海均, 1935~)	35, 36, 305
손파동(孫和東, 1950~)	280		
손환일(孫煥一, 1955~)	198		
송미숙	295, 210, 211		
송번수(宋蕃樹, 1943~)	253		
송병돈(宋秉敦, 1902~1967)	32, 221, 222, 225, 227, 228		
송명수(宋明洙, 1930~1970)	174, 234, 235, 236, 237, 244		

온양문화원	52, 138, 238, 294
온양 신웅협동조합	180, 188
우민형(禹民亨, 1906~1978)	241, 243, 245, 247, 248
우희춘(禹熙春, 1938~2020)	260, 264, 265
유근영(柳根永, 1948~)	57, 71, 72, 73, 259, 263, 304, 305
유명걸	209, 292
유병호(劉炳昊, 1948~)	276, 277, 279
유병교(劉泳敎, 1946~2006)	170, 172, 174, 251, 253, 254, 257, 258, 260, 262, 264, 287
유영국(劉永國, 1916~2002)	91
유영석(柳泳奭, 1959~)	203, 280
유장식(柳章植, 1949~)	44, 45
유재일(柳在日, 1941~)	251, 252, 259, 261, 269, 274, 276
유진명(劉鎭明, 1916~1984)	230
유창환(劉昌煥, 1870~1935)	222, 223
유철재(劉哲在, 1955~)	198, 260
유홍준(劉弘準, 1949~)	164, 165, 166, 305
유희영(柳熙永, 1940~)	244, 246, 248, 249, 251, 253, 254, 255, 256, 257, 260
윤범모(尹凡牟, 1951~)	119, 167, 168, 305
윤석남(尹錫男, 1939~)	173, 174
윤영자(尹英子, 1924~2016)	232, 234, 235, 236, 237, 259, 272, 289, 301
윤장열(尹長烈, 1953~)	203, 280
윤진섭(尹晉燮, 1955~)	56, 119, 121, 304, 305
윤태중(尹泰重, 1957~)	135, 136
윤우근(尹厚根, 1923~2008)	229, 232, 243, 245, 247, 252, 283, 289
윤희순(尹喜淳, 1902~1947)	15
이갑일(李甲一, 1958~)	143, 144, 145, 304, 305
이갑희(李達熙, 1954~)	116, 117
이건걸(李健機, 1933~2006)	54
이건용(李健用, 1942~)	57, 248, 251, 269
이경배(李敬培, 1898~1960)	180, 194, 224, 225, 230, 233, 234, 238, 239, 241
이경숙(李京淑, 1951~)	112, 113, 304
이근순(李坤淳, 1948~)	204, 258, 262, 265, 266, 268, 270, 271, 273, 282
이국진(李國鎭, 1915~?)	228, 229, 230, 231
이근배	209, 292
이근신(李根伸, 1940~)	240, 242
이남규(李南圭, 1931~1993)	32, 33, 34, 84, 239, 240, 243, 245, 248, 250, 262, 306
이대원(李大源, 1921~2005)	174
이덕영	240, 247, 254
이도영(李道榮, 1884~1934)	13
이동희	133, 288
이동식(李東植, 1941~)	46, 47, 48, 180, 191, 209, 243, 256, 264, 265, 267, 283, 292, 304
이동운(李東勳, 1903~1984)	21, 22, 32, 40, 223, 225, 226, 227, 228, 229, 231, 232, 233, 234, 235, 240, 241, 242, 243, 245, 247, 251, 254, 280, 304, 305
이마동(李馬洞, 1906~1981)	223, 225, 226, 227, 228, 253
이만우(李晩雨, 1942~)	51, 52, 286
이명자(李明子, 1948~)	242, 246, 248, 249, 250, 251, 252, 253, 257, 259, 276

이명환(李明煥, 1939~)	24
이명희(李明熙, 1938~)	242, 244, 245, 246, 248
이문주	210, 295
이범현	202
이보경	210, 295
이상범(李象範, 1897~1972)	94,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53, 256
이상욱	154
이석구	244, 248, 251, 255, 262, 264, 267, 269, 273
이선우	204, 282
이성구	209, 292
이순호	204, 275
이승만(李承萬, 1903~1975)	15
이승택(李升澤, 1932~)	174
이신희(以新喜)	18, 269, 271
이영길(李英吉, 1942~)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60, 262, 265, 267, 269, 270, 271
이영수(李榮秀, 1944~)	245, 246, 249, 250, 251, 255, 256, 257, 258, 260, 262, 266
이영순	208, 290, 293, 296
이영환(1952~2010)	139
이완석(李完錫, 1915~1969)	231
이완중(李完鍾, 1936~)	204, 216, 282
이문섭(李文燮, 1926~?)	246,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60, 262, 289
이은경(李殷敬, 1959~)	151, 152, 304, 306
이은구(李殷九, 1943~)	18
이은기(李銀基, 1951~)	170, 171, 172
이은호(李銀鎬, 1966~)	173
이응노(李應魯, 1904~1989)	15, 60, 165, 166, 167, 176, 221, 225, 226, 229, 231, 293
이익희(李翼喜, 1767~1843)	24
이만영(李仁榮, 1932~2021)	204, 239, 241, 242, 246, 247, 248, 249, 251, 256, 261, 263, 265, 268, 281, 289
이재삼(李在昌, 1932~)	29, 30, 209, 292, 304
이정지(李正枝, 1943~)	174
이종각(李鍾珪, 1937~)	180, 239, 241, 240, 242, 245, 248, 249, 250
이종근	201, 260
이종무(李鍾武, 1916~2003)	132, 234, 235, 236, 237, 238, 239, 301
이종상(李鍾祥, 1938~)	118, 240, 242, 244, 246, 248, 253
이종섭(李鍾燮, 1956~)	126, 127
이종수(李鍾秀, 1935~2008)	32, 239, 246, 247, 248, 250, 251, 252, 254, 257, 258, 262, 264, 265, 266, 271
이종협(李鍾協, 1954~)	277
이종환(李鍾煥, 1938~)	286
이종섭(李仲燮, 1916~1956)	67, 174
이지명	204, 282
이지위(李志維, 1935~)	32, 33, 34, 239, 241, 245, 247, 248, 253, 304, 305, 306, 307

이장호(李昌浩, 1926~1990)	230, 238, 239, 241, 244, 247, 248, 250, 253, 254, 256, 292	정구인(鄭求仁, 1958~)	272
이철경(李鐵卿, 1914~1989)	59	정길호(鄭信浩, 1953~)	277, 285
이철주(李徹周, 1941~)	240, 242, 250, 251, 252, 253, 254, 257, 258, 260, 264, 265	정명희(鄭眞熙, 1945~)	245, 246, 255, 259, 260
이정자(李淨子, 1938~)	242	정미현	210, 295
이춘희	208, 290, 296	정복식	182
이팔찬(李八燦, 1919~1962)	229, 230	정선(鄭善, 1676~1758)	16, 162, 163
이현숙	210, 295	정상원(鄭成源, 1881~1962)	229
이원춘(李元椿, 1939~2001)	44, 45, 306	정세훈(鄭世薰, 1956~)	207, 291
이호숙(李孝淑, 1946~)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60, 262, 264, 265, 269, 271	정영복(鄭永福, 1937~)	201, 238, 260, 269, 276
인영선(印永宣, 1946~2020)	70, 191, 261, 262, 263, 264, 267, 269, 272	정장직(鄭章植, 1952~)	277, 282
일수희	246, 248, 250, 254	정진숙(鄭鎭淑, 1957~)	272
임신희	196, 204	정찬국(鄭燦國, 1952~)	82, 211, 256, 263, 278
임동식(林東植, 1945~)	88, 264, 272, 273	정태궁(鄭泰宮, 1959~)	207, 291, 296
임립(林立, 1945~)	102, 134, 160, 201, 204, 257, 260, 262, 269, 270, 271, 273, 276, 280, 282, 290, 302	정택은(鄭澤殷, 1925~2005)	230, 240, 241, 245, 247
임립미술관	36, 55, 102, 134, 160, 302	정환섭(鄭煥燮, 1926~2010)	232, 234, 235, 236, 237, 238, 239
임봉재(林奉宰, 1933~)	33, 34, 238, 240, 243, 247, 250, 251, 257, 260, 267, 269, 280, 290	조동욱(趙東旭, 1899~1944)	225, 227, 228, 229
임상복(林相福, 1933~1998)	240, 241, 243, 245	조방옥(趙炳玉, 1984~1980)	17
임선비(任先彬, 1950~)	259, 265, 287	조선미술전람회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임광수(林光燫, 1946~)	196, 202, 245, 246, 247, 255, 269	조성묵(趙成默, 1939~2016)	242, 246, 248, 249, 250, 253, 255
임영방(林英芳, 1929~2015)	176	조영동(趙榮東, 1933~)	32, 33, 34, 84, 100, 101, 239, 243, 244, 245, 247, 248, 252, 256, 257, 306
임영우(任英宇, 1947~)	84, 85, 86, 263, 304	조윤상	206, 284
임재광(林載光, 1957~)	95, 170, 277, 306	조종국(趙鍾國, 1943~)	204, 264, 265, 266, 270, 271, 273, 282
임재우(林載右, 1947~)	260, 262, 265, 266, 268, 271, 273	조종원(趙鍾源, 1917~1982)	228, 229, 230, 239, 241, 242, 253, 261, 266
임재현	211, 288	조지훈(趙芝薰, 1920~1968)	24
임홍규(林弘圭, 1934~)	141	조창례(趙昌禮, 1948~)	249
임홍순(任洪順, 1925~)	246, 248, 249, 250	조치원문화원	244, 250, 282, 284
임현철	139	조평휘(趙平暉, 1932~)	239, 241, 265
장금자(張金子, 1956~)	268	존재회/ 존재전	129, 159, 160, 196, 203, 280
장대천(張大千, 1899~1983)	97	죽마회	245, 246
장선백(張善伯, 1934~2009)	234, 236, 237, 239, 241, 242, 244	지석철(池錫哲, 1954~)	268, 273
장순임(張淳業, 1947~)	260, 262, 265, 267, 269, 273, 279	진윤희	207, 291
장춘란	180	자선영(車先英, 1949~)	249
장여경(張愛京, 1959~)	153, 154, 306	참여전	196, 210
장우성(張遇聖, 1912~2006)	228	참여전	279, 295
장욱진(張旭鎭, 1917~1990)	32, 229, 230, 235	채규선(蔡圭鮮, 1934~)	31
장정란(張貞蘭, 1957~)	272	천경자(千鏡子, 1924~2015)	173
장준문(張俊文, 1949~)	271	천안경찰서 무도장	180, 192
장철석(張鐵錫, 1959~)	155, 156, 157, 182, 305	천안문화원	29, 30, 47, 48, 52, 68, 69, 70, 76, 77, 80, 93, 96, 102, 105, 109, 129, 159, 160, 192, 197, 205, 206, 207, 215, 235, 238, 240, 263, 266, 267, 268, 269, 271, 275, 278, 279, 280, 283, 284, 286, 287, 289, 290, 291, 292, 293, 296, 301, 305
전래식(全來植, 1942~)	250, 257, 271, 273	천안미술인협회	70, 77, 258
전희진(田熙鎭, 1929~)	174	천안미술인회	70, 77, 158, 159, 288, 305
전영화(全榮華, 1929~)	209, 235, 236, 237, 238, 239, 241, 244, 245, 246, 248, 253, 292	천안미술협회	44, 68, 70, 94, 96, 101, 160, 207, 266
전원다람	180, 237	천안시민회관	19, 30, 52, 70, 76, 77, 80, 83, 93, 100, 102, 109, 115, 129, 138, 156, 157, 159, 160, 209, 212, 213, 215, 283, 284, 288, 292, 295, 296, 298, 299, 300, 301, 302, 303
전준호(全濬浩, 1969~)	174	천안여류화가회	94, 96, 196, 208, 290, 294
전혁림(全赫林, 1916~2010)	174		
정계현	206, 284		
정관모(鄭官謨, 1937~)	246, 248, 249, 250, 251		

천안한국화회	196, 209, 288, 290, 292
전주교 신협 지하 1층	180, 185
청금루(淸襟樓)	24, 25, 308
청림회	267, 268
청목회	196, 198, 199, 260
침미회	255, 257, 258
청암문화원	235, 238, 281
청조회	256, 259
청포도회	241
최국범(崔國範, 1938~)	211, 242, 244, 251, 253, 254, 255, 258, 260, 264, 265, 267, 271, 273, 274
최덕휴(崔德休, 1922~1998)	232, 235, 236, 237, 238, 239, 241, 242, 253
최만린(崔滿麟, 1935~2020)	174
최무겸	203, 280
최병상(崔秉相, 1937~)	174, 241, 242, 244, 246,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최순우(崔淳雨, 1916~1984)	183
최영근(崔榮根, 1948~)	249, 270, 272
최영림(崔榮林, 1916~1985)	174
최완수(崔完秀, 1942~)	182
최원락(崔元洛, 1957~)	137, 138, 187, 188, 189
최정균(崔正均, 1924~2021)	141
최종걸	234, 235, 238, 241, 242, 246
최종배(崔鍾培, 1932~)	32, 76,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8, 252
최창식(崔昌植, 1920~?)	232
최평곤(崔平坤, 1958~)	146, 147, 148, 305
추여대방	180, 237
충남대학교	158, 176, 177, 200, 254, 258, 276, 281, 283, 285, 289
충남대학교 회화동인회	196, 200
충남미술협회	231, 233, 234, 235, 240, 242, 243, 245, 252, 253, 254, 256
충남사진연구회	232, 233, 234, 235, 236, 239, 242
충남산업디자인협회	212, 213, 296
충남서예협회	260, 261, 280
충남예총파랑	72, 252, 253, 254, 255
충남전임미술가협회	101
충남중진작가회	109
파고다문화집	70, 77, 96, 159, 180
팔대산인(八大山人, 1624~1703)	118
하동철(河東哲, 1942~2006)	248, 249, 250, 251, 252, 255, 256, 257, 258, 260, 262
하명희	9, 68, 70, 78, 80, 181, 196, 197, 249
하태진(河泰鎭, 1938~)	248, 252, 253

박동민전	156, 180, 182, 183, 185, 275, 295, 297
학동민회	113, 180, 183, 275
한국미술협회/ 한국미협	18, 19, 20, 28, 30, 38, 40, 49, 50, 52, 55, 69, 70, 72, 73, 76, 77, 78, 80, 82, 83, 86, 91, 93, 95, 96, 101, 105, 109, 113, 115, 122, 123, 124, 128, 129, 131, 133, 134, 137, 138, 148, 156, 159, 180, 182, 187, 188, 189, 190, 216, 243, 245, 248, 254, 257, 258, 263, 264, 266, 268, 269, 271, 275, 276, 278, 279, 280, 282, 284, 286, 287, 288, 289, 291, 296, 297, 298, 300, 301, 302
한국잡업미술가 대전·충남협회	196, 216
한길미전	267
한동순	209, 292
한덕립	68, 197, 249
한원피(한원조각피)	196, 211
한유동(韓維東, 1913~2002)	180, 224, 225, 226, 227, 228, 239, 240, 241
한일다방	70, 180, 193, 266
한주삼(韓柱堂, 1956~)	128, 129, 207, 291, 293, 296, 307
황지복회관	180, 194
황미피	252, 253
허진조(許鎭祹, 1955~)	264, 272, 273, 289
허훈	232, 240, 243
변광국(玄光國, 1923~2007)	17~19
현남주(玄男周, 1959~)	158, 159, 206, 207, 284, 291, 306
염덕동(玄德東, 1894~1938)	17, 19
홍덕선(洪德善, 1946~2024)	74, 75, 304
홍동석	206, 284
홍동석(洪東植, 1926~2003)	196, 200, 236, 240, 241, 248, 254, 256, 257, 258, 276
홍명섭(洪明燮, 1947~)	97, 88, 89, 90, 304
홍종명(洪鍾鳴, 1922~2004)	91, 293
화우회	49
황교명(黃敎泳, 1939~1986)	242, 246, 249, 248, 250, 251, 252, 253, 254, 255, 257, 258, 260, 262, 264, 265, 267, 271, 273, 278
황규관	206, 284
황만영(黃滿泳, 1941~2015)	244, 281
황민홍(黃敏虹, 1864~1955)	94
황선익(黃善錫, 1959~)	293, 296
황진국(黃鎭國, 1911~1969)	230, 240, 241
OPUS	72, 73, 124, 125, 182, 282
PURE	158, 159, 196, 205, 206, 284, 287, 289, 290, 292
19751225	262, 263, 265, 269, 271, 274, 278, 279, 282, 297

충남미술가 및 미술이론가(가나다순)

강관옥(姜寬玉, 1946~1988)	68	송인옥(宋寅旭, 1957~)	133
강관옥(姜寬旭, 1945~)	65	신두명(申斗聖, 1944~)	63
강우석(姜佑錫, 1951~)	108	신맹선(辛孟善, 1904~1983)	13
강인옥(姜仁玉, 1957~)	130	신문수(申文誨, 1939~2021)	41
강천모(姜濤模, 1949~)	97	심용섭(沈應燮, 1943~)	59
김찬춘(姜煥春, 1939~)	39	안상규(安象圭, 1937~)	37
구본창(具本淸, 1951~)	110	안종호(安鍾祜, 1926~1986)	20
권경승(權景昇, 1931~2010)	27	오해균(吳海均, 1936~)	35
김관진(金寬鎭, 1949~)	100	유홍준(俞弘準, 1949~)	164
김근중(金鎭中, 1955~)	118	윤범보(尹凡保, 1951~)	167
김대순(金大舜, 1949~)	103	윤태중(尹台重, 1957~)	135
김무삼(金武森, 1907~?)	15	이강일(李康一, 1958~)	143
김석환(金錫煥, 1956~)	121	이강희(李康熙, 1964~)	116
김수길(金秀吉, 1943~)	53	이강숙(李京淑, 1951~)	112
김영규(金永圭, 1953~)	114	이동식(李東弼, 1941~)	46
김용민(金容民, 1943~2021)	56	이만우(李晩羽, 1942~)	51
김윤숙(金允淑, 1958~)	139	이문경(李殷敬, 1959~)	151
김이순(金伊順, 1957~)	173	이은기(李銀基, 1951~)	170
김재선(金在善, 1948~)	91	이재삼(李在昌, 1932~)	29
김정수(金定洙, 1942~)	49	이종섭(李鍾燮, 1956~)	126
김정호(金正昊, 1959~)	149	이지위(李志偉, 1935~)	32
김진국(金振國, 1958~)	141	이현준(李煥椿, 1939~2001)	44
민복기(閔復基, 1944~)	61	임명우(任英宇, 1947~)	84
민종식(閔鍾植, 1947~)	76	장애경(張愛京, 1959~)	153
박내후(朴來厚, 1949~2009)	106	장철석(張鐵錫, 1959~)	155
박봉춘(朴鳳春, 1946~)	71	채규선(蔡圭鮮, 1934~)	31
박인희(朴仁熙, 1947~)	78	최관수(崔完秀, 1942~)	162
박일호(朴一浩, 1959~)	176	최원락(崔元洛, 1957~)	137
박종희(朴鍾熙, 1956~)	124	최평근(崔平坤, 1958~)	146
박창돈(朴昌敦, 1928~2022)	21	한주삼(韓柱喪, 1956~)	128
박추화(朴秋華, 1947~)	81	현광국(玄光國, 1923~2007)	17
서경원(徐景源, 1948~)	94	한남주(金男周, 1959~)	158
성찬겸(成贊堧, 1930~2013)	24	홍덕선(洪德善, 1946~2024)	74
		홍명섭(洪明燮, 1947~)	87

충남미술 연구총서 4
충남미술사 보유편

발행인 김태홍

발행일 2024. 12. 20.

출판 충청남도

발행처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 예산군 삼교읍 예박로 10-22

전문건설회관 2층

Tel. 041-530-2900

Fax. 041-338-7963

조사·연구 주관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무설 근현대미술연구소

조사·연구, 권·집필 신수경, 정경숙, 김미정, 이한나

인쇄 다솔

디자인 박정미

ISBN: 979-11-977032-1-8(세트)

979-11-977032-4-9(94800)

발간등록번호: 74-6440000-100003-01

이 책의 저작권은 충청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24 충청남도 · 충남문화관광재단